발간등록번호
11-1741559-100004-14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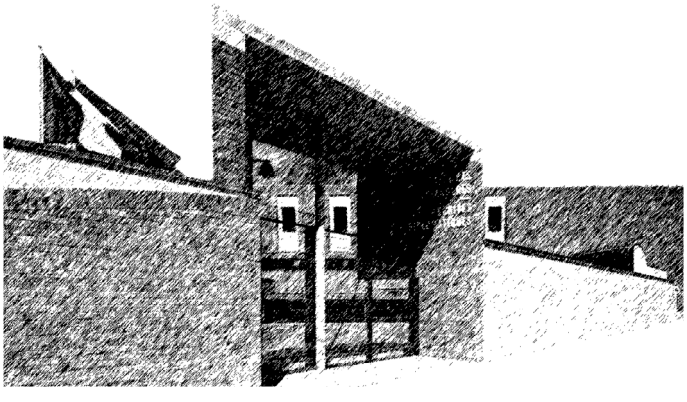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발간등록번호
11-1741559-100004-14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❷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발간등록번호
11-1741559-100004-14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❷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발 간 사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역대 대통령의 재임 전후 주요 활동 및 정책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수집한 해외기록물은 목록집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누리집(www.pa.go.kr)에 게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2」는 프랑스 외무부기록관에서 수집한 554건, 1,165매에 대한 내용 요약과 기록물 건명을 수록하였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문서가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의 한국 원전 수출 의도, 미국의 핵확산 우려와 견제, 한국 정부의 기술 자립 노력 및 외교적 대응 관련 기록물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0년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추진과 이를 둘러싼 미국·프랑스·IAEA 간의 외교적 갈등과 견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미국과 프랑스 간 수주 경쟁,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A300)의 한국 판매 가능성과 계약 조건 협의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40여 년 전의 한국·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의 산물임을 이 목록집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목록집이 관련 분야 연구자,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 조상민

일 러 두 기

1. 이 목록집은 대통령기록관이 2016년 프랑스 외무부기록관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을 정리 및 요약·번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수록된 기록물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프랑스 외무부에서 생산된 문서로,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문서가 주를 이룬다.

3. 목록의 순서는 철별 관리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기록철을 기본 단위로 작성하였고 원 소장처 관리번호를 함께 기입하였다.

4. 기록철 번호 2~4철(철 관리번호 PZA0008363~PZA0008365)은 원 소장처 관리번호 755 INVA 2205 12.11.5를 분철한 것이다.

5. 기록건 제목은 원문의 표기를 따랐으며, 제목이 없는 기록물은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생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은 '미상'으로 표기하였다. (철·건명 알파벳 및 대문자의 사용은 원문을 따랐다.)

CONTENTS | 차례



제1장 프랑스 외무부기록관 해외기록물 수집 목록 009

1 • Corée du sud. Défense Nationale. Matériel de guerre. 1973-1979
(한국. 국방. 군수품. 1973–1979) 010

2 • Corée du sud. Recherches atomiques. 1973-1975
(한국. 원자력 연구. 1973–1975) 140

3 • Corée du sud. Questions atomiques. 1976-1978
(한국. 원자력 문제. 1976–1978) 210

4 • Corée du sud. Culture et Relations culturelles. Recherches atomiques. 1979
(한국. 문화와 문화관계. 원자력 연구. 1979) 276

제2장 부록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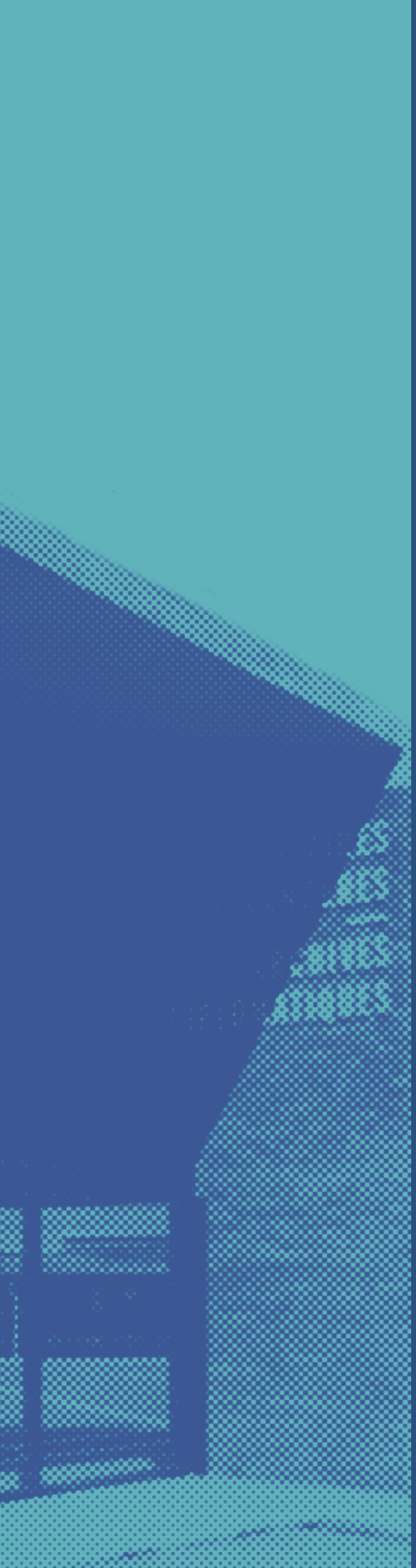
1 • 주요 수 · 발신자 약력 정보 336

2 • 기관명 및 협약명 약어 338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2





제 1 장

프랑스 외무부기록관 해외기록물 수집 목록

1. Corée du sud. Défense Nationale. Matériel de guerre. 1973-1979
   (한국. 국방. 군수품. 1973–1979)
2. Corée du sud. Recherches atomiques. 1973-1975
   (한국. 원자력 연구. 1973–1975)
3. Corée du sud. Questions atomiques. 1976-1978
   (한국. 원자력 문제. 1976–1978)
4. Corée du sud. Culture et Relations culturelles. Recherches atomiques. 1979
   (한국. 문화와 문화관계. 원자력 연구. 1979)

1. Corée du sud. Défense Nationale. Matériel de guerre. 1973-1979

번역제목	한국. 국방. 군수품. 1973–1979		
철 관리번호	PZA0008362	생산기간	1973~1980
기록물 건수/매수	221/416매	원 소장처 관리번호	755 INVA 2202 12.7.2

주요 내용

- 한국에 군사 장비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프랑스 측의 논의, 닉슨–김종필 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프랑스 측의 분석
- 유럽에 대한 한국의 항공노선 확대 움직임에 따라 에어버스 항공기(A300) 판매 가능성에 대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측의 논의, 미국 및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입 압박에 대한 보고
- 에어버스 구매 협상 진척 상황 및 소그레아(Sogreah)社 조력발전소 건설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 일본 등 수주 경쟁 국가 견제를 위한 정보 요청에 대한 전보
- 항공협정 관련 전보: 1973년 10월 15일 한국 정부의 항공협정 협상 시작 동의에 관한 전보, 한국 측의 방불 대표단 명단 및 관심사에 관한 보고 (미사일, 전투기, 전차 및 에어버스 협상 등)
-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과 주한 프랑스대사 간의 만남에 대한 보고,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을 통한 한국 정부 측 동향 파악 및 조언 확보
- 한국 측의 에어버스 항공기 성능 의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증 및 미국 더글라스(Douglas) 항공사 견제, 군사 분쟁 시 에어버스 여객기를 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을 한국 측에 강조할 것을 알리는 보고
- 1974년 1월 에어버스 구매 관련 한국 정부의 보증 관련 문제에 대한 김종필 총리와의 회담에 대한 보고, 한국 정부의 보증에 대한 긍정적 대답, 사전에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정보 획득, 일본과 미국 측이 프랑스가 에어버스 계약과 항공협정을 결부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1974년 11월 예정된 항공협정 체결을 더 늦추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
- 1974년 2월 한국에 군사 장비들을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경우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서 동의했으나 엑조세(Exocet) 미사일의 경우에는 제한이 걸려 있음을 알리는 보고, 한국은 북한의 공해상 공격 때문에 엑조세 미사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수출에 유보적 입장
- 프랑스 외무부의 한국 무기 판매에 대한 보고서, 한국군 규모 및 예산, 북한과의 대치 상황 분석, 미국의 독점 상황 인지, 전차, 대전차 미사일, 헬기, 전투기, 기타 군수품 및 군수공장 설비의 수출을 위한 조사나 판매 승인, 엑조세 미사일의 경우 유보 중

- 1974년 4월경 한국 측의 프랑스 군수물자들에 관한 관심 관련 보고, 엑조세에 대한 한국의 지대한 관심,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 측의 새로운 국방정책 시도에서 프랑스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고속함 건설을 위한 한국 측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과 프랑스 노르망디조선소(CMN) 간의 합작 가능성, 그러나 북한과 프랑스 간의 헬기 등 거래가 한국 측의 경계를 사고 있음을 보고, 북한 무역대표단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한국 측의 경계 및 우려
-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측과 노르망디조선소 간의 합작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 항공협정 관련 정보 요청에 관한 내용
- 유럽회사들의 북한에 대한 항공기 판매를 한국 측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 및 한국의 의혹 해소를 위한 정보 요청, 항공협정 체결 시 에어버스 관련 프랑스 측 희망 전달
- 1974년 5월 15일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회장의 파리 방문 및 고속정, 엑조세 계약 체결 가능성 및 방식에 대한 보고서
-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의 북한과의 헬리콥터 거래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 주한 프랑스대사 소환, 프랑스 측은 북한에 헬기를 팔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장했지만, 한국 측의 의혹이 여전함을 지적,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경고 가능성
- 한국 측의 프랑스와 북한 간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표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 측을 안심시키고 에어버스와 아에로스파시알 담당자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
- 1974년 6월 에어버스 방문 및 시범비행 성공적 마무리, 조중훈 회장의 계약 확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보고,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대한 보고, 항공협정 서명에 관한 보고, 1974년 6월 7일 한불 항공협정 서명
- 엑조세 수출 관련, 한국은 해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이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프랑스의 접근을 경계 중, 프랑스 측에서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
- 1974년 7월 한국 측은 신규 군함에 엑조세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만 프랑스 측은 아직 결정 못 함. 북한에 대한 아에로스파시알의 헬리콥터 및 생산시설 판매가 한국 측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에어버스 구매와 연계될 우려 있음. 해당 계획이 보류 중임을 강조할 것
- 7월 6일 한국의 엑조세에 대한 요구가 분명해짐. 그러나 엑조세가 서해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임을 소련, 미국, 중국 등이 우려 중, 프랑스 측의 책임 및 다방면에 대한 숙고 필요
- 한국은 미국에 의해 군사 장비를 통제받고 있지만 1977년 이후 현대화 계획을 위해 각국에 정보임무단을 파견해 군사 장비 구매를 탐색 중. 프랑스 대함미사일에 관심이 있음
- 프랑스의 엑조세 수출이 소극적인 것에 대해 1974년 8월 김종필 총리가 주한 프랑스대사 소환, 엑조세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 1978년 미국의 하푼(Harpoon)을 양도받을 것이지만 그 사이 전력 공백과 북한의 공격 우려로 엑조세 요청, 별개로 에어버스 계약 승인에 대해 언급
- 엑조세 계약과 에어버스 계약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프랑스 측의 우려
- 1974년 9월 대한항공, 에어버스 6대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 체결 이후인 9월 11일 주프랑스 한국 대사대리는 프랑스 측과 만나 에어버스 계약이 프랑스 무기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인지 문의하고 엑조세 및 북한의 헬기 구매 건에 대해 문의
- 프랑스가 북한에 판매하려는 50대의 헬기 규모가 상당해 한국 측이 우려 및 반발, 에어버스 거래 규모가 더

큰데도 헬기 50대 판매를 위해 주변 국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계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 제기

- 에어버스 계약과 엑조세 판매가 결부될 우려, 북한에 대한 헬기 판매를 엑조세 거래로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프랑스 부처들 간에는 엑조세 판매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중
- 1974년 10월 1일 박정희와 프랑스 대표단 간 회담, 박정희는 미국의 지원이 끝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타 국가들과 협력 속에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 프랑스 측은 살상무기를 북한에 팔지는 않겠지만 헬기 판매는 가능함을 언급, 김종필 총리는 엑조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거래가 아니라 더 큰 협력의 밑바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에어버스 계약 재정 조달에 대한 정부 보증을 엑조세와 결부
- 10월 8일 한국 외무차관이 주한 프랑스대사를 소환해 한국 정부가 북한 헬리콥터 판매를 강력히 우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엑조세 구매를 피력했으며 에어버스 계약을 다시 상기
- 10월 21일 프랑스 측은 에어버스와 엑조세 거래가 결부되었음을 인지, 결부되어야 한다면 에어버스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엑조세 계약 건을 다루어야 파기할 수 있음을 언급, 에어버스 거래가 전부 완결되었다고 간주하고 행동해서는 안 됨을 강조
- 10월 23일 에어버스와 엑조세 관련 프랑스 내부 문서, 에어버스 파트너인 서독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서독과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 불가, 한국이 에어버스와 엑조세를 결부시킨 것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16~20대의 엑조세 허가 방침, 단, 에어버스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적용
- 10월 24일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측의 엑조세 관련 문의에 대해 함구함. 프랑스가 북한에 민간 헬기뿐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중형 헬리콥터 판매 및 제조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중, 아에로스파시알 내부에 친미적인 정보 출처 의심, 에어버스 계약, 엑조세, 북한 헬기 판매 세 가지 문제가 얽히는 것에 대해 우려
- 에어버스 판매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매우 중요,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각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 측이 엑조세와 결부시키면 어려워짐. 한국 측에 의하면 미국은 하푼을 1976년 이후 한국에 제공할 의향이 있음. 한국에 주었던 기존의 확약과 반대로 아에로스파시알은 10월 14일 북한과 헬기 40대 조립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함. 한국 내부에 엑조세에 대한 프랑스의 회피와 북한 헬기 판매라는 이중게임을 언급하는 반대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버스 판매가 위험해질 수 있음. 10월 15일 엑조세 판매가 승인되었지만, 한국 측에 알리는 것은 허가받지 못해 주한 프랑스대사가 이를 전달하지 못했음. 에어버스 계약을 위해 적합한 시점에 이를 알릴 필요 있음
- 북한이 소련제 대함미사일인 스틱스를 탑재한 고속정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 측은 엑조세나 하푼을 요구, 하푼은 미국이 공급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한국은 엑조세를 강력히 요구, 에어버스 계약과 엑조세가 결부되며 프랑스는 엑조세 수출을 허가, 외무부는 20개 이하를 주장했으나 국방부 측은 30개까지 주장. 엑조세 판매는 북한 헬기 판매를 상쇄할 것, 단, 에어버스 계약 완료 전에 북한 헬기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 않음
- 프랑스는 에어버스와 엑조세 계약을 분리하기를 원했으나 한국은 동시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에게 주한 프랑스대사는 에어버스 계약은 엑조세 계약에 대한 원칙적 허가 위에서 체결됨을 전달
- 1975년 1월 프랑스와 일본 등이 북한에 군수장비를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협박

전화를 받는 사건이 발생, 프랑스는 북한과의 계약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힘. 북한과 계약하는 헬기의 규모가 40대에서 400대로 과장됨

- 1975년 2월 프랑스대사관 측은 미국의 엑조세 판매에 대해 반대 의견 수집,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대사관 측은 에어버스와 엑조세 계약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야 함을 보고. 2월 8일 주한 미국대사가 주한 프랑스대사와 대화 중 엑조세 관련 우려 공식 언급, 미국이 엑조세 거래에 반대하고 압박하면서 한국 측은 한국–미국 합작 선박에 엑조세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독자적으로 만든 함정에 엑조세를 설치하기로 함
- 75년 2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엑조세 구매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대사관 측이 파악,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가능성 및 미국 영향력 밖에서 국방계획을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 미국이 하푼 제공을 망설이면서 한국 측은 엑조세를 필수적으로 여기게 됨
- 2월 28일 김종필 총리와 주한 프랑스대사 만남. 미국 측은 엑조세 구매 압박 포기, 김종필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신뢰 교환을 강조하며 에어버스와 엑조세 계약 마무리를 강조
- 한국의 과시성 군사 장비 확충 움직임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프랑스대사 간의 대화
- 1975년 5월 31일 한국 정부 에어버스 거래 재정계약 전체 승인
- 1975년 8월 주한 프랑스대사의 에어버스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개인을 끼는 거래 관행으로 인해 일부 중개인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에어버스와 엑조세 거래가 결부되는 압력이 행사되게 되었음을 지적. 에어버스가 여러 국가들의 합동 프로젝트인 반면, 엑조세는 프랑스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부는 이웃 국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위험 존재,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중개인을 끼지 않고 서독이나 미국처럼 회사 대 회사, 회사 대 정부 등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1975년 10월 주한 프랑스대사와 주한 미국대사 간 만찬 보고,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 미국이 더 협조적으로 나갈 것이지만 과도하다면 간섭할 것,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 중 등 이야기
- 1975년 11월 8일 한국 측이 부산 앞바다에서 엑조세 미사일 발사 성공을 보도 (제조국이나 미사일 이름을 밝히지는 않음)
- 1975년 12월 30일 미국은 미국제가 아닌 군수물자는 통제를 벗어나 미국의 핵심 전략 이익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이 엑조세 등 첨단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점진적 분쟁 확대를 초래할까 우려 중, 그러나 그 외에 무기 공급처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덜 제한적 입장으로 선회
- 프랑스 입장에서는 육군과 공군은 미국제 장비가 많아 전망이 좋지 않지만, 해군에 대해서는 활로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임
- 1976년 한국 측과 알루에트3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거래 관련 보고
- 미국의 한국 무기 현대화 계획에 대한 보고서들
- 1976년 11월 5일 추가로 한국 선박 3대에 엑조세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었지만 하푼 쪽으로 선회되며 무산되었음을 보고
- 1977년 2월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의 한국에서의 활동과 거래에 대한 보고
- 1977년 5월 한국의 군사 현대화 및 군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제공할 수 있는 군사장비들과 협력들에 대한 보고
- 5월 26일 한국의 크로탈, 레이피어, 채퍼럴, 롤랜드 등 여러 대공미사일 구매 검토에 대한 보고, 엑조세의 추가 구매 및 기술제휴, 알루에트3 헬기 도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음을 보고

- 1977년 11월 11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 두 대를 추가 발주하여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보유 수가 8대로 증가한 것과 관련한 보고
- 1978년 1월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가 한국화약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두 건의 계약에 대한 보고
- 1978년 3월 에어버스의 7번기와 8번기의 대한항공 인도와 관련해 에어버스에 상업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 대한항공은 첫 번째 고객이며 잠재적 구매자들이 주목 중이고 대한항공은 보잉 등 경쟁사들의 주요 관심 대상임을 언급
- 1978년 4월 알루에트3 헬기 6대와 미사일 등의 한국 인도 계약 체결에 관한 보고
- 1978년 9월 프랑스 군사고등연구센터 15번째 회기 컨퍼런스 '보호주의의 유혹과 무기의 제한 시도' 및 한국 출장 관련 내용, 한국의 경제 성장이 몇몇 수출품에 대한 보호로 유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임을 언급
- 1978년 10월 6일 한국군의 미국 나이키 미사일 선전에 대한 보고 및 미국 측 반응
- 1978년 11월 한국의 잠수함 도입 관련 프랑스 아고스타급 잠수함 수출 가능성에 대한 보고

수록 기록물명

1.1. Après la rencontre Nixon–Kim Jong Pil: les rapports coréano–américains (닉슨–김종필 회담 이후: 한미관계)
1.2. 한국의 수출 확대를 위한 유럽 항공노선 확대 가능성
1.3. Airbus (에어버스)
1.4. 에어버스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와 스페인 대사대리와의 도쿄 환담
1.5. 주한 프랑스대사와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만남
1.6.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대한항공의 긍정적 신호와 미국대사의 반응
1.7. Airbus (에어버스)
1.8. 미국의 무기대여법 관련 정보 요청
1.9. 미국의 항공기 대여로 인한 대한항공과의 에어버스 협상 난제
1.10. Airbus (에어버스)
1.11. 에어버스 협상
1.12. 화물 노선 및 여객 노선 관련 사항
1.13. 에어버스 협상과 소그레아社의 조력발전소 프로젝트
1.14. Accord aérien (항공협정)
1.15. Corée du Sud – Armements (한국 – 군수품)
1.16. 한불 항공협정 협상 시작
1.17. Accord aérien franco–coréen (한불 항공협정)
1.18. Corée du Sud (한국 관련 보고)
1.19. Airbus (에어버스)

1.20. 에어버스 관련 대한항공 회장의 관심
1.21. Airbus (에어버스)
1.22. Airbus (에어버스)
1.23. 탄약 프로젝트: 마뉘랭社와 풍산
1.24. 에어버스
1.25. Airbus (에어버스)
1.26. 한국 국방장관 방문
1.27.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1.28. 엑조세(Exocet)
1.29. 한국 공군참모총장 유럽 순방 계획
1.30. 한국 국방차관과의 회담 연기
1.31. Exportation de matériels d'armement (군수물자 수출)
1.32. 엑조세(Exocet)
1.33. Airbus (에어버스)
1.34.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의 한국 출장 허가
1.35. 국제국 임무단의 서울 방문
1.36. Mission DAI (국제국 임무단)
1.37. 엔지니어 미셸 페트르 방한
1.38. 에어버스 관련 스페인 대리대사와의 환담
1.39. Mission DAI (국제국 임무단)
1.40. 고속함
1.41. Vente d'armement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군수품 판매)
1.42. Compte rendu de mission de l'I.A. Petre en Corée du Sud du 23 au 30 mars 1974 (1974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무기 엔지니어페트르의 한국 출장 보고서)
1.43. Entretien avec le Conseiller de l'Ambassade de Corée – Note de la Direction d'Asie–Océanie en date du 22 avril 1974 (한국대사관 참사관과의 회담–1974년 4월 22일 자 아시아–오세아니아국 노트)
1.44.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대한항공의 긍정적 신호와 미국대사의 반응
1.45. 아에로스파시알 일본 주재원의 문의
1.46. Airbus (에어버스)
1.47. 한국의 고속정 프로젝트
1.48. 한국의 고속정 프로젝트
1.49. Vedettes rapides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고속정)
1.50.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엑조세)
1.51. 김종락의 노르망디조선소 접촉 예정
1.52. 에어버스와 항공협정
1.53. 북한에 항공기 판매 시도한 회사에 대한 한국 정보기관의 조사

1.54. 고속정과 엑조세
1.55. 대한항공 및 국무총리실과의 첫 만남
1.56. Origine: Accords bilatéraux / Objet: Mission navale sud–coréenne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해군 임무단)
1.57.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 Objet: Accord aérien (일반 사안에 근거한 항공협정)
1.58.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1.59. 아에로스파시알과 북한
1.60. Accords bilatéraux (양자협정)
1.61. Vente de l'Airbu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에어버스 판매)
1.62. 항공협정에 대한 반응
1.63. Démarche de l'Ambassade de Corée (한국대사와의 교섭)
1.64. 에어버스와 아에로스파시알
1.65. 에어버스와 항공협정
1.66. 항공협정 서명
1.67. 항공협정 서명
1.68. 톰슨 CSF사의 한국 출장
1.69. Corée du Sud – Exocet (한국 – 엑조세)
1.7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Système d'armes VEGA (양자협정에 근거한 VEGA 무기 시스템)
1.71. 엑조세
1.72. 아에로스파시알
1.73. Demande d'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한국대사의 면담 요청)
1.74.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Ventes d'armement (양자협정에 근거한 군수품 판매)
1.75.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Financement de projets nucléaires (양자협정에 근거한 원자력 프로젝트 재정 조달)
1.76. 엑조세와 무기 판매
1.77.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1.78. 엑조세 판매 관련 우려
1.79. Achat de missiles (미사일 구매)
1.80. Ventes d'armement (군수품 판매)
1.81. 엑조세와 타코마
1.8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의거한 한국을 위한 엑조세)
1.8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의거한 한국을 위한 엑조세)
1.84. 아에로스파시알
1.85. Suggestion de la Direction Asie pour le 4ème paragraphe (4번째 문단에 대한 아시아국의 제안)

1.86. Exocet Chantiers 'TACOMA' (엑조세 코리아타코마조선소)
1.87. 한국 국무총리의 엑조세 요청
1.88. Airbus – Copie de la note en date du 29 août 1974 (에어버스 관련 1974년 8월 29일 자 노트 사본)
1.89. 영국 항공기 회사의 레이더 제공
1.90. 에어버스 기술 재정 계약
1.91. Voyage du directeur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국제업무국장 출장)
1.92.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사안에 의거한 에어버스)
1.93. Entretien avec le chargé d'affaires de Corée du Sud (한국 대사대리와의 회담)
1.94. 프랑스의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논의와 한국의 우려
1.95.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엑조세(Exocet))
1.96.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에 대한 엑조세)
1.97. Entretien du Ministre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불 외무장관 회담)
1.98. 신용 임대차 계약의 재정 조달
1.99.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Séjour à Séoul de l'ingénieur général de l'Estoile (양자협정에 근거한 드레투알 총엔지니어의 서울 체류)
1.100. Objet: Corée du Sud – Ingénierie et produits SNPE (한국 –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엔지니어와 제품들)
1.101. 프랑스 대표단의 박정희 대통령 및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환담
1.102. 북한에 대한 운송수단 양도 가능성에 대한 남한의 우려
1.103. 북한에 대한 프랑스 헬리콥터 판매에 대한 우려
1.104. 에어버스와 엑조세
1.105. 에어버스와 엑조세
1.106. 에어버스
1.107.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 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1.108. 엑조세와 에어버스
1.109. Airbus et Exocet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에어버스와 엑조세)
1.11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1.111. 에어버스와 엑조세
1.11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
1.11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
1.114. Sujets dont vous serez ou pourriez être entretenu. (귀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
1.115. Airbus (에어버스)
1.116.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et projets de la SNIAS en Corée du Nor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에서의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프로젝트)

1.117.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1.118. Visite en Corée de M. Jean-Pierre Brunet (장-피에르 브뤼네의 방한)
1.119.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0.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1.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 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3. 엑조세
1.124.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5. 에어버스와 엑조세
1.126. 에어버스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의 대한항공 접촉
1.127. 주한 프랑스대사의 한국 외무차관 회담
1.128. Airbus/Exocet (에어버스/엑조세)
1.129. 엑조세 임무단 권한 문의
1.13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en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에서의 엑조세)
1.131. 한일협력위원회
1.132. 한일협력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1.13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Vente d'armement (양자협정에 근거한 무기 판매)
1.134. 에어버스와 엑조세
1.135. 엑조세 판매 관련 미국 측 의견 수집
1.136. 에어버스 협상
1.137. 에어버스 협상
1.138. 에어버스 금융리스
1.139. 엑조세
1.140. 에어버스 협상
1.141. Corée Airbus (한국 에어버스)
1.142. 에어버스 계약 재정 보증
1.143. Exocet / Corée du Sud (엑조세 / 한국)
1.144. 에어버스 구매 계약 체결
1.145. 폴리시우스 프로젝트
1.146. 엑조세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의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회장과의 회담
1.147. 에어버스 재정계약 승인 문제
1.148. Financement du contrat Airbus-Corée (에어버스-한국 계약의 재정조달)
1.149. 에어버스와 엑조세 관련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면담
1.150. 에어프랑스 노선
1.151.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엑조세/에어버스)

1.152.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1.153. Exocet – États–Unis (엑조세 – 미국)
1.154. Fournitures anglais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영국의 무기 제공)
1.155. Exocet (엑조세)
1.156. Politique de défense de la Corée (한국의 국방정책)
1.157. Fourniture anglaise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영국의 무기 제공)
1.158.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1.159. Airbus: Garantie du groupe Hanjin (에어버스: 한진 그룹의 보증)
1.160. La KAL: Airbus et Concorde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콩코드)
1.161. 에어버스 관련 방불 소식
1.162. Vente d'armes en Corée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1.163. Vente d'armes en Corée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1.164. 이탈리아의 오토멜라라(OTO Melara) 대포 조사 방문
1.165. Ventes d'armes (무기 판매)
1.166. Airbus (에어버스)
1.167. Airbus (에어버스)
1.168. Fusées–sondes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관측 로켓,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노트)
1.169. Ventes d'Airbu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에어버스 판매)
1.170. 한국 해군 사령관의 프랑스 방문
1.171. Projet de vente d'héilicoptèr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헬리콥터 판매 프로젝트)
1.172. 오페마(OFEMA: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
1.173. Garantie de la vente Exocet (엑조세 판매 보증)
1.174. Entretiens avec l'ambassadeur des États–Unis (미국대사와의 회담)
1.175.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1.176. 군사훈련에서 엑조세 성공 발사 언론 보도
1.177. Perspectives en matièere de ventes d'armement (무기 판매 전망)
1.178. Contrat Alouette III (알루에트3 계약)
1.179. Contrat Alouette III (알루에트3 계약)
1.180. Armement(SNIAS) (군수품(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1.181. Étude comparative du potentiel militaire des deux Corée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182. Politique étrangère des États–Unis: aide en matière de sécurité pour l'année fiscale 1977 –Allocution de M. Kissinger devant le Comité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 la Chambre (29 mars 1976) (미국의 외교정책: 1977년 회계연도에서 안보 지원 –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키신저(Kissinger)의 연설(1976년 3월 29일))
1.183. Les États–Unis et la défense de la Corée du Sud (미국과 한국 국방)
1.184.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

1.185. Programme coréen en matière d'armement (무기 관련 한국 프로그램)

1.186. Copie de la lettre adressée à M. B. Lathière, administrateur gérant d'Airbus Industrie (에어버스 전무이사 라티에르를 위한 서한 사본)

1.187. Projet de contrat SNIAS (équipement de navires pour le lancement d'Exocet)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계약 프로젝트(엑조세 발사를 위한 선박 장치))

1.188. 취소 서한

1.189. Mission en Corée (한국에서의 임무단)

1.190. 국방 총엔지니어 방한 일정

1.191. Visite du directeur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de la Délégation ministérielle pour l'armement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 국제국장의 한국 방문)

1.19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Projet d'équipement des navires coréens en missiles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 한국 선박에 대한 엑조세 미사일 설치)

1.193. Projet d'équipement de navires en missiles Exocet (엑조세 미사일의 선박 설치 프로젝트)

1.194. SNPE/Korea Explosives. Activités en République de Corée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한국화약. 한국에서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활동)

1.195. Le Bourget/Satory – Corée du Sud. Point actuel réponses coréennes (부르제/사토리–한국. 현재 상황, 한국 측의 대답)

1.196. Ventes d'armes américaines (미국의 무기 판매)

1.197. Relations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d'armement (무기 영역에서 한국과의 관계)

1.198. Programme délégation d'honneur Corée du Sud Satory VI. (사토리IV 한국 명예 대표단 프로그램)

1.199. Armements (군수품)

1.200. Accords bilatéraux. Corée du Sud (양자협정. 한국)

1.201. Entretien du Conseil National de Sécurité – Ventes d'armes (미국 국가안보회의 – 무기 판매)

1.202. Origine: Accord bilatéraux. Objet: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양자협정에 근거한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1.203.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1.204.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1.205. Visite en France de M. Rak To Song (성낙도의 프랑스 방문)

1.206. Venue en France de M. Rak To Song (성낙도의 프랑스 방문)

1.207. Airbus (에어버스)

1.208. Activités en République de Corée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 (한국 내에서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활동)

1.209. Politique américaine de ventes d'armes (미국의 무기판매정책)

1.210. Contrat Airbus (에어버스 계약)

1.211. Fiche a/s contrat relatif à la fourniture à Korean Air Lines des appareils Airbus A 300 B4 No. 7 et 8, communiquée par M. Viard, Vice–Président d'Airbus Industrie. (7번째, 8번째 항공기인 에

어버스 A 300 B4 공급 관련, 에어버스 비아르 부회장이 대한항공에 건넨 계약 자료카드)

1.212. Contrat Hélicoptère (헬리콥터 계약)

1.213. Voyage d'étude de la 15e session du Centre des Hautes Études de l'Armement (군사고등연구센터 15번째 회기의 연구 출장)

1.214. Programme Prévisionnel de la 15ème Session 1978–1979 (1978–1979년 15번째 회기 예상 프로그램)

1.215. 한국으로의 연구 여행

1.216. Missiles sud–coréens (한국 미사일)

1.217. Armements: sous–marins Agosta (군수품: 프랑스 아고스타급 잠수함)

1.218. Vente d'avions américain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미국 항공기 판매)

1.219. Sous Marins Agosta (프랑스 아고스타급 잠수함)

1.220. 미국 달러로의 계약 체결 필요성

1.221. Origine: Affaires économiques (Affaires générales) Objet: Négociations aéronautiques franco–coréennes (경제사안(일반사안)에 근거한 한불 항공협상)

수록 건 기록물 내용

1.1. Après la rencontre Nixon–Kim Jong Pil: les rapports coréano–américains (닉슨–김종필 회담 이후: 한미관계)

생산일자: 19730213
페이지: 1~9

1) 기록건 관련 짧은 메모(육필, 3–4쪽)

이브 자크(Yves Jacques)는 프랑스가 한국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적 반대가 없다면, 프랑스 군수업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함. 그는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Délégation Ministérielle à l'Armement)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할 것. 현재로서는 대표단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거론할 것. 과거에는 억제 정책을 폈지만, 정치적 상황이 변한 만큼 더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2) 닉슨–김종필 회담 이후: 한미관계(보고서, 5–9쪽)

1월 5일 김종필 국무총리와 닉슨 미국 대통령의 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추후 미국의 태도에 대해 안심한 것으로 보임. 외무부 장관이 대사에게 말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대사의 1월 19일 자 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 유지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세밀하게 부각. 한국 국무총리의 방미는 트루먼

(Truman) 전(前) 미국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1월 5일 자, 대사의 26번 공문),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전체적, 정치적 사안들을 검토하는 계기임. 한국의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남북대화,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유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철수,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말함. '제4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이후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음.

미국 정부는 박정희 장군이 자신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 이 같은 입장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닉슨(Nixon) 대통령이 재확인한 닉슨 독트린에 명시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각 국가가 내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
워싱턴 현지의 통신원에 따르면, 이번 한미 회담의 핵심 안건은 주한미군의 유지임. 몇 달 전부터 양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었음.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현대화(1976년 완결 예정)를 연결시키려 하였지만, 미국은 이 점에 대해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자 했음.
이 회담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하지만 며칠 후인 1월 8일, 미국 멜빈 레어드(Melvin Laird) 국방장관의 발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하원군사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군 현대화(5년)가 완결된다면 북한의 모든 공격을 미국 지상군의 개입 없이 홀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극동지역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 요충지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최전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북한과의 재래 전쟁의 경우, 중국의 개입이 없다면 한국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

하지만 미국의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국 철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명시화하는 것을 피했음. 1973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어야 하지만, 1974년에는 미군 부대의 철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 베트남에서 휴전이 이루어진 지금,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끈질기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모르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직까지는 그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안이 있음.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3만 8천 명의 한국군이 협약 발효 시점인 1월 28일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점. 이 정예군이 같은 수의 미군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제8군(주한미군 지상군) 부대의 철수를 앞당길 수 있는 사안은 없는가? 한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파견군의 귀환과 주한미군 철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질문은 생각할 만한 것임. 어쨌든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이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 강화와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번 한미 회담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것. 각국이 자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원칙이 북한과의 대화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10월 유신의 정신과 결을 같이한다고 혹자는 보고 있음. 하지만 '전쟁 억제'의 명목이긴 하지만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있는 한국의 전투력은 여전히 미국의 지원에 달려 있음. 따라서 한국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최대한 늦추고자 할 것임. 닉슨(Nixon) 대통령의 고무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이 끝나는 새로운 시대에 한국 정부가 하게 될 모든 요청이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지는 확실하지 않음.

1.2. 한국의 수출 확대를 위한 유럽 항공노선 확대 가능성

생산일자: 19730201
페이지: 10~10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에서 외무장관은 수출 확대와 관련하여 유럽(서독, 프랑스, 네덜란드)과 레바논에 대한 항공노선 확대를 추천했음. 언급된 국가들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에어프랑스가 한국을 향한 편수 증대를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권리에 대해 협상을 예상할 수 있음.

1.3.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0227
페이지: 11~12

외무부의 전보 공문 No. 105에 대한 답신임.

1) 도쿄에서 스페인대사를 만날 것. 네덜란드대사와 서독대사는 특별한 훈령을 받은 것이 없음. 그들은 우리의 행보를 주목 중
2) 11월 6일, 도이체 에어버스 세일즈 총괄 매니저인 카를 폰 트뤼츠쉴러(Karl H. von Trützschler)는 한국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영진들과 만남. 서울에 주재하는 장 마피올리(Jean Maffioli)는 이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부와 대화를 나누었음. 유일하게 구매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대한항공은 미국 총사령관 미카엘리스(Michaelis) 장군을 퇴직 이후에 고용함. 미국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하여 수입 증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항공기 수출을 최고의 상쇄 방식으로 보고 있음.
3) 서울에는 에어버스 관련 영어 자료 사본이 단 1부만 존재
4) 유인물, 기술 자료, 파견단을 통해 한국에 항공과 관련된 것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처럼 보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의 비행 시연이나 유럽에 초대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비행 시연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5) 모든 항공기 구매에 있어 한국 정부는 정치 · 전략적 입장을 상당히 고려. 따라서 군사적 측면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

1.4. 에어버스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와 스페인 대사대리와의 도쿄 환담

생산일자: 19730313
페이지: 13~13

1973년 2월 27일 자 전보의 후속

1) 도쿄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스페인 대사대리 및 상무관과 함께 에어버스 사안에 대해 환담을 가졌음. 주

일프랑스대사관 마트라이(Matray) 상무 담당 참사관도 함께 참석. 스페인이 서독이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훈령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 환담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음.

2) 에어버스를 위해 4월에 서독에서 파견이 있을 예정으로 보임.

1.5. 주한 프랑스대사와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만남

생산일자: 19730723
페이지: 14~14

주한 프랑스대사는 에어버스 출장팀 마중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항공 회장을 만남. 현재 대한항공 회장은 대한항공의 재정 상황 및 새로운 계획과 관련하여 에어버스 항공기의 장점을 평가하고 있음. 대한항공은 일본이 중국 본토에 항공노선을 개설하려면 많은 대만 노선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은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유리한 정보를 가진 것이 분명해 보임. 서독대사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유럽의 제조 국가들에 신용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 상당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보유 수를 증가시킨 대한항공에게는 이 점이 중요.

1.6.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대한항공의 긍정적 신호와 미국대사의 반응

생산일자: 19730727
페이지: 15~15

에어버스 출장팀이 유럽으로 돌아갔고, 상무관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대한항공 경영진과의 아주 우호적인 마지막 만남에 의하면, 기술적 부분은 거의 이긴 것처럼 보임. 남은 것은 재정 부분이고, 권한이 있는 전문가를 급파해야 함. 조중훈 회장은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가 아시아에서 본보기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 오늘 아침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프랑스인들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문 요원에게 알아보라고 하면서 유머 섞인 반응을 보였음.

1.7.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0806
페이지: 16~16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No. 269에 의거. 에어버스사의 블랑셰(Blanchet) 영업이사는 대한항공 경영진을 만나기 위해 8월 20일이 있는 주간에 한국을 방문할 것. 블랑셰 영업이사의 도착 날짜는 정해지는 대로 전달될 것.

1.8. 미국의 무기대여법 관련 정보 요청

생산일자: 19730919
페이지: 17~17

오늘 회의를 끝내는 에어버스 출장팀에 항공기 판매를 위한 미국의 무기대여법 관련 새로운 언론 보도를 알렸음. 블랑셰(Blanchet) 에어버스 영업이사는 상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상대방 회사에 이에 대하여 암시만 할 수 있었음. 이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외무부에서 보내준다면 감사할 것.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알루미늄(KORALU) 낙성식을 위해 주재한 오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정일권 국회의장의 관심을 끌어내었음.

1.9. 미국의 항공기 대여로 인한 대한항공과의 에어버스 협상 난제

생산일자: 19730919
페이지: 18~18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는 항공기 6대 가격에 대해 대한항공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미국의 항공기 대여 발표가 프랑스 협상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 프랑스 협상가들은 이 체계가 내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가격 요소들을 고려 사항에 넣을 수 없기 때문(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294–295에 의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최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1.10.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0919
페이지: 19~19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6561에 의거함.
언급한 사항은 해결되지 않았음. 프랑스의 경우 언급된 이자율은 절차에서 허락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 외국 협력사들이 각자 기여할 부분에 대해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서울에서 진행된 회의에 관하여 가능한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주고 에어버스 사업에 대한 모든 새로운 제안을 미리 검토해 주길 요청함.

1.11. 에어버스 협상

생산일자: 19730921
페이지: 20~21

대외경제관계국(DREE)의 메시지를 상무관에게 전달했음.

1) 프랑스는 이 사업 건에서 혼자가 아니고, 서독 측도 관심을 두고 있음. 블랑셰(Blanchet) 에어버스 영업이사의 탁월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프랑스 대표의 역동성 부족으로 인해 서독 측(기술과 재정)이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
2) 이번 주에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기반하여 두 개의 경쟁사(더글라스(Douglas), 록히드(Lockheed))가 협상할 것.
3) 이번 주에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에어버스 기술이사가 운용 특이점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올 것.
4) 최대 6대의 항공기(1975년부터 1977년까지)에 관련된 사안임.
5) 항공기 구매가 의미하는 혁신성을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은 다른 조건으로 아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음.
6) 도쿄의 에어프랑스 주재원은 서울에 와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1.12. 화물 노선 및 여객 노선 관련 사항

생산일자: 19730921
페이지: 22~22

금주와 내주에 에어프랑스의 도쿄 주재원 스토엑켈(Stoeckel)은 주간 화물 노선에 관한 상세 사항을 명확히 할 것. 그는 여객 노선에 대한 권리와 경로에 대해 한국 측과 어느 날짜에 협상할지 알고자 함. 이 미팅의 일시를 알려주기를 요청함. 프랑스의 협상으로 인해 각성한 서독 측과 영국 측은 파리 상공 비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사안에 개입하고자 함.

1.13. 에어버스 협상과 소그레아社의 조력발전소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31002
페이지: 23~23

1) 에어버스 관련 협상은 재정과 기술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이 이 협상을 주목하고 있음. 대한항공 회장은 갑작스럽게 서울을 방문한 더글라스(Douglas)社의 회장을 만나는 것을 피했음.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대한항공 회장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10월 20일 계약서 초안에 간략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프랑스 소그레아(Sogreah)社에 의한 조력발전소 검토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체결될 전망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프랑스는 이 프로젝트가 프랑스의 사업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프랑스가 이전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검토했던 유사한 프로젝트 관련 언론 자료들을 요청함.

1.14. Accord aérien (항공협정)

생산일자: 19731003
페이지: 24~24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344에 의거.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항공교통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11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고자 함. 이 제안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이 날짜가 가능할지 가능한 한 빨리 알려줄 것.

1.15. Corée du Sud – Armements (한국 – 군수품)

생산일자: 19731012
페이지: 25~25

영국 외무부의 극동아시아 국장은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터키 공식 방문을 위해 영국 방문을 취소했다는 것을 보마르셰(Beaumarchais)의 동료 중의 한 명에게 알렸음. 군수품 전문가인 두 명의 한국 고위공무원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서 영국에 올 것. 영국은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의 모든 타개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함.

1.16. 한불 항공협정 협상 시작

생산일자: 19731015
페이지: 26~26

10월 3일 자 전보 No. 202에 의거. 한국 정부는 11월 5일에 항공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가능한 한 일찍 프랑스 협상 대표단과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함.

1.17. Accord aérien franco–coréen (한불 항공협정)

생산일자: 19731017
페이지: 27~27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372에 의거.
항공교통 관련 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프랑스 대표단은 다음처럼 구성될 것.

- 로베르 에스페루(Robert Espérou): 항공운수국(direction des Transports aériens) 부국장(sous–directeur), 민간항공사무총국 국제관계(Relations Internationales au Secrétariat général à

l'Aviation civile) 담당, 협상 대표단 단장

– 장베르나르 드 베브르(Jean–Bernard de Vaivre): 외무부의 경제재무국(direction des Affaire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국장

– 도미니크 파트리(Dominique Patry): 민간항공사무총국 항공운수국(Direction des Transports aériens au Secrétariat général à l'Aviation civile)

이외,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의 대표 두 명이 포함, 이 두 명의 이름과 대표단 도착 날짜는 추후 전달할 것.

1.18. Corée du Sud (한국 관련 보고)

생산일자: 19731026
페이지: 28~29

첫째, 국방과학연구소(Agence de Développement de la Défense) 심문택(Moon Taik Shim) 박사, 홍용식(Yong Shik Hong) 박사, 최호현(Ho Hyon Choe) 박사로 구성된 방불 대표단 일정을 알림.

둘째, 국방부의 한신(Shin) 합동참모총장, 이공소(Lee Kong So) 박사, 구상(Koo Sang) 박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미 유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프랑스를 방문할 것.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셋째, 한국 측은 다양한 무기에 관심을 가짐. 직접 구매, 부품과 자료 구매 등에 관심이 있음. 하지만 2년 만에 완결될 예정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도 없음.

넷째, 심문택 박사는 프랑스에서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의 조직, 엑조세 미사일, 미라주 전투기, 전차(특히, AMX)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추정. 30명의 한국인이 서독에서 레오파드 전차와 대포를 탐색하고, 영국에서는 미사일, 잠수함, 고속정을 탐색하는 것으로 추정.

다섯째, 한국의 국무총리는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미라주 전투기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음. 한신(Shin) 합동참모총장과 옥만호(Ock) 공군참모총장은 유사한 말을 했음. 하지만 프랑스 측은 직접적인 답을 피했음.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마피올리(Maffioli)와 여러 번 접촉. 마피올리는 AFEMA(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2년을 지불 기한으로 하는 재정문제는 검토되어야 함.

여섯째, 한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6대 구매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

1.19.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1106
페이지: 30~30

10월 2일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No. 354에 의거.

항공협정 협상 때, 대한항공의 부사장은 에어버스 비행 시연에서 항공기가 에어버스에서 발표한 상승한도와 속

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프랑스 대표단 중의 한 명에게 말했음. 부사장은 방음에 관해서도 에어버스의 성능에 유보적 입장을 밝힘. 추후 서울을 방문할 에어버스 대표단이 이 점에 대해 대한항공 경영진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길 바람. 한국 측이 시제품밖에 본 적이 없는 대형여객선의 최종판 시범비행에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초대해야 할 것.

1.20. 에어버스 관련 대한항공 회장의 관심

생산일자: 19731121
페이지: 31~31

대한항공 회장과 환담함. 대한항공에서 다른 장비를 찾고 있긴 하지만, 에어버스에 대한 그의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음. 계약의 보증 문제를 언급함.

1.21.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1123
페이지: 32~32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408에 의거.
에어버스社는 A-300 B에 대한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판 내용을 기록했고, 대한항공 경영진에게 이 여객기의 성능에 대해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음. 에어버스社에서 12월 초에 서울에 직원을 파견할 것. 그때까지, 더글라스(Douglas)社가 한국 측에 제시한 신용 조건(기한, 이자)을 알려주길 요청함.

1.22.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1130
페이지: 33~35

도말(d'Aumale)의 전보 No. 245에 의거.
드 베브르(De Vaivre)와 스토엑켈(Stoeckel)과의 서울 회의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가 에어버스 여객기의 몇몇 성능에 관한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호한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다음 데이터를 첨부함. 이 데이터는 대한항공 대표단이 지난 10월 8일에 동석했던 시범비행에 관한 것.

- 총 이륙중량: 136.6톤, 즉 B/2 버전의 총 이륙중량과 거의 비슷
- 최대 연료중량: 34.6톤

– 항공기 밸러스트: 17.2톤
– 기상 조건: 1016 밀리바, 19도, 잔잔한 바람

이 데이터의 조건에서 이륙 거리는 1,640미터. 지상속도 490노트와 시간당 소비량 7,600킬로그램으로, 22,000피트 고도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 짧은 시간(1시간) 비행을 고려할 때, 이륙 중량은 표준 최대이륙중량보다 훨씬 높았음.

– 착륙중량은 130.75톤이고, B/2 버전의 최대 착륙중량(127톤)보다 눈에 띄게 높았음.
– 표준 진입속도: 135노트
– 착륙 거리: 1,820미터

이 수치들은 에어버스社가 보증하는 수치와 동일함. 게다가 성능시험이 오늘 끝났고 프랑스, 서독, 미국 공식 부서에 의한 승인 절차 중에 있음. 시험비행을 했던 항공기 No.3은 자동조정계기 설치로 인해 아직 방음이 완전하지 않고, 내부에 카펫, 좌석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 이런 조건에서 항공기가 약간 '시끄러운' 것은 당연. 시범비행에 행해진 조치들은 이 시리즈의 항공기의 품질에 대해 의혹을 없앴음.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회담에서 프랑스대사는 부사장에게 이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10월 8일의 시범비행이 해당 항공기의 성능을 꼼꼼하게 보여줄 수 없었다고 알리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에어버스社는 항공기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험비행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야 함.

1.23. 탄약 프로젝트: 마뉘랭社와 풍산

생산일자: 19731207
페이지: 36~38

1. 메모(육필, 36쪽)

마뉘랭社는 한국의 탄약 저장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랑디(Landy) 주한 프랑스대사와 접촉, 이 프로젝트의 요점은 첨부된 서한에 들어있음. 랑디 대사는 마뉘랭社 프로젝트에 대해 열려 있는 류찬우 풍산 회장과 만나기로 했음. 또한 진행 중인 한국군의 현대화로 시장이 열릴 때 마뉘랭社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함.

2. 서한(37–38쪽)

본사는 몇 년 전부터 보병의 탄약 제조에 필요한 탄약 저장소 설비 전체를 풍산에 제공할 목적으로 풍산과 관계를 해 왔음. 2년 전, 류찬우 풍산 회장이 방문하였고, 본사는 앞서 언급한 전쟁물자 공급 계약에 서명했음. 이 계약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이 틀림없음.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계약 건을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주문은 미국 경쟁사에 넘어갔음. 지난주에 본사는 풍산 회장과 국방부 국제부를 통해 이 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외무부 장관이 본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있음. 본사의 루아젤(Loisel) 영업이사를 만나주길 요청하고 본사가 마주한 어려움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설명하고자 함. 조금 전에 대사가 루아젤

영업이사를 12월 17시에 외무부에서 만나기로 했음을 알았음. 감사를 표함.

1.24.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0108
페이지: 36~39

지글러(Ziegler)와의 파리 환담 때, 분쟁 시에 에어버스 항공기를 군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음. 한국이 이 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 이 사안에 대해 자료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중. 정부 보증의 문제는 곧 변화가 있을 것. 대한항공은 정부의 대규모 참여와 함께 자본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임. 대한항공 회장과 국무총리에게 이 사안을 언급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는 군사적 이점을 어필할 수 있음.

1.25.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0115
페이지: 40~41

한국 국무총리와의 어제 면담에서 에어버스를 한국이 구매할 경우의 정부 보증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했음. 대한항공과의 협상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 김종필 국무총리는 프랑스 항공기 거래의 경우에도 더글라스(Douglas)社 4대의 DC-10에 최근 주어진 보증과 같은 것을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확인해 주었음. 국무총리는 "대한항공에 에어버스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프랑스도 한국 정부의 보증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음. 국무총리의 이런 긍정적 태도는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미리 통지받은 사실. 대한항공 회장은 "귀하가 국무총리를 만나게 되면, 총리가 이 점을 확인해 준 사실에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했음.

대한항공 이사회에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임. 왜냐하면 국적기의 자본 증가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 화물 운송과 일본에 대한 운송 횟수로 인해 영업이익이 탁월하게 명시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재정 자료에 의문의 여지가 생김. 4천만 달러의 자본금이 발표되었고, 항공기 구매(에어버스)는 3년에 대략 4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함.

에어버스社와 프랑스 재무 · 무역 관청에 한국 국무총리의 말을 전해 주길 요청. 한국 국무총리의 긍정적 발언을 고려할 때, 11월 초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할 항공 협약의 체결이 더 늦추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일본과 미국 경쟁사들에 의해 프랑스가 에어버스 협상의 성공과 항공 협약 체결을 결부시키고자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음. 이 두 사안을 별개로 처리해야 함.

1.26. 한국 국방장관 방문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42~42

군수물자 구매. 1973년 가을, 한국 국방장관 방문. 기록철 12.24.B 참고.

1.27.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생산일자: 19740126
페이지: 43~43

미국 대사대리와 유엔 제8군 사령관에게 서해5도의 실제 상황에 대해 질문함.

1) 5개 섬의 방위가 2달 전부터 많이 개선되었음. 미국이 지원.
2) 해주에서의 소련과 중공의 출몰(군사 혹은 민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음.
3)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소함정과 미사일 출몰은 분명하게 확인.
4) 북한의 침입이 이 섬들 사이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은 자신의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져 있고, 휴전선의 연장선인 영해 한계선을 보여주려는 듯 보임.
5) 북한 측은 섬 관련 사안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함.
6)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이런 침략 행위를,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연합군의 본국 귀환 시에 직접 행동을 미리 정당화해 주는 선택이라고 간주함.

1.28. 엑조세(Exocet)

생산일자: 19740130
페이지: 44~44

주한 프랑스대사의 1월 25일 자 전보 No. 23에 의거.
한국과 홍콩에서 3명의 인물에 의해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현지 대표는 개인적 질문을 받고, 엑조세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점을 알려주었음. 대사는 이 평점을 평가할 역량이 되지 않음. 이 같은 접근을 국방장관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했던 접근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답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외무부에 요청함. 에스페르(Esper) 기술자에게 다음을 추가로 알려주기를 바람. "12월 회의 때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대사는 한국 측이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불명료함에 불명확하게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한국 정부가 주한 프랑스대사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29. 한국 공군 참모총장 유럽 순방 계획

생산일자: 19740208
페이지: 45~45

한국 공군 참모총장의 유럽(프랑스 포함) 순방 계획을 계기로 한국 국방부 장관이 1월 25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23–26, 1월 30일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33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상기시켜 주었음. 이 사안에 대해 알려주길 요청함.

1.30. 한국 국방차관과의 회담 연기

생산일자: 19740216
페이지: 46~46

한국 국방부 차관이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23–26의 요청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오늘 아침에 방문하려고 했었음. 서해에서의 중대 사건 때문에, 국방부 차관은 방문을 주중으로 미루어야만 했음.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No. 33–34를 생각해 주기 바람. 그리고 이 회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시 사항을 알려주길 외무부에 요청.

1.31. Exportation de matériels d'armement (군수물자 수출)

생산일자: 19740218
페이지: 47~48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23, 33, 58, 74에 의거.
한국에 대한 군수물자의 잠재적 양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택했음. 미라주, 헬리콥터, 전차에 관해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의 조사에 동의. 하지만 엑조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조사 승인은 곧 무효가 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해당 군수물자 수출은 국방부의 포괄적 조사의 대상이 됨.
이 특이 사항은 잠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최근의 한국 대표단 방문에 답하고자 함.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군수 관련 장관급 대표단의 국제국(DAI)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음. 회담의 안건은 한국 측의 최근 요청이 될 수 있음. 즉, 소규모 군수산업 설립, 전차 AMX30의 라이선스 부분 생산, 미라주와 헬리콥터 양도 등. 이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길 바람.

1.32. 엑조세(Exocet)

생산일자: 19740221
페이지: 49~50

외무부의 전보 No. 50에 의거하여, 한국 국방부 차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줄 수 있었음.

1) 비무장 배들이 북한 함포에 의해 공해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현재 상황에서(전보 No. 75), 특히 한국의 주요 관심은 엑조세임.
2) 제안된 파견단은 환영받을 것.
3) 사안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여겨짐.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현지 대표는 엑조세의 가격과 인도 날짜를 계속 알리고 있기 때문. 또한 그는 국방부 하급 공무원들에게 파견단의 방문을 제안하였고, 파견단 구성원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음. 당연히, 프랑스대사관은 엑조세에 관한 프랑스 측의 유보적 입장을 한국의 차관에게 전달하였고, 이 입장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음. 다른 사안들에 대한 교섭, 원인, 영향 등을 알려주길 요청함.

1.33.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30227
페이지: 51~52

1.3 건과 동일 내용임.

1.34.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의 한국 출장 허가

생산일자: 19740227
페이지: 53~53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74와 외무부 전보 No. 50에 의거,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한국 현지 대표는 공사가 양도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엑조세 담당 특별팀의 출장을 허가했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함. 그는 한국군의 무기 선택 담당 장교와 접촉했음.

1.35. 국제국 임무단의 서울 방문

생산일자: 19740227
페이지: 54~54

주한 프랑스대사가 접견한 한국 정부 측은 국제국(DAI) 임무단이 한국에 오는 것에 동의. 이 출장은 1974년 3월 말에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이때, 1974년 3월 중순부터 초계정 ASM을 위해 일본에 주재하는 엔지니어 미셸 페트르(Michel Petre)가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국제국의 다른 임무단 구성원은 파리에서 한국에 올 것. 엔지니어 미셸 페트르가 도쿄에서 서울로 직접 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문의함.

1.36. Mission DAI (국제국 임무단)

생산일자: 19740306
페이지: 55~56

외무부 전보 No. 50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78, 99에 의거.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 국제국(DAI)의 임무단은 3월 23일에 6일 동안의 여정으로 서울에 갈 것. 이 팀은 무기 엔지니어 미셸 페트르(Michel Petre)가 책임을 질 것이고. 국제국의 다른 대표가 합류할 것.
임무단의 목적은 도말(d'Aumale)의 전보 No. 50에 적혀 있는 것과 동일. 엑조세와 관련하여, 미셸 페트르는 프랑스대사관 측에 통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 점에 대해,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회장은 한국 현지 책임자에게 모든 조사를 중지하도록 했음. 미셸 페트르 엔지니어와 관련 한국 당국과의 회담 및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고문과 만남을 잘 준비해 주기 바람. 미셸 페트르는 도쿄에서 서울로 갈 것. 서울 도착 날짜를 알려줄 것임.

1.37. 엔지니어 미셸 페트르 방한

생산일자: 19740311
페이지: 57~57

전보 No. 78–79에 의거.
미셸 페트르(Michel Petre)의 방한을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에 알릴 것. 그는 대사관에서 숙박할 것임.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우주항공산업 대표단의 방문은 취소되었음.

1.38. 에어버스 관련 스페인 대리대사와의 환담

생산일자: 19740313
페이지: 58~58

1973년 2월 27일 자 전보 No. 79에 의거.
1) 도쿄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에어버스 건에 대해 스페인 대사대리와 무역 담당 참사관과 환담했음. 도쿄에

주재하는 프랑스대사관의 마트라이(Matray) 상무관이 동석. 환담에서는 새로운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스페인 측은 서독과 네덜란드 측처럼 새로운 훈령 사항이 없는 것 같음.

2) 에어버스를 위해 서독 측이 4월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왔음.

1.39. Mission DAI (국제국 임무단)

생산일자: 19740319
페이지: 59~59

경제재무국 전보 No. 78–79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113에 의거.
한국에 대한 국제국(DAI) 임무단은 데를로(Derlot) 해군 중령과 페트르(Petre) 무기 엔니지어로 구성될 것. 데를로(Derlot) 해군 중령은 3월 24일 일요일 11시 20분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3월 29일 13시(한국 시각)에 떠날 것.

1.40. 고속함

생산일자: 19740322
페이지: 60~61

1) 메모(육필, 60쪽): 엑조세(Exocet)

무기 엔지니어 페트르(Petre)는 엑조세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고 대사관 측에게 확인해 주었음. 이 결정은 현대전에서 미사일의 중요성을 보여준 키푸르(Kippour) 전쟁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보임.

2) 전보(61쪽)

김종필 국무총리의 형인 김종락(Kim Chung–Nak)은 자신의 회사와 시애틀 타코마조선공업(Tacoma Shipyard)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접촉하여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자신의 행보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음. 국방 분야 조선소의 대표인 김종락은 엑조세를 운반할 수 있는 고속함 건조를 위해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엔지니어 페트르가 방한할 때,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군수물자가 현재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김종락에게 알리고자 함. 하지만 이 요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김종락은 특히 셰르부르(Cherbourg)의 아미오(Amiot) 회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음. 어떤 사건(테스트에서의 돌발상황)이 알루미늄으로 된 50미터짜리 고속함의 설계도를 제공했던 타코마와의 결별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1.41. Vente d'armement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생산일자: 19740328
페이지: 62~63

한국군은 군수물자에 있어 미국에 크게 의존 중. 한국 정부가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최근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독점은 여전함.

1) 거래

공군(2만 5천 명, 97대의 F4와 F5 전투기를 포함한 300대의 항공기)과 해군(4만 8천 명, 90척의 선박)은 군수물자 수입의 주요 주체임(1950년부터 1970년까지, 4억 2천2백만 달러). 1968년 남한과 북한 사이 충돌이 잦아지면서,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 1972년부터 1976년까지, 30억 달러를 미국에 요청. 한국 정부는 총기 제조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 해군 물자 구입을 위해, 영국, 서독, 일본과도 접촉. 한국은 1972년 국방에 4억 7천만 달러(대략, 국가 예산의 1/3)를 사용했음.

2) 프랑스의 판매와 전망

170톤의 화약(2백만 프랑)을 제외하면, 프랑스는 현재까지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없음. 하지만 미국 외의 다른 공급처를 모색하려는 한국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전차 AMX 30, 대전차 미사일, 육군을 위한 탄약통 장치와 화약 제조공장, 공군을 위한 헬리콥터와 미라주, 해군을 위한 미사일(엑조세) 등. 서해에서의 최근 사건들 이후, 한국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엑조세를 제외하면, 조사나 판매가 모두 승인되었음. 엑조세 수출은 일시적으로 유보 중.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기에, 현재까지는 프랑스에 닫혀 있던 시장을 조사할 기회가 주어졌음. 단기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군수물자 판매는 제한적. 하지만 프랑스 군수품 제조사들은 국제국(DAI)의 지원과 함께 판매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것처럼 보임. 국제국(DAI)은 서울에 정보임무단을 최근에 파견함.

1.42. Compte rendu de mission de l'I.A. Petre en Corée du Sud du 23 au 30 mars 1974 (1974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무기 엔지니어 페트르의 한국 출장 보고서)

생산일자: 19740408
페이지: 64~69

1) 메모(육필, 64쪽)

(1) 7월 1일 자 노트는 주한 프랑스대사와 장관의 회담을 앞두고 작성된 것. 이 회담은 진행되지 않았음.

(2) 프랑스가 푸마(PUMA) 작전을 승인했다는 자료 카드를 되찾았음. 이 카드 기록에는 작성자의 육필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3) 데샹(Deschamp)에 의하면 푸마(PUMA)에 관한 조사 협상이 현재 지속되고 있음.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할 가능성은 항상 있음. 계약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MG)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기 때문임.

(4) 랑디(Landy) 주한 프랑스대사 앞으로 보낸 첨부된 전보 내용에 의하면, 푸마(PUMA) 작전은 유보되지만 '작은 작전'(조립)은 지속함.

2) 우편물 명세서(65쪽)

3) 보고서

이번 임무의 목적은 한국군이 가장 잘 알려진 프랑스 군수물자에 대해 드러낸 관심을 고려하여 프랑스 측의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하는 주한 프랑스대사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음. 처음에 임무단 측 태도는 아주 개방적이었음. 엑조세를 제외한 프랑스 군수물자에 대한 조사가 최근에 전부 승인되었기 때문. 출장 동안 수집된 수많은 정보 중에서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함.

(1) 엑조세에 대한 눈에 띄는 즉각적인 관심

(2) 중단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능성을 프랑스에 열어주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시작

(3) 고속함을 제조하기 위한 한불 합작회사의 즉각적 가능성

가. 엑조세

한국은 엑조세가 즉각 필요한 상황임. 북한이 소련의 미사일 고속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한국에 미사일 고속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 국제국(DAI)의 임무단은 엑조세에 대해서 프랑스가 현재로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그 외의 모든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 엑조세는 최근에 구매한 미국 고속함, 그리고 어쩌면 프랑스 고속함([3] 참고)에 설치될 것으로 추정됨.

나. 국방정책

한국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두 가지 핵심 생각이 있음. 군사 차원에서 북한과의 균형이 하나이고, 미국의 직접적 도움의 감소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1981년에 완결되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가 다른 하나임. 따라서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새로운 무기 공급원을 찾고자 하고, 한국 내에 군수산업을 구축하고자 함. 프랑스는 이 두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 이제 한국이 프랑스와 협력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 가령 한국 국방부 차관은 프랑스에서의 군수물자 구매가 미국에 초래할 문제를 한국이 책임질 것이라고 확인했음.

다. 해군 선박 분야에서 합작회사의 가능성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은 고속함 건조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 프랑스 조선소를 찾아봐 줄 수 있는지 요청했음. 고속정 라콩바탕트II(Combattante II)를 개발한 노르망디조선소(CMN Naval)를 고려한 요청인 것으로 보임. 프랑스 무기 시스템(엑조세)은 현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이 미국과 합작 투자하여 건조된 3대의 해군 선박, 그리고 가능하다면 프랑스와의 합작 투자로 건조될 선박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음.

김종필 국무총리의 형(김종락)이 코리아 타코마의 회장임.

보고서 부록: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가 초래할 문제들

헬리콥터에 관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와 북한의 논의 상황에 대해 남한이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중. 프랑스 대표단의 출장 기간에 이 같은 남한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음. 북한과의 헬리콥터(16

억 프랑) 거래가 체결되면 남한 측의 주문을 잃게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함. 국방 분야에서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의 새로운 태도가 흥미로운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그리고 북한에 (민간용) 헬리콥터를 판매하게 되면 남한과 프랑스의 관계에 해가 될 것이 틀림없음. 남한은 이 (민간용) 헬리콥터가 언젠가는 분명히 무기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프랑스가 북한의 군사 잠재력을 강화한 것으로 생각할 것. 남한과는 현재 그 어떤 중요한 군수물자 거래에 대한 논의가 없음. 하지만 이 문제는 무기 거래라는 틀을 초월하는 것으로, 군사력이 좌지우지하는 한국과 프랑스 관계의 미래가 걸려 있음.

1.43. Entretien avec le Conseiller de l'Ambassade de Corée – Note de la Direction d'Asie–Océanie en date du 22 avril 1974 (한국대사관 참사관과의 회담 – 1974년 4월 22일 자 아시아–오세아니아국 노트)

생산일자: 19740322
페이지: 70~73

1) 제목 표지(70쪽)

2) 메모(육필, 71쪽)

폴뤼(Follui)가 이 주제에 대한 노트를 작성. 이 노트는 제출된 후에 CM에 송부될 것. 우리가 이것을 경제국(DE)과 서울에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

3) 노트(72–73쪽): 한국대사관 참사관과의 회담

(1) 한국 문제 담당자는 한국대사관의 2등 참사관과 최근 회담을 하고 한국대사관이 북한 무역대표단의 방불 및 프랑스 기업들과의 협상 목적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음. 북한의 방불 목적은 a) 선박 엔진 구매, b)시멘트 제조업의 공급, c)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 Société Nationale Industrielle Aérospatiale)에 의한 헬리콥터 푸마(PUMA)의 제조 라이선스 중지 가능성 등임. 회담 시, 한국대사관 참사관은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현재 미결제 어음 상한선을 올려주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음. 위에 언급된 c)의 내용은 남한 측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 같음. 한국대사관의 무관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책임자에게 북한 대표단과 체결한 의정서(protocole)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한 것으로 보임. '민간용'이기 때문에,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정부의 금지를 무시할 수 있는지 남한 측은 궁금하게 여김.

(2) 체코슬로바키아 상무관과 한국 상무관의 예정된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음. 체코슬로바키아 상무관이 파리에 부재하기 때문. 원칙적으로, 이 만남은 추후 진행될 예정임.

1.44.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대한 대한항공의 긍정적 신호와 미국대사의 반응

생산일자: 19730727
페이지: 74~74

에어버스 출장팀이 유럽으로 돌아갔고, 상무관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대한항공 경영진과의 아주 우호적인 마지막 만남에 의하면, 기술적 부분은 거의 이긴 것처럼 보임. 남은 것은 재정 부분이고, 권한이 있는 전문가를 급파해야 함. 조중훈 회장은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가 아시아에서 본보기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 오늘 아침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프랑스인들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문 요원에게 알아보라고 하면서 유머 섞인 반응을 보였음.

1.45. 아에로스파시알 일본 주재원의 문의

생산일자: 19740411
페이지: 75~75

일본에서 에어버스 판매를 담당하는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 주재원은 평양으로의 접근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전화로 문의했음. 아에로스파시알이 그에게 평양에 가보길 권고했기 때문.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문의가 시의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음. 한국이 전화 도청 장치를 통해 이를 알게 되면, 몇 달 전부터 대한항공에 에어버스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 가꾸어 온 모든 기회를 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음.

1.46.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0412
페이지: 76~76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173/74에 의거.
전화가 시의적절하지 않았음을 아에로스파시알에 알려주었음.

1.47. 한국의 고속정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40418
페이지: 77~77

한국 국방부 차관이 김종필 국무총리의 형에 의한 고속정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방금 알게 되었다고 말했음. 간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알게 된 마피올리(Maffioli)는 이 사안에 개입하고자 애쓰고 있음.

1.48. 한국의 고속정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40418
페이지: 78~78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주재원은 현재 파리에 있는 동료인 뒤로(Dureau)를 통해 엑조세 관련 허가가 떨어진 것 같고, 중단되었던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임.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국방부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페트르(Petre)에게 요청할 것.

1.49. Vedettes rapides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고속정)

생산일자: 19740419
페이지: 79~79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185에 의거.
노르망디조선소(CMN)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과 논의를 시작하고자 함.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회장은 고속정 건조를 위해 프랑스 조선소를 협력사로 삼기를 원했음. 이 논의는 코리아타코마 경영진이 셰르부르(Cherbourg)에 있는 노르망디조선소를 방문할 때 시작될 수 있음. 노르망디조선소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람.

1.50.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엑조세)

생산일자: 19740419
페이지: 80~80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186에 의거.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DAI)은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서울 주재원이 엑조세에 대해 받은 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이 점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결정도 내려지지 않음. 하지만 그 사안이 검토 중이라는 점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바임. 앞에 나온 내용을 한국의 국방부에 있는 협상 상대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1.51. 김종락의 노르망디조선소 접촉 예정

생산일자: 19740425
페이지: 81~81

엔지니어 페트르(Petre)를 위한 것.

4월 19일 자 외무부 전보 No. 139에 의거.

1) 김종락(Kim Chang Nak)은 노르망디조선소(CMN)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 5월 초에 프랑스에 오고자 함. 노르망디조선소의 아미오(Am(yo)t)가 김종락 회장을 직접 맞이할 수 있길 바람. 파리에 도착한 날부터 출장팀(3명 추정)을 관리하고 셰르부르까지 동행해야 할 것.
2) 이 단계에서, 대사는 리오베(Riobé)와 김종락 회장의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톰슨 CSF가 고속정에 설치할 다양한 무기 관련해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만 김종락 회장에게 알렸음.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람.
3) 중개인 없이 직접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 기술자에게 셰르부르에서의 체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상무 담당 참사관이 회담에 참석.
5) 고속정에 관한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내용에 감사함.

1.52. 에어버스와 항공협정

생산일자: 19740430
페이지: 82~82

11월, 한국과 프랑스가 협상한 항공협정 상황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려주길 외무부에 요청. 에어버스의 다음 투어를 준비하기 위해 대사는 관련 당국과 접촉할 것.

1.53. 북한에 항공기 판매 시도한 회사에 대한 한국 정보기관의 조사

생산일자: 19740504
페이지: 83~84

1) 메모(육필, 83쪽)

드 베브르(De Vaivre)는 전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카바나(Cabanat)가 이 전보를 받아보기를 기대함.

(1) 브라운(Braun)과 모르텍스(Mortaix)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고 시의적절하지 못했음. 현재, 에어버스를 북한에 판매할 수 없음.
(2) 항공협정에 서명할 수 있지만, 프랑스가 추후에 에어버스 관련 다른 협약에도 서명하길 원한다고 한국에 전달하기를 바람.

2) 전보(84쪽)

에어버스 대표들, 서독과 스페인 외교관들의 동의하에 주한 프랑스대사가 에어버스 항공기의 기항(6월 4~5일)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에 유럽 항공기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라운(Braun)과 모르텍스(Mortaix)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음. 이는 한국이 아에로스파시알

(Aerospatiale)에 정보원을 갖고 있거나, 파리에 있는 북한 대표단에 정보원을 갖고 있거나, 외국 정보기관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의미.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외무부에 요청함. 이런 상황에서, 항공협정 서명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 사안과 에어버스 판매를 연결시키려는 전략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함. 어쨌든, 항공협정은 언젠가는 체결해야 할 것.

1.54. 고속정과 엑조세

생산일자: 19740506
페이지: 85~86

김종락은 미국으로 출발하여 5월 15~20일 사이에 파리에 체류할 예정. 필요하면 파리에 15일 동안 있을 것. 파리에서 페트르(Petre), 데를로(Derlot) 및 그들의 상관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함. 김종락은 두 개의 사전 계약(고속정, 엑조세)을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이제 이 두 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음의 방식이 준수되어야 할 것.

1) 중재자 없이 서울이나 파리에서 제조회사들과 김종락 회사의 직접 계약
2) 외국 회사에 대해 신중한 유지
3) 한국 해군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민간 계약으로 보여야 함. 혹은 미국이 무기 공동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군수물자로 한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 협력으로 보여야 함. 한국의 가장 큰 산업체들은 국방의 필요성을 매일 발표하고 있음. 이 자금의 활용은 명시되지 않았음. 하지만 국무총리의 형(김종락)에 의하면 한국은 재정을 확보할 것.

1.55. 대한항공 및 국무총리실과의 첫 만남

생산일자: 19740507
페이지: 87~87

주한프랑스대사 전보 No. 204에 의거.
에어버스 투어를 위한 대한항공 및 국무총리실과의 첫 만남 분위기는 예의를 갖춘 것이었지만 열의는 없었음. 대한항공은 5일 시범비행에서 후견을 철회한 것 같고, 새로운 초대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심이 없음.

1.56. Origine: Accords bilatéraux / Objet: Mission navale sud-coréenne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해군 임무단)

생산일자: 19740508
페이지: 88~88

아미오(Amyot) 회장과 노르망디조선소(CMN)는 김종락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 김종락 회장의 파리 도착 날짜를 알게 되는 대로 도말(d'Aumale)에게 알려주길 바람. 김종락 회장은 페트르(Petre)와 데를로(Derlot)를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기업인들도 만날 수 있음. 계약은 사전 계약의 서명으로 즉시 이어질 수 없을 것. 예정된 거래가 실현되려면 특히 전쟁물자수출연구를 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 전보 No. 140에서 알려준 것처럼, 엑조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

1.57.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 Objet: Accord aérien (일반 사안에 근거한 항공협정)

생산일자: 19740510
페이지: 89~89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204에 의거.
주한 프랑스대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항 협정 텍스트와 신임장을 다음 외교행낭으로 받을 것. 이를 통해 항공 협약 서명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 대한항공에 의한 에어버스 구매계약이 아주 빨리 체결되길 바라는 프랑스의 바람을 한국 교섭 측에게 알려야 함. 거래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보고 바람.

1.58.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0510
페이지: 90~90

4월 17일 자 경제재무국 카부아의 통지에 의거.
태국, 한국, 필리핀, 일본에서의 에어버스 투어 동안, 4개국(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스페인) 프로그램을 담당한 에어버스 정부 간 위원회는 스페인의 곤잘레스 가르시아(Gonzales Garcia)가 대표할 것. 그는 에어버스 투어를 동반하는 유일한 공식 인물이 될 것. 각 대사들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에어버스 시범비행이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연락처를 가르시아에게 제공하길 요청함.

1.59. 아에로스파시알과 북한

생산일자: 19740510
페이지: 91~91

한국 외무차관이 북한을 향한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의 새로운 거래 시도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큰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소환했음. 푸마(PUMA)와 알루에트(Alouette)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외무, 무기, 재정 협약에 대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보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항공기들의 라이선스, 엔진, 교체 용품을 판매하려는 새로운 상업적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함. 한국 정부가 이처럼 표현한 우려를 통해, 걱정했던 대로 에어버스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임(프랑스대사관 전보 No. 204, 209). 한국 외무차관은 프랑스대사관에서 6월 4일에서 진행될 공동 만찬에 스페인대사를 통해 초청받았음에도 이 초청에 응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

1.60. Accords bilatéraux (양자협정)

생산일자: 19740513
페이지: 92~92

전보 No. 156에 의거.
김종락 회장이 AF050편으로 5월 16일 10시 15분에 파리에 도착할 것.

1.61. Vente de l'Airbu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에어버스 판매)

생산일자: 19740515
페이지: 93~94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한 대한항공은 1년 전부터 유럽의 에어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몇 달 전부터, 에어버스와 대한항공은 제시된 항공기 버전의 기술적 특징과 6대 구매 관련 재정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었음. 몇 달 전, 이 논의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 한국 정부는 에어버스에 대한 대한항공의 관심을 재확인하면서도 에어버스를 주문하는 것에 의해서, 미국과의 항공협정 체결 및 더글라스(Douglas)社의 항공기 장기 구매 협상을 망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
2월 말, 더글라스社와의 계약은 성사되었음. 미국과 한국의 항공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관련 논의를 재개하길 원한다고 에어버스에 조금 전에 알렸음. 이미 많이 진척된 이 논의는 잠정적 구매계약의 양식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에어버스에 대한 대한항공의 긍정적 결정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될 것임을 한국의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강조해야 함.

1.62. 항공협정에 대한 반응

생산일자: 19740517
페이지: 95~95

1) 외무부 전보 No. 160과 5월 9일 자 서한에 있는 절차를 실행했음. 서명에 대한 발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 이 서명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한국과의 항공 관계에서 프랑스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2) 북한에서의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의 활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암시는 없었음. 에어버스 방문에 대해 장관 차원에서의 제한은 없는 것처럼 보임.

1.63. Démarche de l'Ambassade de Corée (한국대사와의 교섭)

생산일자: 19740522
페이지: 96~97

5월 22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만나러 옴. 그는 400대의 헬리콥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북한에 판매하려는 전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음. 한국 정부는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이미 우려를 표했었고, 이 사업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 프랑스의 최종 결정이 그 사업에 반대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 한국대사는 헬리콥터 대부분이 민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 휴전선과 해안에서의 많은 사건이 보여주듯이, 한국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현재 태도가 얼마나 적대적인지 강조하고자 했음. 북한의 헬리콥터 구입은 남한에 아주 심각한 근심거리가 될 것.
한국대사를 안심시켰음. 프랑스의 결정이 그 사업에 반대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음. 하지만 본인(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 추정)이 가진 정보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음. 알기로는, 사업의 연기만이 결정되었기 때문. 한국 정부를 확실하게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회담 중, 한국대사는 에어버스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암시.

1.64. 에어버스와 아에로스파시알

생산일자: 19740601
페이지: 98~98

대한항공 조(Cho) 회장이 그의 기장과 함께 마닐라에 맞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헬리콥터에 관하여) 에어버스와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이 북한에 정식으로 기대를 한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이 점에 대해, 이미 한국 외무장관에게 주의를 받았음. 북한을 향한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드러낸다면 현재 남한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위태롭게 될 것이 확실함.

1.65. 에어버스와 항공협정

생산일자: 19740606
페이지: 99~100

에어버스의 방문과 시범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관련 소식이 언론화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대한항공 회장은 내가 9월 5일에 계약 서명을 위해 파리에 있을 예정인지 문의했음. 하지만 그는 서명할 항공기가 몇 대가 될지 말하지 않았음. 서울 체류 기간에 태완선 부총리가 주재하는 리셉션과 프랑스대사관 만찬이 있었음. 공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신 교통부 장관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직접 조종. 프랑스 측에 우호적이던 대한항공 기술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 기자회견은 미국 측의 불만을 약간 나타내 보였음. 북한에 대한 실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아주 신중했던 지글러(Ziegler)는 만족한다고 했음.
스페인, 서독, 네덜란드대사들은 모든 행사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만족스럽게 보였음. 국무총리가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 만찬에 참석한 국무총리 대리는 지글러에게 미국과 일본의 지나친 태도를 비난할 정도로 유럽 친화적 의사를 표명.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대통령이 오찬에 초청한 날인 7일(금요일)에 항공협정에 서명할 것.

1.66. 항공협정 서명

생산일자: 19740607
페이지: 101~101

5월 10일 자 전보 No. 160에 의거.
항공협정에 서명함. 대한항공 회장이 서명식에 참석했음. 뒤이은 회담에서, 외무장관은 최근 에어버스의 투어와 그에 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언급했음.

1.67. 항공협정 서명

생산일자: 19740611
페이지: 102~103

어제 대한항공 부회장은 다음 사항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확인해 주었음.

1) 기술자 출장팀이 7월 중순에 툴루즈에 갈 예정이고, 그들은 부차적이라고 여겨지는 에어버스에 관한 부정적인 여러 사안을 언급할 것. 이 출장이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저지하고, 대한항공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미국 측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2) 8월 초, 서울에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에서 항공기 4~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
3) 9월 5일, 프랑스에서 계약 서명. 아시아에 에어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대한항공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중훈 회장은 6개 아시아 항공사에 비행시뮬레이터 훈련센터를 서울에 만들자는 제안을 8월에 할 것. 이 센터를 통해 서울은 아시아에서 '에어버스의 중심지'가 될 것. 앞에 언급된 항공사들은 시뮬레이터 구매에 협력할 수 있음. 지난 12월 회담에서 이미 언급된 이 문제를 다시 말한 것은, 프랑스에게 대한항공이 충실한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시뮬레이터를 기증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길 원한다

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이 정보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성급한 언론 보도는 경계해야 함. 이런 보도는 대한항공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미국의 추격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

1.68. 톰슨 CSF사의 한국 출장

생산일자: 19740612
페이지: 104~104

톰슨 CSF(Thomson CSF)는 장비, 특히 베가(VEGA) 무기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해군본부에 기술영업임무단을 6월 17일에 보낼 것이라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렸음. 또한 임무단은 다양한 방공 레이더를 공군본부에 소개하려 할 것. 이 사안에 대해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DAI)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주한 프랑스대사는 톰슨 CSF 출장팀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해 외무부가 알려주기를 바람.

1.69. Corée du Sud – Exocet (한국 – 엑조세)

생산일자: 19740610
페이지: 105~108

1) 메모(육필, 105쪽) 및 문서전달 양식(106쪽)

(서울 전보 254와 261에 대한 회신으로) 엑조세 관련 서울 전보는 경제국(DE)에 의해 준비되었음. 그것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함. 원칙적으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음.

2) 보고서(107–108쪽)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 김종락 회장은 1974년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에 체류(런던에서의 이틀 체류 제외). 그는 국제국 국장, 노르망디조선소(CMN), 톰슨 CSF,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의 대표들을 만났음. 김종락 회장은 노르망디조선소의 선박 콩바탕트 II B(Combattante II B)의 가격이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함(6시간마다 30분 동안 40노트). 그리고 라이선스 양도에 앞서 선박 6대의 주문은 비상식적인 지출을 초래하리라 생각함. 김종락 회장은 미국타코마조선공업과의 협력 아래 건조 중인 선박(3 혹은 5대)에 엑조세를 설치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와 톰슨 CSF 부속품을 위한 합의.
- 한국에서 이미 건조된 선박 늑재에 프랑스 부속품을 조립해 넣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엑조세를 제외하고, 다른 부속품들은 결정해야 함.

결국, 한국 출장팀은 엑조세에 대해 프랑스가 합의하는 것이, 군사 영역에서 협력하려는 프랑스의 의지 표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SS–12 Marine와 40노트 이상의 100톤급 선박에 관한 관심도 주목해야 함. 전술한 정보는 참고하기만 하면 됨. 새로운 지시가 있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특별한 행동도 취하지 말기 바람.

1.7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Système d'armes VEGA (양자협정에 근거한 VEGA 무기 시스템)

생산일자: 19740613
페이지: 109~109

전보 No. 250에 의거.
베가(VEGA) 무기 시스템과 해안 감시 레이더를 위한 한국 시장 조사 프로젝트에 대하여, 6월 13일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가 검토했을 때 반대가 없었음. 따라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톰슨-휴스턴(Thomson-Houston)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음.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DAI)은 임무단 방문을 무관에 알림.

1.71. 엑조세

생산일자: 19740614
페이지: 110~111

김종락 회장과 장시간 면담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르망디조선소의 회담 결과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협력도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듦.
2) 엑조세에 대한 아주 강한 관심을 보임. 개당 가격은 합리적으로 보임. 엑조세 미사일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효율성에서 훨씬 우세함. 현지에서 건조된 다섯 대의 선박을 무장하기 위해 처음에는 20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과의 접촉은 판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인상. 유보 조건 아래 한국에 대한 엑조세의 판매에 있어 프랑스 정부 허가의 핵심 사항을 알려주길 바람.
4)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총가격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용) 조건을 요청하고 있음.
5) 거래가 민간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임. 정부 대표가 이 사안을 잠시 지켜보고 있기 때문. 정부 차원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음.
6) 미국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반드시 알게 될 것. 최고위층의 긍정적 결정의 대상(몇몇 재정 관련 사항들은 부재한 것처럼 보임)
7)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엑조세를 조립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두 명의 프랑스 엔지니어의 출장에 대한 합의
8) 엑조세가 양도된다면, 한국에서 소형 선박이 건조될 때 이 소형 선박을 무장할 수 있는 SS-12에도 관심 가질 것이 확실함.
9) 김종락 회장은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함.
10) 오늘 아침에 프랑스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시공식에 함께 참석한 한국 국방차관은 민간 차원에서 엑조세가 시장에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가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주한 프랑스대사는 오후에 김종락 회장을 만나 접견 내용을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음. 또한 현

재로서는 엑조세의 양도 가능성을 말해줄 수 없다고 답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전보의 5번에 대해 페트르(Petre)가 특히 주목하길 바람.

1.72. 아에로스파시알

생산일자: 19740615
페이지: 112~112

1)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 경영진은, 김종락 회장 방문 당시에 상영한 엑조세 영상과 다양한 무기 관련 영상을 클로에르(Clouert)와 브로세(Brosset)를 통해 보내줄 것을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의 샤부로(Chaboureau) 장군에게 요청해 달라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부탁했음. 발송품들은 외교 인장으로 처리해서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주길 바람.
2) 6월 11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243–45. 대사는 현지 딜러들이 아에로스파시알과 프랑스 정부의 유일한 대표들이라는 점에 놀랐음. 위에 언급된 임무단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임무단과 함께 규명해야 할 부분임. 김종락 회장은 커미션을 지불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1.73. Demande d'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한국대사의 면담 요청)

생산일자: 19740618
페이지: 113~113

7월 15일,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서울에 돌아가야 하는 한국대사는 한국으로의 출국 전에, 외무장관 혹은 국무장관과 의례적 면담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표명. 아시아–오세아니아국과 경제재무국은 장관이 윤석헌 대사를 접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특히, 대한항공에 에어버스 6대를 판매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성사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경제국에 의하면, 서독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서독도 이 사안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알려달라고 에어버스 프로젝트 프랑스 책임자에게 최근 요청. 이 같은 관여는, 미국 측이 과거에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최고위층 차원에서의 교섭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임.

1.74.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Ventes d'armement (양자협정에 근거한 군수품 판매)

생산일자: 19740625
페이지: 114~114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254/58, 외무부 전보 No. 140에 의거. 김종락 회장 방문 보고서는 6월 13일에 프

랑스대사에게 전달되었음. 한국에 대한 엑조세 양도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이 점에 대해 김종락 회장이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가졌던 접촉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 이런 조건에서 엑조세에 관한 영상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의 임무단이 서울에서 하게 될 임무는 오로지 상업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단계에서 임무단에 그 어떤 공식적 지지도 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1.75.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Financement de projets nucléaires (양자협정에 근거한 원자력 프로젝트 재정 조달)

생산일자: 19740626
페이지: 115~115

6월 11일 자 전보 No. 246/247에 의거,
이 프로젝트의 재정 조달에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재정 조달은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에 의해 보장된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 반대로, 프랑스 원자력청(CEA)은 프랑스 기업이 일반적인 신용 조건으로 워크숍 계약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1.76. 엑조세와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40628
페이지: 116~117

일주일 예정으로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한국 관련 엑조세 사안과 무기 판매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도쿄에서 온 무관과 조금 전에 이 사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이 사안이 위태롭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북한*과 진행되는 일로 인해 양측의 협상이 이미 난항을 겪고 있음. 한국 측은 해군을 강화하려고 매우 서두르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힘. 미국 진영은 우리의 접근을 잘 알고 있음. 프랑스 측의 행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프랑스 측의 행동은 시기상조로 보임. (* 버메르리드(Bemerlide)는 헬리콥터에 대해 아주 많이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이 일은 조심성 없이 무능하게 진행되었음. 정부가 이런 유형의 판매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이론은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에 대한 완전 방위임. 그때까지는 공군과 해군을 심각한 사건을 초래할 수 없도록 놔두는 것. 프랑스의 개입은 불청객 같은 난데없는 사건인 셈. 프랑스는 이런 결정이 초래할 책임이 어떠할지 판단해야 함.

추신: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는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전보로 알려준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게 함. 이 문제는 부서 간 조율과 관련이 없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77.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40701
페이지: 118~120

한국은 세계 4번째 무기 수입국. 현재까지 미국과의 방위협정으로 인해 무기 수입국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와 미국의 지원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 무기 수입국들을 다양화하고 한국 군수산업을 완비하려는 의지를 피력. 이 문제로 한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접촉했음.

1) 프랑스의 판매와 전망

현재까지 프랑스의 판매는 거의 부재한다고 보아도 무방(최근 3년간 2백만 프랑). 접촉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장갑차, 미사일, 대전차, 레이더, 탄약장치, 화약 공장, 미라주 전투기). 해당 조사 허가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 허가는 실현되지 않았음. 한국 측이 엑조세로 설치하려고 하는 고속정을 함께 건조하는 것과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노르망디조선소를 방문한 후, 한국 책임자들은 미국 측과 함께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엑조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프랑스 측은 한국에 이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음. 이 양도는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가 북한에 대해 실행하려는 사안과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될 수 있음.

2) 북한에 대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프로젝트와 한국의 우려

북한이 프랑스의 헬리콥터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 측은 1973년 말에 SA-330 푸마(PUMA) (민간용)에 대해, 그리고 1974년 2월에는 10대의 가젤(Gazelle)과 10대의 알루에트3(Alouette III) (민간용)에 대해 조사-협상을 승인했음. 하지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100여 대의 푸마(PUMA)와 SA 360(민간용)의 라이선스 전체 제조(construction complète), 필요한 설비, 장치와 생산수단 공급과 관련하여 더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요청받았음. 이 프로젝트는 10여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시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대략 18억 프랑). 하지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요청한 조사 승인은 지난 4월에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 의해 연기되었음. 한국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와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임. 한국은 우려를 프랑스 측에 알렸고, 한국이 에어버스 구매와 북한의 일을 연결시킴으로써, 프랑스가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국은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입장임. 경제재무국의 의견에 따라 모든 평가 요소들을 갖기 전에 이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일 것. 몇 달 후면, 프랑스는 남한과 북한 의도의 진지함에 대해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한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프로젝트를 암시한다면 이 사안은 계류 중이라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1.78. 엑조세 판매 관련 우려

생산일자: 19740706
페이지: 121~122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에 보낸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의 7월 2일 자 서한이자, 같은 날짜의 No. 351로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통지된 서한을 통해 엑조세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이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되었음.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이 같은 장비의 양도에 대한 긍정적 답의 시의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한국 의존도,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접촉과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 차원의 이중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서해와 동해에서의 마찰의 심각성과 빈도로 인해 소련, 중공,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국제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를 한국에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야 함. 미국은 한국전 해군의 전통적 수단조차 증가시키지 않고 있음. 가장 최근의 공식 요청은 5대의 선박에 설치되는 20개의 미사일 발사대와 50개의 미사일임, 두 번째 버전은 5대에서 10대에 이르는 선박에 설치할 동일 수의 장치임. 이것은 2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조달이 필요한 것.

1.79. Achat de missiles (미사일 구매)

생산일자: 19740708
페이지: 123~124

주한 프랑스대사가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신(1974년 7월 8일)
외무부는 동봉한 문서를 보게 될 것. 그중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 윤응렬 회장이 프랑스 미사일 시스템 관련 의향서와 정부 승인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려주는 서한이 있음. 이 문서 세트 중의 하나는 외무부를 통해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에 전달되어야 할 것. 7월 6일 자 보고를 통해 이 사안에 관한 전반적 방침을 명시.

* 동봉된 서한: 윤응렬 회장이 랑디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낸 서한(1974년 7월 1일)
코리아타코마의 프랑스 미사일 시스템 구입 프로젝트가 빠른 진척을 보인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어 기쁨. 아에로스파시알의 로트(Loth)와 클루아르(Clouard)가 우리를 방문했고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체류하는 동안 결실이 있는 미팅과 검토를 했음. 동봉된 서한을 아에로스파시알의 샤부로(Chaboureau) 장군에게 전달해 주길 바람. 동봉된 서한은 한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의향서와 승인서를 KIMI에 공식적으로 발급했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이 문서들의 영역본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니,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아에로스파시알에 전달해 주기 바람.

1.80. Ventes d'armement (군수품 판매)

생산일자: 19740712
페이지: 125~126

6월 6일 자 서한(66/DE/ARM)에 대한 회신.
현재까지 강대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한 적은 없음. 한국 3군의 무기인 미국 장비는 UN의 절차와 안보동맹조약에 규정된 지속적 지원으로 양도됨. 미국은 미국 무기를 양적 · 질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 이런 상황은 현대화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예정된 1977년까지는 적어도 지속될 것. 하지만 이 시점은 연기될 것으로 보임. 원칙적으로 한국군은 이 날짜 후에 재정적 기부와 물자 대신에 자유를 되찾게 될 것. 한국 측은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이미 정했음. 영국, 스칸디나비아 3국, 서독, 스위스, 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정보임무단을 파견중. 한국은 장갑부대, 항공, 경장비 함선, 고속정, 지대공 미사일, 특히 대함미사일(프랑스,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음. 소규모의 폭발물 민간 제조공장(몇몇 제조물은 군사용이 될 예정)을 위해 프랑스와 계약 체결.

1.81. 엑조세와 타코마

생산일자: 19740712
페이지: 127~127

타코마조선소 김종락 회장은 5월 말에 프랑스를 방문했고, 툴루즈에서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이 그를 접견. 김종락 회장은 7월 18일부터 엑조세 사안을 마무리하고 서명할 때까지 프랑스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라고 프랑스대사관 측에 알렸음. 그는 자신의 서한(7월 8일 자 서한 No. 4(03)의 주제)에 대해 동봉된 해군 및 국방부의 서한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답해주길 요청함.

1.8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의거한 한국을 위한 엑조세)

생산일자: 19740716
페이지: 128~128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는 한국에 대한 엑조세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음. 1971년 2월에 인도되는 엑조세 조사에 대한 승인은 무효화됨. 이런 상황에서 김종락 회장의 프랑스 방문은 엑조세 구매계약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임. 전보에서 알려준 대로 점점 증가하는 해상에서의 마찰과 한국에 엑조세를 공급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때, 외무부는 이 무기 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입장임.

1.8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의거한 한국을 위한 엑조세)

생산일자: 19740716
페이지: 129~129

1.82 건의 교정본으로 동일 내용임.

84. 아에로스파시알

생산일자: 19740814
페이지: 130~130

비아르(Viard)가 잘 진행한 에어버스 협상은 우호적으로 이어짐.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의 지역 대표인 볼코프(Volkoff)가 도쿄에서 자신의 도착을 알림. 한국 측이 아에로스파시알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과 연결하여 에어버스 협상에 추가 사항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 우려됨. 외무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에 누구도 파견하지 말 것을 아에로스파시알에 권할 수 있을지 문의 바람.

1.85. Suggestion de la Direction Asie pour le 4ème paragraphe (4번째 문단에 대한 아시아국의 제안)

생산일자: 197408
페이지: 131~131

이런 상황에서, 9월 초로 예정된 회사 임무단 출장을 이후 날짜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 예정된 날짜가 한국과의 에어버스 협상의 마지막 단계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출장 연기는 더욱 바람직할 것임.

1.86. Exocet Chantiers 'TACOMA' (엑조세 코리아타코마조선소)

생산일자: 19740822
페이지: 132~133

8월 21일 코리아타코마조선소 재접촉했던 만큼, 국무장관의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 접견에 관한 8월 8일자 보고서(No. 200/AS)를 받게 되어 만족. 8월 10일 주한 프랑스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외무장관은 이 사안을 집요하게 언급했음.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드 쿠르셀(de Courcel) 외무차관과의 면담 후에, 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들을 보고하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고 밝힘. 이 판매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이 거북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희망을

주지 않고 방문자들의 기술적 항변에 답하는 것에 그쳤음. 엄격히 방어적 목적을 명분으로 무기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한국의 발포는 공격자의 위치에서 적으로 지명된 선박에 대해서만 발생했었음. 10월 1일로 예정된 고위층(미테랑(Mitterrand) 장군) 방문에 관한 정보를 받은 한국 측은 방문이 접촉의 목적인지, 혹은 그들의 입장에 유용한 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문의했음.

1.87. 한국 국무총리의 엑조세 요청

생산일자: 19740828
페이지: 134~135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 프랑스대사 소환. 주제는 엑조세. 파리에 있는 김종락이 보낸 보고서에 김종필 총리가 실망함. 총리는 이 사안의 일반적 원칙, 8월 15일 북한의 공격, 억제 장치의 필요성을 열거했음. 이 억제 장치는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음.
명확한 두 가지가 있음.

1) 미국 측은 현대화 계획의 틀 안에서 1978년 말에 하푼을 양도하기로 약속. "1978년 말까지, 북한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엑조세를 주시오."라고 김종필 총리가 말했음.
2) 10월 1일 프랑스 대표단의 한국 방문은 군 최고위층들 사이에서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음. 대화 주제와 상관없이, 총리는 에어버스의 구매가 '승인'되었다고 말함. 톰슨 CSF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1,500킬로와트 송신기 프로젝트를 상기시킴.

1.88. Airbus – Copie de la note en date du 29 août 1974 (에어버스 관련 1974년 8월 29일 자 노트 사본)

생산일자: 19740829
페이지: 136~138

1) 우편물 기재부표(136쪽)
2) 도말(d'Aumale)을 위한 노트: 에어버스(137~138쪽)
   민간항공 부서 책임자이자 에어버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기베(Guibé)가 전화하여, 한국대사가 어제 프랑스 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교섭에 대해 알려주었음. 한국대사는 만약 프랑스 정부가 엑조세에 대한 한국의 구매 요청 관련 입장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에 에어버스를 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임. 이 정보는 에어버스社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고, 에어버스社는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를 통해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임. 재정 차원(6대, 1억 3천만 달러)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베(Guibé)는 우리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했음. 다음의 점들이 모순적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음.

– 이 교섭은, 한국대사가 자신의 정부가 이 두 사안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을 외무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음.
– 주한 프랑스대사도, 에어버스社(서울에서 계약서 최종본 작성을 하려던 상황)의 대표도, 최근 한국 측이 제기한 그런 조건에 대해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8월 14일 자 전보 No. 336을 통해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측이 두 사안을 연결 짓지 못하도록 일본 주재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대표가 이 시기에 서울에 오지 않도록 아에로스파시알에 말해 달라고 외무부에 요청했었음.

1.89. 영국 항공기 회사의 레이더 제공

생산일자: 19740831
페이지: 139~139

1974년 5월 말, 영국 항공기 회사 브리티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British Aircraft Corporation, BAC)은 레이더 시스템 레이피어(Rapier)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에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

1.90. 에어버스 기술 재정 계약

생산일자: 19740902
페이지: 140~140

1974년 5월 말, 영국 항공기 회사 브리티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British Aircraft Corporation, BAC)은 레이더 시스템 레이피어(Rapier)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에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

1.91. Voyage du directeur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국제업무국장 출장)

생산일자: 19740904
페이지: 141~141

예정된 대로 레투왈(l'Estoile) 총엔지니어는 197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서울에 체류할 것. 그는 배우자, 그리고 미셸 페트르(Michel Petre) 엔지니어와 동행할 것. 드레투왈 총엔지니어는 이후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과 프랑스 간의 군사 분야 협력 가능성, 특히 산업 ·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일본 당국과 회담을 할 수 있길 바람. 현재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은 밀랑(Milan), 홋(Hot), 아틀랑틱(Atlantic), 엑조세임. 회담은 10월 3일(목) 오후부터 10월 5일(토) 오전까지 열릴 수 있음.

1.92.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사안에 의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0906
페이지: 142~142

에어버스 6대 구매계약에는 9월 5일 프랑스 측의 지글러(Ziegler)와 대한항공 조(Cho) 부회장이 서명했음. 조(Cho) 부회장은, 대한항공이 DC103 구매 건으로 미국의 더글라스(Douglas)社와 현재 진행인 재정 논의가 끝나기 전에, 이 협정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함.

1.93. Entretien avec le chargé d'affaires de Corée du Sud (한국 대사대리와의 회담)

생산일자: 19740912
페이지: 143~144

1) 문서전달 기록(143쪽)
2) 자료카드: 한국 사안 책임자와의 회담(144쪽)

한국 대사대리가 9월 11일 만남을 요청. 에어버스(Airbus) 계약 체결을 축하한 후, 노영찬(Lo Young-Chan) 대사대리는 근동에 대한 프랑스 무기 판매 금지 철회가 더 폭넓은 영향을 가질 것인지 문의. 그는 '한국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엑조세에 관해 질문했고, 외무-재정-국방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3자 위원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고자 했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 회의를 암시했을 수도 있음) 그리고 노영찬 대사대리는 북한이 사려고 하는 헬리콥터에 대해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물었음. 한국 대사대리는 미소프(Missoffe)의 다음 북한 출장에 대한 소문을 언급. 회담 동안, 한국대사관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음.

1.94. 프랑스의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논의와 한국의 우려

생산일자: 19740912
페이지: 145~147

경제국(Direction Économique)은 오늘 아침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 회의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엑조세 판매 사안을 연기했다고 알려주었음. 하지만 이 사안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내각 대표(펠티에(Pelletier)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다음 월요일 전에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음. 드레투알(De l'Estoile)은 이번 달 말에 방한할 예정이고 한국에 최종 답을 줄 수 있길 희망함.

1) 푸마(PUMA) 관련 조사에 승인을 부여하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 자료카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승인했는지 모름. 하지만,

– 남북한 사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우호적인 분위기였음.
– 그 당시, 남한은 이 같은 판매(우리는 1974년 2월에 가젤 10대와 알루에트3 10대를 팔았음)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임.
– 관련 장비의 수는 표시되지 않았음.

2) 반대로 현재는,
– 한국이 점점 전쟁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푸마(PUMA) 판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프랑스에 알렸음(단지 2~3개월 전부터).
–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표시한 50대의 수는 상당한 규모

아시아국과 대외경제관계국의 반대로 인해(신용 규모 때문), 라이선스 제로 계약은 없을 것.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추진하는 PUMA 판매는 한 대당 750만 프랑, 즉 50대에 3억 7천만 프랑에 달함. 다음의 논리가 경제부서들에 제시될 수 있음.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아닌데도, 이 거래를 위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에어버스 계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푸마(PUMA) 사안의 내력을 첨부함. 이 내력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작성한 것임.
에어버스 1대 = 1천8백만 달러 혹은 9천만 프랑

1.95.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엑조세(Exocet))

생산일자: 19740913
페이지: 148~151

1) 문서전달 양식(148쪽)
발신자: 데샹(Deschamps), 경제국
수신자: 뒤제(Duzer), 아시아–오세아니아국

2) 노트: 한국을 위한 엑조세(149–151쪽)
지금까지 한국은 무기에 있어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있었지만, 이제 무기 공급처 다양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 프랑스와 관련해, 한국은 특히 엑조세 대함미사일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음. 최근, 한국은 엑조세의 양도를 꾸준하게 요청했음. 먼저, 이 요청은 1971년에 한국에 의한 것으로 현재 만기 된 조사–협상 승인의 갱신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이 긴장이 최근 상당히 악화된 점이 관측됨. 이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이 요청한 항공 및 군용 물자 양도에 대해 신중을 보여야 함. 게다가, 미국은 최근 남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해상에서의 잦은 마찰로 인해 한국에 엑조세의 경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푼을 1973년 말 이전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었음.

– 한국에 엑조세를 양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닫혀 있던 무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라이선스 아래 생산된 프랑스 선박에 엑조세를 설치하는 방안이 잠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은 현재 미국 선박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선박에 프랑스 무기 시스템을 부착하고자 함.
– 엑조세 양도와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결부시키고자 하는 한국 측에 만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 하지만 한국 정부가 엑조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에어버스 6대 공급 계약이 얼마 전에 체결되었음. 하지만 선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계약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한국 정부는 DC 10 구매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임.
–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북한에 대해 계획한 거래를 엑조세 양도로 상쇄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음. 이 거래는 북한에 20대가량의 경헬리콥터의 판매와 40대가량의 푸마(PUMA) 헬리콥터의 조립 라이선스 양도에 관한 것임. 이 거래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이 위원회의 헬리콥터 제조 라이선스 양도라는 더 폭넓은 프로젝트는 연기되었음. 현재 헬리콥터 제조 라이선스 양도는 상당히 위태로워진 것처럼 보임. 조립 라이선스 양도 거래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처럼 보임.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이 느낄 수 있었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경제재무국은 아시아–오세아니국과 의견을 같이하여, 한국에 대한 엑조세 양도에 관한 지난 7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서의 우리의 부정적 입장을 위원회와의 다음 회의에서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 입장은 국방부의 입장이 아님. 미테랑(Mitterrand) 장군과 드레투알(De l'Estoile) 총엔지니어가 10월 1일 서울에 공식 방문할 예정. 한국 측은 엑조세 양도가 현재 많은 국가들(일본에 대한 조사–협상이 최근 승인됨)에 대해 승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음. 경제국과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은 이런 태도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여김.

1.96.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pour la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에 대한 엑조세)

생산일자: 19740917
페이지: 152~152

7월 16일 자 외무부 전보 208/09와 8월 28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380/83에 의거.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는 한국에 대한 엑조세 조사–협상 관련 승인 요청을 다시 했음. 이 무기 시스템을 한국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외무부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측 대표는 위원회에 이 거래의 연기를 요청했음. 최종결정을 아직 내리고 싶지 않으며, 관심 사안은 거절로 에어버스 구매계약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것임. 드레투알(De l'Estoile)은 10월 초 두 명의 한국 책임자들과의 회담에서 엑조세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입장이 민간 항공기 판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음.

1.97. Entretien du Ministre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불 외무장관 회담)

생산일자: 19740919
페이지: 153~154

김동조 외무장관은 일부 서부 국가들이 UN에 제출한 한국 문제 관련 결의안에 프랑스가 동조해 주길 바란다고 할 것. 별개의 노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 한국 외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한불 양자관계에 관한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할 수 있음.

1)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한

김동조 외무장관은 연말 전에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한을 다시 한번 제안할 것임. 프랑스 외무장관은 도쿄 방문 후 11월 23일에 한국에 갈 수 있지만, 체류는 아주 짧을 것.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것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했음.

2) 경제 관계

경제 분야에서, 양자관계는 현저한 문제 없이 만족스럽게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음. 아직 규모가 적은 무역 교류(1973년 3억 1천만 프랑가량)에서 프랑스가 흑자를 보이고 있음. 한국 정부는 프랑스 기업들이 대규모 거래(제강, 조력발전, 우라늄 재처리공장)에 관심 두길 원함.

몇 달 전부터 지속되어 온 에어버스 관련 협상이 항공기 6대 판매 계약으로 최근 마무리되었음. 외무장관은 프랑스 측의 만족을 표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거래는 비공개되어야 함. 한국 측이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아직 지속하고 있기 때문.

더 민감한 사안은 한국에 고도의 무기 판매에 관한 것. 이 영역에서 미국 의존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 정부는 대함미사일 엑조세를 프랑스에서 구입하려는 바람을 표명했음. 이것은 외무부에서 진행된 주프랑스 한국대사와의 최근 회담에서도 언급되었음. 북한에 대한 푸마(PUMA) 헬리콥터의 양도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려한 만큼 이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까지 우리는 공격형 무기로 긴장을 더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태도를 취했음.

프랑스 공군 총감독관인 미테랑(Mitterrand) 장군과 드레투알(de l'Estoile) 국제임무단 총엔지니어는 한국군 창설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1일과 2일에 방한할 것.

한국 외무장관이 우리와 북한의 관계 발전에 대해 우려한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음. 하지만 북한과의 무역 관계 발전을 통해 주프랑스 북한무역대표부의 위상을 승격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줄 수 있음.

1.98. 신용 임대차 계약의 재정조달

생산일자: 19740920
페이지: 155~155

9월 6일 자 전보 No. 264에 의거.

우리는 계약 서명 후 60일 이내에 신용 임대차 계약의 재정 조달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함(현재 15일이 지났음). 고객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재정 지불 검토에 대한 진전 상황에 관해 외무부가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려주길 요청함.

1.99.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Séjour à Séoul de l'ingénieur général de l'Estoile (양자협정에 근거한 드레투알 총엔지니어의 서울 체류)

생산일자: 19740927
페이지: 156~156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416에 의거.
드레투알 엔지니어와 페트르(Petre)는 한국 정부 사이에 예정된 회담과 관련하여, 현재 예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10월 2일과 3일의 공식 이벤트의 취소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

1.100. Objet: Corée du Sud - Ingénierie et produits SNPE (한국 -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엔지니어와 제품들)

생산일자: 19741004
페이지: 157~157

참조 문서: 1974년 9월 26일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 자료카드 No. 76
해당 자료카드는 혼합형 추진체 시범시설과 관련된 것임. 최고 규격의 혼합형 고체추진체(지름 600 m/m, 길이 2.5m, 무게 800kg) 생산을 위해 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한정된 용량의 시설임. 고체추진체는 분리된 고체추진체 혹은 로켓 엔진 외피에 붙어 있는 고체추진체일 수 있음. 한국은 기본적인 유도장치를 갖추거나 갖추지 않은 관측 로켓 안에 이 고체추진체를 먼저 사용하려고 고려하고 있음. 이 관측 로켓은 고도와 사용된 고체추진체의 총량에 따라 장비탑재가 가능할 수 있음. 한국은 관측 로켓의 부품 공급과 조립 워크숍 제의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와 호치키스-브랜드(Hotchkiss-Brandt)社에 동시에 했음.

1.101. 프랑스 대표단의 박정희 대통령 및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환담

생산일자: 19741004
페이지: 158~161

10월 1일 한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표단의 의례적 회담이 특별히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박 대통령에 의해 아주 직접적인 회담으로 변했음. 드레투알(De l'Estoile) 총엔지니어가 주요 대화 상대자였음.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억제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거나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음. 그리고 박 대통령은 엑조세 문제를 언급했고, 작년에 국무총리가 보았던 '미라주'에 대해 말했음. 우리의 호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것을 한국전쟁에서의 연대의 연장선상으로 보았음. 특히, 그는 소련이 북한에 미사일과 소함정을 인도한 것을 언급했음.
10월 2일, 국무총리가 프랑스 대표단을 위해 열린 오찬에서, 드레투알은 프랑스의 자주적 정치를 언급하면서, 두 한국(남한, 북한)과 프랑스의 관계 문제를 언급했음. 그는 북한에 헬리콥터를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말했음. 그는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교통수단 외에 다른 것, 특히 살상 무기는 양도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했음. 최근의 충돌 때문에 국무총리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엑조세 사안을 언급했음. 전날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엔지니어는 엑조세의 양도 가능성이 미사일 공급이라는 거래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협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에 의해 며칠 전에 승인된 에어버스 재정 조달에 대한 정부 보증과 이 사안을 분명하게 결부했음.

미국에 대한 정치적 측면은 간략하게 검토되었음. 오후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과 참모부에서 기술 방식이 논의되었음. 드레투알은 미사일이 신용에 의해 재정이 조달될 수 없지만, 발사대 등과 같은 지속 사용 가능 설비의 재정 조달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그는 현지의 필요나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 제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 검토는 경우에 따라 진행될 것. 엑조세나 다른 물자 때문에 미국과 생기는 문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한국 국무총리는 미국이 1976년부터 하푼을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런 만큼 엑조세에 대한 답이 더 긴급했음.

9월 17일 자 전보 No. 283에 의거하여, 다음처럼 생각함.

1) 엑조세 사안은 에어버스 사안과 현재 결부되어 있음.
2) 요청된 수량(16 혹은 20)은 그리 많지 않지만, 북한이 소련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억제용으로는 충분함.
3) 프랑스 측에서는 심각한 기술적 반대가 없음. 하지만 재정 조달과 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행에 있어 제동 역할을 할 수 있음.
4)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엑조세 판매로 인한 개방은 무기 판매 차원이 아니라 무역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임.
5) 수지가 맞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결정이기도 함.

1.102. 북한에 대한 운송수단 양도 가능성에 대한 남한의 우려

생산일자: 19741005
페이지: 162~162

주한 프랑스대사의 앞선 전보에 대한 답.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458–65에 의거. 스나이더(Sneider) 미국대사는 우리 군 관계자의 방문에 대해 조용히 문의했음. 이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 운송수단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음.

1.103. 북한에 대한 프랑스 헬리콥터 판매에 대한 우려

생산일자: 19741008
페이지: 163~164

한국 외무차관이 주한 프랑스대사를 소환했고, 한국 대통령의 다음 말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전달했음.

1) 한국 정부는 북한이 프랑스 헬리콥터를 구매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 헬리콥터들이 군사용이나 공격용으로 사용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
2)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용으로 엑조세를 구매하려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음. 이에 대해, 청와대가 승인한 에어버스 계약을 다시 암시했음.

이에 대해 대사는 10월 4일 자 전보 No. 458/65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음. 164쪽 전보 No. 477의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읽어 주기 바람. 한국 외무차관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불러, 한국 대통령의 말을 아주 심각한 어조로 전달했음.

1.104.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019
페이지: 165~166

10월 21일 브뤼셀 회의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긴급하게 전달해 주기 바람.
에어버스 계약 책임자인 비아르(Viard)와의 회의 후에 작성한 것임.

1) 대한항공의 어려움과 예측 가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으로 재고되어서는 안 되며 연속성을 지켜야 함.
2) 현지 프랑스 측의 승인이 있는 상황에서(아에로스파시알 대표가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대표이기도 함) 에어버스와 엑조세 사이에 불행히도 처음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음. 만약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엑조세 사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한다면, 엑조세 계약은 에어버스 거래의 구체화 후에만 파기가 가능해야 함. 두 번째 계약 전에 첫 번째 계약을 완전히 끝내야 함.
3) 북한에서의 제조 혹은 인도(引渡). 그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말했음. 이 점은 비아르를 위해 간략하게 언급되었음.
4) 미국 측의 마지막 반대 시도: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엔진 관련 과도한 이자율을 보여주는 재정 조달. 대한항공은 이 점에 대해 기꺼이 우리와 협력할 것으로 보임. 공개가 너무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든지 아니든지 간에, 에어버스 거래가 전부 완료되었다고 간주하지 않아야 함.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여기지 않아야 함.

주한 프랑스대사의 (서독) 및 스페인 동료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비아르의 행동, 특히 재정 조달 방안과 거래에 대한 지지를 옹호했음. 임무단은 충분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

1.105.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019
페이지: 167~169

1.104 건과 동일 내용임.

1.106.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1022
페이지: 169~170

18일 자 에어버스 관련 전보에 의거.

1) 의회회기 때문에 10월 20일 기한 전에 이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한 프랑스대사는 교섭할 수 없었음.
2) 에어버스–대한항공 계약의 첨부 서한 9번에 따르면, 우리는 정부들의 승인을 위해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음. 즉 10월 30일까지임.
3) 대한항공을 위해 비아르(Viard)를 현장에 긴급하게 파견하고, 10월 (21일) 전에 한국 측의 승인 약속을 얻어낼 것.
4) 비아르는 유예기간 연장 요청은 다음의 어려움을 가져오리라 생각함. 고객의 신뢰 상실, 에어버스 외의 다른 영역들에서 한국 정부 요청의 악화, 예정된 기한 내에 배송을 위한 산업적 위험 증가, 대한항공의 필요 재검토 가능성, 미국 측의 새로운 공격의 성공률 증가.

이 상황에서, 임박한 21일의 만남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전달된 10월 19일 자 전보를 고려할 때, 주한 프랑스대사는 승인이 10월 30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계약의 다른 중요한 점들에 대해 한국 측의 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섭 요청을 계속할지 의문임.

1.107.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013
페이지: 171~172

전보 No. 458/65와 477에 의거.

에어버스 6대에 대한 대한항공의 구매계약에 관한 정부 차원의 확인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음. 첫째는,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는 에어버스 프로젝트의 동반자인 프랑스 정부와 서독 정부에 의해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함. 그런데 이 점에 관한 서독과의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는 10월 20일에 끝나는 예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허가해 줄 수 없었음. 둘째는, 한국 측은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엑조세 양도를 결

부시켰음. 에어버스 거래 체결을 최대한 수월하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16대에서 20대의 엑조세 미사일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이 결정은 에어버스 판매가 확실하고,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 이 사항은 대사만이 알고 있길 바람. 따라서 한국 측에서 다시 이 사안을 언급할 경우, 외무부에 결정을 맡기면 됨.

1.108. 엑조세와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1024
페이지: 173~174

외교행낭에 의해 주일 국방부 무관에 전달.

1)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 회장인 윤응렬 장군이 떠나기 전날, 주한 프랑스대사를 급히 방문했음. 엑조세에 관해 한국 정부는 우리의 답을 재촉했으나 그에게 새로운 사항은 없다고 말했음. 그러자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내에서의 점점 커지는 반대를 언급했음.
2) 반대 진영은 특히 파리로부터의 확인된 소문을 내세움. 북한과의 민간 경량 헬리콥터 몇 대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헬리콥터의 계약 가능성에 대한 소문임. 이미 한 번 언급한 것처럼, 아에로스파시알에 친미 출처가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음.
3) 에어버스 계약의 '긍정적 진전'이 프랑스 측의 회피(엑조세)와 이중게임(헬리콥터)에 대한 의견과 심각하게 충돌.
4) 그 회담에 참석한 산초(Sancho)와 마찬가지로, 주한 프랑스대사 역시 우리가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함. 즉, 에어버스 협상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엑조세와 북한 문제. 만약 에어버스 거래 관련 은행 임무단의 태만이 이 상황에 더해진다면, 가장 엄중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한국 측이 프랑스의 관망주의, 기회주의(북한), 소극적 태도 앞에서 좌절감을 가질 우려가 있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음. 방문객들이 에어버스에 관한 미국의 반대에 대항해 프랑스 카드를 옹호하고 있는 총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

1.109. Airbus et Exocet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030
페이지: 175~177

에어버스 항공기를 외국에 판매할 때 우리가 부딪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6대의 에어버스에 대한 대한항공의 구매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음. 그런데 에어버스와 대한항공의 9월 5일 계약은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함. 우리 결정은 에어버스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서독 측의 결정과 연결됨. 서독 측의 불확실함이 최근 사라짐. 따라서 우리는 11월 5일 예정된 날짜에 계약에 대해 승인을 내릴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한국 정부의 태도는 더 불확실. 이달 초에 서울 출장을 갔다 온 후에 드레투알(De l'Estoile)이 확인했던 것처럼, 한국 측은 에어버스 판매와 대함미사일 엑조세에 대한 프랑스의 양도를 결부시킴. 한국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엑조세를 통해, 한국은 해군 차원에서 북한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틀림없음. 북한은 소련의 스틱스(Styx)를 갖춘 고속정을 보유 중. 한국 국무총리가 우리 대사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엑조세의 경쟁 무기인 하푼을 1976년부터 한국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함.

한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거래에 우려할 것. 우리에게 주었던 확약과 반대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북한과 협상을 하였고, 10월 14일에 북한에서의 PUMA 헬리콥터 40대의 조립 관련 의정서에 서명을 했음. 주한 프랑스대사에 의하면, 프랑스에 반대하는 한국의 진영은 엑조세에 대한 우리의 '회피'와 북한과의 '이중게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심리적 분위기는 에어버스 판매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

지난 10월 15일,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는 6대의 에어버스 판매가 확정된다면 한국에 엑조세(16~20개)를 판매하는 것을 허가했음.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결정에 대해 알았으나 한국 정부에 이 결정을 알려주는 것을 승인받지 못했음. 에어버스 협상의 최종 단계를 수월하게 하려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시점에 이 결정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조사에 아직 통지되지 않은 엑조세 판매 결정은 해당 미사일을 한국에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님. 인도 기한은 최소한 20월에서 2년까지 정도일 것. 엑조세 계약 협상, 특히 재정 조달 방식 관련 협상 때문에 이 기한이 더 늘어날 수 있음.

1.11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030
페이지: 178~178

외무부 전보 328/30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504/07에 의거.
서독 정부는 에어버스 계약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독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 전 승인을 했음. 따라서 프랑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계약에 승인을 내릴 수 있을 것임.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엑조세 미사일 몇 대의 양도 사이에 한국이 만든 연관관계 때문에 한국 측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남아있음. 협상의 최종 단계를 수월하게 하려면, 주한 프랑스대사는 에어버스 거래가 완전히 해결되면 한국에 16개에서 20개의 미사일을 양도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최적기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에 알려줄 수 있음. 대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을 덧붙임.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북한에서의 40대가량의 푸마(PUMA) 헬리콥터 조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이 거래는 우리 측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주의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

1.111.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104
페이지: 179~179

외무부의 지시를 검토함.

1) 서독 관련 난관은 가능한 한 가장 빨리 해소될 것.
2) 대한항공은 초과된 기한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고 있음.
3) 엑조세에 관한 결정은 가능한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함. 만약 한국 측이 알게 된다면, 에어버스 관련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현지 차원에서 이 두 사안이 프랑스 정부를 통해서가 아닌,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와 아에로스파시알 두 주체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함.

1.11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1104
페이지: 180~181

인용 시작: 경제재정부가 에어버스 항공기의 대한항공에 대한 판매 계약(9월 5일 서명)에 대해 10월 31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을 한국 측에게 알려줄 수 있음. 우리 정보에 따르면, 서독 정부도 이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보임. 이 원칙적 승인에는 프랑스 측의 유보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해당 조항들을 재협상할 것. 프랑스 은행들은 장관의 결정을 알고 있고, 대한항공이 요청한 신용 임대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때가 되면, 은행들은 이 사안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알릴 것. 인용 끝. 서명: 테시에(Teissier)

1.11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1106
페이지: 182~182

전보 336번을 아래에서 읽어보길 바람.

인용 시작: 경제재정부가 에어버스 항공기의 대한항공에 대한 판매 계약(9월 5일 서명)에 대해 10월 31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을 한국 측에게 알려줄 수 있음. 우리 정보에 따르면, 서독 정부도 이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보임. 이 원칙적 승인에는 프랑스 측의 유보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해당 조항들을 재협상할 것. 프랑스 은행들은 장관의 결정을 알고 있고, 대한항공이 요청한 신용 임대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때가 되면, 은행들은 이 사안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알릴 것. 인용 끝. 서명: 테시에(Teissier)

1.114. Sujets dont vous serez ou pourriez être entretenu. (귀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

생산일자: 19741112
페이지: 183~184

1) 에어버스는 재정임무단에 달려 있음. 오늘 아침 외무차관에게 브뤼네의 방문을 알려주면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에어버스 다자간 거래와 엑조세 양자 간 거래를 가능한 분리함. 엑조세 거래를 승인하기 전에 에어버스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것.
2) 엑조세(Exocet): 다시 강력한 압박
3) 에어버스 시뮬레이터: 대항항공과 협상자는 현재로는 대립 중임. LMT는 580만 달러를 요청. 한국 측은 450만 달러를 기대했음.
4) 톰슨–CSF 송신기(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347과 348번에 의거). 프랑스 측의 가격(6천만 달러)은 미국 측 가격의 3배. 동일 명세서
5) 폴리시우스 시멘트(Polysius ciment) 방문 직후 논의 시작. 위트버(Witver)는 일본,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6) 현대(Hyundai, 조선소). 일련의 설비(예: 확장을 위해 크레인). 현대는 자동차 제조 기계와 철도 설비(엔진 포함) 생산에 관심을 두고 있음.
7) Groupe 50 périodes: 아이젠버그(Eisenberg) 가설을 제거해야 함.
8) C.F.P.는 베르비지에(Berbigier)의 최근 방문을 고려.
9) Pechiney社는 최근 회담을 고려, 라자레프(Lazareff)를 방문.
10) Metropolitain: 현재 일본 측과의 문제들. 프랑스는 관심이 있을까? 구축해야 할 여섯 라인이 남아있음.
11) 포항제철(Posco) (코크스 제조서, 서독이 양도한 프랑스 압연기. 총 7억 달러의 다른 프로젝트들에 참여). 제2의 국영 제철소 가능성(6백만 톤)
12)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 알스톰(Alsthom)社에 의한 인천 화력발전소, 소그레아(Sogreah)社에 의한 임계댐–조력발전 검토.
생고뱅(Saint Gobain)社 원자력 연구실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지켜보아야 함.
13)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 사젬(SACEM)–론풀랑(Rhône–Poulenc)–포클랭(Poclain)–(MEN) Baceom–세계은행을 위한 것.
14) 기술협력: 경제와 산업 연장과 참여를 위한 낭트 국립고등해양학교(ESMN,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Maritime)의 최근 임무 이후 수원 연구소

1.115.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41114
페이지: 185~186

1) 1974년 9월 5일, 에어버스는 1975년 7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인도할 수 있는 A300B4 6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음. 이 거래의 재정 조달은 월 임대료보다 낮은 잔존가치의 6% 이자에 12년간의 금융리스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인도 전 선금은 2번이고, 각각의 총액은 월 임대료의 1/2임. 이 거래의 총액은 대략 1억 7천만 달러임. 한국 측에서 얻은 보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계약 총액의 60%는 한국 정부 기구에 의해 보증됨.

– 계약 총액의 40%는 대한항공의 모기업 한진(Hangin)에 의해 보증됨.

에어버스는 채무 불이행과 비 반환의 경우 임대 중에 지급 불능 상태 및 정치적 위험 보증을 프랑스 정부와 서독 정부에 요청했음. 계약은, 대한항공이 한국에 에어버스 훈련소 설립을 위해 록히드마틴의 비행 시뮬레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에어버스는 2백만 달러에 이 거래에 참여할 것이고, 나머지 3백만 달러에 대해서는 7~8% 이자율에 90%의 재정 조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6대 구매계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증(10월 31일로 승인 예정)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

– 에어버스/대한항공의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 서독 정부의 승인은 10월 31일이 아니라 11월 6일 이루어질 수 있었음. 이 원칙적 승인에는 프랑스 측의 유보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해당 조항들, 특히 아틀라스(Atlas) 조항을 재협상할 것. 이 조항은, 계약 서명 후 100대의 에어버스가 외국 기업들에 구매되지 않았다면, 대한항공은 이 계약을 재검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계약의 12년 금융리스 조항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에어버스는 계약 취소하고자 할 것. 에어버스의 비아르(Viard)는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해야 함. 은행들은 대한항공이 제안한 신용임대자 재정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차원의 필요한 보증과 편의를 아직 얻지 못했음.

–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엑조세 양도 사이에 한국 측이 만들어 낸 관계와 관련해, 16~20대의 미사일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졌음. 이 결정은, 에어버스 판매가 확정되고 위에서 언급된 어려움이 해소된다는 조건에서 적용될 것.

1.116.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et projets de la SNIAS en Corée du Nor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에서의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41115
페이지: 187~190

1) 한국

막대한 군대(63만 명)를 갖고 있는 한국은 예산의 상당 부분(1974년 5억 5천8백만 달러)을 국방에 할애하고,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임. 그런데 대부분의 무기가 국방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됨. 최근, 한국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와 미국의 지원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무기 공급처의 다각화와 국내 군수산업 구축 의도를 드러냄.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프랑스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과 접촉함.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 판매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최근 3년 동안, 2백만 프랑). 1973년과 1974년

의 접촉(특히, 10월 초 드레투알(De l'Estoile) 총엔지니어의 서울 방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장갑차, 대전차용 미사일, 레이더, 탄창용 무기, 화약 공장, 미라주). 사전 조사 허가(와 몇몇 판매의 경우)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 의해 주어졌더라도, 이 허가는 구체화되지 않았음.

한국 정부는 대함미사일 엑조세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에게 꾸준히 이 무기를 요청하고 있음. 이 무기를 통해, 한국의 해군 역량을 북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북한은 소련 미사일 스틱스(Styx)를 갖춘 고속정이 있기 때문. 최근까지 프랑스는 이 요청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졌었음. 한국은 라이선스 건조된 프랑스 선박에 엑조세를 설치하려던 것에서 미국 선박에 엑조세를 설치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이 같은 변화가 망설이는 프랑스의 입장을 더 강화함. 대한항공에 대한 에어버스 6대 판매와 관련한 프랑스의 관심으로 인해, 프랑스는 태도를 바꾸게 되었음. 지난 9월에 체결된 에어버스 계약은 한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보증과 엑조세 양도를 명확하게 연결시켰음.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10월 15일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서 이 미사일을 한국 정부에 판매한다는 원칙에 동의(외무부는 미사일 판매 수를 20개 이하로 하길 원했고, 국제국은 30개까지 주장). 이 판매(5개의 발사대와 30개의 미사일, 1억 8천만 프랑)는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에어버스 거래가 최종으로 해결된 후에야 가능할 것. 주한 프랑스대사는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한국에 알릴 것. 엑조세 양도는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북한 프로젝트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

2)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북한 프로젝트와 한국 정부의 우려

북한 군대(47만 명)는 올해 7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있음. 북한의 군수산업은 경량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밖의 무기는 소련과 중공에서 공급받음. 프랑스 물자의 판매는 하찮은 것이지만, 헬리콥터 영역에서 이익이 될 만한 가능성이 생기는 것. 북한의 요청에, 1973년 말 헬리콥터 SA330(민간용)에 대한 조사 협상(조립 라이선스 양도 가능성과 함께)을 승인. 그리고 1974년 민간용인 2월 알루에트3(10대)과 가젤(10대) 판매를 위한 조사 협상을 승인.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100대가량의 푸마(PUMA)와 SA360(민간용)에 대한 라이선스 제조, 그리고 필요한 공작기계와 생산수단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훨씬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받았음. 이 거래를 위한 조사 승인이 1974년 4월에 연기되었음. 이 거래 규모(대략 18억 프랑)가, 재정부가 북한에 대한 헬리콥터 거래를 위해 동의한 신용 규모(5억 프랑)를 초과하기 때문. 프랑스의 유보 입장은 북한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국이 이 사안을 구실로 삼아 에어버스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됨.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북한에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임무단 파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대가량의 경량 헬리콥터의 판매는 신중하게 언급될 수 있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회담을 통해, 40대의 PUMA의 조립과 2대의 완제품 공급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총금액은 5억 8천 2백만 프랑이고, 이 중에서 4억 9천만 프랑은 5년에 걸쳐 할부로 지불. 그렇지만 이 의정서는 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승인이 주어진다면, 북한 임무단이 계약 체결을 위해 12월에 파리를 방문할 수 있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게 있어 이 거래의 이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정부의 동의가 에어버스에 대한 계약(한국)이 완결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음. 한국과 북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프랑스 헬리콥터에 관심을 가지길 바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관심이 있다고 하며 이 점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음.

1.117.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114
페이지: 191~192

외무부 전보 328/30와 336/37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504/07에 의거.
서독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의 보조금에 참여하겠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재정 메커니즘이 정해지고 몇몇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계약에 대해 승인할 수 있을 것. 한국 정부가 엑조세 양도와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정부 승인을 연계시키면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 에어버스 협상의 최종 단계를 수월하게 하려면, 대사는 에어버스 계약이 완전히 잘 종결된 후에 한국에 엑조세 일정 개수를 양도할 의향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주어도 됨. 이 정보를 전달할 가장 적절한 시기는 대사가 결정하길 바람. 미국과의 경쟁이 에어버스에 미치는 위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대사는 포드(Ford) 회장의 서울 방문 전에 엑조세에 대한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대사는 모든 다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아야 함. 특히, 미사일의 인도 기한에 관한 질문을 받을지라도, 답하지 말아야 함. 대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을 덧붙임.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북한에서의 40대가량의 푸마(PUMA) 헬리콥터 조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이 거래는 우리 측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주의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

1.118. Visite en Corée de M. Jean-Pierre Brunet (장-피에르 브뤼네의 방한)

생산일자: 19741123
페이지: 193~195

인용 시작: 방한 기간, 경제국장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재정부의 카사노바(Casanova)가 이 회담에 참석했음), 상공부 장관, 과기처 장관, 건설부 차관, IMF 대표와 회담을 했음. 그는 이 프로젝트 혹은 프랑스의 참여와 관련이 있는 중요 인물들을 만남. 또한 전(前) 경제기획원 장관이자 한국종합제철 태완선(Tae Wan Son) 사장도 만찬에 참석함. 외무차관과 경제 사안 관련 부차관과 함께 에어버스와 엑조세 관련 문제들을 언급.
에어버스와 항공 관련 양자관계에 대해, 브뤼네(Brunet)는 회담 동안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음. 외무부에서 받은 지시 사항으로 인해, 어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에어버스 판매에 관한 협상이 좋은 결과로 끝난 경우에만 엑조세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한국 측에 엑조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암시하는 것에 대해 브뤼네와 동의했음. 필요한 제조 기한을 고려할 때, 엑조세에 대한 우리의 결정 확정이 한국

계획의 실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외무차관은 만족한 모습으로, 프랑스 측의 이 같은 '연결 짓기'에 대해 원칙적인 거부를 보였을 뿐임. 그는 북한에 대한 제품 수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문서 마지막 단락에 대해 염려하게 됨.
우리는 한국 측 대화 상대자들에게 우리 의도를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거래 가능성은 정부 차원에서만 유지되도록 요청했음. 포드(Ford)의 도착 전날, 프랑스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한국 측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음. 다음 날, 브뤼네(Brunet)는 프랑스가 공급 계약이나 참여 계약을 체결한 포항제철소, 울산조선소, 대한알루미늄 공장을 방문했음. 대사는 그와 함께 21일 도쿄로 출발함. 서명: 랑디(Landy). 인용 끝.

1.119.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126
페이지: 196~196

한국 국회에서의 토론 동안, 여당 의원이 영국, 프랑스, 일본이 북한에 '전투기, 잠수함, 헬리콥터, 레이더'를 판매했다고 비난했음. 외무차관은 자신이 알기로는 없다고 답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사안을 최소화하는 정치 사안 담당 차관보에게 이 점을 암시했음. 해당 의원은 잘 알려진 친미 의원임. 하지만 에어버스 협상은 '10대 항공기' 조항과 미국 엔진의 재정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음. 엑조세에 대한 조건부 약속을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은 잘 지켜졌음. 하지만 북한과의 헬리콥터 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있었음. 우리의 한국 측 대화 상대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음.

1.120.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130
페이지: 197~199

1) 대사는 단호한 어조의 다음 노트를 외무부로부터 받았음.
인용 시작:

(1) 관련자들(한국과 프랑스)이 10월 초 드레투알(De l'Estoile)의 방한 때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가 논의 사안이었고 이 점에 대해 총리가 분명한 약속을 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람.

(2) 하지만 한국 측이 엑조세 구매도 동시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한 점을 다시 언급하고자 함. (현재까지) 엑조세 사안과 에어버스 사안은 따로 다루어졌음. 한국 정부가 먼저 엑조세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드레투알과 총리의 회담 후에야, 한국 정부는 동시에 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표명했음.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엑조세 구매계약과 에어버스 계약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길 원함. 총리의 이 생각이 아주 당연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

(3))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은 엑조세 구매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12월 초(5일)에 대표자를 파리에

보내기로 결정

(4) 프랑스 정부가 이 점에 대한 의도를 알려주길 바람.

(5) 무기 구매와 다른 거래를 위해 앞으로,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이 담당할 것이고, 그들이 프랑스와의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음. 인용 끝.

2) 외무부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사는 브뤼네(Brunet)의 방한 때에 다자간 협상과 엑조세를 분리시킨 논리를 한국 측에 다시 전달할 생각.

3) 대사는 우리가 엑조세 계약을 위해 한국 사절을 아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외무부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4) 에어버스 관련 은행 차원의 협상은 엔진 계약 거부로 인해 곤란해짐. 이 협상은 최종 계약의 실제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5) 포드(Ford)의 방한 후, 한국 측은 엑조세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얻길 원하는가?

6) 주한 프랑스대사의 정보에 따르면, 엑조세 조달에 긍정적 입장이 한국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 현지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임.

7) 대사는 신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

8) 대사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외무부에 있을 예정.

1.121.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204
페이지: 200~201

대사는 프랑스 출장을 구실로 외무차관을 만남.

1) UN: 프랑스의 수정안에 관련 서구 프로젝트의 수정에 대한 감사에 가까운 인사.

2) 키신저(Kissinger)는 출장 때 한국에 대한 중공 정부의 태도 관련 미국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몰랐던 것이 분명함.

3) 에어버스–엑조세: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560–564인 노트의 이상한 형식과 노(Loh)와 브뤼네(Brunet)의 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문서의 내용은 주한 프랑스대사의 책임임.

대사는 차관의 단호한 어조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동의한 거래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 그리고 에어버스 거래가 프랑스만이 관련된 것이 아닌 사안임을 감안할 때, 엑조세 사안이 에어버스 거래를 조건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언급. 미국 측의 방한 후, 국무총리는 엑조세 구매 결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그는 1975년부터 선박 2척의 무장화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받고자 함. 이 같은 공급이 가능하려면, 에어버스 거래 진척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요청을 어떤 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외무부의 몫임. 외무차관은 한국이 엑조세에 더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는 보고의 영향을 최소화했고, 엑조세와 에어버스 두 사안 모두에 한국이 관심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음.

1.12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Airbus et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한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206
페이지: 202~203

외무부 전보 No. 355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560과 569에 의거.
최근 진행된 이 사안 관련 임무단의 출장 이후, 국방부는 민간항공사무국과 에어버스 사안에 대해 상세한 평가를 했음. 국방부의 동의 아래,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1) 부수적이라고 판단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100대의 항공기 관련 조항'의 삭제는 거의 확실해진 상황. 은행 임무단은 신용임대계약 조항의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월 초에 서울로 다시 떠나야 함. 물론, 우리는 상대편에서 언급한 6번째 항공기 관련 어려움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우려하고 있음. 한국 측에서는 6번째 항공기를 옵션으로 돌리고자 함. 그래도 에어버스 협상에서 몇 가지 진전된 사항이 있음.
2) 이런 상황에서, 엑조세 협상이 12월 3번째, 4번째 주에 파리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그들이 볼 때 이 협상을 시작할 가장 적절한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당국에 이 점을 알려주면 됨.
3) 이 사안에 관한 협정은, 프랑스가 그들에게 했던 확약을 실천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 목표.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이 어떤 의혹도 갖지 않게 하려면, 대사는 에어버스에 관한 최종 협정이 체결되면 엑조세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적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한국 측에게 알려줄 수 있음.
4) 대사에게 정보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림. 국방부의 요청으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엑조세 계약 프로젝트 안에, 계약 실행을 프랑스 정부의 협정에 종속시킬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할 것. 의도는 3번째 항공기를 인도한 후에야 1번째 미사일의 수출을 허가한다는 것임.
5)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 임무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덧붙임.

1.123. 엑조세

생산일자: 19741212
페이지: 204~204

외무부 전보 No. 386/88에 의거.
어제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대사는 위에 언급한 전보의 첫 세 문단의 내용을 알렸음.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우리 제안의 의미와 영향을 완벽하게 파악한 것처럼 보임. 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엑조세 관련 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사전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 그는 강한 만족을 표하면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 협정에 빨리 이르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숨기지 않았음. 회담 날짜와 관련해, 김동휘 경제차관보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직원이 이미 파리에 있고 필요하다면 12월 15일까지 거기 머무를 수 있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림. 대사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 외무부에 전달하겠음.

1.124.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219
페이지: 205~206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고, 1974년 10월 초에 서울에서 진행된 김종필 한국 국무총리와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의 국제국(DAI) 국장 위그 드레투알(Hugues de l'Estoile)의 회담을 언급했음. 이 회담에서, 한국 국무총리는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를 살 수 있도록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드레투알에게 약속함. 그리고 그는 엑조세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음. 한국에 대한 엑조세 판매 관련 프랑스 정부의 원칙적 동의 후,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에어버스와 엑조세를 동시에 구매하기로 결정.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에어버스와 엑조세의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람.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바람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답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길 프랑스 외무부에 요청함.

1.125.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41223
페이지: 207~208

프랑스 외무부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인사의 말을 전하고, 에어버스와 엑조세 대함미사일 구매와 관련한 1974년 12월 19일 자 노트 SP/379에 의거하여 답함.
에어버스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김종필 한국 국무총리가 에어버스와 대한항공의 계약에 대해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기록함. 이 거래에 관한 협상은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외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람. 엑조세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가 한국 정부에 알려준 지시 사항을 확인.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엑조세를 한국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승인했고, 한국 측과 아에로스파시알은 12월 16일 파리에서 협상을 시작했음. 외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상이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기록했음. 외무부는 이 협상이 빨리 좋은 결론에 이르길 바람.

1.126. 에어버스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의 대한항공 접촉

생산일자: 19741230
페이지: 209~209

1) 대한항공 회장과 그의 동생에게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았음. 재정임무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도 동의를 원함. 대한항공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1번째 항공기를 1975년에 인도받길 원함. 시뮬레이터 거래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음.

2) 서울–파리 직항 개설이 예정되어 있음. 3월 14일. 주한 프랑스대사는 공식 대표들의 방한 관련 준비들에 대해 알릴 것. 그들은 일본의 반대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낙관적임. 일본항공(JAL)은 대한항공 외에도, 외국 항공사들(KLM, Lufhansa)과의 경쟁을 더 부추길 것.

1.127. 주한 프랑스대사의 한국 외무차관 회담

생산일자: 19741230
페이지: 210~211

한국 외무차관과의 만남에서, 대사는 에어버스 문제를 주로 언급했고, 라 바티(La Bathie)와 필롱(Pilon)에게서 받은 지시 사항(1974년 12월 7일 자 외무부 전보 386번)을 되풀이했음.

1) 다국적 프로젝트(에어버스)를 구하기 위해, 두 프로젝트의 연결 짓는 데 있어 양측의 관점이 다르다고 판단(12월 12일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569번과 585번). 엑조세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한 후 이 두 프로젝트(에어버스, 엑조세)를 동시가 아니라 차례로 진행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도를 분명히 밝힘. 노(Lo)는 약간 이의를 보였을 뿐. 에어버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이 노선을 지켜야 함. 샤부로(Chaboureau) 장군, 비아르(Viard), 주한 프랑스대사가 19일 저녁에 펠티에(Pelletier)와 했던 회담 후,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는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임. 특히, 김정남(Kim Chungnam)의 방문을 마치면서 기술 계약에 엑조세 구매자들과 서명해야 한다면, 계약 이행 시기에 관한 어떤 조항도 없어야 함. 이는 첫 번째 사안(에어버스)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됨.
2)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북한 관련 프로젝트의 중단에 대해 알고 있음.
3) 페시네(Pechiney)는 울산 투자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재무설계사(CFP)의 관심, 진행 중인 다양한 연합 프로젝트가 호의적으로 언급됨.
4) 전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5년에 계획된 내용들이 불확실한 상태지만, (한국 측은) UN에서 프랑스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함.

1.128. Airbus/Exocet (에어버스/엑조세)

생산일자: 19750103
페이지: 212~212

1974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프랑스 외무부가 교환한 구상서(口上書) 사본임. 참고하길 바라며, 기밀임.

1.129. 엑조세 임무단 권한 문의

생산일자: 19750108
페이지: 213~213

1) 에어버스 계약의 재정적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에, 방한하게 될 엑조세 관련 두 임무단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음. 임무단의 방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봄.
2) 간접적으로 받은 지시 사항에 의하면, 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가 구체화될 것.
3) 박 대통령의 개인비서가 엑조세 관련하여 어제 다시 연락이 옴. 1974년 12월 6일 자 외무부 전보 386번에 의거하여 답했고, 이 사안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에어버스 계약의 실행까지 가능한 한 비밀리에 검토되길 요청함.

1.13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 en Corée du Sud (양자협정에 근거한 한국에서의 엑조세)

생산일자: 19750110
페이지: 214~215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8번에 의거.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엑조세 양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두 임무단을 한국에 보내기로 계획. 첫 번째 임무단은 이미 서울에 도착했을 것. 이 임무단의 권한은 순전히 기술적 차원. 임무단은 우리의 발사대를 설치할 선박 건조의 진척 상황을 조사해야 함. 두 번째 임무단은 1월 11일에 파리를 떠날 예정이고, 엑조세 30개와 발사대 판매에 관한 상업적 제안을 한국 정부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하지만 임무단은 미사일 양도에 관한 계약에 서명할 권한은 없음. 이런 서명은 프랑스 정부의 동의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 프랑스 정부의 동의는 에어버스 계약 건의 잘 마무리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대사는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위에서 언급된 권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살펴봐야 함. 에어버스 협상을 재개할 임무를 맡은 대표단은 1월 16일에 일을 시작할 것.

1.131. 한일협력위원회

생산일자: 19750114
페이지: 216~217

8월 15일 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재 서울에서 만난 한일협력위원회의 토론이 언급되었고, 언론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문제를 거론했으며,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의 헬리콥터(400대), 일본의 글라이더(수량 모름) 및 잠수복(500벌) 등에 대한 북한의 최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모든 것이 남한에 대한 전쟁 준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함.
대사는 프랑스와 관련된 (이른바) 정보가 어떤 표현으로 제공되었는지 알기 위해 일본 동료에게 물어보고자 함.

프랑스 외무부가 동의한다면, 한국 외무부와 관련 언론사들에 대응하고자 생각.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는 유정회의 백두진(Paik To Chin) 회장과 한일협력위원회 의장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함.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대사는 한불관계의 약화에 대해 한국 외무부에 언급했음. 또한 우리가 비난받는 계약들 중에서,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밝혔음.

1.132. 한일협력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생산일자: 19750115
페이지: 218~219

1월 14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15–17에 의거.
일본대사에 의하면,

1)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판문점 남북협력위원회 남한 핵심 협상자인 장기용(Chang Ki Yong)이 언급한 것.
2) 일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확한 것으로 보임. 협상은 글라이더(500개)와 잠수복(500벌)에 관한 것임. 기시(Kishi)는 이 장비들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음.
3) 우시로쿠(Ushiroku)에 의하면, 파리에 있는 한국 무관이 일본 무관을 방문했음. 북한에 대한 헬리콥터 400대 공급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서명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상황 악화를 막도록 일본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포기해달라고 요청.
4) 문제가 되는 정보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모욕이나 협박성 전화를 받았음. 대사는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음.

1.133.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Vente d'armement (양자협정에 근거한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50117
페이지: 220~220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15(1)7과 19/21에 의거.
북한은 우리에게 헬리콥터나 군사 장비 관련 주문을 하지 않았음. PUMA 헬리콥터(40대) 조립 라이선스 양도 프로젝트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서 연기되었음. 북한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0대가량의 경헬리콥터(알루에트(Alouette) 혹은 가젤(Gazelle))의 판매도 마무리 짓지 못했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의 핵심 협상 대상자들을 향한 대사의 반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한일협력위원회 토론에서 한국 대표단이 주장하여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른바 북한의 주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

1.134. 에어버스와 엑조세

생산일자: 19750124
페이지: 221~221

에어버스에 관한 프랑스 협상은 며칠 전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음. 서독 대표, 에어버스 대표가 협상에 참석. 1974년 9월에 서명한 계약은 6대가 아니라 4대의 항공기에 관한 것일 뿐임이 틀림없음. 한국 측이 마지막 2대를 옵션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에어버스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채택한 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음. 엑조세에 관한 협상도 이와 함께 이루어졌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임무단 책임자에 의하면, 한국 측은 신용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때만 엑조세 프로젝트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봄.

1.135. 엑조세 판매 관련 미국 측 의견 수집

생산일자: 19750205
페이지: 222~222

프랑스해군무기수출회사(소프렉산: La SOFREXAN, Societe Frangaise d'Exportation d'Armement Naval)의 피에릭 루레(Pierrick Roullet)과 접촉하길 외무부에 요청. 그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 해군 장교들과 서울에서 만났고, 엑조세 판매에 대한 미국 측의 주요 반대 의견 정보를 수집했음. 이것은 엑조세 사안과 에어버스 사안 사이에 연결고리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임.

1.136. 에어버스 협상

생산일자: 19750207
페이지: 223~223

이전 전보에서 빠진 부분
"에어버스 협상은 한국 측의 이의 제기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난항이어서, 계약서 작성과 서명에 한두 주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1.137. 에어버스 협상

생산일자: 19750207
페이지: 224~224

에어버스 협상은 한국 측의 이의 제기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난항이어서, 계약서 작성과 (빠진 부분).

미사일 담당 대표인 데브로(Debrot)는 우선 두 척의 선박 무장화를 위한 20개의 미사일만을 위한 계약에 이런 상황에서 서명할 수 없다고 결국 인정. 그는 일요일에 출국함. 대사는 그에게 인내심을 갖자고 했고, 프랑스 외무부와 접촉하라고 요청했음.

첨언: 첫 번째 문단에서 빠진 부분 복구 요청

1.138. 에어버스 금융리스

생산일자: 19750208
페이지: 225~226

에어버스 금융리스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온 은행 임무단은 2주 넘게 한국 정부와 보증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2월 5일 출국함. 한국산업은행(KDB)은 항공기를 담보로 하지 않고는 보증할 수 없다고 여김. 이 입장은 프랑스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임무단 출국 후,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대표에게 다음처럼 재정계약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 리스 회사에 의한 매년 지불 내용 증명서
- 3개월마다 상환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연도에 그 대가로 대항항공이 항공기 소유권의 1(1)2를 획득했음을 인정하는 증서

이 증명서들이 한국산업은행에 담보 구실을 할 것. 한국산업은행이 은행 임무단의 출국을 기다렸다가 이런 제안을 한 점이 예상 밖일 수 있음. 하지만 한국 측의 이 제안은 현재의 난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한국 측의 제안을 고려한 법률적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139. 엑조세

생산일자: 19750208
페이지: 227~227

처음으로, 미국대사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엑조세를 한국에 판매하려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암시했음. 대사관 측은 주한미군 관련 가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음. "한국이 이로 인해 무엇을 할지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음. 다른 소통을 통해, 예정된 거래들에 관한 최근 상황을 전달할 것.

1.140. 에어버스 협상

생산일자: 19750211
페이지: 228~228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56번에 의거.
에어버스의 협상가는 은행 임무단의 출국 이후에도 한국에 있으며, 이번 주 말에 출국할 예정임.
은행들은 한국 측의 제안을 고려하고, 임대 기간 만기 후에 임차인에게 항공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곧 프랑스 당국에 제출될 이 문서는 최고위층의 정치적 중재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난관에서 우리를 구해줄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짐. 그러므로 이 제안에 아주 빨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141. Corée Airbus (한국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0212
페이지: 229~229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은 에어버스 항공기 4대와 옵션으로 2대 구매에 관한 것. 이 거래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행 보증 방식을 찾기가 어려운 점임. 이 막다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KDB)은 항공기 임대인(대한항공)이 임대 기간 만료 후에 항공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방식을 제안했음. 이 제안에 대해 이제 우리(프랑스 은행들)가 입장을 밝힐 때임.

1.142. 에어버스 계약 재정 보증

생산일자: 19750215
페이지: 230~230

에어버스 계약의 재정 보증에 대한 긴 논의는 비아르(Viard)의 인내심과 능숙함, 그리고 우리 외교관들의 압력 덕분에 긍정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임. 이 주제가 다른 몇몇 유럽 국가들에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엑조세 협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난관에서 벗어나게 될 것. 비아르가 파리에 돌아오면 지연되는 상황 없이 엑조세 계약을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고, 에어버스 항공기들의 한국 인도시기를 가능한 가까운 날짜로 정할 것.

1.143. Exocet / Corée du Sud (엑조세 / 한국)

생산일자: 19750218
페이지: 231~234

1) 문서 전달 양식(231쪽)

– 발송인, 수신인 명시

– 전달 이유: 정보 전달

– 파리, 1975년 2월 19일

2) 노트(232~234쪽)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한국에서의 엑조세 협상을 맡긴 데브로(Debrot)는 서울에서 한 달가량 보낸 후 지난 주 말에 파리에 돌아왔음. 다음은 2월 17일 대사와 그의 회담 내용임.

(1) 미국 측은 한국이 엑조세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임. 미국 측은 미국 라이선스 아래 한국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예정된 것과 달리) 프랑스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한국은 타코마조선공업에 의해 건조되었지만 순수하게 한국에 의해 설계된 200톤짜리 초계정에 엑조세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음. 한편, 미국은 엑조세의 경쟁 무기인 하푼을 제안함. 어쨌든 미국은 1976년 말, 1977년 초 전에는 하푼을 한국에 인도하지 않을 것. 어쩌면, 한국에 이 무기를 인도할 계획이 없을지도 모름.

(2) 엑조세 프로젝트는 아주 미국화된 한국 해군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렸음(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회장은 한국 국무총리의 형).

(3) 엑조세 프로젝트의 재정 조달을 위해, 한국 해군은 20개 미사일 구매까지만 가능한 포괄 예산(3천8백만 달러)을 갖고 있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의하면, 예정된 거래의 총액은 1억 6천7백만 프랑임(20개의 미사일, 선박에 설치될 발포대, 레이더, 정비 작업대 등). 지불은 주문에서 30%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70%는 신용으로 처리됨. 이 조건은 대외경제관계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한국 측은 미사일이 1번째 선박을 위해 1975년 10월 31일에 납품되고, 2번째 선박을 위해 1975년 12월 31일에 납품되길 요청함. 이 기한은 아 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의해 준수될 수 있고, 엑조세 계약은 2월 말 전에 서명될 것.

(4) 데브로(Debrot)는 1월 말에 서명하길 원했으나 에어버스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서명하지 못함. 우리가 이 점에 대해 준 지시 사항은 준수되었음. 엑조세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에어버스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명백함. 타코마 회장은 에어버스 협상을 빨리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 여러 번에 걸쳐 접촉한 것으로 보임. 에어버스 협상이 오늘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번 주에 에어버스 재정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이런 상황에서, 데브로는 엑조세 계약에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수 있길 바람. 이 계약에는, 만약 90일 이내에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 해지를 규정하는 해지 조항이 포함될 것. 하지만 데브로는 이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길 바라고, 정치와 무관한 협정이 되길 바람.

추신: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에어버스 계약이 막 서명되었다고 대사에게 알려왔음(1975년 6월18일).

1.144. 에어버스 구매 계약 체결

생산일자: 19750219
페이지: 235~235

전보 No. 68–69번에 의거.
대한항공에 의한 에어버스 6대의 구매 계약(4대 확실, 2대 옵션)은 어제 서울에서 체결되었음. 이 계약 체결을 위한 어려운 협상에서 비아르(Viard)는 최고의 협상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음. 재정 보증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60%를 담당하고,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 그룹이 40%를 담당. 대사는 페를르바드(Peyrelevade) 임무단이 정한 계획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계약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빨리 승인해 주길 요청하기 위해 한국 국무총리를 곧 만날 것. 대사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의 경영진과 만날 것임. 엑조세를 위해 서명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면, 에어버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의 사전 준비와 좋은 결말을 보장하기 위해 지연과 해지 조건에 의해 필요한 잠금장치를 유지하면서 서명해야 함.

1.145. 폴리시우스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0220
페이지: 236~238

1) 문서 전달 양식(236쪽)
– 발송인, 수신인 명시
– 전달 이유: 정보 전달
– 파리, 1975년 2월 21일

2) 노트(237~238쪽)
폴리시우스(Polysius) 프로젝트에 관한 서한 내용을 알게 되었음. 이 프로젝트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림.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넘어서는 안 되는 지점에 이른 것으로 다시 여겨지는 시점에, 그리고 귀하가 (에어버스,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생고뱅(Saint Gobain), 원자력연료연구및생산회사(CERCA, Compagnie pour l'Étude et la Réalisation de Combustibles Atomiques)) 의 목표 달성에 적지 않게 기여한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 위험을 제한하려는 이 결정은 다양한 소식통의 정보 때문에 강화됨. 이 정보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특히 투자가 이런 동일한 리듬으로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음. 외채 수준 때문에 경제활동이 더 증대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 정세가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며칠 내로 이 점에 대한 협의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과 이루어질 것. 그 결과가 부정적이면, 우리는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 Compagnie Franç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가 폴리시우스 사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추후의 새로운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함.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

도의 중요성을 띠게 될 때, 한국 측과 교섭하기 전에 우리에게 문의하라고 권해야 할지 알 수 없음.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유용할 것. 피에베(Fievet) 또는 그의 보좌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1.146. 엑조세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의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회장과의 회담

생산일자: 19750220
페이지: 239~240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회장(국무총리의 형)과의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예정된 조건 아래, 엑조세 계약이 파리에서 보장되자마자, 웅반키엠(Ung Van Khiem)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적합한 선금이 지불될 것.
2) 미국의 결정 권한 외의 영역에서, 스스로 국방 계획을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3) 한국 대통령은 친미 최고사령부 장성들의 망설임을 무시하기로 결정함. 이 점에 관해서,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임.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1976년 말에 하푼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임. 제공 날짜, 정보, 일정, 가격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미국 측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머피(Murphy) 상원의원의 친구이자 베테랑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융숭한 대접은 받은 김(Kim)은 프랑스 미사일 엑조세의 구매를 인정했음. 미국 측의 회피로 인해, 프랑스 미사일은 한국의 국방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됨.
4) 김종락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적어도 엑조세 양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프랑스가 북한과 군사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주요 협상도 하지 않길 대사에게 명확하게 요청했음. 1월 15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 19번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고, 대사는 이 불확실한 영역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함.

현재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임. 대사는 프랑스가 이미 예정된 안전 담보를 포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함. 이 전보의 4번째 항목은 파리에서 김동조 외무장관에 의해 언급될 것이 분명함.

1.147. 에어버스 재정 계약 승인 문제

생산일자: 19750225
페이지: 241~241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68–69에 의거.

2월 18일에 서명된 에어버스 재정계약에 대해 은행이 빨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국 정부의 최종 승인과 외환 해제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음. 한국인들이 첫 번째 에어버스 항공기 인도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를 늦추지 않아야 함.
대사는 은행 임무단의 서울 방문을 위해 크레디 리요네(Crédit Lyonnais)와 BFCE와 접촉하길 프랑스 외무부에 요청함. 서독대사관은 서독 은행 참여와 관련해 서독 정부에 이미 동일한 요청을 했음. 프랑스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서독 은행 측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 이 협상이 유럽경제공동체 성격을 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148. Financement du contrat Airbus–Corée (에어버스–한국 계약의 재정조달)

생산일자: 19750227
페이지: 242~244

1) 문서 전달 양식(242쪽)

2) 노트(243~244쪽)

주한 프랑스대사는 지난 2월 18일에 서명된 에어버스 계약을 인준해야 하는 은행 임무단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 오길 바람(2월 25일 자 91번 전보). 크레디 리요네(Crédit Lyonnais, 페를르바드(Peyrelevade))와 BFCE(콜랭 드 베르디에르(Colin de Verdière)는 이 임무단의 급파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경제재정부가 구두로 약속했던 약속을 문서로 확인해 준다고 하는 조건이라면, 임무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이 두 은행에 따르면, 재무부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철회하려고 함.

(1) 에어버스 계약에 대해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가 95% 보장. 나머지 5%의 경우, 경제적 위험 정도로 인해, 이 두 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로부터 수출업체(에어버스)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었음.

(2) 임대료는 미국 달러로 계산되지만, 재정조달은 프랑스 프랑과 서독 마르크로 계산됨.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는 환율 위기의 대부분을 보장함. 크레디 리요네와 BFCE는 수출업체에 나머지 위험을 맡기는 것에 대해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었음.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재무부가 오늘 그 승인을 거부함.

(3) 세금과 대여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을 아직 해결해야 함.

은행들은 프랑스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서독의 재정 조달도 재고될 수 있다고 여김. 프랑스 은행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에어버스 계약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드레스드너 방크(Dresdner Bank)는 은행들을 모으는 데 이미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 국고국(Trésor) 측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음. '곧 해결이 될 것.' 경제재무국은 주한 프랑스대사의 91번 전보를 국고총국(Direction du Trésor)에 전달했음. 그러면서, 프랑스 국내의 최근 어

려움들로 인해 프랑스 산업에 중요한 계약 전체가 재고될 수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는 것과, 한국 정부가 보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음.

1.149. 에어버스와 엑조세 관련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면담

생산일자: 19750228
페이지: 245~246

대사는 한국 국무총리와 긴 시간 면담을 했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재기가 넘치고 심지어 즐거워 보였음. 국민투표 이후 소문과 달리, 그의 행동에서는 그를 위협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었음. 게다가 그는 국가 사안에서 '데탕트'를 자랑함. 회담의 목적은 에어버스 계약에 대한 정부의 빠른 승인을 요청하는 것. 김종필은 망설임 없이 이에 대해 약속했음. 따라서 2월 25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91–92번의 대상인 임무단을 재촉하는 것이 중요(비아르(Viard)에게 알려주길 바람).

국무총리는 미국에서 비롯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협상의 최종 단계에 총리가 직접 관여하겠다고 말했음. 미국 대사는 최근까지 한국의 에어버스 구매보다는 엑조세 구매를 더 포기시키고자 노력했음. 하지만 국무총리는 "미국이 이제 포기했다."라고 결론지었음. 엑조세에 대해, 김종필 국무총리는 한불관계 전체를 특징짓는 신뢰 교환을 강조했고, 특히 두 계약을 매듭짓는 것에 대해 강조했음. 대사는 엑조세 협정의 조건부 성격을 상기시켰지만, 이미 이루어진 기술적 조항들이 한국 측을 누그러뜨린 것이 확실함. 김동조 외무장관은 프랑스의 조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말을 인용할 것. 프랑스의 협력 증거에 대해 김종필 국무총리의 호의적인 인사를 받고, 대사는 임계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프랑스를 선정해 준 것과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다시 감사했음.

1.150. 에어프랑스 노선

생산일자: 19750228
페이지: 247~248

앞선 전보에 이어진 것임.

에어버스의 구매와 함께, 파리 구간을 향한 대한항공의 활동도 언급되었음. 대사는 707만이 서울–앵커리지–파리의 대한항공 노선 운행 허가를 받게 될 이유를 언급했음. 놀랍게도, 김종필 국무총리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음. 에어프랑스의 도쿄 노선의 베이징으로의 연장 가능성에 관한 것. 서울을 경유하면 좋겠다는 말이었음. 이틀 전,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점에 대해 도쿄에서 에어프랑스 스톡켈(Stockel) 사장과 면담을 했음. 그는 에어프랑스가 파키스탄 노선처럼 북한 상공 통과를 위해 협상을 개시해 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었음. 어떤 흥정을 북한에 제시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약간 불안하게 이 이야기를 들었음. 아주 능숙하게, 한국 국무총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음. 국무총리는 서울 경유로 인해 도쿄에 한 시간 늦게 도착하게 된다고 해도 이 1시간은 미국 관제 지역의 우회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내게 말했음(한국–일본–대

만). 이것은,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오는 항공기와 승객들의 한국 항공 양방향 횡단을 (필요하다면) 미국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기록해 두어야 할 사항임. 중공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거치는, 중공의 우방국들이 아닌 많은 경유지를 용인하고 있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프랑스-일본이라는 이 구실 아래 중공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정치적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음. 그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그런 협상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음. 북한 상공 비행의 모든 프로젝트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생각일 것.

1.151.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Exocet/Airbus. (양자협정에 근거한 엑조세/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0303
페이지: 249~249

엑조세 20개와 두 선박에 대한 설치에 필요한 장비들과 관련한 총 1억 6천7백9십만 프랑짜리 계약은 아에로스파시알과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사이에 2월 28일에 체결되었음.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1975년 5월 31일까지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프랑스 정부에 인정하는 서한을 동일한 날짜에 외무부에 건넸음.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측의 염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만약 엑조세 계약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 해지된다면 한국 정부는 에어버스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그 서한(다음 외교행낭을 통해 사본을 대사관 측에 보낼 것임)에 포함시키는 것을 받아들였음.

1.152. Ventes d'arm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50306
페이지: 250~252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수입국 중의 하나임. 현재까지 미국과의 방위협정으로 인해 무기 구입처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여러 영역에서 북한에 비해 열등한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미국이 공급할 것 같지 않은 몇몇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은 무기 수입국들을 다양화하고 한국 자체의 군수산업을 갖추려는 의지를 피력했음. 이 문제로, 한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접촉함. 현재까지 프랑스의 판매는 거의 부재한다고 보아도 무방(최근 3년간 2백만 프랑). 1973년과 1974년에 했던 접촉(특히, 10월 초 드레투알(De l'Estoile)의 방한)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장갑차, 대전차미사일, 레이더, 탄약장치, 화약 공장, 미라주(Mirage)). 해당 조사 허가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 허가는 구체화되지 않았음.

현재 한국은 엑조세에 관심이 있음. 북한은 소련 미사일 스틱스(Styx)를 갖춘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은 자신들의 무기 시스템(하푼)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며, 한국은 프랑스에게 아에로스파시알이 제조하

는 엑조세를 끈질기게 요청했음. 한국은 대한항공이 지난 9월에 체결한 에어버스 계약이 엑조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한된 수의 엑조세 미사일 판매에 동의했고, 이것은 에어버스 협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이후, 2월 28일에 아에로스파시알과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은 엑조세 미사일(20개)과 경량톤 선박을 위한 설치 장비 관련 총 1억 6천7백9십만 프랑짜리 계약에 서명했음. 거래는 20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것. 미사일이 올해 말까지 납품될 예정이기 때문.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한국은 엑조세 계약에 서명하는 날에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만약 1975년 5월 31일까지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정부는 엑조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인정했음. 우리가 사전에 승인한 표현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만약 엑조세 계약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 해지된다면,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나 어려운 협상에서 도출된 양측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는 일만 남았음. 무기 판매 차원에서, 엑조세 양도에 대한 동의를 통해 우리가 보여준 호의로 인해, 프랑스가 한국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리를, 미국이 거부하는 '민감한' 장비의 공급 국가로만 간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우리는 북한에 어떤 무기 장비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작년에, 우리는 북한에 (민간용) 경헬리콥터 20대 판매를 허가했지만, 이 거래는 실현되지 않았음. PUMA 헬리콥터(약 40대) 조립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허가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연기되었음. 하지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요청한 조사 승인은 지난 4월에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에 의해 연기되었음. 한국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와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임. 한국은 우려를 알렸고, 한국이 에어버스 구매와 북한의 일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가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국은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입장. 경제재무국의 의견에 따라, 모든 평가 요소를 판단하기 전에 이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일 것. 몇 달 후면, 우리는 남한과 북한 의도의 진지함에 대해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한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프로젝트를 암시한다면, 이 사안은 계류 중이라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북한이 우리에게 400대의 헬리콥터를 주문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한국 내의 소문에 정당하게 놀라움을 표시할 수 있음.

1.153. Exocet – États–Unis (엑조세 – 미국)

생산일자: 19750308
페이지: 253~254

주한 프랑스대사는 미국대사와 오찬 회동을 했음. 스나이더(Richard Lee Sneider) 미국대사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엑조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음. 스나이더는 한국 대통령이 하푼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미국 측의 뜻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았음. 이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 정책을 위해 한국 정부에게 '잃어버린 돈'이 될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보았음.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계약을 어떻게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제시했는지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였음. 그 사안

에 대해,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 결여로 인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여김. 이 독자적 태도는 미국 하원에서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에 대한 비용 절감 입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프랑스대사는 이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아주 단호했다고 미국대사에게 말했음. 프랑스도 어떤 단계에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질문을 했었음. 스나이더 미국대사는 에어버스 거래와 엑조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요청받은 미사일 수량, 미사일이 설치될 선박의 제한된 사용 가능성,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거래의 전략적 영향력이 낮다고 그는 판단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장비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안에 포함될 것인지 미국대사에게 질문했고, 그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답했음. 엑조세는 단지 하나의 열쇠만을 가질 것. 엑조세 미사일의 제한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우려할 만함(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4번). 미국은 (주한 프랑스대사 역시) 한국이 엑조세 양도 소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

1.154. Fournitures anglais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영국의 무기 제공)

생산일자: 19750308
페이지: 255~255

국방 관련 한국의 첫 번째 외도와 엑조세에 관한 논의에서, 스나이더 미국대사는 영국이 고금리로 한국에 잠수함을 제공한다고 알려주었음. 미국은 더 이상 '중고'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중공, 인도네시아 등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라고 스나이더 미국대사는 말함. 그에 의하면, 이 구매는 엑조세 구매와 마찬가지로 과시용임. 북한의 몇몇 잠수함은 그 위치를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고, 느리고, 소음이 많고, 자주 수면으로 올라옴. 적대 행위 발생 시 쉽게 침몰당할 것. 북한 잠수함들은 수면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수심 깊이 들어가지도 않음.

1.155. Exocet (엑조세)

생산일자: 19750310
페이지: 256~256

페를르바드(Peyrelevade) – 크레디 리요네(Crédit Lyonnais)를 위한 메시지.
프랑스대사는 어제 미국대사와 해당 사안을 논의함. 그는 한국이 원하는 재정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렸음. 대사는 그 말이 속임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무부에 전달함.

1.156. Politique de défense de la Corée (한국의 국방정책)

생산일자: 19750314
페이지: 257~258

북한과의 적십자회담에서 수석 대표였던 이범석이 여러 번에 걸친 그의 평양 방문에 관한 신기한 영상을 보여주었던 저녁 프로그램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주한 유엔군 머피(Murphy) 사령관과 긴 대화를 나누었음. 머피 사령관에 의하면, '하푼을 소유할 때까지 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엑조세 구매로 시작한 한국 새로운 자주국방 프로그램은 한국 국무총리 형의 사업이 되었음. 영국 외에, 이탈리아가 잠수함 판매를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 미국 댈러스에서 제조된 전투폭격기 A-7을 구매하려고 노력했었음. 그런데 이 전투폭격기는 국방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예정된 무기 목록에 없음. 미국은 해군과 공군에서 국제 안보를 위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벽을 허물어뜨리려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음.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위험 상황이 심리적 차원이고 과시용인 만큼 한국의 이 같은 탈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미국 하원에 보고해야만 할 것. 그 결과는 미국 하원에 씁쓸한 것이 될 것. 마지막으로, 고려 중인 다양한 장비에 대한 현재의 재정 조달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1.157. Fourniture anglaise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영국의 무기 제공)

생산일자: 19750401
페이지: 259~259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120번에 의거.
영국대사에 의하면, 한국의 영국 잠수함 구매에 관한 협상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결렬될 것으로 보임.(잠수함 1대당 2천만 달러) 한국은 영국의 설계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제조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적어도 현재로서는 자체 제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영국과 미국은 잠수함이 한국 재정 수준이나 국방의 필요에 적합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에 이해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임.

1.158.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0421
페이지: 260~260

에어버스의 베르나르 라티에르(Bernard Lathière) 회장의 다음 메시지를 상무 담당 참사관에게 전달해 주기 바람.
인용 시작.

1) 이 사안이 은행 문제로 인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대사관 측이 FTO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받고 있기를 바람. 현재, 이 문제는 프랑스 측에서는 해결되었지만, 서독 측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 하지만 이달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KDB) 총재가 한국 임무단과 함께 5월 8일, 9일, 10일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방불 기간 중 5월 9일에 아마도 툴루즈 에어버스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 방문이 특정 목적

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길 바람. 서명: 베르나르 라티에르(Bernard Lathière). 인용 끝.

1.159. Airbus: Garantie du groupe Hanjin (에어버스: 한진 그룹의 보증)

생산일자: 19750421
페이지: 261~262

인용 시작. 에어버스: 한진 그룹의 보증.
에어버스–대한항공 서류 54018 관련 4월 11일 자 외무부 텔렉스 021104에 의거.
첫째, 대한항공 조중건(C.K. Cho) 부사장은 최근 방불 기간, 한진 그룹 보증에 대한 동양화재(Société orientale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LTD.)의 철회와 관련해 페를르바드(Peyrelevade)로부터 직접 은행들의 정식 협정을 얻었다고 확인함. 둘째, 동양화재는 한국 재정부의 동의 없이 보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임. 하지만 이 사안을 위해 이 같은 동의가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생각할 이유가 없음.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는 동양화재해상보험(OFMI)의 자산에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확인. 발행된 주식 340만 주 중에서 1백8십9만 4천 주를 파트너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대사관은 1973년 한진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와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외무부 측에 별도의 우편물로 보낼 것. 어떤 조건에서 동양화재가 유지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한국 행정부와 교섭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협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은행들 측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서명: 필롱(Pilon). 인용 끝.

1.160. La KAL: Airbus et Concorde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콩코드)

생산일자: 19750421
페이지: 263~263

인용 시작. 제목: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콩코드.
어제, 주한 프랑스대사는 대한항공의 사장과 부사장(조중훈, 조중건)을 맞이했음.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언급하기 위해 조중훈 사장의 말을 옮기면서, 대사는 태평양 횡단 '콩코드'에 대한항공을 위한 일정 수의 좌석을 할당할 가능성을 언급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노련한 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보를, 만일을 대비하여 전달함. 조중건(C.K. Cho)은 마닐라 민간항공 책임자에게 에어버스를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했으며, 그가 아시아에 유럽 항공기를 보급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서명: 필롱(Pilon). 인용 끝.

1.161. 에어버스 관련 방불 소식

생산일자: 19750422
페이지: 264~264

주한 프랑스대사는 4월 21일 자 외무부 전보 No. 85/86에 회신함.

1) 협상의 지연은 계약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음. 서울을 방문한 폰 트루슐러(von Truschler)는 그 어떤 대여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음.
2) 총재 김(Kim) 장군은 이미 마닐라로 떠났음.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프랑스 방문은 주로 페시네(Pechiney)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그의 툴루즈 방문은 에어버스 거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그는 9일에 은행들과 만날 약속을 정했음.
3) 이 방문에서, 그가 계약의 보증 감소 최소화를 얻어내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거래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이 점에 대해, 대사관 4월 21일 자 전보 No. 195(1)96 참조).
4) 이런 상황에서, 대사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자 함.

1.162. Vente d'armes en Corée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50430
페이지: 265~266

국방과학연구소(ADD) 심문택(Shim Moon Taik) 소장을 만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받음.

1) 프랑스 무기 수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2) 관련 프랑스 정부 기관은 무엇인가?
3) 다른 정보들

총리실이나 외무부, 국방부를 통한 접촉이 아닌 만큼, 이 같은 행보가 특이하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무총리 개인비서와의 오찬 회동에서 질문을 했음. 1975년 4월 26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219번의 3번째 문단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무기 분야에서 한국의 요청 가능성에 대해 국무총리 개인비서에게 이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음. 국무총리 개인비서 안(Ahn)은 국무총리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음. 그렇게 해서 그 접촉이 공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엽적이라고 결론지음. 프랑스 측과만 이렇게 접촉했는지 알아내고자 함. 이는 다양한 모델의 무기를 구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음. 페시네(Pechiney) 한국 책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관련 아주 특징적인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군수물자 제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그런가 하면, 영국이나 스위스로부터 알아낸 것처럼, 한국은 우리의 첫 번째 판매 이래로 제조사들과 직접 협상하려고 함. 물론, 양국 정부의 허가 아래서이지만, 다른 중재자 없이 협상을 진행하려고 함. 정부나 기업가들이 지불하긴 하지만, 중개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들었음. 이 세부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음. 한국 현지 프랑스 중재인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만 본 대사관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

문. 한국에서의 프랑스의 첫 번째 거래에 대한 국무총리의 유일한 언급은 엑조세를 설치할 고속정 건조와 관련해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강조함. 프랑스 외무부가 동의한다면, 주일 프랑스 무관이 회신 정보를 갖추어서,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 서울 출장 시에 그 회신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제안할 것.

1.163. Vente d'armes en Corée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50507
페이지: 267~267

톰슨-휴스턴(Thomson-Houston) 대표들이 엑조세를 설치할 고속정을 위해 한국에 제안한 발포 방향 조종 장치는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구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67 대포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들 대표들이 알려옴. 이 결합은 서독의 무장 선박에서 이미 유효성을 증명한 것으로 보임. 대표들은 자신들의 발포 방향 조종 장치를 지지해 달라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요청했음.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 국제국(DAI)은 이 장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가 그런 구매를 위한 재정 조달에 어느 정도까지 동원이 될지 알지 못함. 따라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리오브(Riobe)에게 프랑스 외무부와 국방부와 검토를 해 보라고 충고했음. 이들 부서는 한국 관청들에 대해 관여하는 데 필요한 지시 사항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한국 정부는 제조업체와의 직접적 접촉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약간 망설임을 갖고 있음. 우리 경쟁국들은 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음. 프랑스대사는 이탈리아대사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시도할 것.

1.164. 이탈리아의 오토멜라라(OTO Melara) 대포 조사 방문

생산일자: 19750515
페이지: 268~268

5월 7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248/249번에 의거.
이탈리아대사는 무기 구매 관련해 여러 한국 임무단이 특히 오토멜라라(OTO Melara) 대포 조사를 위해 최근 로마를 방문했다고 확인해 주었음. 이탈리아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사안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함. 따라서 톰슨 CSF가 제공한 정보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

1.165. Ventes d'armes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50515
페이지: 269~269

한국 국무총리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조사 서한을 작성하도록 했음.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상한 요청에 대해서

는 1975년 4월 30일 자 대사의 전보 No. 231/233번에서 언급한 바 있음.

1.166.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0530
페이지: 270~270

공인된 한국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에어버스 대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에어버스 항공기 6대에 대한 거래재정계약 전체에 대해 최종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기술재정 관련 계약 변경 조항은 크레디 리요네(Crédit Lyonnais) 은행과 타코마 사이에 체결되었음. 이 변경 조항의 목적은 엑조세를 위해 예정된 4년 신용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프랑스 은행에 추가로 1개월 더 제공하는 것. 이 추가 기간 동안, 프랑스 은행은 에어버스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기다릴 수 있음.

1.167.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0531
페이지: 271~271

대사관 전보 No. 330번에 의거.
에어버스 대표는 한국 정부가 에어버스 거래의 재정계약 전체를 승인했음을 알려줌.

1.168. Fusées–sondes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관측 로켓,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노트)

생산일자: 19750604
페이지: 272~273

프랑스 국방부 국제국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한국에 대한 관측 로켓 판매 승인을 얻고자 한다고 외무부에 알렸음. 경제국의 담당자에 의하면, 사정거리 300킬로미터인 관측 로켓은 250킬로그램의 군수 장비를 옮길 수 있음.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로부터 합성 추진체의 생산 방식과 엔지니어링을 얼마 전 획득한 한국은 이 관측 로켓에서 파생된 미사일을 제조하고자 함. '추진체' 계약 서명(1974년 9월 26일)의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 승인 시에 한국에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음. 이 거래는 관측로켓의 양도와 어떤 경우에도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음. 프랑스 국방부 국제국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대해 아주 유보적 입장을 보임. 그리고 국방부 국제국은 프랑스 외무부가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가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이 양도를 분명 거절할 것이라고 전달함.

1.169. Ventes d'Airbu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에어버스 판매)

생산일자: 19750819
페이지: 274~281

차례

–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에어버스 판매 과정
– 한국 정부의 태도
– 직접 거래 시스템 도입 결여로 인한 불리한 결과
– 엑조세 판매 관련 프랑스 국익과 에어버스 거래를 결부 지은 실수
– 미래 전망

대한항공이 실물거래로 매입한 4대의 에어버스 중에서 첫 번째 항공기가 1975년 8월 11일 월요일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음. 프랑스 국익에서의 기여가 분명한 이 사업거래가 최종 완결되어 기쁨. 하지만 이 거래가 한국 정부와 우리의 경제 협상 미래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는 달갑지 않음.

***

한국의 고위층에 따르면, 에어버스 구매 협상에 이로운 조항들은 절대 반박 받지 않았음. 이 거래의 씨앗이 툴루즈,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SNIAS) 공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 그곳에 비즈니스 제트기 '미스테르 20(Mystère 20)'이 얼마 전 착륙했으며, 1973년 5월 8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김종필 국무총리와 함께 주한 프랑스대사가 들렀던 곳임.

첫 번째 에어버스 항공기는 우리의 도착 지점 맞은편에 있었음. 그것이 프랑스에서 조립된 중거리 수송기로서 유럽의 성공작이며, 한국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권고에 따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홍보부는 완성을 앞둔 에어버스와 콩코드의 시범비행을 동등한 조건으로 보여주었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에어버스에 관심을 보였고, 후에 1974년 지글러(Ziegler)가 주재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진행된 시범비행을 했음. 김종필 국무총리는 적절한 자료와 비행기 모형을 갖고 툴루즈를 떠났음. 한국에 돌아온 국무총리는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을 소환해서, 한국 국적기의 항공교통 구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알맞고 경제적인 에어버스의 구매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음.

***

이 거래는 쉽지 않았음. 더글라스(Douglas)의 DC10의 판매에 다급했고, 특권을 누리고 있던 상업 항공기 분야에 프랑스가 침입하는 것에 화가 난 미국은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반발했음. 이 거래는 결국 나뉘어졌음. 대한항공은 3대의 DC10 항공기를 선택함. 그리고 에어버스 4대와 옵션으로 2대를 주문했음. 재정 조달 방식을 확정 짓는 것은 아주 어려웠음. 이것은 유럽 최초의 신용 임대차 계약. 미국에서는 이미 활용된 계약 유형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으며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이 거래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최고위층을 상대로 중재 역할을 했음. 대사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사이에 재정 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정부가 이 계약을 보증할 것이라는 점을 김종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확인받았음. 이 약속은 1974년 5월 4일 이행되었음.

***

몇 년 전부터, 몇몇 거래에서 프랑스 대표로 활동한 장 마피올리(Jean Maffioli)는 서울에서 프랑스무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한국에 엑조세를 판매하라고 요청. 전임 주한 프랑스대사들처럼, 피에르 랑디 현 주한 프랑스대사는 정치적 이유로 이 협상에 신중한 입장. 이전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마피올리는 에어버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거래의 대표 자리를 요청했음. 그래서 그는 에어버스의 에이전트인 동시에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에이전트가 되었음. 그는 대사관저에서 진행된 오찬 중, 페트르(Petre)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엑조세 공급 계약을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이 가져갔다고 비난했음.

에어버스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대사는 엑조세 거래와 에어버스 거래가 프랑스 에이전트에 의해 한국의 이익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부됐다고 확신함. 마피올리의 본거지는 대한항공,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어디에도 없고, 그는 한국 경제기획원이 거의 모르는 인물. 이런 상황에서, 그는 에어버스 협상자들, 그리고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축하를 위해 방한한 프랑스 군임무단 주변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가 평가할 때) 우려되는 캠페인을 할 목적으로 청와대의 비밀들을 떠벌렸음. 이런 활동으로 인해, 한국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표에게 건네진 한국 최고위층의 말이 의심스럽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약간의 냉소주의와 함께, 몇몇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에이전트들은 동일한 카드를 활용했음. 그렇게 해서 에어버스와 엑조세를 결부 짓는 거래에 대한 압력이 행사됨.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두 거래가 별개로 진행되길 원했음. 에어버스는 4개국, 혹은 5개국이 함께 하는 유럽 차원인 반면, 엑조세는 프랑스만의 것. 가장 힘든 협상 때에,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은 여러 소문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었음. 에어버스 거래가 엑조세 판매라는 프랑스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음. 프랑스 외무부에서도 알다시피, 대사는 성격 자체가 다른 이 두 회사를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음. 특히, 서독이 볼 때, 프랑스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방법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였음.

***

한국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프랑스의 이런 태도는 미래에 영향을 줄 것. 에어버스의 마지막 항공기 2대의 운명이 파리 노선을 위해 대한항공에 주어지는 DC 10의 주파수, 특히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 계약 확증, 다른 무기 구매에 달려 있다는 말을 이미 듣고 있음. 이에 대해, 대사는 정부의 정치적 의견이 무엇인지 모름. 이 분야에서의 모든 긍정적 결정은 위험을 안고 있음.

***

현재로는 첫 번째 에어버스 항공기에 이어 나머지 3대의 항공기를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하는 것에 기뻐해야 할 것. 미래에 에어버스를 동아시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빨리 맡겨야 함.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다른 중재자 없이 일하는 에어버스의 현지 대표가 있어야 하고, 그의 위치를 분명히 정해야 함. 에어버스가 납품됨에 따라 서울에 와서 있게 될 장기적인 기술 대표단을 통해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거래를 통해, 대사는 폴리시우스(Polysius)를 제외하고 한국 내의 프랑스 기업들에게 있어, 프랑스는 레바논식에 가까운 중개 시스템에 기대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서독, 미국은 회사 대 회사, 회사 대 정부, 혹은 회사 대 기업협회 이런 식으로 직접 일을 처리하도록 함. 프랑스 측의 비용이 과중해지면, 시스템 유지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게 됨. 예로써, 모든 회사가 수공업 수준의 거래 방식을 오래전에 버리

고 직접 투자에 기반해 일하는 서독의 예를 보여주는 서류 사본을 이 서한에 첨부함.

1.170. 한국 해군 사령관의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750903
페이지: 282~282

신(Shin) 해군 사령관은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에 나를 방문해서, 황(Hwang) 해군 사령관을 대신해 양해를 구했음. 그들은 프랑스에서 유익한 3일을 보낼 것이고, 서독에서 2일, 영국에서 거의 2주를 보낼 것. 영국에서는 해군 장비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할 것.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했던 말과 달리(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469/71), 신(Shin) 해군 사령관은 여전히 잠수함에 관심이 있음. 그는 헬리콥터, SS-11과 12, 다른 엑조세, 그리고 파리에서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와의 만남에 대해 말했음.

1.171. Projet de vente d'héilicoptèr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헬리콥터 판매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0911
페이지: 283~284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상무관은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로부터 5천8백7십3만 5천 프랑에 달하는 계약에 대한 보증 요청 서류를 받았음. 이 계약은 장비를 옵션으로 하여 헬리콥터 알루에트3(Alouettes Ⅲ) 12대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 이 거래와 관련하여,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현지 대표나 한국 정부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접촉한 적이 없었음. 언급된 '현지 안전성' 중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혹은 '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이라는 표현에 주목. 이 표현은 놀라움. 왜냐하면 한국외환은행은 한국 정부의 대외계좌 기관이고,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승인한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조달 기관이기 때문. 그리고 이 두 은행의 활동과 재정 조달 방식은 서로 비교되지 않기 때문. 필롱(Pilon)을 대신하여, 대사는 해당 재정 조달의 성격과 언급된 '안전성'의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이 두 은행에 요청할 것.

1.172. 오페마(OFEMA: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

생산일자: 19750918
페이지: 285~286

9월 11일 자 대사관 전보 No. 487/88에 의거.
한국외환은행도, 한국산업은행도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접촉을 받은 적이 없었음. 따라서 프랑스항공장비수출

공사(OFEMA)의 전략은 한국에 그 어떤 책임자도 임명하지 않고, 실제적인 은행 보증을 갖지도 않으면서, 불확실한 거래를 기획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 난점이 있음. 이런 관행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군 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설 군 대표부가 없다는 점에서 주로 기인함.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우려사항이 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음. 방위세(defense tax)는 현재로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어쨌든, 방위세는 외환 징수를 뜻하지 않음. 한국 군대의 수준 유지를 위해, 미국에 부품, 전차 대포, 교체 장비, 탄약 등을 주문한 것을 이번 주에 재정문제를 이유로 한국 측이 취소했음.

1.173. Garantie de la vente Exocet (엑조세 판매 보증)

생산일자: 19751009
페이지: 287~288

대사는 국방부 차관보 백(Paik) 장군의 방문을 받았음. 만약 한국 정부가 비밀 보장과 비매각(non-cession) 보장에 대해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엑조세 양도를 거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전보에 놀란 그는 한국 해군의 군수물자국 책임자인 심(Shim) 해군 소장이 서명하고, 10월 3일에 르메르(Lemaire) 대령에게 제출된 서한의 사본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가져왔음. 전화를 통해 정보를 얻은 후(주일 국방부 무관), 대사는 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이 이제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국방부 부차관 백 장군에게 말할 수 있었음. 대사는 처음으로 국방부의 고위층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점을 대화 중에 언급했음. 우리는 참모총장의 약속을 요청했었음. 황(Hwang) 해군 사령관은 그보다 낮은 계급의 서명을 남겼음.

이 방문 동안, 주한 프랑스대사는 엑조세를 설치할 초계정의 운명에 대해 문의했음. 백 장군은 미국과 상관없이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가 얻은 정보(10월 2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525/528)를 확인해 주었음. 하지만 그는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교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았음. 특히, 헬리콥터에 관해, 그는 알루에트(Alouettes)가 아니라 푸마(Puma)를 언급했음. 그는 우리 미사일에 대해 소문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고, SS-11이나 12가 아니라 롤랜드(Roland)를 언급함. 며칠 전 서명된 약속과 관련된 두 가지 사전 요청(5월과 8월)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나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프랑스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정부 고위층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방부 부처는 이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음. 이는, 정부 차원의 사업에서 이중의 민간 경로를 활용할 때 이 경로의 관행과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것.

1.174. Entretiens avec l'ambassadeur des États-Unis (미국대사와의 회담)

생산일자: 19751023
페이지: 289~290

스나이더(Snyder) 미국대사는 주한 프랑스대사의 관저에서 어제 만찬을 하는 동안 대사에게 다음의 정보를 주었음.

1) 워싱턴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더 협조적인 입장이 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이 너무 멀리 간다면 한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책임을 줄일 것.
2) 미국은 한국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 미국은 제한된 차원의 핵무기라고 할지라도 북한을 향해 사용된다면 이처럼 바람이 강하고 협소한 영토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했음(하비브(Habib)는 북경에서 서울로 와서 잠시 체류하는 동안 박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그가 이에 대해 말할 것).
3) 원자력 프로그램은 특히, 재처리 실험실과 관련하여 무기한으로 늘어진 것처럼 보임.
4) 모스크바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두 개의 한국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이 입장이 확인된다면 뉴욕에서의 논의에 유용할 것.
5) 스나이더 미국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강화해 줄 두 개의 결의안 가결을 기대하고 있음.
6) 오늘 저녁 늦게 프랑스대사는 하비브를 만나기를 바람. 만약 하비브를 만나지 못한다면 주한 프랑스대사는 '북경에서의 한국'에 관한 정보를 주기로 약속한 스나이더 미국대사를 만날 것.

1.175. Origine: Affaires générales. Objet: Airbus (일반 사안에 근거한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51103
페이지: 291~291

대한항공이 구매한 세 번째 에어버스 항공기가 서울로 운반되는 비행 중에 11월 14일에 싱가포르에 착륙할 것. 이를 계기로, 에어버스 항공기의 시범비행이 에어버스에 의해 진행될 것. 현재 에어버스 대표자들이 싱가포르에 있음.

1.176. 군사훈련에서 엑조세 성공 발사 언론 보도

생산일자: 19751108
페이지: 292~292

언론은 미사일 이름이나 미사일 제조국을 밝히지 않으면서, 부산 바다에서의 합동군사훈련에서 엑조세의 성공적 발사에 대해 크게 보도했음. 미사일은 한국에서 제조된 고속정에 설치되었다고 보도되었음. 프랑스 외무부는 미국이 한국 해군에 제공한 선박 중의 하나에 이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 하푼을 곧 제공할 것이라고 며칠 전에 보도했었음. 78만 4천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엑조세 발사 때, 한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위세를 기꺼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음.

1.177. Perspectives en matièere de ventes d'armement (무기 판매 전망)

생산일자: 19751230
페이지: 293~294

주일 국방부 무관인 르메르(Lemaire) 대령이 한국에서 며칠을 체류했음. 그는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함. 이 방문에서 그가 관찰한 내용 중 두 가지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음.

1) 미국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아주 민감하면서도 무기 공급처의 다양화에 대해 덜 제한적인 입장.
(1) 미국제가 아닌 군수물자는 통제를 벗어남.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적 전략(cl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미국의 핵심적 전략은 탄약과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현지 군대의 자급력(현재 10일)을 조정할 수 있음. 통제 시스템은 깨짐.
(2) 한국이 고도로 정밀한 무기 시스템(예: 엑조세)을 구매하는 것은 분쟁의 점진적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 동료도 주한 프랑스대사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 이 점에 대해, 스나이더(Sneider) 미국대사는 미국 무기 양도의 현재 조건을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려주었음. 반은 기증이고, 반은 8년에서 10년 예정의 신용대출. 기증 관행은 추후 몇 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임.

2) 프랑스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미 장비가 풍부한 육군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음. 공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해군이 남아있음. 특히, 대(對)잠수함 대책(북한은 잠수함 9대 보유)은 아주 초기 단계인 것처럼 보임. 이미 한국 해군이 보여주었던 프랑스 장비에 대한 원칙적 관심이 확인됨. 해군사관학교에 한국 해군 장교의 파송을 요청받았음. 르메르 대령은 군수물자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뚜렷해질 경우, 미국 사령부와의 연락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겠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1.178. Contrat Alouette III (알루에트3 계약)

생산일자: 19760122
페이지: 295~297

며칠 전,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OFEMA)의 한국 대표는 알루에트3 6대와 AS-12, SS-11과 관련하여 12월 말에 체결한 계약(대략, 총 4천만 프랑, 선금은 1월 31일 전에 지불해야 함)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생겼다고 대사에게 알림. 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이 이런 종류의 군수 장비를 제삼국에 요청하지 않도록 주미한국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음. 한국 정부는 몇 주가 지나기 전에는 최종 입장을 준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임. 한국 국방부장관을 방문했을 때, 주한 프랑스대사는 다음의 문의를 했음. 결정을 했는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계약 이행 날짜를 연기할 것인가?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납품 일정에 대해 고객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동의했는

데도, 한국 측이 이 거래와 재처리 거래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과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망설임과 유예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듦. 대답은 거의 고무적이지 않음. 전체적 필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미국 휴즈(Hugues)사와 벨(Bell)사의 제안과 정비 문제들이 검토 중. 현재로서는 이 검토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음. 미국 측에서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알려준 것은 없었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국은 1976–77년을 위한 미 국방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결정되길 기다릴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무기 공급처의 다양화 정도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는 최고 통수권자인 스틸웰(Stilwell) 장군의 말을 옮길 것. 지난주 스틸웰 장군에게 엑조세 계약에 대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었음. 그에 의하면, 엑조세가 첨단무기이기 때문에 분쟁의 점진적 확대 우려가 있다고 했음(1975년 12월 30일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691/693).
대사는 이전에 분쟁의 점진적 확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었음. 엑조세는 대함미사일이지, 도시나 진지에 대한 공격용이 아닌 재래식 무기임. 미국이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우리는 미국 제품을 팔길 원함.
2) 소규모의 해군은 동일한 군 장비가 필요함.
3) 발사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미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미국 프로그램에 의하면, 하푼이 사용 가능할 때 선박에 미사일이 설치될 것이라는 의미.
4) 분쟁 시, 교체 용품과 재공급 문제가 있음.
5) 이 무기들은 비싸며 다른 무기들도 비쌈. 최소 비용으로 구식무기를 현대화하고 대전차 방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백만 달러짜리 새 탱크가 왜 필요한가? 현재로서는, 군수물자에 대한 독립적 확충과 유럽을 향해 무기 공급처를 다양화하려는 한국의 의지와 미국의 관점 사이에 괴리가 있음.

1.179. Contrat Alouette III (알루에트3 계약)

생산일자: 19760211
페이지: 298~298

주한 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프랑스대사는 알루에트3 계약에 대해 언급했음(프랑스대사 전보 No. 39번).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스나이더(Sneider) 미국대사는 한국이 기존 장비와 전체 프로그램이나 재정 조달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군 장비를 주문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음. 이런 우려는 이미 언급되었음(위에 언급된 전보). 현재,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가 육해공 3군의 필요에 전부 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벨(Bell)사의 제안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해군의 경우에는 다른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알루에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을 맺었음.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음. 우리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은 없는 것처럼 보임.

1.180. Armement(SNIAS) (군수품(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생산일자: 19760320
페이지: 299~299

한국 해군은 이미 이행된 첫 번째 계약에 이어, 2개 선박의 장비를 위해 엑조세 발사 시스템으로 3개 장비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에 주문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 다음 달로 체결이 예정된 이 계약의 총액은 대략 9천만 프랑. 이전 계약 때처럼, 몇몇 장비는 톰슨(Thomson)과 사젬(Sagem)에 의해 공급되긴 하지만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가 이 계약의 중심회사임. 이번에, 한국은 신용대출을 요청하지 않았음. 120개의 하푼을 공급한다는 미국의 계획 때문에,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없음. 얼마 전 서울에 체류했던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의 에이전트는 알루에트3 계약에 관한 그 어떤 최종 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39/41과 73/74). 이 결정은 4월 계약에 취해질 것으로 보임.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한국이 두 개의 거래를 연결짓지 못하도록 노력했음. 한국은 발사 시스템을 위한 계약 체결을, 헬리콥터에 대한 재정 조건과 납품을 12월로 연기시키려는 것과 결부시키려는 생각이기 때문.

1.181. Étude comparative du potentiel militaire des deux Corée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생산일자: 19760407
페이지: 300~310

1) 우편물 명세서(300쪽)

2) 노트 내용: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미국의 유엔 상임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1975년 10월 30일에 전달한 유엔사령부의 보고서는 한국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 1년간(1974년 9월 1일~1975년 8월 31일) 알게 된 심각한 분쟁을 요약한 것.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정전협정을 6422번 어겼다고 할 수 있음.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 서명 이후 소강상태가 찾아왔었지만, 남북한 사이의 모든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 이후 분쟁이 다시 시작됨. 남한 정부는, 특히 사이공 함락 시점에 김일성이 중공을 방문한 이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의지가 있다고 확신함.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사건의 빈도수와 심각성이 그 증거라고 생각. 이런 잠재적 위협에 맞서, 남한 정부는 미국이 동맹관계를 깰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자체적인 방위 수단을 확장하려고 애쓰고 있음. 한국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없음.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군사력 비교 도표를 작성하게 되었음.

(1) 1975년 1월에 발표된 '미국군축청의 세계 국방비와 무기 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에 동의한다면, 군비/국민총생산 비율은 남한과 북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음.

a) 북한: 1963–70: 국민총생산의 14.28%

1971: 국민총생산의 15.31%

1972: 국민총생산의 9.43%

1972년 이후: 모름

b) 남한: 1963–1970: 국민총생산의 3.92%

1971: 국민총생산의 4.46%

1972: 국민총생산의 4.67%

1973: 국민총생산의 3.88%

1974–75: 모름

1976 예상: 국민총생산의 7%

(2) 남한(3,380만 명)과 북한(1,550만 명)의 1인당 군비

a) 북한(1인당 연 수입: 370달러)

1963–1970: 43.13달러

1971: 53.10달러

1972: 33.11달러

1973: 38.18달러

1973년 이후: 모름

b) 남한(1인당 연 수입: 513달러)

1963–1970: 7.95달러

1971: 12.53달러

1972: 13.73달러

1973: 13.13달러

1974–1975: 모름

(3) 외국에서의 무기 구매 관련, 미국군축청의 보고서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언급함. a) 북한은 8억 3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전쟁물자를 구매. 이 중의 3/4은 소련에서, 1/4은 중공에서 구매, b) 남한은 무기 구매에 25억 달러를 소비했고, 주로 미국에서 구입.

(4) 북한은 1973년에 국가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할당했고, 1974년에는 16%를 할당. 남한의 경우, 국방에 할애된 신용대출이 1975년에 대략 7억 3천만 달러(총예산의 27.3%)였음. 이는 1974년에 비해 19.9% 증가한 것. 1976년 예산을 보면, 국방비 부분이 상당이 증가했음. 대략 15억 달러이며, 일반예산의 34.6%에 해당함(전년에 비해 99% 증가한 것임).

남한과 북한의 군대 구조와 화력은 어떠한가?

(1) 북한

1972년, 북한의 정규군의 수는 50만 명에 약간 못 미쳤음. 현재는 육해공군을 합쳐 5십6만 2천 명으로

추정. 여기에 23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추정됨. 육군은 50만 명

(2) 남한

북한에 비해 인구가 더 많지만, 군인 수는 그보다 약간 웃도는 대략 61만 명임. 북한에 대해 공군력은 약함. 육군은 53만 명. 해군은 대략 2만 명임. 공군은 2만 8천 명(북한은 4만 5천 명임).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 남한의 방위 수단 관련 도표를 작성할 수 없음. 주한미군은 유엔에서 한국에 관한 논의의 핵심 문제임. 주한미군의 수는 현재 4만 2천 명(육군 3만 2천 명, 공군 6천 명, 고문관과 전문가 4천 명)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것(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사령부가 담당한 임무 이행에 직접 참여하는 군사 인력은 미국에 의하면 3백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후, 1968년에 만들어진 한미군사협력위원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위원회는 남한 군대의 현대화 계획수립 업무를 맡았음. 이 계획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할 것. 이 계획의 목표를 위해 8억 2천5백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었고, 목표는 원칙적으로 1976년이나 1977년에 달성되어야 할 것이었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무기, 특히 공격 무기의 인도에 대한 남한의 요청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 하원은 박 대통령 체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신용대출을 축소하였고, 원래 예정된 대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음. 1975년 초, 2억 3천1백만 달러의 집행이 늦어졌음(이중, 6천2백만 달러는 군 장비 인도에 관한 것).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는 적어도 현 정부 아래서는 그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1977년 1월 1일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고, 미국 정부는 하원의 압력으로 인해 철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름. 지난 8월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에 게재된 성명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80년에 한국은 미군의 도움이나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 없이도 북한의 공격에 홀로 맞설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음(소련이나 중공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3) 도표(310쪽):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182. Politique étrangère des États–Unis: aide en matière de sécurité pour l'année fiscale 1977 - Allocution de M. Kissinger devant le Comité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 la Chambre (29 mars 1976) (미국의 외교정책: 1977년 회계연도에서 안보 지원 - 하원외교위원회에서(Kissinger)의 연설(1976년 3월 29일))

생산일자: 19760408
페이지: 311~316

1) 우편물 명세서(311쪽)

2) 키신저 연설문 내용(312~316쪽)

1977년 회계연도에 안보 지원에 관한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증언

안보 지원과 외교정책

안보 지원은 우리의 전체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요소. 이 외교정책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안보, 번영, 가치가 발전될 것.

우리의 외교정책의 기본 요소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한 국가로서 우리의 힘과 목표를 유지하는 것
- 우리가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
- 우리의 잠재적 적대국들과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지속되는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 핵무기 능력의 확산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
- 정치 · 경제적 안정, 번영, 정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국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안보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큰 틀이며 안보 지원 정책의 목표임. 우리 외교정책의 토대는 안보임. 우리의 군사력, 동맹, 안보 지원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 안보의 기반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략적 핵 균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동맹의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적대국에게 통제와 협력 외의 다른 합리적 대안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 지속되는 지역 분쟁은 세계 안정에 계속 위험을 초래. 사려 깊은 군사 장비 양도는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공격의 전제조건으로서 지역의 힘 균형을 만들어 내고 지속화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는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필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주적 책임을 갖고 있음. 미국은 국방 필요를 포기한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 반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무기 공급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다른 국제 이슈에 관해서 그 국가들과의 협력이나 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랑스의 전체 국가 이익과 목표라는 맥락 안에서 무기 양도 문제에 계속 접근하는 것이 중요. 이 안에, 프랑스의 방어 준비와 경제, 외교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는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하원의 지지와 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김.

승인 요청 개관

1977년 회계연도를 위한 우리의 특정 승인 요청과 관련해, 행정부는 비용 절감에 주의를 기울임.

- 제안된 대화 군사판매차관 프로그램, 그로 인한 신규 채무 부담 권한에 대한 요청은 각각 1976년에 비해 2억 달러가 감소한 것. 신규 채무 부담 권한은 8억 4천만 달러이고. 작년의 10억 6천5백만 달러보다 감소한 것. 이것은 20억 달러 이상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조달임. 이 중의 반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
- 안보지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비해 1억 달러가 줄어서 18억 달러임. 이 금액의 거의 95%는 중동을 위한 것. 이 기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중동 평화 노력의 핵심 요소임.
- 국제마약감시 프로그램은 작년에 비해 3천4백만 달러로 줄었음. 멕시코와 버마에서 양귀비 근절 노력을

위한 주요 설비 품목이 이미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처럼 비용을 감소했음. 양귀비 생산에 대한 터키의 통제,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귀비 박멸 노력, 버마에서 보이기 시작한 결과로, 미국 국민의 건강에도 중요한 문제인 이런 국제 안보 지원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줌.

– 해외군사훈련은 3천2백만 달러로 예정되어 있음. 이 프로그램은 동맹과 우방국 군사력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함. 다른 국가 정부들은 미국으로부터 그들이 받는 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점차 높이고 있음. 이처럼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프로그램은 상호방위 군사협력과 관련해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함.

지역 프로그램

(1) 중동 아시아

1977년 회계연도에, 중동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70%에 해당함. 우리의 요청 사항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고, 중동에서의 평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의 핵심 부분임. 1947년 이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보에 도덕적 헌신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헌신할 것이라고 확신함. 또한 우리는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 계속되는 위기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 이 위기는 우리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무리가 되고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위험하게 만들며,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 대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스라엘이 꾸준하게 국방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중동정책의 중요한 불변요소 중의 하나임. 이스라엘이 훨씬 더 엄격한 국내 내핍 조치를 최근 결정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 군사적 지원이 필요함.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요청 사항(주로, 비군사적 지원)도 미국의 국익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와 고려에 기반한 것. 이집트는 아랍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음. 이집트는 소련과의 오랜 밀접한 관계를 끊고 서구 세계와의 더 밀접한 관계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선의와 진실성을 보여주었음.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 이로운 것.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안보 지원과 우호 관계 심화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송기 C–130 6대를 이집트에 제공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하원에 알렸음. 수송기 양도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로 했다는 것에 감사함.

요르단은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고, 중동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요르단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고, 경제 저개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우리의 안보지원은 요르단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시리아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 우리의 비군사적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의 평화 노력을 위해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 아랍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지원과 관계 향상은 어떤 경우에든 이스라엘과 우리의 전통적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아랍 세계에서 건설적이고 중도적인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길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할 것.

(2) 다른 지역 프로그램

중동 프로그램을 위한 29억 달러 요청을 제외하고, 1977년 회계연도 명세서는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전체 프로그램 대비 비율).

유럽: 4억 4천8백만 달러(11%)

동아시아: 4억 9천6백만 달러(12%)

남미: 2억 8백만 달러(5%)

아프리카: 5천9백만 달러(1%)

근동: 4천7백만 달러(1%)

유럽

유럽에서, 그리스와 터키는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임. 프랑스는 이 국가들의 안보와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중요성을 부과해야 함. 군사원조프로그램,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훈련기금은 우리의 상호방위 관계를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이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리스와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더 효율적인 역할을 하도록 길을 열어줄 것.

프랑스는 지중해의 서쪽 끝, 즉 이베리아반도에 대해 전략적 관심을 두고 있음. 스페인과의 우호 · 협력 조약은 조언과 동의를 위해 현재 상원에 상정되어 있음. 프랑스는 스페인 정부와 협상하는 동안 하원과 포괄적인 협의를 했고, 하원의 조언 때문에 이 협상 내용을 조약으로 제출하기로 했음. 이 조약은 스페인과의 긴밀한 우호 관계와 5년간의 지원 프로그램의 대가로 스페인 내의 시설 사용에 대한 동의를 포괄하는 단일 협정임. 정부는 대서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스페인이 국내 및 국제 활동에 들어가는 시기에 스페인을 지지하는 특히 중요한 협정이라고 여김. 프랑스 정부는 승인을 위한 공동결의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상원에 제안했음. 정부는 하원이 이 조약을 위한 자금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포르투갈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요청하는 이 지원 자금은 작년의 정치적 소요에 이은 대규모 경제적 혼란을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신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프랑스는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지속할 것.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 우리는 FY76 미국 국방예산 이후 물질적 원조를 끝내고자 하고, 군사원조프로그램(MAP) 아래 먼저 재정이 확보된 물자를 배달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프로그램 보조금만을 요청하는 것. FY77 미국 국방예산에서 요청한 대로 대외군사판매(FMS) 자금을 받는다면, 프랑스는 1970년에 시작된 공동한미현대화계획을 완수할 것. 한국은 추가 5년 동안의 전투력증강계획을 그들의 재원으로 시작할 것. 한편,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상호안보 목표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대외군사판매 보증 대출을 계속 요청하고자 함.

프랑스는 인권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음. 한국의 인권상황은 우리의 정책 고려 사

항에서 중요한 요소임. 프랑스의 관점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알렸고,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적 관심을 저버릴 수 없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프랑스의 요청은 한국에서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프랑스의 평가에 기반한 것이고, 한국, 일본, 더 넓게는 동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안보 목표를 위한 것임.

남미

남미에서, 공동요소는 여전히 군사훈련이 될 것.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의 최근 사건들은 프랑스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아프리카에의 무기 도입과 강대국들이 관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자결권을 지지하고,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이바지하길 바람.

결론

프랑스의 안보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우리의 전체 대외정책계획에서 안보지원 프로그램의 위치, 안보지원 프로그램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 기준을 살펴봄. 현재 가장 긴급한 지역인 중동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제안을 설명함.

1.183. Les États–Unis et la défense de la Corée du Sud (미국과 한국 국방)

생산일자: 19760410
페이지: 317~317

박동진 한국 외무장관이 금요일 워싱턴에서 한국 국방문제에 대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미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함. 이 방문은 미 국방부에서 몇몇 정보가 흘러나온 시점과 일치. 이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미사일을 1년 후 한국군에 제공하고자 함. 미국은 조건이 허락하고, 한국군이 얼마 전 개시된 4년간의 현대화계획이 잘 완수되는 시점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필립 하비브(Philipp Habib) 미 국방부 극동 차관보는 당장은 주한미군 상당수를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원에서 밝혔음. 또한 그는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제안 중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함. 4자 회담(중공, 미국, 남한, 북한) 제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184.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318~319

서울 1976년 4월 27일

1976년부터 5년간의 한국 군대의 현대화와 강화 프로그램

총 5억~6억 프랑 중에서 2억 5천~3억 프랑 정도를 미국이 부담

미국 무상 양도

76년과 77년에 5천5백만 프랑(7천4백만 프랑 추정)/ 77년과 78년에 8백만 프랑 ↓ / 이후, 0

연기와 일정 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8~10년 신용대출

워싱턴 1976년 4월 28일

1975–76년 회계연도에 대해, 하원은 다음을 승인할 의향이 있었음(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함).

– 증여 형태로 (제시한 7천5백만 프랑 대신) 5천5백만 프랑

– (2억 프랑 대신) 1억 6천2백만 프랑 신용대출

1976~77년 회계연도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장비공급 신용대출에 전적으로 할당된 2억 7천5백만 프랑을 계획(무상 지원 종료).

한국 국방 현대화에 대한 미국 계획(MOD)

1977년 완수. 1977년에, 이 프로그램은 (예정된 15억 달러가 아니라) 최고한도액 10억 달러에 이를 것. 한국 프로그램(전투력증강계획, FIP: Force Improvement Plan)은 MOD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인 50억 프랑이 들 것.

1.185. Programme coréen en matière d'armement (무기 관련 한국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60427
페이지: 320~320

한국 무기의 현대화 및 강화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실행될 것이고, 미국 제품이 아닌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 미국 동료들에 의하면, 미국의 부담은 장비공급의 반 정도, 즉 연간 예산 5억~6억 달러 중에서 2억 5천만~3억 달러일 것. 재정 조건과 관련, 무상 양도는 1976–77년에 5천5백만 달러이고, 1977–78년에는 8백만 달러로 감소할 것이며, 그다음 해에는 없어질 것. 그 이외는, 8–10년간의 신용대출일 것이고, 이는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한국 해군, 특히 공군은 북한에 비해 뚜렷하게 열세인 상황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자율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해 5년이 충분할지 불명확. 영국 국방장관은 홍콩에서 서울로 와서 3일을 보냈음. 그는 영국이 한국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대사는 이 방한에 대해 정보를 더 수집하게 되면 외무부에 전달할 것.

1.186. Copie de la lettre adressée à M. B. Lathière, administrateur gérant d'Airbus Industrie (에어버스 전무이사 라티에르를 위한 서한 사본)

생산일자: 19760706
페이지: 321~323

1) 우편물 명세서(321쪽)
2) 서신(322~323쪽)

자체로는 아주 사소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었을 수도 있는 사건 때문에, 대사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계약 이행이 미래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무부에 알림. 가령, 과잉 청구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세관이 극도로 감시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도착한 에어버스 계약 하의 장비에 대해 이 일이 벌어짐. 로스앤젤레스 통과 화물 취급업자가 부주의로 모든 소포에 근거 없는 가격을 표시했기 때문. 게다가 총액이 장비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았음. 현장에 있었던 비아르(Viard)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음. 세관이 속임수라고 의심할 경우, 한국에서는 세관이 광범위한 권한(회계자료 전체 압수, 수신자와 에이젠트의 구속)을 갖고 있음(2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음). 3일 동안의 절차, 설명, 협상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한항공, 프랑스무역사무소, 비아르의 민첩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의 직원 몇 명이 해고되었음. 에어버스 계약과 관련된 다음 물품 발송은 철저한 조사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음. 대사가 주의를 기울이길 바람. 비아르는 5번째 항공기의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찾으러 왔던 공식 문서를 갖고 출국할 수 있었음.

1.187. Projet de contrat SNIAS (équipement de navires pour le lancement d'Exocet)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 계약 프로젝트(엑조세 발사를 위한 선박 장치))

생산일자: 19760831
페이지: 324~324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이미 서명한 선박 2대 관련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엑조세 발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선박 3대에 대한 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참이었음(7천1백만 프랑). 보호해야 할 정보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계약에 구두 합의를 했던 대통령 고문을 무시하고, 판문점 사건 후에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잘못 택했다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임. 미국은 거부권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거래에 반대한다고 밝혔었음. 이런 조건에서, 이 사안은 얼마간 혹은 심지어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 수 있음. 프랑스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면, 국방장관이 참석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기회가 될 것. 프랑스대사는 프랑스 대표들의 개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1.188. 취소 서한

생산일자: 19760915
페이지: 325~325

프랑스대사는 외무부의 메시지 14번에 답함. 한국 당국은 취소 서한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중임.

1.189. Mission en Corée (한국에서의 임무단)

생산일자: 19760917
페이지: 326~326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DAI)에서 받은 다음 메시지를 정보로 전달.
인용 시작. 제목: 한국에서의 임무단 현재 예정된 일정
파리 출발: 9월 27일, 15:30, AF 274편–KE502 / 서울 도착: 2820 20
서울 출발: 03 18 00, KE002 도쿄행 / 도쿄 도착: 03 22 30 JL421
전체 프로그램은 한국 국방부 무관에게 전달
29일(수), 30일(목)에는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실무회의. 국방과학연구소(한국)와 국방장관의 회담 요청 / 1일(금) 한국 국경일 / 2일(토)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같은 산업시설 방문
국제국은 이 시기에 주일 프랑스 무관이 한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김. 인용 끝.

1.190. 국방 총엔지니어 방한 일정

생산일자: 19760917
페이지: 327~327

첫째: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에게 일정을 별도로 전해 준 국방 총엔지니어의 방한과 관련하여, 9월 27일(월) 11시 15분 JAL951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이고, 10월 5일(화) 16시 30분 KE70편(원문 그대로)으로 서울에서 떠날 것.

둘째: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을 안배할 수 있음.

- 회담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의 27일(월) 오후
- 28일(화) 하루 동안 한국 당국과 일상적 방문과 회담을 하고, 국방총엔지니어 아상스(Assens)를 맞이하기 위해 비행장 가기
- 4일(월) 유엔사령부 방문과 놓친 일정 따라잡기

셋째: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대외연락사무소 케인 신 구(Kane Sin Goo) 대령에게 서한을 보냄. 둘루이(Doulouis)가 그에게 전화할 수 있음. 그리고 다음을 알릴 것.

주일 프랑스 무관의 방문

– 28일(화)에 한국 정부 예방

– 방문 프로그램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방총엔지니어 아상스와 같은 호텔 예약(숙박비는 개인 부담)

넷째: 주일 프랑스 무관은 21일(화) 서울을 향한 외교행낭을 통해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 요맨더 베리(Yommander Berry) 중위에게 긴급 서한을 보냄.

1.191. Visite du directeur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de la Délégation ministérielle pour l'armement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 국제국장의 한국 방문)

생산일자: 19760923
페이지: 328~328

아상스 국방총엔지니어이자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DMA) 국제국장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을 방문할 것. 이 방문은 현재 상황에서 양국 모두를 위해 가능한 기밀에 붙여질 것. 아상스 국방총엔지니어는 보니파시오(Bonifacio) 해군 중령이자 국제국(DAI) 관련분야 장교를 동반할 것이고, AF274 KE502 편으로 9월 28일 20시 20분에 도착할 것. 그리고 KE002와 JL421편으로 10월 3일 18시에 떠날 것. 이 방문 프로그램에는, 9월 29일과 10월 2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에서의 회의가 포함되어 있고, 9월 30일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KTMI)을 포함한 산업시설 방문이 들어 있음. 아상스 국방총엔지니어는 가능하다면 서울 도착 직후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날 수 있길 바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방한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 바람.

1.192.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Projet d'équipement des navires coréens en missiles Exocet (양자협정에 근거 한국 선박에 대한 엑조세 미사일 설치)

생산일자: 19761013
페이지: 329~329

주한 프랑스대사관 전보 No. 350에 의거함. 아상스 국방총엔지니어의 최근 방한 동안 진행된 회담을 고려할 때, 한국 측에 추가로 선박 3대에 엑조세 미사일 설치와 관련해 그들의 의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 계약의 서명이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한 달 전 즈음에 그들에 의해 연기되었지만, 한국이 군수 장비 공급처 다각화를 원하는 만큼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볼 것을 기대할 수 있음.

1.193. Projet d'équipement de navires en missiles Exocet (엑조세 미사일의 선박 설치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61105
페이지: 330~330

외무부 전보 No. 306에 의거함.
아상스 국방총엔지니어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추가로 3대의 선박에 엑조세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 관련하여 국방장관의 주의를 환기했음.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대통령비서실장 접견을 요청했음. 김정렴 비서실장은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함. 불행히도, 이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재개되지 않을 것임을 알림. 이 프로젝트가 다시 고려될 가능성은 희박함. 김정렴 비서실장은 하푼 도입 프로그램 재개가 임박했음을 암시. 김정렴 비서실장은 이것이 협력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바람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음.

1.194. SNPE/Korea Explosives. Activités en République de Corée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한국화약. 한국에서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활동)

생산일자: 19770214
페이지: 331~334

1) 문서 –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한국화약(331~332쪽)
참조: 1977년 1월 4일 자 텔렉스 010410, 1977년 2월 4일 자 텔렉스 100402
참조로 언급한 텔렉스 2개에 대한 회신으로, 1976년 12월 16일 자 서한 No. 1341에 언급한 의견을 확인함. 그 당시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가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보증을 위해 이미 승인받은 금액에서 남은 금액(대략, 8백만 프랑)을 사용하려던 더블베이스 추진체 제조 프로젝트는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의 손에서 벗어났음. 하지만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미국 측에 맡긴 추진체 시설의 필연적 결과라고 여겨질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해 문의받은 점을 알려야 함. 이 프로젝트는 사출성형 더블베이스 추진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이 프로젝트는 아직 사전 검토 단계이고, 연말쯤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 더블베이스 추진체 시설을 실현한 미국회사 허큘리스(Hercules)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어 심각한 경쟁사가 될 것.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의 생각은, 그 회사에 제공된 보증 중에서 8백만 프랑을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총 4천~5천만 프랑이 필요할 이 프로젝트의 재정조달을 위한 추가분을 요청하는 것이었음. 이런 절차가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의 관례와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자 함.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사출성형 더블베이스 추진체' 프로젝트가 약간 더 진행되었을 때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에 새로운 요청을 하는 것에 관해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에게 일임함으로써 No. 46008 사안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사본: 대외경제관계국(DREE). 대외무역신용보증위원회 사무국(Secrétariat de la Commission des Garanties et du Crédit au commerce Extérieur),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일프랑스 경제상무관(Conseiller

Économique et Commercial, Tokyo)

2) 자료카드: 한국에서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활동(333~334쪽)

1974년,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대포용 단일베이스 추진체 생산시설의 공급을 위하여 민간기업인 한국화약과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음. 공장은 한국 남부의 도시인 여수에 있음.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시설을 가동한 후 2년에 대략 1천만 프랑으로 원재료를 공급함.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70mm 직경의 지상로켓용 더블베이스 추진체 생산을 위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화약과 논의하고 있음.

한국 정부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1975년 미사일용이나 관측로켓용 복합 추진체 생산시설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음(장비, 라이선스양도, 기술협력협정, 대략 1천2백만 프랑). 이 시설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위치. 여기에도 원재료를 공급함(1976년 3백만 프랑, 1977년 1백8십만 프랑). 1977년 12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두 번째 계약을 체결했음. 이 계약은 3개 시설과 관련됨. 전통적 폭발물 장탄 시설(대포 탑재 포탄, 항공기 탑재 폭탄), 복합 폭발물 제조를 위한 시범 연구소, 폭발물 가공 시설. 이 계약에는 장탄과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기술협력과 엔지니어링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계약은 8년 동안의 원재료 공급을 규정하고 있음. 총액은 3천5백5십만 프랑.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신용대출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는 확정가격을 보장해야만 했음.

1.195. Le Bourget/Satory - Corée du Sud. Point actuel réponses coréennes (부르제/사토리–한국. 현재 상황, 한국 측의 대답)

생산일자: 19770502
페이지: 335~335

인용 시작.

첫째, 부르제(Bourget).

- A: 공군참모차장 윤자중 장군은 원하는 대로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 이 초청을 거절해야만 했음. 윤자중 장군의 유럽 순방 전체가 취소되었기 때문.
- B: 황(Hwang) 해군 사령관은 자격이 되는 장교를 위해 초청 연기를 요청했음. 참모총장은 5월 10일 전에 대표로 갈 장교의 이름을 주기로 약속했음.
- C: 이종춘(Lee Jong Choon) 민간항공사무국장은 거절.

둘째, 사토리(Satory).

- A: 국방부의 방산국장 유삼석(Yoo Sam Suk) 소장은 부르제와 사토리의 초청을 모두 받아들였음.
- B: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인 심(Shim) 박사는 파리에 갈 수 없어서,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인 현경호(Kyung Ho Hyun) 박사를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음. 대사는 이 요청을 지지함. 서명: 르메르(Lemaire). 인용 끝.

1.196. Ventes d'armes américaines (미국의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70506
페이지: 336~340

1) 미국 국무부와 관련해 무기 판매 관련 새로운 미국 독트린이 4월 말에 확립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정보를 수집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겔브(Gelb)의 지도로 작성된 대통령 검토각서는 예정된 대로 4월 초에 백악관에 제출됨. 이 각서는 4월 12일에 밴스(Vance)가 주재한 대통령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음. 그 이후, 행정부 및 하원과 함께 협의가 지속되었음.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밴스(Vance)는 다음처럼 답함.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대통령은 이 각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2) 몇몇 사항들은 언론에 이미 새어나감. 뉴욕타임스 4월 24일 자 기사에서, 궈츠만(Gwertzman)은 겔브의 각서가 미국 무기 판매에서 제한 영역을 정해두었고,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여러 선택을 제안한다고 말했음.
   – 상한선. 각서는 미국 무기 판매에 있어 전 세계적 상한선 또는 지역별 상한선을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 가령,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 하원은 연간 4천만 달러를 제한선으로 이미 정해두었음. 북대서양조약기구(OTAN; NATO) 회원국들 혹은, 한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봄. 그래서 전 세계적 상한선 개념은 적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민감한 무기들. 각서는 네이팜과 같은 '민감'하거나 '아주 폭력적인' 무기의 판매에 대한 우려를 드러냄. 또한 각서는 대공미사일 레드아이(Redeye)의 경우처럼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판매 금지를 계획하고 있음.
   – 첨단무기.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을 얻기 위해 애써왔음. 겔브(Gelb)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군비 경쟁을 가속하고, 문제가 되는 국가들에서 방위비를 증가시킴. 또한 이 상황은 이 무기 유지 및 작동 임무를 맡은 많은 미국 기술자들이 그 국가들에 있게 되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줌. 한 국가가 구매하려는 무기가 실제로 필요하고 외부 지원 없이 이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 공동생산. 카터(Carter) 대통령에게 제출된 선택 중에서 공동생산의 폐지 혹은 엄격한 제한이 있음. 5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밴스(Vance)는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카터 대통령은 결정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기자들에 의하면, 상원의원들과의 회견에서 밴스(Vance)는 공동 생산협정이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호주, 뉴질랜드, 일본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임)
   – 행정 통제. 이 각서에는, 무기 구매 요청을 다루기 위해, 기존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확립하는 여러 방식이 열거되어 있음. 미국 군수산업체들은 외국에 상품을 제안하기 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고려됨.
   – 국제적 협력. 각서는 무기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 가능성을 검토.

3) 카터(Carter)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자신에게 제출한 무기 판매 프로젝트들을 계속 검토했음. 이

프로젝트들(2십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 3월 29일 이미 승인했음(주미 프랑스대사 전보 No. 2803).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4월 27일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제출된 '더미 전체'가 "협상, 논의, 협정의 결과물이고, 어떤 것들은 1년이 넘은 것도 있으며, 이 모든 프로젝트는 이미 작년에 검토되었다"라고 밝혔음.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은 지난 9월에 하원에 제출되었고, 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들임(1976년 10월 7일 자 전보 No. 6877). 공화당 정부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매매거래는 카터(Carter) 대통령이 재검토하도록 제출되었고, 새로운 결정을 위해 다시 하원에 송부될 것.

4월 26일, 카터(Carter) 대통령은 27억 달러에 달하는 판매를 승인함. 카터 대통령은 국방부가 제출한 5십억 달러 중에서 46억 달러 정도에 승인했음. 그렇게 승인된 장비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그렇지만 언론은, 특히 하원에서, 이에 관한 몇몇 정보를 수집. 이 정보에 의하면,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5대 판매를 승인했음. 장비의 대당 가격은 1억 1천2백만 달러로 추정되고, 유지와 기술 서비스 비용이 이에 맞먹을 것. 이 거래 전체는 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또한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 새로운 미전투기 F-4 팬텀(Phantoms)을 판매하기로 결정. F-16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사우디아라비아는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MIM-23 호크(Hawk) 미국 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영공방위시스템을 살 수 있을 것. 카터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 두 곳의 건설 프로그램도 승인(1억 5천1백만 달러). 그리고 미국 록히드 수송기 C-130의 판매도 승인(7천9백만 달러). 이스라엘은 1억 4천3십만 달러에 전차와 포탄에 대한 구매 승인을 받을 것. 포드(Ford)가 약속한 적외선 주시 장치 FLIR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

카터 대통령이 승인 다른 프로젝트 중에는 다음이 있음.

- 자이르를 위한 미국 록히드 수송기 C-130(8백만)
- 요르단의 대공 방위 향상을 위해 6천4백만 달러
- 한국의 방공을 위한 향상된 호크(Hawk) 미사일과 수정 키트(KITS)

이집트가 요청한 전투기 F-5, 대전차 토우(Tow) 미사일, 록히드 수송기 C-130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

4) 4월 19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국제안보및과학문제 분과위원회 앞에서 증언했을 때, 국방안보협력국장인 피시(Fish) 장군은 미국에 발주했지만,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총금액이 현재 320억 달러에 달함.

1.197. Relations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d'armement (무기 영역에서 한국과의 관계)

생산일자: 19770511
페이지: 341~343

1) 막대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의 잠재력을 증진하고자 함. 미국의 지원이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우려. 그래서 다음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한국 군대의 장비를 북한 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 미국의 지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상당하고, 1977년 회계연도의 경우 2억 8천6백만 달러에 달할 것. 이 중 대부분(2억 7천5백만 달러)은 신용대출의 형태임.

2) 미국의 우월성으로 인해, 프랑스의 판매는 과거에 아주 미미했음. 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주목함.
– 해군: 사격통제체계 베가(Vega) 2대와 대함미사일 엑조세 20대 판매
– 공군: 미사일 AS–12로 무장된 알루에트3(Alouette III) 헬리콥터 관련 계약 서명
– 폭발물: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가 복합 추진체 시범 공장을 만듦
– 유럽 추진체회사는 관측로켓 베레니스(Bérénice) 2단에서 착상을 얻은 추진기 개발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함(600mm 미만의 직경)

3) 전망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1976년 10월 임무단의 출장을 계기로, 군수관련총대표단(DG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의 국제국장이 전망을 연구.
– 프랑스에서 생산된 장비 판매
• 3척의 소함정에 대한 발포 장치와 미사일 엑조세 설치를 위한 계약. 서명은 1976년으로 연기. 이 계약은 하푼 프로그램의 지체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한국 해군은 알루에트3을 다시 주문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음.
• 미사일의 경우, 미국의 채퍼럴(Chaparral)과 영국의 레이피어(Rapier) 사이에 경쟁이 심각. 그래서 프랑스의 크로탈(Crotale)의 품질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음.
• 인천항을 위한 교통관제시설 구축을 위한 톰슨–CSF의 제안으로 인해, 톰슨–CSF는 추후 시장에서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
– 산업화 작전에의 참여
• 1975년 프랑스 방문 시, 한국 임무단은 AMX 30 전차 공장 설립을 위해 라이선스 양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국방부와 회담을 했었음. 현재,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처럼 보임.
• 1976년 10월, 군수관련총대표단의 국제국 국장은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엑조세 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

1.198. Programme délégation d'honneur Corée du Sud Satory VI. (사토리IV 한국 명예 대표단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70517
페이지: 344~344

한국 당국에 전하기 위해 군수 관련 총대표단/국제국(DGA/DAI)으로부터 받은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
인용 시작.

- 6월 12일(일): 18시 30분. 브리엔느 호텔에서 국방장관의 칵테일파티
- 6월 13일(월): 유로미사일(Euromissile) 오찬/18시. 소프마(SOFMA) 주최 칵테일파티/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 석찬
- 6월 14일(화): 10시~12시. 국방장관에 희나 전시회 개회식/18시. 사비엠 크루소-루아르(Saviem Creusot-Loire) 주최 칵테일파티/유럽추진체회사(SEP) 석찬
- 6월 15일(수): 유로미사일(Euromissile)이 부르주(Bourges)에서 비공식 발사 시범
- 6월 16일(목): 톰슨(Thomson) 석찬/18시. 파나르(Panhard) 주최 칵테일파티/프랑스 항공장비수출공사 오페마(OFEMA) 석찬
- 외국 대표단을 위한 사토리(Satory) 전시회 방문은 6월 13일(월), 14일(화) 인용 끝.

1.199. Armements (군수품)

생산일자: 19770526
페이지: 345~347

톰슨-SCF(Thomson-SCF)의 지역 대표가 크로탈(Crotale) 시스템 공동제조 프로젝트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금성(Gold Star)과의 논의가 경쟁상대인 영국의 레이피어(Rapier)를 위해 갑자기 중지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측이 내세운 이유는 크로탈이 산업적으로 제조되지 않는다(아직 양산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함. 그는 이런 주장 때문에 놀라고 의아해함. 한국 측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이점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의 해당 영역 고문에게 문의했음. 대통령실 고문은 크로탈보다는 롤랜드(Roland) 시스템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음. 하지만 그는 우리가 진정한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그는 오랫동안 영국과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덧붙였지만, 영국과도 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음. 대통령실 고문은 톰슨-SCF가 금성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음.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측은 영국 측에 압력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음. 하지만 프랑스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음.

다른 사안들의 경우, 주한 프랑스대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함.

- 알루에트(Alouette):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SS-11과 SS-12와 발사 시스템을 갖춘 6대에 대한 한

국 국방방위연구소의 원칙적 약속의 대상인 이 계약은 '우리의 프랑스 파트너들이 가격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체결될 것

– 엑조세(Exocet): "우리는 지속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산업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술 획득이 중요하다. 우리가 프랑스에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190) 우리는 프랑스 측이 연구 영역을 포함하여 이 협력에 열려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토리(Satory) 기지에의 다음 방문 때 한국 대표단의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현재 관심에 대한 다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1.200. Accords bilatéraux. Corée du Sud (양자협정. 한국)

생산일자: 19770528
페이지: 348~349

5월 26일 자 전보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프랑스 군수 장비 구매와 무기 제조 · 개발연구 관련 진정한 협력 협정 체결을 연결하려는 한국의 의도에 대해 외무부에 알려주었음.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한국 측은 자신들의 목표가 로켓 및 미사일 등과 몇몇 유형의 첨단무기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음. 한국의 정치적 · 군사적 맥락에서, 이런 상황 전개는 분명 위험한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한국의 요청을 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무기 양도의 전통적 형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지금까지 해왔던 무기 양도의 전통적 형태의 이점은, 우리가 한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무기 유형과 수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우리가 무기 판매를 거부한 몇몇 국가들(대만 포함)과 맺고 있는 관계로 인해, 우리는 모든 형태의 공동생산에 대해 신중함을 보여야 함.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특히, 개량된 무기의 공동생산에 대한 거부)에 대한 카터(Carter)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 너무 심한 경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보임. 어쨌든, 프랑스가 다른 무기 공급국들이 한국에 이미 거부한 산업 협력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됨.

1.201. Entretien du Conseil National de Sécurité - Ventes d'armes (미국 국가안보회의 - 무기 판매)

생산일자: 19770609
페이지: 350~350

주미 프랑스대사 전보 No. 5279에 의거.
무기 양도 관련 새로운 규제(주미프랑스대사 전보 No. 4516)는 아시아가 아니라 근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마코스트(Armacost)가 강조. 물론, 이 규제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었음. 하지만 아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재정 조달을 위한 신용대출은 1978년 회계연도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머지않아 특별한 경우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상당한 무기 양도가 필요하게 될 한국 군대의 강화가 그 경우임. 대화 상대자는 미국 하원이 이 영역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낙관했음(전보 No. 5249).

1.202. Origine: Accord bilatéraux. Objet: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양자협정에 근거한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생산일자: 19770826
페이지: 351~352

톰슨 CSF는 한국 당국을 위해 대공미사일 크로탈(Crotale) 발사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발사가 진행될 랑드(Landes) 실험장 사용 가능성 때문에 이 시범은 9월 13일과 14일에만 가능. 아니면, 11월까지 연기해야 함. 톰슨 CSF는 이민우 국방부 차관, 이세호 육군참모총장에게 개별 초청장을 보낼 것. 이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의 부하직원이 초청될 것. 또한 톰슨 CSF는 국방부 차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신학진(Shim Hak Jin) 공군사령관, 유삼수(You Sam Su) 국방부 방위산업국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심문택(Shim Moy Taik) 박사, 황정연(Hwang Chin Yon CNO) 해군장성을 동반할 것.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Oh) 대통령 국방수석보좌관도 초청할 수 있음. (*영어 인명 원문표기 그대로)
발사 시범의 날짜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가 이 인물들에게 구두로 초청 의사를 전달해 주길 바람. 이 초청은 프랑스 체류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공권도 제공될 수 있음. 초청장은 9월 5일이나 6일에 알브사르(Albessard)가 서울에 가져갈 것.
몇몇 당국자들이 프랑스 방문 기간 크로탈(Crotale)이나 톰슨–CSF 시설 외에 다른 장비들을 소개받기를 원할 수 있음. 이런 바람이 대사에게 전달될 경우, 국방부는 이 사안 검토를 위해 일찍 전달받길 바람.

1.203.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생산일자: 19770906
페이지: 353~353

외무부 전보 253에 의거.
무역 담당 참사관과 함께 초청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던 국방부 차관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고, 국군의 날을 준비해야 해서, 9월 13일과 14일은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음. 그러나 우리 장비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다음 전보에서는 국방부의 여러 부서 책임자들과 현재 진행 중인 회담 내용을 정리할 것.

1.204. Invitation pour un tir Crotale (크로탈 발사를 위한 초청)

생산일자: 19770912
페이지: 354~355

전보 No. 429에 의거.
주한 프랑스대사관 무역 담당 참사관이 한국 국방부의 책임자들과의 여러 회담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한국은 무기 시스템 선택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이 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2) 목전에 다가온 레이피어(Rapier) 선택 관련 정보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다른 여러 시스템(레이피어, 크로탈(Crotale), 채패럴(Chaparral), 미국의 롤랜드(Roland))에 대한 평가 진행이 확실하기 때문임.
3) 크로탈 발사 시범을 위해 제안된 두 번째 시기(11월)가 한국의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예정된 수준의 대표단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국방부 차관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발사 시범에 참석하길 바라는 듯. 하지만 내년 초 정도의 시기를 원함.(이 시기에, 정보통에 의하면, 레이피어 발사 시범에 참석할 것이라고 함) 우리는 한국 대표단에 적합한 날짜를 알게 될 것이고, 한국 측은 예정된 두 명의 인사가 네 명의 직원들을 동반하겠다고 제안함.
4) 국방부 차관과의 회담 때 크로탈에 대해 요청 받은 자료와 추가 정보를 국방부 연구개발부에 제출했음. 국방부 연구개발부가 여러 무기 시스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임.
5)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장비들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음.

1.205. Visite en France de M. Rak To Song (성낙도의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770919
페이지: 356~356

외무부 No. 284 전보에 의거.
성낙도(Rak To Song)는 해군무기 전문가임. 성낙도가 소속된 국방과학연구소(Agence de la Défense)는 한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기관이고, 이 연구소의 주목표는 미국이 제공한 이전 모델에 기반하여 로켓과 어뢰의 국내 제조 개선임. 성낙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무기 관련 '합작투자' 형태로 공동연구를 준비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기술협력 담당관(attaché de la coopération technique)에게 암시했음. 따라서 No. 635 CE.E.33 우편물명세서를 통해 보낸 문서는 여러 측면에서 국방사무총국(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에 전달되어야 할 것. 성낙도는 이정화(Lee Jung Hwa) 해양학자와 함께 프랑스에 올 것. 그는 국립해양탐사센터(CNEXO, Centre National Pour l'Exploitation des Océans)의 우다르(Houdart)가 잘 알고 있음. 이 방불 프로그램이 국립해양탐사센터에 의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외무부가 신경을 써 주기 바람.

1.206. Venue en France de M. Rak To Song (성낙도의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770922
페이지: 357~357

콩브의 전보 No. 467/68과 귀하의 전보 No. 275와 284에 의거.
성낙도는 기상학자이고, 이정화(Lee Jung Hwa)와 함께 대잠수함 무기에 관한 연수에 최근 참석했음. 성낙도와 이정화는 런던발 BE022를 타고 10월 3일 18시에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도착할 것. 외무부는 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착 시간을 국립해양탐사센터(CNEXO)에 알려주길 바람.

1.207. Airbus (에어버스)

생산일자: 19771110
페이지: 358~358

대한항공 회장은 에어버스 계약 책임자인 비아르(Viard)에게 A300B 두 대에 대한 주문서를 제출했음. 이를 통해, 대한항공의 항공기 보유 수가 에어버스 8대로 될 것. 첫 번째 비행기는 1978년 5월에 인도될 것. 이 주문은 맥도널 더글라스 DC-10에 의한 여객용 비행과 보잉 707에 의한 화물용 비행의 서울-파리 노선 구간에 대한 추가 운항 권한을 프랑스 당국이 허가하느냐에 달려 있음. 새로운 두 개의 운항은 에어프랑스와의 협력 아래 이루어질 것. 프랑스 재정 당국은 비아르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재정방식에 대해 의논할 것. 대한항공의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움.

- 이 주문은 무기 조달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에어버스가 고유의 장점으로 인해 선택된 것이 분명.
- 대한항공은 몇몇 일본 회사가 이미 채택한 보잉 747 SR에 대해 거리를 둔 것.
- 비아르가 확인했던 것처럼, 에어버스에 관심이 있는 항공사들이 항상 대한항공에 문의하는 만큼 이 주문의 영향은 외부에서 뚜렷할 것.

1.208. Activités en République de Corée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 (한국 내에서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활동)

생산일자: 197801
페이지: 359~360

1974년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SNPE)는 대포용 심플베이스 추진체 생산시설에 관한 첫 번째 계약(약 1천2백만 프랑)을 한국화약(Korea Explosives Co.)과 체결했음. 이 공장은 한국 남부의 여수에 위치. 사용자는 우수한 운행에 만족할 것.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공장을 운행 이후 2년 동안 1천만 프랑에 달하는 원자재를 제공.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직경 70mm의 로켓용 더블베이스 추진체 생산을 위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4천~5천만 프랑)에 대해 한국화약과 논의.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1975년 미사일과 탐사로켓용 복합 추진체 생산시설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한국 정부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체결했음(장비, 라이선스양도, 기술협력협정, 약 1천2백만 프랑). 시설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위치. 원자재 공급도 있음(1976년 3백만 프랑, 1977년 1백8십만 프랑). 1977년 12월 16일, 두 번째 계약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됨. 이 계약은 3개의 시설에 관한 것임. 재래 폭발물 적재 시설(대포, 대공 폭탄), 복합 추진체 제조를 위한 시범연구소, 폭발물 생산시설. 계약에는 적재와 생산을 위한 기술 양도,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이 계약은 8년 동안의 원자재 공급을 규정하고 있음. 총액은 3천5백5십만 프랑. 국방과학연구소는 신용대출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는 확정가격을 보장해야만 했음.

1.209. Politique américaine de ventes d'armes (미국의 무기판매정책)

생산일자: 19780224
페이지: 361~363

전보 No. 1185와 1364에 의거.
미국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OTAN, NATO) 회원국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 계약의 상한선이 1977년 회계연도에는 93억 달러에 달했고, 1978년 회계연도에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86억 달러로 축소되었음(전보 No. 863–864). 행정부가 발표했거나 하원이 이미 승인한 최근 무기 판매의 이 상한선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음. 상한선인 86억 달러에서, 하원이 이미 승인한 계약(이란에 대한 12억 달러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과 대통령이 승인한 총액(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48억 달러의 대량 판매)을 빼면, 1978년에는 26억 달러만 남음. 그런데 요청이 많음. 주미프랑스대사관과 무기기술임무단은 다음의 프로젝트들을 기록했음. 이란(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140 F–16과 70 F–14), 한국(90 F–16, 즉 9억), 수단(12 F–5), 인도네시아(16 F–5), 멕시코(12 F–5)이고, 총 70억 달러 정도.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고문들은 어려운 조정을 해야 할 것. 물론, 하원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 소식통에 의하면, 하원은 이란의 요청은 전부 승인하지 않을 것.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새 계약들을 1979년과 1980년 회계연도로 옮길 수 있음. 게다가 미 행정부는 수치를 계속 절감할 수도 있음. 하지만 백악관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 스페인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미국의 몇몇 동맹국은, 상한선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혜를 받음. 따라서 몇몇 국가들은 미 행정부가 제3세계를 향한 무기 판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인해 희생될 것. 논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 프랑스와 관련해 가장 분명한 결과는 몇몇 복잡한 경우에 있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유감을 점점 더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음. 무기 판매 제한 정책에 대해 하원에서 제기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행정부의 도움 아래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과학 및 국제안보소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준비했음. 주미프랑스대사관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할 것.

1.210. Contrat Airbus (에어버스 계약)

생산일자: 19780306
페이지: 364~364

1977년 11월 10일 자 전보 No. 573에 의거.
대한항공이 주문한 7번째와 8번째 에어버스 항공기 관련 계약이, 서독과 프랑스의 재정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서울에서 조금 전 체결되었음. 항공기 인도는 1978년 7월과 1979년 6월에 예정되어 있음.

1.211. Fiche a/s contrat relatif à la fourniture à Korean Air Lines des appareils Airbus A 300 B4 No. 7 et 8, communiquée par M. Viard, Vice–Président d'Airbus Industrie. (7번째, 8번째 항공기인 에어버스 A300 B4 공급 관련, 에어버스 비아르 부회장이 대한항공에 건넨 계약 자료 카드)

생산일자: 19780307
페이지: 365~366

1) 우편물명세서(365쪽)

2) 계약 변경 조항(366쪽)

변경 조항 3번(대한항공 항공기 7번과 8번)

(1) 변경 조항 3번은, 판매회사의 감독 당국이 재정 조달에 대해 승인하고 정부들이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1978년 3월 4일에 체결되었음. 항공기 7번은 프랑스에 의해 재정이 조달될 것이고, 8번은 서독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어야 할 것.

(2) 변경 조항 3번은 1978년 7월과 1979년 6월에 각각 인도될 두 대의 항공기에 관한 것. 1978년 7월에 7번째 항공기를 인도함으로써 1978년 8월부터 대한항공의 첫 5대 에어버스 항공기들에 대해 몇 가지 구조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이 작업은 서독의 렘베르더(Lemwerder)에서 1979년 초까지 진행될 것.

(3) 에어버스에 있어 이 거래의 상업적 중요성은 다음 때문.

-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에어버스의 첫 번째 외국 고객임.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
- 대한항공은 특히 보잉(Boeing)사와 같은 경쟁사들의 주요 관심 대상. 보잉은 747을 먼저 제안했고, 지금은 727을 팔려고 할 것으로 보임.

1.212. Contrat Hélicoptère (헬리콥터 계약)

생산일자: 19780418
페이지: 367~367

한국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알루에트3(SA319 B) 6대로 된 두 번째 세트 관련 계약, 즉 대통령의 견해와 제안에 따라 지난 7월에 중지된 이 계약은 4월 17일에 체결되었음. 지난번처럼, 아에로스파시알 국영회사는 발사 시설과 함께 미사일 AS–11과 AS–12도 인도할 것. 총금액은 6,370만 프랑.

1.213. Voyage d'étude de la 15e session du Centre des Hautes Études de l'Armement (군사고등연구센터 15번째 회기의 연구 출장)

생산일자: 19780901
페이지: 368~372

1) 육필 메모(368쪽): 한국 – 군사고등연구센터의 한국 출장 프로젝트

2) 군사고등연구센터의 15번째 회기 조사 출장(369쪽)

– 15번째 회기의 핵심 주제는 현재의 세계 정치 경향 '보호주의의 유혹과 무기의 제한 시도'. 이 회기의 연구 출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 대한 설명이자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음. 출장 대상 지역은, 군사고등연구센터(CHEAr)의 책임자들에게 태평양실험센터 방문과 동남아시아(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방문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될 것. 선호하는 곳은 한국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몇몇 수출품(섬유, 전자제품, 선박 등)에 대한 보호로 인해 유럽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음. 태평양실험센터–한국 협회는 우리 참석자들의 지식과 논의에 대한 중요한 종합적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무기 제한 시도가 우리의 핵무기 완성과 동남아시아의 산업 · 무역 성장이라는 맥락 속에 있기 때문. 특히 한국은 태평양실험센터의 참석자들인 고위책임자에 의해 그 지역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함.

– 출장은 1979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 참가자들은 55명의 참석자와 책임자들임.

– 태평양실험센터 센터장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철저하게 알기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과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

3) 참가자 명단(370–372쪽)

1.214. Programme Prévisionnel de la 15ème Session 1978–1979 (1978–1979년 15번째 회기 예상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80720
페이지: 373~402

1978–1979 15번째 회기의 예상 활동 프로그램 (374쪽)

프로그램 순서

– 일반적 주요 주제
– 경제 영역의 특별 프로그램: 연구주제, 컨퍼런스, 연습문제
– 군수 영역의 특별 프로그램: 연구주제, 컨퍼런스, 연습문제, 방문–인터뷰
– 기업 영역의 특별 프로그램: 연구주제, 컨퍼런스, 연습문제, 방문–인터뷰
– 예정된 여행과 방문 프로그램
– 15번째 회기의 활동 역사 도식

15번째 주요 주제 '현재 세계 정치 경향: 보호주의 유혹과 무기 제한 시도' (375~376쪽)

군사고등연구센터 활동의 주요 주제의 틀 안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세계 정치의 주요 경향(보호주의 유혹과 무기 제한 시도)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함. 이와 같은 세계적 경향이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업 운영, 특히 무기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

– 보호주의의 유혹과 국가 경제: 근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주의와 생활 수준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게다가,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생산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아주 다양할 수 있음. 이 조치들이 전개되는 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 국제교류 덕분에 이루이질 변화를 고려할 때, 프랑스와 같은 특정 국가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수지는 중기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 국제금융 혼란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국가들이 취하는 이 조치들은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안에서 구체화됨. 결국 이 경제정책이 대외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할 것. 즉, 국가와 대외경제 관계를 고찰해야 함.

- 산업과 무기 제한 시도: 참석자들은 무기 제한(재래식 무기, 핵무기)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숙고해야 함. 우리가 끌어낸 가설에 기반하여 우리는 재래식 무기 제한 정책이 프랑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찰할 수 있음.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음.
- 보호주의에 직면한 기업: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작동 조건에 끊임없이 적응해야만 함. 몇 년 전부터 세계 경제 작동의 무질서로 인해 기업들의 적응이 특별히 어려워졌음. 그래서 단기간에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구조 변화 작업을 재편성이라고 했음. 오늘날 재편성의 실행이 보호주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 하지만 이 문제가 유럽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단일 국가가 보호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유럽 공동시장이 회원국들의 행동을 조정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 따라서 참석자들이 숙고해야 할 문제는 '유럽 산업시장의 현재 전망'이 될 것.

경제 영역의 프로그램(377~388쪽)

A. 연구 주제 No. 1-1, 보호주의와 생활 수준

거의 지속적으로 강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30년 후, 현재 서구 경제는 에너지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 드러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제 성장 기간이 대외교역의 강력한 성장 기간과 일치했다고 할지라도, 이 성장이 반드시 국제무역 성장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성장기에 있던 서구 경제의 주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 교역 자유화의 장점에 관한 이런 명백한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신보호주의자들은 파악하기 더 수월하고 여론을 붙잡기에 더 좋은 몇 가지 '확실성'을 내세움. 그들은 상황이 변했고, 경제 급성장이 심각한 경제 쇠퇴로 돌아서지는 않았더라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었다고 말함. 모두가 알고 있는 몇몇 현상들로 인해, 단일 국가 중심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가 옳게 보이기도 함.

- 우리의 원가 구조로 인해 경쟁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생산품 수입(섬유, 철강, 전자제품...)
- 덤핑 가격으로 동부유럽에서 유입되는 제품들(어선, 자동차, 전기엔진...). 이것은 주로 보상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짐
- 핵심 영역(컴퓨터...)에서의 선진국들(미국, 일본)과의 경쟁

불공정 경쟁으로 위협받는 우리의 활동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교역을 '조직'하려는 유혹은 당연히 큼. 누가 섬유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고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동남아시아가 비난의 대상)? 조선업계(일본, 한국, 동부유럽, 스페인 등이 비난의 대상) 해고는 어떠한가? 철강업계(일본, 스페인, 브라질이 비난의 대상)는 어떠한가? 하지만 보호주의 조치들이 긍정적 결과보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어떤 결과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이로운 것일 수 있지만 분명 일시적일 수 있음. 이 결과가 그 해당 국가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손해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

이 점은 고용과 생활 수준에 있어, 특히 사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국제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 분야를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언뜻 긍정적 조치로 보일 수 있음. 우선 인간적 관점에서 그렇고, 또한 실업 증가는 실업자 지원과 직업전환 준비를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떨까?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섬유 분야 예시. 인도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제한 때문에, 우리는 3대의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를 놓쳤음(아마도, 잠정적으로). 에피날(Epinal)의 노동자들은 아마 숨을 돌렸겠지만, 이 두 상품의 교류는 차이가 극심함.

다른 한편, 보주(Vosge) 지역에서 섬유산업의 고용 유지는 지자체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함. 어쨌든, 이 산업은 공권력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 이 지원은 값싼 노동력의 고용 유지를 할 뿐. 그런데 아에로스파시알이 에어버스 항공기 시장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아에로스파시알이나 그 하청업체의 전문인력이 실업자가 됨. 결국 국가 전체로 보자면, 생활 수준과 고용 차원에서 손해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다른 많은 예들이 존재. 이를 통해, 수출산업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이, 국제적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산업 분야의 고용보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생겨난 추가적 수입이 소비되는 경우, 이것은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 분야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을 것. 그렇게 해서 무역자유화는 생산 효율성과 국가 수입을 증가시킴.

경제침체 기간, 무역자유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다음의 점에 기인. 수입 제품과의 경쟁 중인 산업 분야의 기존 일자리는 국제교류 때문에 실업 위기를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수출, 더 나아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점. 무역자유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에는 일종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 있음. 무역자유화의 노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비대칭성은 다음의 점에 기인. 무역자유화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인구 전체인 반면, 과도기적 조정 비용은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 분야의 자본가들과 노동자 그룹들에 의해 대부분 지불된다는 점. 정부 차원의 결정 책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와 노력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과 이득을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받는 산업 분야들이 무역정책에서 주요 예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음. 또한 한 국가가 경제적 안락이 감소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역 자유화를 거부하거나 교역 자유화에 반하는 기존 정책들을 강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음. 조정 비용은 수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조정에 대한 거부'의 비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음.

***

위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고찰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1) 고용과 생활 수준의 관점에서, 신보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무엇인가?

(2) 국가 차원에서, 고용과 생활 수준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의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3)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증가하는 경쟁에 직면해, 개발도상국, 동부유럽, 미국, 일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2)가 특히 심도 있게 다룰 말한 것이라고 판단. 이 유형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연구 주제 No. 1–2.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재화 · 서비스 수지

참석자들에게 제시된 주제는 우리나라(프랑스)의 재화 · 서비스 수지가 미래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 이를 위해, 국제무역에서의 변화를 전망해 봐야 할 것. 가령,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의 재화 · 서비스라는 큰 범주로 되어 있는 교역 도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세계 곳곳의 생산과 소비를 보여주는 이런 도표는 국제 분업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기반해서, 1985년이나 1990년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축해야 할 것. 이 시나리오들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위기와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그 변화 원인(정치적, 사회적, 제도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 고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산 · 교역 관련 국제 시뮬레이션 모델(MOISE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할 것.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중 · 장기적으로 가능한 전략적 장치들의 복잡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국가들이 취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결정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취해진 정책들에 따른 경제와 교역의 발전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프랑스의 경우, 원자재 수입, 특히 에너지 생산물 수입을 위한 대금을 지불하려면 수출은 절대적으로 필요. 이 필요가 국제교역의 전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전망의 틀 안에서 프랑스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 수지가 어떻게 맞추어질 수 있을까?

연구 주제 No. 1–3. 국제금융 무질서와 국제수지

현재 일관성 있는 국제금융 시스템이 부재함으로써, 손해가 되는 여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즉, 국제무역이 침체하고, 안정된 준비통화가 필요하며, 서구 세계 국제수지의 전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움. 금융 역사는, 금본위제(1914년까지)와 금환본위제도(1945–1971) 아래서는, 어려움에 처한 한 국가가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율–조절 시스템이 존재했음을 보여줌. 원래, 국제통화기금(IMF)이 상당한 재정 수단을 보유한 것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돕기 위한 것. 고정환율제를 포기함으로써 이 균형이 깨어졌고, 이 균형은 1968년과 1971년 사이에 쉽게 유지되지 않았음. 변동환율제 지지자들(미국에 많음)은, 환율 변동이 여러 국가의 경쟁력 조절, 따라서 이 국가들의 국제수지의 자동 조절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 7년 동안 실행된 이 체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강한 통화 국가 그룹(서독, '터널 속의 뱀(스네이크체제)' 국가들(유럽공동체), 일본, 스위스), 1971년 이후 평가절하된 통화 국가 그룹(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처럼 중간 위치에 있는 국가 그룹들이 있었음. 이 자율–조절 체제는 대외교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나머지, 여러 기관(특히, 국제통화기금)의 전문가들이 국제수지 조절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음.

프랑스의 경우, 이 상황의 영향은 무엇인가?

1973년 말, 에너지 생산물 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 강한 타격을 받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진 프랑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싸워야만 했음. 인플레이션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낮추고, 실업 증가를 억제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수출을 확대해야 했음. 이 마지막 사항과 관련해, 국제금융 무질서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음. 결제통화의 가치가 해마다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변하는 경우, 이 불안정한 변동의 무서운 여파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통화 준비금(공공, 민간)의 운영에서부터 국제계약의 통화 헤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 주요 서구 국가들이 취한 여러 해결책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이 선택의 이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연구 주제 No. 1/4. 국가와 대외경제 관계

국가 활동과 대외경제 관계 사이의 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함. 게다가 대외경제 관계는,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실행하기로 한 경제 · 사회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 전체를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일 뿐. 공권력의 활동은 국가의 다음 4가지 기능에서 이루어짐.

(1) 교육, 방위와 치안, 교통인프라, 통신,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와 재화를 세대와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2) 세대, 공기업, 외국에 지원 혹은 대출의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것

(3) 세금 징수

(4) 법규 제정. 즉, 경제 · 사회의 게임 규칙을 법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이 게임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이 기능들을 통해, 프랑스와 세계 다른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재화 · 서비스 교역, 이 기능들, 따라서 공권력이 애초에 정해놓은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참석자들은 국가와 대외경제 관계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정의한 후, 세계무역과 국제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감안한 경제 · 사회 정책의 틀 안에서 대외교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10년이나 15년 후를 전망하면서 평가해야 할 것. 그들은 프랑스의 이익에 가장 알맞게 프랑스와 다른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구조화하고 조직하기 위해 공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평가해야 할 것. 핵심은, 극도로 복잡한 일련의 질문에 대해 최종 확정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조치나 대외사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학들이 고안한 방법들의 분석과 효과, 그리고 공권력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수단의 효과를 가능한 한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B. 컨퍼런스

1) 프랑스 경제사에서의 보호주의
2) 국제금융 시스템
3)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
4) 2000년 세계 경제
5) 동부 국가들에서의 대외교역 계획경제
6)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7) 대외교역에 대한 국내 경제정책의 영향
8) 신보호주의
9) 국민경제회계에서의 대외교역
10) 산업간 교역 도표
11) DMS 모델

12) MOISE 모델

C. 경제 연습문제

경제 연습문제 풀이의 목적은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한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며, 또한 참석자들이 공권력이 해당 영역에서의 경제 현상과 결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임.

프로그램은 다음의 주제에 관한 반나절 실무 워크숍을 4번 하는 것.

1)과 2) 국민경제회계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순환

3) 금융

4) 인플레이션

이틀 동안 "당신이 계획을 세워보시오."라는 제목으로 시뮬레이션 연습이 추가될 것.

군수 영역의 프로그램(389~394쪽)

A. 연구 주제 No. 2

이 회기의 주요 주제를 고려하여, 참석자들은 먼저 무기 제한 개념에 대해 숙고해야 함. 이것은 여론에 인기가 있는 생각. 여러 정당들은 이에 대해 습관적으로 말함. 국제적 차원에서, 역사는 세기 초부터 협상과 조약으로 가득 차 있음. 특히, 군비축소에 관한 컨퍼런스는 오래전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음.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힘. 핵 분야에서 많은 조약이 체결됨. 이런 맥락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선택, 다른 국가들의 압력, 또는 국제 여론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군비축소 정책에 대해 숙고해야 함.

비제한적인 방식으로, 참석자들은 다음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재래식 무기
  - 몇몇 지역에 대한 몇몇 생산국의 무기 수출 제한 혹은 무기 수출 금지
  - 중립 혹은 비무장 지역 만들기
  - 세계의 이런저런 지역에서의 군대 축소
  - 어떤 유형의 무기 포기(가령, 질식 가스)
- 핵무기
  - 비확산조치
  - 전면 핵실험 금지
  - 제조금지
  - 공격 · 방위 핵무기 제한
  - 핵무기 해체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 정책 중의 몇 가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고찰의 목표는, 참석자들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 이 과정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 첫 번째 검토 후, 위원회들은 다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

연구 주제 No. 2-1. 재래식 무기 제한 정책이 프랑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재래식 무기의 양적 혹은 질적 제한, 또는 수출 제한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프랑스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는 것. 이런 조치는 약 27만 명을 고용한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 활동 감소를 초래할 것. 그리고 27만 명 중의 1/3이 수출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영향을 받게 될 산업 분야는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에 속함. 이 산업 분야는, 더 고전적 산업 분야가 값싼 인건비에 기반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만큼, 경제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무기 관련 제한이 산업 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까?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검토해야 할 다른 측면은 계속 제조되는 무기의 질에 대한 영향임. 프랑스 군대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은 확대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프랑스 군대의 전략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는 프랑스의 능력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

연구 주제 No. 2.2. 핵무기 비확산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핵무기 비확산 정책은 핵보유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행됨. 이것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이 정책의 적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 고안국들은 핵분열성 물질의 사용 권한 통제에 기반하여 확산 통제를 구축(프랑스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 조약의 정신에는 동의함). 그런데 에너지 위기로 인해 모든 국가는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해야 함. 이것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세계에서 설립해야 한다는 뜻.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함. 특히, 증식형 원자로의 일반화를 통해서만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프랑스는 농축과 재처리공장을 수출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증식형 원자로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음. 프랑스보다 더 강대국이지만 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종류의 수출을 금지하려고 애쓰고 있음. 어떻게 프랑스는 원자력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프랑스 기술이 손쉽게 생산해 내는 핵분열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군비축소는 몇몇 국가들의 파렴치한 보호주의에 핑곗거리가 될 수 있음. 어떻게 프랑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생각해야 함.

B. 컨퍼런스

1) 억제와 군비축소
2)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협상
3)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
4) 핵무기와 비확산
5) 여론과 무기 제한
6)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산업들
7) 무기와 연구
8) 군수 공장의 미래와 무기 통제
9) 국제 무기시장 수출 지원과 장벽
10) 항공과 대외시장
11) 군비축소와 강대국의 투쟁, 환상과 현실
12) 무기 통제

13) 방위 관련 민간 인력
14) 일본의 군수산업
15) 군수관련총대표단(Délégation Générale à l'Armement)의 정책
16) 프랑스 군사정책
17) 미국과 무기 제한
18)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한 무기 수입국
19) 보호주의와 국가 경제

C. 연습문제
군수경제 연습문제: 하루와 1/2
중기적 군사계획 준비, 방위정책의 경제 측면

D. 방문–인터뷰
방문–인터뷰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것. 방문–인터뷰를 통해, 참석자들은 역량 있는 인물들로부터 연구 주제 고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기업 영역의 프로그램(395~401쪽)
A. 연구 주제 No. 3. 유럽 산업시장의 현재 전망
보호주의의 일반 주제는, 기업이 끊임없이 재편성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정치의 균형이 초점. 기업이 자신의 힘으로 적응 노력을 하는 데 한계에 도달할 수 있어서, 국가 주도로 재편성이 이루어짐. 하지만 과거에는 세계 무역 발전을 이끈 서구 국가들의 확장 동향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재편성이 이루어졌음.
기업 고유의 역동성은 이 객관적 상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재편성은 수익을 끌어내는 기업의 역량에 의해 증가한 이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 기업은 시장의 정복, 유지, 발전으로 동기부여를 받음. 기업은 자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함.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은 전적으로 정치 차원. 이 조치들의 목표는 공급과 수요의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조치들은, 기업에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급과 수요의 경제적 균형을 왜곡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음. 더 이상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 투자를 달리 분배함으로써 원가를 낮추거나 새로운 산업 활동을 개발해야 함. 재편성은 금융 조치 또는 보호주의의 일환인 수입 · 수출 규제나 금지 조치로 불붙음. '시간'이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운영 조건에 개입된 변화들, 그리고 유럽이라는 맥락에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변화들에 대해 고찰해야 함. 구축 중이던 유럽의 산업 · 경제 구조에 관한 제8차 회기 참석자들의 작업이, 이 고찰을 위한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전략을 결정짓는 일반적 환경의 주요 특징들은 전개 방식을 이끌어감.
– 국경 개념은 산업과 무역의 발전에 있어 아무 의미가 없음. 교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국적
– 제3세계는 서구 국가들과 같은 확장 경향을 만들어 내는 산업 개발 역량을 획득

–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동향은 생산구조의 심층적 변화를 초래
– 그 규모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실패를 감수해야 함
– 확장의 결실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만들어 냄

이를 통해, 선진국 기업들은 다음을 추구.

– 기술 · 사회 발전. 따라서 연구와 혁신에 투자 확대(전자, 생화학, 우주항공, 원자력, 정보과학)
– 발전 수준이 유사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과 같은 국가들 사이의 협조

이 모든 것이 1971년 이후 기억을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가?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 산업 정책에 의해서, 프랑스나 유럽 기업의 변화, 상황,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고찰될 것.

B. 컨퍼런스

1) 프랑스와 외국에서의 국제교역의 재정 조달
2) 유럽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 · 재정 정보
3) 유럽산업의 강점과 약점
4) 기업의 다국적 전략
5) 전자 분야 대기업의 연구 전략
6) 유럽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기회
7) 에너지 영역에서의 유럽 '연대'
8) 미국에 직면한 유럽 우주항공산업
9) 산업전략의 변화: 다각화와 재편성
10) 재편성의 필요에 직면한 산업조직의 변화
11) 기업 내의 정보와 책임 변화
12) 산업 재편성 앞에서 노조의 역할

C. 연습문제

실무 워크숍의 목표는, 참석자들이 사례연구에 나온 몇몇 경영 문제와 전략적 결정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기억의 경제 · 재정 상황에 친숙해지는 것. 사흘 동안(반나절)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음. 그리고 이틀 동안 기업 경영 게임을 할 것.

D. 방문–인터뷰

방문–인터뷰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역량 있는 인물들로부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결론

각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 고찰 후, 참석자들은 두 번의 종합 회의를 할 것. 이 회의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은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를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될 것. 종합 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

여행과 방문 프로그램(401쪽)

제15회 회기 일정표(402쪽)

1.215. 한국으로의 연구 여행

생산일자: 19770704
페이지: 403~404

일전에 비공식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언급했던 군사고등연구센터(CHEAr)의 한국으로의 연구 여행의 목표에 관한 의견을 주기 위해 누아빌(Noiville)과 함께 갈 수 있음. 다음 회기의 주제 '국가–기업가'는 공기업의 경제 · 산업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 태평양실험센터(CEP)에의 체류로 마무리될 여행을 통해, 참석자들은 아시아의 3번째 산업 강국의 발전 현황을 경험하게 될 것. 예정된 방문은 국가가 후원하는 한국의 경제적 결과물과 관련될 것. 창원단지(기계산업), 울산(석유화학), 구미(전자), 포항(철강), 여천(화학), 현대조선소를 방문할 것. 전임 국제국 국장이 무기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저의가 없다는 점을 아상스가 보장할 수 있음. 이 여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프랑스에 보여주려는 한국의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되어야 함. 국방장관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상스는 다음을 송부할 것.

– 14회 회기 예상 프로그램

– 지난 중국과 일본 여행 보고서(소련 여행에 관한 1977년 보고서는 작성 중임)

1.216. Missiles sud–coréens (한국 미사일)

생산일자: 19781006
페이지: 405~406

한국 언론과 텔레비전 방송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제조된 것으로 소개된 미사일 실험을 며칠 전 특히 부각했음. 이 미사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대중에 공개된 것임. 이 미사일 중의 하나가 특히 관심을 끎. 레이더에 의해 조종되는 미국 나이키–허큘러스(Nike–Hercules)에서 파생된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50km임. 따라서 평양까지 닿을 수 있음. 미사일은 완전히 한국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미국 총사령관은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말했음. 하지만 미국 대리공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한국에 의한 제작이라고 함. 미사일의 몇몇 부품들이 미국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뜻. 두 사람의 다른 의견으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는 미국군이 국무부에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는 인상을 받았음. 이 때문에, 미국 대리공사가 "우리가 한국이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이 이제 밖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이상하게도, 북한은 침묵을 지켰음. 북한이 소련에 유사한 미사일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 소식을 소련으로부터 들을 수는 없을 것. 항공기 제조가 머지않았다

는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야망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미국 대리공사가 결론을 맺음.

1.217. Armements: sous-marins Agosta (군수품: 프랑스 아고스타급 잠수함)

생산일자: 19781116
페이지: 407~408

한국 해군의 기술 임무단이 선박 박람회에 최근 참석하는 것을 통해 아고스타급 잠수함에 대한 한국 당국의 관심이 높아졌음. 또한, 미 국방부장관이 며칠 전 방한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한국 해군이 북한처럼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미 국방부장관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함. 브라운(Brown) 미 국방부장관은, 재래식 잠수함의 제조가 미국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제조업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한국 프로젝트는 프랑스에서 제조된 한두 척의 잠수함을 매입하거나, 프랑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조선소를 한국에 건설하는 것. 한국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적어도, 구두로)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아마도 문의를 할 것. 한국 임무단과 동행했던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군무관에 의해 군수관련총대표단(DGA) 국제국(DAI)에서 수집된 반응은 긍정적임. 프랑스 외무부가 이 긍정적 원칙적 입장이 사실인지 알려주기를 바람.

1.218. Vente d'avions américain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미국 항공기 판매)

생산일자: 19781130
페이지: 409~410

11월 23일 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기사에 따르면, 1977년 7월 카터(Carter) 대통령이 구체적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F-16의 인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함. 이 기사에 따르면, 그때부터 미 행정부는 F-16에 대한 한국의 구매 요청에 대해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음. 미 국방부장관은 최근 방한 때, 이 사안에 관해 한국 측에게 다시 실망을 안겨준 것이 틀림없음.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이렇게 주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 F-16을 한국에 판매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정밀한 무기가 한반도에 도입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임(북한은 Mig-23은 없고, Mig-21을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소련이 F-16 제공에 대해 미국에 경고를 가할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임. 기사에서는 공인된 소련 외교 소식통의 발표를 인용하고 있음. 한국에 대한 F-16 판매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은 소련 외교관은 다음처럼 답한 것으로 보임. "미국이 우리를 그런 경쟁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길 바란다." 기사를 보면, 국방부(판매에 긍정적)와 국무부(판매에 반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국무부는 그런 상황을 부인함. 미국 군비규제군축청은 이 거래에 전통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쓰여 있음. 하지만 최근 군비규제군축청의 책임자에, 한국에서 복

무한 퇴역 장성이자 국방부 무기 판매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인물이 임명되었음. 만약 이 임명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군비규제군축청의 신임 청장은 이 기관의 입장을 바꾸고, 국방부가 내년에 한국에 F-16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음.

1.219. Sous Marins Agosta (프랑스 아고스타급 잠수함)

생산일자: 19781218
페이지: 411~412

외무부 전보 No. 420에 의거.
11월 중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의해 수집된 사항들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재래식 추진 잠수함 구매와 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개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은 한국 해군 안에 여러 유럽 국가(서독,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제안한 여러 유형의 잠수함을 비교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 미국 장교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미국은 2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대형 잠수함을 제안했지만, 연식, 원상 복귀를 위한 과도한 비용, 라이선스 획득 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제안은 배제되었다는 정보를 수집. 이 정보의 내용이 상세한 만큼, 한국 정부가 유럽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갖게 되었다는 추정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음. 이 사안에 대한 확실성을 얻는 방법이 보이지 않음. 한국 측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의 주권을 의심한다는 뜻으로 비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프로젝트라는 답을 들을 것이 분명함. 미국 측에 질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질문을 서울에서 하지 않기를 바람.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은 유엔사령부에 파견되지 않았으므로, 미군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음. 이런 맥락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가 주한 미국대사에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것은 국방무관의 위상 또는 다른 주제들에 대해 반발을 불러올 것임. 대사는 기회가 닿는 대로 관련 유럽 국가 대사들을 탐색하여, 외무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

1.220. 미국 달러로의 계약 체결 필요성

생산일자: 19790702
페이지: 413~414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 측은 미국 달러로의 계약 체결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음. 관련자들이 자금 환류의 환율 위기 보증을 원했기 때문. 올해 초부터,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조달 기관인 영국 방위조달청은 계약을 미국 달러로 체결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요청했다고 말할 수 있음. 최근, 방위조달청이 강세 통화(스위스 프랑)로 계약했다가 낭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 달러로만 계약을 원함. 한국 원화는 1974년 이후 기준시세로 달러에 연결되어 있음. 거의 미국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자 할 때 프랑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관례에 반하는 것은 틀림없이 위험할 것. 따라서 미국 달러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함.

1.221. Origine: Affaires économiques (Affaires générales) Objet: Négociations aéronautiques franco-coréennes (경제사안(일반사안)에 근거한 한불 항공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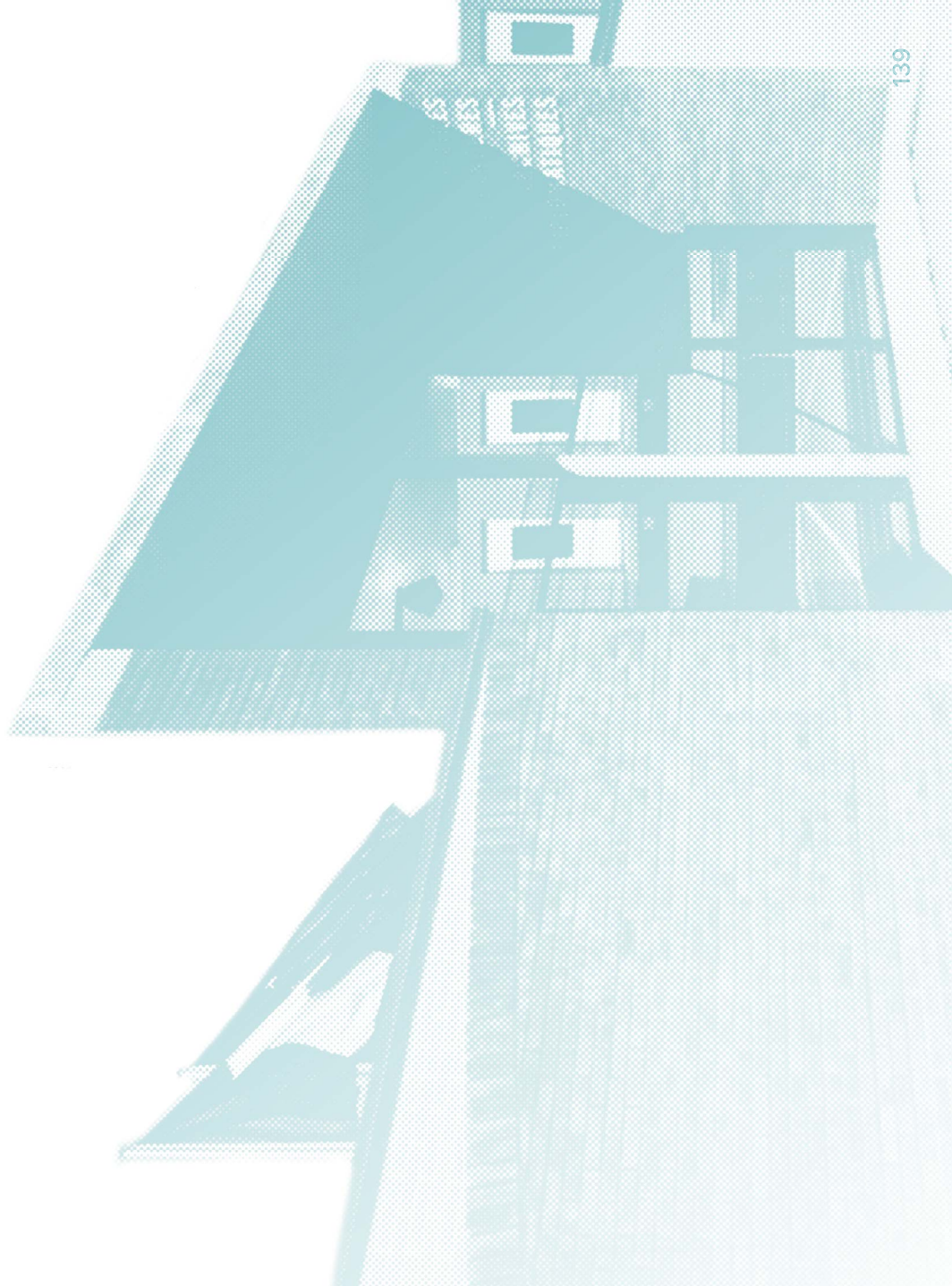
생산일자: 19800618
페이지: 415~416

전보 No. 10708, 그리고 주한 프랑스대사가 오늘 경제재무국 직원과 나눈 대화에 의거.

6월 23일로 예정된 협의를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프랑스의 항공 이익에 해로울 수 있음. 현재, 에어프랑스(최고위층 인사들)는 1981년 봄 전에 서울을 기항지로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파리 노선의 주 3회 운항 중에서 3번째 운항을 (아마 다음 가을) 폐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운항 폐지는, 대한항공이 일본에 대한 노선 전환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같은 노선 전환은, 프랑스 국적기가 프랑스와 일본의 노선에서 흑자를 기록했었을 때는 용인된 것이었음. 지난 5월 협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 가운데 있음.

따라서 우리가 5월에 제의한 교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에어프랑스가 서울에 대한 운항을 열 때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항 중에서 3번째 운항을 폐지하겠다고 오늘 받아들인다면, 에어프랑스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의 이 3번째 운항에 대한 폐지를 가을에 결정할 경우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될 것.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일본 노선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항 횟수를 감소시킬지 대한항공이 우려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 대한항공이 어제까지 거절해 온 토대에 기반 해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프랑스 당국은 예정된 협의를 유지하려고 할 것. 우리가 요청한 연기(몇 주)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상황을 더 잘 파악한 가운데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앞의 정보들이 한국 측에 넘어가지 않아야 함.

서명: 스두이(Sedouy)



2. Corée du sud. Recherches atomiques. 1973-1975

번역제목	한국. 원자력 연구. 1973–1975		
철 관리번호	PZA0008363	생산기간	1973~1976
기록물 건수/매수	106건/251매	원 소장처 관리번호	755 INVA 2205 12.11.5

주요 내용

- 고리 원전 견학 관련 보고서 및 프랑스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보고
- 1972년 5월 한국과 프랑스 간의 원자력 부문 협력에 관한 보고서,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 원자력연구소(KAERI) 간의 교류, 한국 측의 고속로 등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 해외 개발 성과, 원전 연료 물질 제조 수단 확보, 사용후핵 재처리 기술에 관한 관심
-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협력과 반응, 전망 등에 대한 보고
- 1974년 2월 이병휘 원자력국 국장의 프랑스 방문에 관한 보고서, 이병휘 국장의 방불은 원자로와 관련한 프랑스의 성과와 아이디어를 배우고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을 확인,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및 핵연료 물질 제조 시설 건설 등 진전, 한국 과학기술처와 프랑스 원자력청 간의 협력 진행 상황 파악 목적
-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한국 측의 프랑스 원자력청 전문가 파견 요청 및 이에 대한 검토
- 프랑스와 한국의 원자력 개발 협력과 관련한 검토, 프랑스의 유리한 점과 향후 한국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
-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세르카(CERCA)社, 생고뱅(SGN)社 간에 맺은 핵연료 제조 시범시설 건설과 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에 관한 내용, 계약 및 자금조달에 관한 논의, 핵연료 재처리가 플루토늄 생산을 통한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관한 우려 및 검토
- 주캐나다 프랑스대사관의, 캐나다의 대외(한국 포함) 원자력 개발 및 정책에 관한 동향 보고, 핵확산을 막기 위한 캐나다와 프랑스 간의 대담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
- 1975년 당시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관계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필요성 및 협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협정에 따라 프랑스가 한국 측에 제공하는 설비, 장치, 재료 등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이 공급의 선결 조건임을 밝힘
- 한국의 원자로 현황과 건설 예정 원자로들에 대한 보고
- 미국의 한국의 핵 능력 확보 움직임에 대한 경계에 관한 내용, 미국은 한국이 핵 관련 과학자들을 모집해 집단을 조직하려 하며 이것이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 미국 외 국가의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감시

-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한국계 과학자들을 비롯해 유럽 활동 한국인 학자들을 서울로 초청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보고,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과학자와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측의 압력에 대해 한국 당국에 경고 및 대상자들 보호 요청
- 미국 측과 프랑스 측의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문제 논의에 관한 보고서, 재처리 시범시설을 확보하려는 한국 측의 의지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우려 중이며 미국은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캐나다가 건설 중인 한국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감시 중이라는 보고
- 프랑스가 파키스탄, 타이완, 한국, 아르헨티나 등에 핵 시설을 제공하고 핵확산을 방조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한 프랑스 측의 반박과 미국 및 프랑스 정부 내 반응에 대한 보고
- 1975년 6월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공식적인 핵개발 관련 발언에 대한 분석
- 한불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겸 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을 통한 프랑스의 한국 원전 건설 수주 참여 관련 논의에 대한 보고
-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군사 장비 및 원자력 수출에 따른 미국의 대응에 관한 보고, 미국은 엑조세 등의 첨단 무기 수출과 한국의 핵능력 확보 시도에 대해 경계함. 한국의 핵 관련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 중이라는 전보
- 미국의 경계와 우려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에 대한 보고, 1975년 10월 23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범 설비 도입을 결정했다는 보고
- 프랑스가 한국에 재처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핵확산을 조성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 기사에 대한 프랑스 측의 반박 및 미국 측에 대한 항의, 각국 반응에 대한 보고, 반핵운동 단체가 프랑스 정부 측에 보낸 서신과 관련한 내용
- 한국 원자력 발전소 5호기, 6호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고
- 한국 측의 핵 개발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
- 미국 측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경계와 관련해 프랑스 측 이익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 미국의 압력 및 한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계약 연기와 관련한 보고

수록 기록물명

2.1.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2.2.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2.3.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2.4. Pour questions scientifiques.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과학적 문제들)
2.5. Coopération nucléaire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du Sud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
2.6. Affaires scientifiques (과학 사안들)
2.7. Retraitement en Corée du Sud. Entretien avec M. Landy, le 3 décembre (한국 내 핵연료 재처리. 12월 3일 랑디 대사와의 면담)
2.8.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2.9. Projet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de 900㎿, type PWR de Corée du Sud (9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기의 한국 공급 프로젝트)

2.10. Usine de retraitement des combustibles nucléaires (핵연료 재처리공장)

2.11. Lettre du Président du Conseil National du Mouvement de la Paix en date du 12 Novembre 1975. Projet de réponse soumis au Cabinet du Ministre (반핵운동 단체 '평화운동' 대표의 1975년 11월 12일 자 서신. 장관실에 제출한 답서 초안)

2.12. Coopération nucléaire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du Sud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

2.13. Les à–coups de la coopération nucléaire américano–coréenne (급변하는 한미 원자력 협력 상황)

2.14. Conversation avec l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담화)

2.15. Editorial du Washington Post sur le contrat nucléaire franco–coréen (한불 원자력 관련 계약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 사설)

2.16. Décision française de vendre à la Corée du Sud une usine de retraitement de carburant nucléaire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판매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

2.17. Éditorial du New 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2.18. Affaires scientifiques (과학 사안들)

2.19. Éditorial du New 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2.20. 한국 언론의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보도

2.21. Réfutation de l'article du New–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반론)

2.22. Éditorial du New–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2.23. 한국전력주식회사(KECO) 회장과의 담화

2.24. Plan nucléaire coréen (한국의 원자력 계획)

2.25. Entretiens avec l'ambassadeur des États–Unis (주한 미국대사와의 회담)

2.26. 한국원자력연구소 윤용구 소장과의 담화

2.27. Note 'Need and justification for Our Institute's Nuclear Fuel Technology Research Program' remise non signé, le 16 octobre, par le Dr YOON Young Koo, Directeur du KAERI, pour faire suite à ma communication à ce jour (KAERI 소장 윤용구 박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0월 16일 서명 없이 전달한 노트 '우리 연구소의 핵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

2.28. 한국전력주식회사(KECO) 회장과의 담화

2.29. 한국 언론,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보도

2.30. 한국원자력연구소 윤용구 소장과의 담화

2.31. Ventes nucléaires et d'armements en Corée (한국 대상 원자력 및 군수품 수출)

2.32. Centrale nucléaire canadienne (캐나다형 원자력 발전소)

2.33. Réticences étrangères au développement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외국의 거부감)
2.34. Centrale nucléaire canadienne (캐나다형 원자력 발전소)
2.35. Réticences étrangères au développement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외국의 거부감)
2.36. Ventes nucléaires et d'armements en Corée (한국 대상 원자력 및 군수품 수출)
2.37. 빈 3자 협정 후속 대책
2.38. Conseil des gouverneurs de l'AIEA (accord de garanties avec la Corée) (IAEA 이사회(한국과의 안전조치 협정))
2.39. 삼성물산 측 프로젝트
2.40. 한국에 재처리공장 공급
2.41. Garanties nucléaires en Corée (한국의 핵 안전조치)
2.42. La Corée du Sud négocie avec la France l'achat de centrales nucléaires (한국의 프랑스 원전 구매 협상)
2.43. Suite au voyage de M. Nam (남 부총리의 프랑스 방문에 이어)
2.44. Projets nucléaires de la Corée. Usine de retraitement de Saint–Gobain.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생고뱅의 재처리공장.)
2.45. Projets nucléaires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2.46. Engagements internationaux dans le domaine atomique (원자력 부문의 국제적 약속)
2.47. Vente d'un réacteur Candu à la Corée (캐나다형 원자로의 한국 판매)
2.48. Relations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캐나다와 한국 간 관계)
2.49. Vente d'un réacteur Candu au Pakistan (파키스탄 대상 캐나다형 원자로의 파키스탄 판매)
2.50. Vente d'un réacteur Candu à la Corée (캐나다형 원자로의 한국 판매)
2.51. Visite en Corée du secrétaire d'État aux Affaires extérieures (캐나다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2.52.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du Sud – Déclarations du Chef de l'État (한국의 핵 정책 – 대통령의 발언)
2.53.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54.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핵 관련 협력)
2.55.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56.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57.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58.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59.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2.60. Visite en France de M. Kim Jin–hyu (김진휴 실장의 프랑스 방문)
2.61.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2.62. Corée/Énergie nucléaire (한국/핵에너지)

2.63. Invitation en France de M. Kim Jin Yu, directeur administratif du KAERI (KAERI 김진휴 행정실장의 프랑스 초청)

2.64.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65. Création d'une agence coréenne de l'énergie atomique (한국의 원자력 기구 설립)

2.66.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부문 협력)

2.67. La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정책)

2.68.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정책)

2.69. Asie – service des affaires scientifiques (아시아 – 과학 사안들)

2.70. Non–prolifération. Entretien avec M. Dupuy, sous Secrétaire d'État au Ministère des Affaires Extérieures canadien. –Note du Service des Affaires scientifiques en date du 13 mars 1975 (비확산. 캐나다 외무부 뒤퓌 차관보와의 담화 –1975년 3월 13일 자 과학 사안들 노트)

2.71. Problèmes du retrait des résidus nucléaires (핵 폐기물 처리 문제)

2.72. Accord de garanties France–Corée–AIEA. Copie d'une lettre adressée au Directeur Général de l'AIEA (프랑스–한국–IAEA 안전조치 협정: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 사본)

2.73. Problèmes spécifiques de non–prolifération intéressant la France et le Canada (프랑스와 캐나다와 관련된 핵 비확산 문제)

2.7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75. Accord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협정)

2.76. Accord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협정)

2.77.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78.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79.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80.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2.81. 캐나다 측의 답변 지연

2.82. Problèmes spécifiques de non–prolifération intéressant la France et le Canada (프랑스 및 캐나다와 관계된 핵 비확산 문제)

2.83. Étude sur l'énergie nucléaire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검토)

2.84. 한국의 원자로 현황

2.85. 프랑스 정부의 추가 안전조치에 관한 제언

2.86. Contrat de KAERI avec les sociétés S.G.N. et CERCA pour la construction d'installations nucléaires (생고뱅社 및 CERCA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 간의 원자력 시설 건설 계약)

2.87.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 Copie de la lettre du 14.1.1975 de la Sté St–Gobain–Techniques–Nouvelles adressée au Dr. Choo. (한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 – 생고뱅에서 주 박사에게 보낸 1975년 1월 14일 자 서신 사본)

2.88.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관련 협력)

2.89.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관련 협력)

2.90. Fourniture d'équipement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원자력 장비공급)

2.91.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nucléaire. Usine de retraitement de combustibles irradiés. (한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2.92. Nouvelles dispositions régissant les exportations canadiennes de matériel nucléaire (캐나다의 핵 물질 수출 시 적용되는 새로운 조치)

2.9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2.94. Visite à Paris du Président de l'Institut de Recherche sur l'Énergie Atomique de Corée (KAERI), du 11 au 14 septembre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9월 11~14일 파리 방문)

2.95. 한국과의 거래에 대한 문의

2.96. Combustible nucléaire (핵연료)

2.97. 한국의 원자력 개발 협력 방식 논의

2.98. Origine: Accord bilatéraux Objet: Financement de projets nucléaires pour le conseiller commercial de la part de la DREE (양자협정에 근거해 대외경제관계국에서 상무관에게 보내는 원자력 프로젝트 자금조달 관련 전언)

2.99.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 관련 전언

2.10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Projets de traitement de combustibles nucléaires (양자협정에 근거한 핵연료 처리 프로젝트)

2.101. 원전에 우선권 부여 전망

2.102. Compte rendu de la visite en France de M. Byoung Whie Lee, directeur du Bureau de l'Énergie Atomique de Corée du Sud (한국 원자력국 이병휘 국장 프랑스 방문에 대한 보고서)

2.103. Problèmes de l'énergie et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nucléaire en Corée (한국의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 산업 개발)

2.104. Vente de réacteurs canadiens à la Corée (캐나다 원자로의 한국 판매)

2.105. Coopération nucléaire franco–sud–coréenne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2.106. Centrale atomique de Ko–ri (고리 원전)

수록 건 기록물 내용

2.1.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51230
페이지: 1~5

1975년 12월 30일 한국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여 통보받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보고임. 현재로서 한국 정부 당국은 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계약 조인 연기를 희망하며, 기술진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함. '현재로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됨. 연기 기간이나 결정 이행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받지 못함. 분쟁 발생 대비, 생고뱅社와 CERCA社의 구제책 강구 등 공정한 절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코파스(COFACE)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한국 측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12월 29일에 만난 주프랑스 한국대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발신자에게 곧 연락을 취할 예정이며, 프라마톰(Framatome)社에 낙찰된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

2.2.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51229
페이지: 6~6

미국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논의를 희망하며, 그때까지 프랑스 기업들과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할 것으로 보임.

2.3.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51227
페이지: 7~7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한국 측 논의에 대한 보고임.
12월 23일 한국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들었으며 이튿날 국무총리 예방 시 한국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중시한다고 들음. 과거 사업과 관련해 총리의 발언 중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으나 반복을 요청하지 않음. 아직 신임 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곧 서울을 방문할 예정으로, 12월 29일에 만나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4. Pour questions scientifiques. Atelier de retraitement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과학적 문제들)

생산일자: 19751224
페이지: 8~9

주한 미국대사 리처드 스나이더(Richard Sneider)와 재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
스나이더 대사에 따르면 재처리 시설이 한국 정부 당국과 교섭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며,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함. 대사가 언급한 조치가 한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곧 반응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는지 묻자,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답함. 스나이더 대사는 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월 15일 출국 예정이므로 그 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며, 출국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프랑스 측이 한국 측과의 계약 조인까지 얼마나 시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대사의 질문에 주한 프랑스대사는 모르겠다고 답함. 계약의 전면 파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나이더 대사는 재처리 부분에 대한 파기라는 점을 밝힘. 정확한 기술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미국 측에 따르면 재처리 이외의 부분을 별개로 다룰 가능성이 있음. 일부 파기에도 불구하고 생고뱅社 및 CERCA社와의 계약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한국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움. 지난 12월 19일 한국의 개각으로 인해 일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12월 24일 신임 국무총리를 예방할 예정임.
스나이더 대사와 원전 프로젝트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음.

2.5. Coopération nucléaire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du Sud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51218
페이지: 10~11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캐나다 측 입장에 대한 보고임.
캐나다 측 동남아시아 국장에 따르면 한국에 캐나다형 원자로 1기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10여 일 전으로 예정되었던 협력 협약 체결이 연기됨. 한국 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쉽게 약속한 것이 도리어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프랑스의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한국의 의도 역시 우려스러움. 미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원자로 2호기 판매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캐나다에 알려옴.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놓임. 협정 조인을 추진할 경우 하원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조인을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의 신용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음.

2.6. Affaires scientifiques (과학 사안들)

생산일자: 19751211
페이지: 12~15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관련한 전반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임.
생고뱅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한국 측이 선금을 지급함. 생고뱅 측은 발효에 필요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함. 프랑스는 공급하기로 한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포기를 얻어내려는 노력에 적대적 입장은 아님을 미국 측에 이미 오래전에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측의 질문에 대해 한국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답함. 프랑스 측은 미국 국무부 차관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이 적절한 교섭 상대를 선택한 것 같지 않다고 미국대사관에 지적함. 차관의 의도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재차 한국의 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었다고 함. 1월 10일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며, 미국대사는 한국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목록을 이 자리에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함.

핵무기 확산 책임을 전적으로 재처리 수준에 돌리는 것은 부적절함. 핵연료 주기에 따라 책임도 달라지며, 책임의 상당 부분은 원자로 공급자에게 있음. 생고뱅은 재처리 분야에서 거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많음. 재처리 최종 단계에서 나온 플루토늄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당하지만, 특정 국가의 재처리 시설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 기업들에게 기회를 빼앗길 우려가 있음. 한국이 재처리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장에 만족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미국이 캐나다와 합의해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2, 3, 4호기와 1호기의 농축우라늄을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이 자국 외부에서 재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한다면 프랑스는 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잉거솔 차관의 발언에 숨은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 원자로 및 캐나다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핵연료를 라 아그(La Hague) 재처리장에서 재처리하도록 할 생각이라면 프랑스로서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님. 반면 미국이 일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프랑스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본 내에 두 번째 재처리공장(생고뱅의 기술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공장과 마찬가지)을 세울 수 있다면 이 건을 더 자세히 검토할 가치가 있음. 잉거솔 차관은 재처리 작업장과 재처리공장을 혼동한 것으로 보임. 연간 최대 1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 시설이므로 양적 측면보다 기술이전이 핵심임.

한불 기술이전 보장에 대한 기밀성 서신 교환은 지난봄에 임시 조인 되었으나 아직 조인되지 않음. 프랑스 정부의 승인과 그에 따른 계약 발효를 보증하는 기밀성 서신 교환은 연계되어 있기에 미뤄진 것임. 극비 사항이지만 11월 13일로 조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랑디 주한 프랑스대사 측이 입수한 비밀 정보 등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연기됨. 한국대사 측에는 7개 핵 공급국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평화적 사용 보장 조항을 재검토하기를 원하며 곧 결론을 통보하겠다고 밝힘.

2.7. Retraitement en Corée du Sud. Entretien avec M. Landy, le 3 décembre (한국 내 핵연료 재처리. 12월 3일 랑디 대사와의 면담)

생산일자: 19751205
페이지: 16~18

1) 발신자, 수신자, 문서 전달 이유 명시된 문서 전달 양식(16쪽)

2) 12월 3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와의 면담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보고(17–18쪽)

랑디 대사가 11월 12일 자 메시지에 관해 확인하면서 정보 제공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 최측근의 지인은 서울 공항 안전 책임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자 유도 지도자로 활동하며 각료들을 접할 기회가 많음. 이들에게 랑디 대사를 잘 안다고 말하면 프랑스대사 덕분에 한국이 곧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한다고 함. 슐레진저(Schlesinger) 미 국방장관은 방한 당시(초여름으로 추정) 북한이 침공할 경우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밝혔다고 함. 한국의 핵무기 제조 시도를 저지하려는 의도였으나 미국 내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고, 한국은 슐레진저가 이 발언을 계기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함. 랑디 대사에 따르면 한국은 자국 출신 원자력 산업 전문가 모집에 나서고 있음. 이는 곧 한국의 원자력 개발에 저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임.

2.8.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1205
페이지: 19~19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접촉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담은 문서를 첨부하니 확인을 요청함.

2.9. Projet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de 900MW, type PWR de Corée du Sud (9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기의 한국 공급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1201
페이지: 20~25

1) 프로젝트의 성격

- 9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기(한국 원자력 프로그램 5호기와 6호기)를 동일한 해변 부지(고리가 유력)에 건설하려는 프로젝트
- 의뢰처인 한국전력주식회사(KECO)는 이미 수력 및 화력 발전소를 건립해 가동 중임. 원자력 부문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와 영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社 및 조지 윔페이(George Wimpey)社에서 공급하는 6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고리에 건설 추진 중임. 1호기는 1977년 가동 예정이며 2호기의 경우 공급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임.
  - 캐나다에서 공급하는 600MW급 캐나다형(가압중수로형) 원전 2기 건설 추진 중임. 3호기는 1981년 가동 예정이며 4호기 공급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임.
- 한국 총 전력 생산량은 4,500MW이며, 연간 생산량을 15% 늘린 다음 1985년경까지 점차 10%로 줄일 계

획. 따라서 설비 용량은 15,000㎿가 되어야 함.

– 한국은 1차 프로젝트의 지연을 고려해 5호기 6호기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

– 공식적으로 5호기는 1983년, 6호기는 1984년 가동을 목표로 하므로 5호기의 경우 1976년 초 협의에 이르고 1977년 초에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 KECO가 예상하는 총투자비용 중 외국 자본은 33억 프랑, 한국 자본은 22억 프랑(자금조달 비용과 핵연료 최초 적재 비용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지만 경험상 이러한 유형의 원전의 경우 국내 자본이 총액의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 추산치는 더 늘어날 전망.

2) 프로젝트 연혁

– 1973년 10월~1974년 2월: 프라마톰社와 KECO 간 예비 교섭 기간 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됨.

– 1975년 6월: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유럽 측으로부터 5호기와 6호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함. 6월 30일 유럽국제무역센터(Centre Européen du Commerce International, CECI)가 유럽 기업 대표들에게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1975년 9월 26일: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 어떤 역할 분담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CECI가 컨소시엄 진행을 시도함.

– 1975년 10월: 의뢰처의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KECO 기술진의 유럽 방문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프라마톰社가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함.

– 1975년 10월 말–11월 초: 한국 기술진이 프랑스[프라마톰社, 알스톰社(Alsthom)]. 이탈리아[브레다社(Breda), 피아트社(Fiat), SIGEN社, 엔살도社(Ensaldo)], 벨기에[엘렉트로벨社(Electrobel), 코케릴社(Cockerill)] 기업을 방문함. 방문 말미에 CECI가 유럽 컨소시엄을 다시 제안했으나 잠재적 참여 기업 간 역할 및 책임 분담 합의에 실패함. 한국 측은 모든 기업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일 책임자를 원하며, 프라마톰社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1975년 11월: 프랑스 원자력 업계의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역할이 결정되고 조달 가능한 프랑스 측 자금 규모가 확실해질 때까지 프라마톰社가 CECI, 벨기에, 이탈리아와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함.

3) 프로젝트 접근

– 한국은 1호기 · 2호기 프로젝트 진행 중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 컨소시엄 조직으로 인한 책임 분산과 프로젝트 관리 난항을 우려함. 조달 가능한 자금 총액과 조달처에 따라 프로젝트가 조직된다는 사실과 프로젝트 초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프랑스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시설 대부분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원심분리기 생산 기업들(알스톰社, CEM)과 프라마톰社가 참여 의사를 밝힘.

– 이러한 접근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참여 기업들이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음. 의뢰처가 과거 협업에서 만족을 표시한 기업 및 신뢰하는 기업을 소개할 수

있음.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는 지역 내에서 프랑스 원자력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프랑스가 원자력 부문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이 성공하려면 프랑스가 원전 1기당 15억 프랑을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주도권을 잡아야 함. 2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유럽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도록 노력해야 함. 하지만 프로젝트 관리 면에서 난관이 예상되며, 의뢰처 입장에서도 매력도가 낮음. 또한 재정적, 산업적 위험성이 늘어나고, 기존에 담당한 유사 프로젝트를 참조하기 어려워지므로 기술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10. Usine de retraitement des combustibles nucléaires (핵연료 재처리공장)

생산일자: 19751203
페이지: 26~26

12월 2일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와의 면담에 대한 보고임.
김 차관보가 생고뱅(St Gobain)과의 재처리 시설 협정 조인과 관련해 프랑스 측의 의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조인 지연에 우려를 표함. 김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평화적 의도를 재강조하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음을 논거로 내세움. 한국 측은 지금까지 비공식적 대화 또는 하위 공직자들이나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서만 우려를 표해 왔으나, 향후 몇 주간 고위 공직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임.

2.11. Lettre du Président du Conseil National du Mouvement de la Paix en date du 12 Novembre 1975. Projet de réponse soumis au Cabinet du Ministre (반핵운동 단체 '평화운동' 대표의 1975년 11월 12일 자 서신. 장관실에 제출한 답서 초안)

생산일자: 19751203
페이지: 27~32

수신자와 전달자, 전달일 등을 기록한 메모(27쪽)

'평화운동'의 1975년 11월 12일 자 서신에 대한 답변서 초안(28–30쪽)

유엔 총회 프랑스 대표단은 한국과 관련된 두 가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함. 서신에서 지적한 바와 달리, 프랑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 조인에 반대하지 않으나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법의 흠결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평화 조약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구상될 수 없으며, 해당국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외국군의 한국 주둔 문제와도 연계될 수 없음. 프랑스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밝혔으며, 합리적 제안을 거부한 일부 국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서신에서 우려를 표한 부분과 달리, 이미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산업적 규모의 공장이 아닌 재처리 시범시설임을 밝힘.

'평화운동'의 1975년 11월 12일 자 서신(31–32쪽)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51개국이 채택한 결의안(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평화 조약에 의한 1953년 정전협정 대체 등)에 프랑스 대표단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정치 현실과 헬싱키에서 채택된 데탕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국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임. 유엔 총회에서 두 결의안 초안(위에 언급한 51개국 결의안과 한국 주둔 외국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 결의안)을 곧 회람할 예정임. 프랑스 대표단이 51개국 결의안에 참여해 필요한 지시를 내릴 것을 장관에게 촉구함. 프랑스가 한국 정부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함. 이 공장에서 발생할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AFP의 비공식적 보도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음. 북한 정부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북한과 프랑스 양국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독재 성향의 한국 정부에 핵무기 제조 수단을 제공하는 결정이므로 이번 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2.12. Coopération nucléaire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du Sud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51118
페이지: 33~34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에 관한 캐나다의 입장에 대한 보고임. 캐나다 언론에서 한–캐나다 양국이 원자력 협력 조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도함. 캐나다 외무부 에너지 담당 부책임자 풀포드(Fulford)에 따르면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조만간 조인될 것임. 개별 조항은 기술 면에서 한불 협정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 매우 상세함. 한국 정부는 캐나다 기업이 한국 내에 직접 시공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기술을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감독을 수용함. 기술에 대한 책임은 캐나다 당국에 있으며, 따라서 IAEA에 보고하는 것도 캐나다의 역할임. 한국 정부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처리나 사용 단계 및 시설 원천국과 무관하게 이 시설들에서 다루는 핵분열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도 수용함. IAEA가 관리 감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캐나다 전문가들이 관리 감독을 맡을 수 있음. 풀포드는 계약의 규모는 물론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던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함. 풀포드는 원자로 판매를 염두에 둔 계약임을 밝히면서도 한국에서 채굴한 우라늄 광석을 사용할지 캐나다에서 채굴한 것을 사용할지는 언급을 자제함. 우라늄 광석의 출처를 떠나 관리 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가 공급하게 될 재처리공장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한국에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13. Les à–coups de la coopération nucléaire américano–coréenne (급변하는 한미 원자력 협력 상황)

생산일자: 19751108
페이지: 35~35

한미 원자력 협력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임.

미국이 고리 1호기의 핵분열성 물질 공급을 위한 수입을 허가했으나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납품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웨스팅하우스社 측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함. 이 정보는 전날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태도에 몹시 불편한 기색을 보인 이유를 설명해 줌.

2.14. Conversation avec l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담화)

생산일자: 19751107
페이지: 36~37

11월 6일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담화에 대한 보고임. 캐나다는 미국 측의 요구대로 핵폐기물 반환이나 재수출을 한국 측에 강요하기를 마지막에 포기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양국 대사 모두 이미 결론이 난 일이라 확언. 캐나다 측은 아르헨티나에는 같은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논거로 내세움. 최 장관은 일본 측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한 국제적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단언했으나 발신자가 이틀 전 도쿄에서 만난 호겐(Hogen) 전 일본 외무차관과 외무성 한국 담당 책임자는 반대되는 주장을 함. 10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IAEA와 한국 외무부 차관 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를 위한 협정 조인식이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2.15. Editorial du Washington Post sur le contrat nucléaire franco–coréen (한불 원자력 관련 계약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 사설)

생산일자: 19751106
페이지: 38~40

한국과 생고뱅(St Gobain) 간에 체결된 계약을 다룬 1975년 11월 6일 자 워싱턴 포스트 사설의 프랑스어 번역본 인용임.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판매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방증함. 프랑스 측은 이 시설이 IAEA의 안전 규칙뿐만 아니라 자국의 엄격한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 측은 모든 관리 감독을 수용할 것이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함.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자주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임. 고비용이 요구되는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을 수출하는 프랑스가 미국의 이의 제기에 대해 치졸한 상업적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불평한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우려스러움. 서독이 브라질과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합의한 데 이어 프랑스가 원자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 판매까지 나섰음. 원자력 산업은 단일 국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 각국이 핵전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우려가 있음. 한국 역시 재처리 시설 확보에 대한 경제적 명분이 없음. 재처리 가능성을 보유한 국가의 의도가 순수할지라도 내부 압력에 의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기술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정치적, 법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 수출을 저지하는 합법적인 국제적 수단을 강화해야 함. 재처리 기술 보유를 희망하는 국가가 인도처럼 자국 기술로 시설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개별적 노력 또한 저지해야 함. 소련을 포함한 7개 핵 공급 국가는 이번 주 런던에서 미국이 제안한 핵폐기물 재활용 지역 센터 건립안에 대해 논의함. 이들은 IAEA가 현실적인 관리 감독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는 비핵국가들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는 입장이며, 미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향후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것임.

2.16. Décision française de vendre à la Corée du Sud une usine de retraitement de carburant nucléaire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판매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

생산일자: 19751106
페이지: 41~41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판매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이 핵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리 감독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낸다고 평가. 연초(1975년) 서독이 무책임하게도 브라질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기술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프랑스가 원자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 판매까지 나섰음을 지적하고, 한국 역시 재처리에 대한 명분이 없음을 지적. 재처리 가능성을 보유한 국가의 의도가 순수할지라도 내부 압력에 의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고 이 기술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한국은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국가라고 평가. 따라서 핵연료 재처리 수단 수출을 저지하는 합법적인 국제적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2.17. Éditorial du New 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 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생산일자: 19751031
페이지: 42~45

프랑스의 핵 설비 수출을 문제 삼는 뉴욕타임스 사설 게재 직후,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며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기사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의할 것을 공사참사관 하트먼(Hartman)에게 촉구하였으며, 하트먼이 베스트(Vest) 차관보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함. 미국 행정부가 사설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으며, 한국 관련 투표를 시행하는 날 사설이 게재되어 악용의 여지가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음. 베스트 차관보는 사설을 작성한 로버트 클라이먼(Robert Kleiman)이 '편집광'이며 '무책임'하다며 혹독한 평가를 함. 그에 따르면 클라이먼이 비핵화 등 핵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함.

대사관 원자력 담당관은 며칠 전 클라이먼에게서 생고뱅(Saint Gobain)과 한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프랑스 원자력청(CEA)의 확인을 거친 뒤 이 협정이 9월 22일 프랑스–한국–IAEA 간에 체결된 3자간 안전조치 이관협정에 따라 발효됨을 설명함. 3자 협정을 적용하면 IAEA의 관리 감독이 생고뱅이 직접 건설

할 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고뱅이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해 건설될 모든 시설에 적용될 것임을 강조함. 클라이먼은 이러한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설 게재 당일, 문서 발신자 코시위스코–모리제는 10월 29일 자 AFP 통신의 기사를 미국 언론과 의회에 광범위하게 배포함. 베스트 차관보는 미 국무부 대변인으로 하여금 사설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프랑스와 브라질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니며, NPT 규정에도 핵연료 재처리 분야 시설 및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브라질과 한국과의 핵우산 합의 내용에 따르면 NPT가 요구하는 것(안전조치 및 관련 관리 감독 조치) 이상의 관리 감독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도록 했으나 언론의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전보 No. 1809 수신 후 베스트 차관보와 다시 접촉해 9월 22일 3자 협정에 대해 미국이 IAEA에 지지를 표명했음을 상기시키며 부서의 요구를 전달함. 차관보는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뉴욕타임스 측의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여러 기자에게 연락해 행정당국의 입장(국무부 대변인에게 보낸 답변 내용과 동일)을 알리겠다고 함.
미국 측 교섭 상대들은 문제의 사설에 동의하지 않으며 행정당국도 난처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행정당국은 핵 비확산과 관련해 방임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발표를 피하려 하고, 국무장관 또한 의회나 언론의 적수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구실을 주지 않으려 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획에 명백히 반대 입장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침. 따라서 주미프랑스대사관 언론담당 참사관을 통해 뉴욕타임스 측에 해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2.18. Affaires scientifiques (과학 사안들)

생산일자: 19751030
페이지: 46~46s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프랑스 측의 불만을 조지 베스트(Georges Vest) 차관보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함. 문서 발신자 드 나젤이 이미 노젠조(M. Nosenzo) 부차관보에게 유선상으로 의사를 표명함. 이 사설은 핵 비확산이라는 공동 정책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핵 공급국들과의 협정 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런던 회담에 대한 프랑스 측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9월 21일 미국 정부는 프랑스–한국–IAEA 간 3자 협정에 대해 IAEA 측에 기술적 관리 감독 조항을 포함한 것을 치하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등의 공격에 맞서 파견된 프랑스 대표단을 지지함. 그러므로 현재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우며, 미 국무부의 해명을 요청하는 바임.

2.19. Éditorial du New 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 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생산일자: 19751030
페이지: 47~50

'프랑스의 핵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10월 29일 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사설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전달한다는 문서. 아래는 번역본 내용임.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프랑스의 결정으로 인해 인류는 핵무기 확산과 최후의 재앙에 이르는 길로 한 걸음 크게 다가섬. 미국 등 선진 기술 보유국들은 30년간 이러한 시설 수출을 거부했으나, 서독이 지난 6월 대열을 이탈해 브라질에 재처리 시범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판매하기로 함. 한국 시장은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한 위험성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신의 위반 이상으로 특별한 위험성을 가짐. 분단국가로서 아시아의 화약고이며, 북한은 공산권, 한국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임. 미군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시도한 바와 같이 다시 무력통일 야욕을 품게 되었으므로 한국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한다면 이를 핑계로 남침 혹은 핵무기 제조에 나설 우려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느끼게 될 일본이 핵 억지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프랑스와 서독의 핵 거래 성사를 저지하려는 미국 인사들의 지속적 노력은 국무장관과 포드(Ford) 대통령이 과도한 비관론으로 주요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위기를 두려워해 미국의 인력과 영향력 동원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음.
국무장관은 매우 신중한 접근 끝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제한적 핵확산의 가장 큰 위험은 핵물질 재처리 시설이 한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확산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의 계획이 수반하는 엄청난 위험성을 강조함. 따라서 미국은 다국적 관리 감독 체제 하의 핵폐기물 재처리 지역 센터 건립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함.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이므로 재활용하려면 재처리에 따르는 위험이 사라지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저장해야 함. 고속 증식로가 1990년이면 안전과 경제적 수익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플루토늄보다 훨씬 경제적인 연료인 농축우라늄의 정기적 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결국 미국은 프랑스와 서독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지난 30년간의 정책 기조대로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해야 함. 이란으로부터의 70억 달러 규모 원자로 주문 건은 플루토늄 재처리 방식이 양자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현재 보류 중임. 미국이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재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집트에 원자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프랑스와 서독의 정책을 반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판매가 더 이상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10개국 이상이 핵무기를 휘두르는 세상이 올 것이며, 핵 대학살이 우려됨.

2.20. 한국 언론의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보도

생산일자: 19751030
페이지: 51~51

프랑스가 한국에 플루토늄 생산 기술을 제공해 핵확산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뉴욕타임스 사설을 인용한 기사가 한국 언론 머리기사로 보도되고 있음.

2.21. Réfutation de l'article du New-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반론)

생산일자: 19751030
페이지: 52~53

한국 원자력위원회가 생고뱅에 주문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재처리 부문의 한국 인력 교육을 위한 시범 설비로, 산업용 규모의 재처리공장이 아님. 시설 규모가 작고,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자 비준국으로 모든 핵 활동을 IAEA의 관리 감독 하에 두도록 IAEA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1975년 9월 한국 정부 및 IAEA와 3자 협정을 체결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핵확산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김을 증명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전수 받으려는 한국의 입장은 수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 승인한 원전 프로그램에 기초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가 1호기와 2호기를 공급하고, 3호기와 4호기는 캐나다와의 거래 대상이기 때문. 따라서 뉴욕타임스의 비판은 시의적절하지 않음.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지역 센터 내 다국적 재처리공장 건립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님. 프랑스 역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현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제안임.

2.22. Éditorial du New-York Times sur la dissémination nucléaire française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생산일자: 19751029
페이지: 54~56

2.19건과 동일 내용임.

2.23. 한국전력주식회사(KECO) 회장과의 담화

생산일자: 19751027
페이지: 57~58

랑디 대사가 퇴임을 앞두고 프랑스 페시네(Pechiney)社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오랜 시간 어렵게 협상을 거친 KECO 회장과 담화를 통해 얻은 정보임. 미국은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2호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하고 있음. 따라서 캐나다가 맡은 프로젝트[민 회장(M. Min)은 아이젠버그(Eisenberg)의 오랜 협력자임]가 미국 프로젝트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민 회장은 이튿날 인천 화력발전소 2기 기공을 위해 방한한 알스톰(Alsthom)社 회장을 대사관에서 만날 예정임. 민 회장은 한국의 핵 구상을 옹호하며, 특히 재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옹호함. 민 회장은 개인적으로 핵폭탄 생산에 부정적이며 북한이 중국 및 소련에서 핵폭탄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무인도에 재처리 시설을 건립하려는 국제적 시도가 있을 것이라 믿음. 이 국제적 프로젝트는 모든 측면에서 제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난 6월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방위 안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함.

2.24. Plan nucléaire coréen (한국의 원자력 계획)

생산일자: 19751023
페이지: 59~60

한국 외무차관이 랑디 대사와 독대를 요청함. 노(Lho) 차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프랑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 설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림. 오후 늦게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소환해 이 소식을 알릴 예정이라고 함. 전날의 대화로 미루어 대사에게 놀라운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함. 노 차관이 내세우는 논거는 두 가지임. 첫째, 모든 시설에 대한 감독을 수용할 예정으로, 한국은 과학적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꾀하지 않음. 둘째, 원전 25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320억 달러로, 그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이 비용에서 50%를 절감할 수 있음. 이런 이유로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랑디 대사가 11월 15일로 예정된 퇴임 전까지 명확한 대답을 미룬다면 후임자에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 확실함.

2.25. Entretiens avec l'ambassadeur des États–Unis (주한 미국대사와의 회담)

생산일자: 19751023
페이지: 61~62

스나이더(Snyder) 주한 미국대사와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나누며 얻은 정보에 대한 보고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기 수입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대신 차관제공 등과 관련해 재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며, 한국이 도를 넘을 경우 역내에서 전략적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음. 미국은 한국의 소위 민간 주도형 원자력 프로그램을 계속 우려하고 있음. 한국처럼 협소한 국가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여파

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 베이징에서 돌아와 서울을 짧게 방문해 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하비브(M. Habib) 차관보가 여기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임. 스나이더 대사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특히 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축소되고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 측은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함. 모스크바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것으로 보임. 이런 입장이 확인된다면 뉴욕에서의 토론에 도움이 될 것임. 스나이더 대사는 두 결의안 투표가 한국 측 입장을 공고히 할 것이라 기대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는 말로 보아 한반도 내에서 어떤 도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중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녁 늦게 하비브 차관보를 만나기를 희망하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베이징에서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한 스나이더 대사를 만날 예정임.

2.26. 한국원자력연구소 윤용구 소장과의 담화

생산일자: 19751019
페이지: 63~63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소장인 윤용구 박사로부터 다음 외교행낭을 통해 원자력 문제 부서로 보낼 노트를 받음. 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측에도 동일한 노트를 전달한다고 함. 노트의 제목은 '우리 연구소의 핵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임. 미국 측의 반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 소장은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옹호함.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도 역시 과학적인 것이며, 한국의 목표는 기술 지식을 획득해 재처리 등과 관련한 다국적 및 지역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주장. 미국 의회는 서독과 브라질 간의 거래가 브라질에 농축과 재처리 공정 시행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입장임. 하지만 윤 소장은 KAERI와 프랑스와의 거래는 그와 같지 않으며, 미국이 방해하더라도 프랑스와의 거래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KAERI의 목적은 평화적이라고 밝힘. 당일 프라마톰(Framatome)社 측 대표단을 접견함. 대표단은 이튿날 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예방한 직후 파리로 돌아갈 예정임.

2.27. Note 'Need and justification for Our Institute's Nuclear Fuel Technology Research Program' remise non signé, le 16 octobre, par le Dr YOON Young Koo, Directeur du KAERI, pour faire suite à ma communication à ce jour (KAERI 소장 윤용구 박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0월 16일 서명 없이 전달한 노트 '우리 연구소의 핵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

생산일자: 19751016
페이지: 64~70

1) 여러 문서가 철 되어 있는 해당 기록건 제일 앞면(64쪽)

2) 출처 미상 신문 기사(65쪽)
- 제목: 한국 대상으로 핵폐기물 재처리공장 판매
- 소제목: 프랑스 측의 해명
- 내용: 프랑스가 한국에 핵폐기물 재처리공장을 판매함으로써 핵확산을 조장한다고 비난한 뉴욕타임스 사설의 내용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음. 첫째, 해당 시설은 재처리 부문의 한국 인력 교육을 위한 시범 설비로, 산업용 규모의 재처리공장이 아님. 둘째,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으로 모든 핵 활동을 IAEA의 관리 감독 하에 두도록 IAEA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 및 IAEA와 3자 협정을 체결해 감독을 강화한 것은 핵확산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셋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한국의 입장은 수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 승인한 원전 프로그램에 기초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웨스팅하우스社가 1호기와 2호기를 공급하고, 3호기와 4호기는 캐나다가 공급

3) 문서 전달 양식: 수신자[아시아국 드 누아빌(De Noiville)], 전달일(1975년 10월 30일) 기재(66쪽)

4) 우편 명세서: 발신일(1975년 10월 16일), 발신 기관(주한 프랑스대사관), 수신자(프랑스 외무부 장관), 발송 문서의 명칭(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소장 윤용구 박사가 지금까지의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0월 16일 서명 없이 전달한 노트 '우리 연구소의 핵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 발송 문서의 개수(1) 등 기재(67쪽).

5) 노트 '우리 연구소의 핵연료 기술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 원본(68–69쪽)
- 한국의 에너지 수요는 1961년부터 1974년까지 연평균 8% 비율로 증가 중이며, 1971년 이후 중동산 석유 수입 의존도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임.
- 날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대대적인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의 기초 역량을 확보해야 함.
- KAERI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 지원과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의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한 것으로, KAERI의 핵연료주기 기술 관련 프로젝트는 핵연료 제조, 재처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목적(생산 목적이 아님) 시설의 건설을 포함함.
- 이러한 국내적 필요성과 정당성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는 동남아시아 및 북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핵연료주기 분야임. 미국이나 유럽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해 재처리하는 데에는 고방사능 사용후핵연료와 폐기물 운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 비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이 문제들과 국제적 안전장치를 고려한다면 1980년대 중반까지 역내 상업용 핵연료 재처리공장 건립을 정당화할 수 있음. 한국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역내 센터 건립에 동참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다국적 사업에 대비해 핵연료 재처리 분야의 기초 역량을 확보하는 중임.
- KAERI는 프랑스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해 건설할 핵연료 제조, 재처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험 시설은 본질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나 생산 공장이 아니라 기술 인력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범 설비임. 핵

연료주기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의 원자력 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역내 시장을 위한 미래 핵연료주기 산업 참여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 · 시공될 것임.

– 이 시설도 KAERI의 배타적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IAEA의 안전조치는 물론, 핵 설비, 핵 물질 및 기술 공급국과의 3자 및 양자 안전조치 협정하에 있음. 한국은 NPT 비준국이며, 이달 중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그 밖에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핵 공급국은 계약체결 전에 양자 또는 3자 안전조치 협정을 요구함.

– 다음은 NPT 제4조 1항을 인용한 내용임.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 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 당사국의 불가양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출처 미상 1975년 10월 30일 자 신문 기사(70쪽)

– 제목: 뉴욕타임스의 공격적인 사설

– 소제목: 프랑스 핵 설비가 한국에 판매됨.

– 내용: 프랑스가 핵 설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핵무기 확산과 최후의 재앙이 한 걸음 앞당겨졌다"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설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됨. 프랑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이미 예상했으며, 프랑스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분열성 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았음. 또한 프랑스–한국–IAEA 간 3자 협정 체결로 해당 시설과 그곳에서 생산될 핵분열성 물질이 IAEA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됨.

- 미국이 프랑스의 핵 설비 해외 판매를 비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나, 이번에는 사다트(Sadate) 이집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미국산 원전 판매를 약속한 바 있으나, 여론과 의회 일각은 부정적 입장임.
- 뉴욕타임스 사설은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음.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이 체결된 9월 22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핵폐기물 재처리 지역 센터 건립을 제안함. 다시 말해 우라늄 농축, 핵연료 생산, 운송, 재처리, 폐기물 처리 등이 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임. 그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생산된 플루토늄 전량이 한 지붕 아래 있게 됨"으로써 IAEA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 감독이 쉬워질 것임.
- 프랑스 전문가들은 뉴욕타임스 사설이 런던에서 예정된 핵 공급국 비공개 회담을 앞두고 게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함.

2.28. 한국전력주식회사(KECO) 회장과의 담화

생산일자: 19751027
페이지: 71~72

2.23 건과 동일 내용임.

2.29. 한국 언론, '프랑스의 핵확산'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 보도

생산일자: 19751030
페이지: 73~73

프랑스가 한국에 플루토늄 생산 기술을 제공해 핵확산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뉴욕타임스 사설을 인용한 기사가 한국 언론 머리기사로 보도되고 있음.

2.30. 한국원자력연구소 윤용구 소장과의 담화

생산일자: 19751019
페이지: 74~74

2.26 건과 동일 내용임.

2.31. Ventes nucléaires et d'armements en Corée (한국 대상 원자력 및 군수품 수출)

생산일자: 19751002
페이지: 75~78

프랑스가 한국에 원자력 및 무기를 수출하면서 미국이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연회에서 주한 캐나다대사와 미국대사가 두 가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고리 1 · 2호기, 캐나다형(CANDU) 원전 3 · 4호기 관련 핵폐기물의 반출과 재사용, 더 나아가 재수출 관리를 규정하는 서약서임.

- 스나이더(Sneider) 미국대사에 따르면 프랑스 측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 의회가 고리 2호기에 대한 원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함.
- 스타일스(Stiles) 캐나다대사는 "재처리가 가능하다면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하다"라면서 한국 측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함.
- 슐레진저(Schlesinger) 미국 국방장관과의 담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알렸으나 스나이더 대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을 하게 될 경우 프랑스 측이 지게 될 책임을 강조함. 한국에 파견된 군사대표단 접견 중, 황(Hwang) 해군참모총장 사절단 파리 파견에 동행해 많은 정보를 얻은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Stillwell) 장군과 스나이더 대사가 한국의 해외 무기 구매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줌.
- 미국은 한국이 프랑스의 함대함미사일 엑조세를 구매하자 당황함. 엑조세는 미국이 당장 공급하기 어려운 무기인 반면, 한국에 위험 요소 없이 전적으로 맡기기에 지나치게 정밀한 유형의 무기로 판단됨. 이를 탑재한 고속정(11월 중순 발사 시험 예정)은 핵 발사권을 공유하는 듀얼키 시스템에 포함될 것이며 출항은 미국의 작전 명령을 따를 것임.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며, 프랑스 측이 엑조세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한 제3국에 대한 재수출 금지 보장에 서명할 것을 한국 측에 조언하기도 함. 황 참모총장이 르메르(Lemaire) 대령에게 서명을 약속하면서 비밀 유지를 요청함.

- 미국은 이탈리아 함포 구매를 용인할 것이나 엑조세와 마찬가지로 구매 비용은 미국 의회의 군사원조에서 공제될 것임.
- 스틸웰 장군은 헬리콥터, 대전차미사일 SS-11과 SS-12, '기타 항공기'(황 참모총장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 해군 사령관 다유(Daille)가 베푼 만찬 도중, 연초에 프랑스를 다시 방문해 미라주 전폭기(Mirages)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함)와 '전투 장비'를 언급함. 장군에게 '기타 항공기'와 '전투 장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장군이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와 재정적 제재를 결정한 듯함. 스나이더 대사는 한국에서 지휘권을 가진 것은 미국 측이며, 스틸웰 장군에게 육해공 삼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킴. 이에 랑디 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령'이라는 표현도 알고 있다고 하자 스나이더 대사도 그 표현을 인정함. 황 참모총장이 영국에서 '더 저렴한' 잠수함을 보았다고 하며, 미국 측은 한국 해군이 영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반대 입장. 따라서 랑디 대사는 영국 측과 접촉해 의중을 파악할 계획임.
- 스나이더 대사가 미국은 조만간 프랑스 측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사안들의 상업적 측면은 부수적일 뿐이라고 함.
- 스나이더 대사에 따르면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중개인을 통해 프랑스 측과 상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함. 국방부 장관인 서(Suh)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는 미국에 충성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함. 청와대의 오(M. Oh), ADD의 심(M. Shim),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며 권력을 꿈꾸는 평범한 인사, 국무총리의 형제 등이 한몫을 챙기려 했으나, 이러한 리스크를 제한할 방법이 있었음.

2.32. Centrale nucléaire canadienne (캐나다형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51013
페이지: 79~80

한국과 캐나다가 캐나다형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함. 부지는 월성으로 결정되었으며 착공은 11월로 예정됨. 시설 용량 6억 7천8백만㎾급의 원전으로, 총비용 8억 9천만 달러 중에서 외국 자본은 6억 5천7백만 달러로 추산됨. 그 가운데 3억 달러는 캐나다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of Canada)가 부담하고, 캐나다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과 영국함브로스은행(Hambros Bank of Britain)이 나머지를 분담할 것임.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상으로는 3호기로 명명된 캐나다형 원전은 부산 인근에 건축 중인 고리 1호기에 이어 사실상 2호기가 될 것임. 6억㎾급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6년 10월 준공 예정임. 캐나다 측은 한국 측으로부터 평화적 사용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보임. 캐나다는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산 원전에서 생산되는 핵폐기물의 재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프랑스 측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공급할 경우, 협력 계획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음. 원자력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 민간 기구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급증하는 정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KAERI의 윤 소장에 따르면 민간 기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서로 잘 모르고 있다고 함.

2.33. Réticences étrangères au développement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외국의 거부감)

생산일자: 19751003
페이지: 81~83

현안 사항에 관한 보고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의 한 교수의 발언으로 한국 외교계에서 핵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 해당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미국의 정책 수정을 시사한다고 봄. 교수의 발언은 학문적 차원의 것으로 보임. 장래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면밀하고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음.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핵폐기물 재수출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서면 동의를 얻음. 지난 7월 캐나다 외무부 장관 서울 방문 시 박 대통령이 "한국은 핵폭탄 제조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생각도 없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도 캐나다는 한국이 IAEA의 틀 안에서 지키기로 동의한 사안들과 협정들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여 얻어냄. 이러한 우려의 이유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동북아시아에 다국적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이 한국의 주요 파트너가 된다는 계획임. 일본은 영토 오염을 꺼리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을 자국 내에 건립하지 않으려 하며, 안보 문제로 한국 영토에 건설하는 것도 내키지 않을 것임.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îles Mariannes)나 캐롤라이나 제도(îles Carolines)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음. 핵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0월 2일 자 전보에 담긴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사전 보증을 원하며, 한국의 핵 개발에 관여하는 국가들이 가능한 한 이를 준수하기를 원함을 알 수 있음.

2.34. Centrale nucléaire canadienne (캐나다형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51013
페이지: 84~85

2.32 건과 동일 내용임.

2.35. Réticences étrangères au développement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외국의 거부감)

생산일자: 19751003
페이지: 86~88

2.33 건과 동일 내용임

2.36. Ventes nucléaires et d'armements en Corée (한국 대상 원자력 및 군수품 수출)

생산일자: 19751002
페이지: 89~92

2.31 건과 동일 내용임.

2.37. 빈 3자 협정 후속 대책

생산일자: 19750922
페이지: 93~93

과학국(QS)이 빈 3자 협정에 대한 9월 19일 자 전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으며, 작성자는 한국과 생고뱅 간에 거래가 성사되기를 기다리는 중임. 파키스탄이 과학국과 교섭 중임.

2.38. Conseil des gouverneurs de l'AIEA (accord de garanties avec la Corée) (IAEA 이사회 (한국과의 안전조치 협정))

생산일자: 19750919
페이지: 94~96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의 요청으로 대리 발송하는 전보로, 다음은 모두 골드슈미트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임.
오늘 아침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비교적 짧으나 완전히 형식적이지만은 않은 논의 끝에 프랑스–한국–IAEA의 3자 간 안전조치 협정을 승인함. 이사회 의장의 설명에 이어 나는 IAEA의 관리 감독을 점점 더 자주 요청하는 프랑스가 관련 예산 분담금에서 명목상 공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지난 며칠간 우리의 합의에 적대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해 온 파키스탄 대표는 기술이전에 대한 관리 감독 조항이 전례 없는 성격이라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인도대사 역시 이 협정이 남긴 선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아르헨티나 대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의 입장을 대변해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 반면 필리핀 대표는 파키스탄 대표의 발언에 반대 뜻을 표명하고, 서독,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번 협정에 대해 유리한 논거들을 새롭게 찾아내려 함. 소련과 한국은 발언하지 않음. 나(골드슈미트)는 우리의 의도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동위원소분리 등 가장 민감한 시설 한정 기술이전 관리 감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수입국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같은 유형의 시설을 재생산한다면 그 시설은 최초의 시설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영향을 다소간 받을 것이기 때문임. 한국은 이 협정에 적극적이며 파키스탄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 관한 조항을 수용했기 때문에 논의는 긍정적으로 종결됨.

2.39. 삼성물산 측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0916
페이지: 97~97

대외경제관계국을 통해 필롱 상무관에게 보내는 전보임.

1) 작성자가 보낸 8월 28일 자 전보의 내용과 관련된 건에 대해 필롱 상무관이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미리 보장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삼성물산 측이 알려옴. 작성자는 이 조건이 신중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함.
2) 한국 정부가 이론상으로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삼성물산 측에 밝힘.
3) 이은택 사장은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며, 여전히 생고뱅(Saint-Gobain) 측 경영진을 만나고 싶어 함.

2.40. 한국에 재처리공장 공급

생산일자: 19750915
페이지: 98~98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재처리공장 공급과 관련된 내용임.

1) 과학국(QS)과 생고뱅: 9월 16일 빈에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나 서신 교환에 앞서 시간을 가질 예정임.
2) 생고뱅 관련, 과학국(QS)은 장관과 총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임.
3) 프랑스 측이 파키스탄 및 비동맹국들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임.

2.41. Garanties nucléaires en Corée (한국의 핵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911
페이지: 99~99

한국이 원자력 및 핵분열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에 곧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음. 11월에는 국제적 영향에 대한 정치적 예방 차원에서 캐나다와 관리 감독에 관한 추가 협정이 조인될 예정임. 캐나다의 한국 대상 수출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셈이며, '국제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미국을 암시하는 것임.

2.42. La Corée du Sud négocie avec la France l'achat de centrales nucléaires (한국의 프랑스 원전 구매 협상)

생산일자: 19750910
페이지: 100~100

이병휘 한국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원전 2기 구매를 두고 프랑스와 협상 중임. 한국 정부가 이달 말쯤 IAEA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함. 이 조건은 캐나다형(CANDU) 원전 판매에 대해 한국과 협상 중 캐나다 측이 요구한 것임.

2.43. Suite au voyage de M. Nam (남 부총리의 프랑스 방문에 이어)

생산일자: 19750903
페이지: 101~102

1) 최근 프랑스로부터 에어버스를 구매한 대한항공 사장이자 한불경제협력위원회(Comité économique franco–coréen) 위원장인 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이 작성자에게 접촉해 옴.
2) 남(M. Nam)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조 사장은 프랑스 정부가 원전 5호기와 6호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주중에 국무총리에게 원전 건설 수주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힘. 작성자의 생각에 조 사장이 국무총리에게 에어버스 구매에 따른 국방기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임. 조 사장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남 부총리의 생로랑데조(Saint–Laurent–des–Eaux) 원전 방문 이후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알기에 작성자는 조 사장에게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만 언급함. 알스톰(Alsthom)社가 인천화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것임.
4) 상무관에 따르면 한국 측이 곧 프랑스에 원자력 기술 대표단 파견을 제안할 것으로 보임.
5) 주한 캐나다대사가 생고뱅(Saint–Gobain)社 프로젝트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옴. 미국 측이 한국의 시도가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캐나다형(CANDU) 원전 3호기와 4호기 프로젝트를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고 함.

2.44. Projets nucléaires de la Corée. Usine de retraitement de Saint–Gobain.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생고뱅의 재처리공장.)

생산일자: 19750904
페이지: 103~104

8월 28일 자 전보를 통해 부서에 전달한 내용에 이어 삼성물산 이은택 사장과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눈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임.

이 사장은 파리를 방문해 생고뱅(Saint-Gobain)社 측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힘. 이 사장에 따르면 한국이 필요한 경우 일본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나 이 가능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 주일 프랑스대사관 원자력 담당관이 지난 5월 이미 알려온 대로, 한국 측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에 관한 장기적인 국제 협력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은 이 협력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 중 하나임. 이 사장은 자기 계획의 성격이 평화적이고 상업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 작성자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작성자 및 일본 측과 접촉하는 이 사장의 행보에 놀라움을 표하자, 국무총리를 포함해 행정부에 있는 여러 지인과 이 문제에 대해 사전 논의를 거쳤음을 인정함. 이 모든 논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함. 작성자가 이와 같은 시도가 초래할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언급하자 이 사장은 기업 측이 부담하는 국방예산 기금이 1975년 5억 달러에서 1976년 7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국 측 업계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이 비군사적이라고 해도 정부 측의 관심과 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임.

2.45. Projets nucléaires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50828
페이지: 105~106

삼성물산 이은택 사장이 아침에 방문해 원자력 프로젝트에 관해 대화함.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과 자신의 행보가 정부와는 무관함을 밝힘. 삼성물산은 대한항공과 더불어 한국 기업 최초로 파리에 지점을 개설, 이 사장은 9월에 파리를 방문해 생고뱅(Saint-Gobain)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간에 소규모로 계획된 프로젝트를 개인 자격으로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 생고뱅社와 접촉할 예정. 이 사장은 프랑스 정부의 중개로 우라늄-235(U.235)를 구매하고자 함. 연간 100톤 핵연료를 생산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판매하고 연간 1,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려는 목적. 이 사장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이런 논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힘. 또한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짜증(irritabilité)'을 언급. 이 사장은 프랑스 측 사업에 중요한 인사이므로 행보를 지켜보며 경우에 따라 견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 필롱(M. Pilon) 상무관이 이 사장과 9월 초 같은 기간에 프랑스 방문할 예정.

2.46. Engagements internationaux dans le domaine atomique (원자력 부문의 국제적 약속)

생산일자: 19750806
페이지: 107~108

작성일 전날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의 요청으로 예방한 데 따른 보고임.
지난 5월 시작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과 1975년 4월 12일 생고뱅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간에 체결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 계약의 시행에 앞서 이뤄진 프랑스와 한국 간의 서신 교환에 따른 한

국의 의무 사항 협상 결과를 논하는 만남이었음. 김 차관보는 프랑스 측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최근 한국 외무부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 의미를 물음. 한국 정부는 서신 교환이 3자 협정 승인 이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으나, 차관보는 이제 프랑스가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이었으나 실상은 프랑스 측의 입장이 몇 개월 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는 9월 IAEA 이사회에서 서류들에 서명할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였음. 김 차관보가 생고뱅社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여러 차례 강조함.

2.47. Vente d'un réacteur Candu à la Corée (캐나다형 원자로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50719
페이지: 109~109

전보 No. 850에 이어지는 내용임.
미셸 뒤퓌(Michel Dupuy) 캐나다 외무부 차관보가 캐나다형(CANDU)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상 단계에 있음을 언급함. 한국 측은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프랑스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구매할 것인지 묻자, 한국 측은 플루토늄을 연료용으로 재활용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서 이 시설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답함. 차관보는 캐나다형 원자로 및 미국이 제공한 원자로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서 재처리하지 않게 된다면 프랑스가 공급하는 공장에서 재처리되는 플루토늄의 출처는 어디인가에 대한 당혹감을 표함.

2.48. Relations entre le Canada et la Corée (캐나다와 한국 간 관계)

생산일자: 19750710
페이지: 110~112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임.
길레스피(M. Gillespie) 캐나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6월 26일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맥케켄(M. MacEachen)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27일과 28일에 서울을 방문함.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오타와에서 있었던 김동조 한국 외무부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임. 핵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 측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임.

1974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총액은 1억 3,500만 캐나다 달러, 수입 총액은 7,100만 캐나다 달러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조 6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함(전년의 경우 1조 5,000만 캐나다 달러).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자국 관련 논의 시 캐나다가 채택한 입장에 특히 만족을 표함. 캐나다는 유엔 사무국에 성명서를 보내 한국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 6개국에 포함됨. 맥케켄 장관은 서울에서 캐나다가 "유엔에서 한국의 입장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재차 밝힘. 하지만 캐나다

측은 핵 부문 협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함. 한국은 수년 전부터 캔두형 원자로 2기 구매를 협상 중으로, 두 장관이 박 대통령 및 김동조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측은 양자협정 체결을 핵 부문 협력 조건으로 내걸었음. 이 협정에는 "(캐나다 측의) 지원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안전조치가 명시될 예정임. 이는 인도의 '평화적 핵폭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캐나다 측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NPT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관리 감독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조건에 동의할 것을 밝히고 양국 간 협력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6월 25일 자 보고문)을 완전히 잊은 듯이, 캐나다 의회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생산될 플루토늄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자 놀라움을 표시함. 그러나 한국이 곧 플루토늄 재활용 공장을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의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맥케켄 장관이 한국에 원전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한 것에 만족을 표함.

2.49. Vente d'un réacteur Candu au Pakistan (파키스탄 대상 캐나다형 원자로의 파키스탄 판매)

생산일자: 19750719
페이지: 113~113

지난번 전보에 이어지는 내용임.

1) 뒤퓌(Dupuy) 차관보가 캐나다와 파키스탄 간 핵 분야 협력도 언급함. 캐나다 정부는 파키스탄 측에 전체 핵연료주기 관련 안전조치 조항을 제안한 바 있음.
2) 파키스탄은 안전조치에 관해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 전에 캐나다가 인도 측에 원자로를 양도했음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성이 커진 상태였음. 차관보는 파키스탄 측의 재처리 관련 요구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함.

2.50. Vente d'un réacteur Candu à la Corée (캐나다형 원자로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50719
페이지: 114~114

2.47 건과 동일 내용임.

2.51. Visite en Corée du secrétaire d'État aux Affaires extérieures (캐나다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생산일자: 19750704
페이지: 115~116

양국 관계 역사상 최초로 맥케켄(M. MacEachen) 캐나다 외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데 따른 내용임. 장관은 한국 지도층과의 담화 대부분을 핵 문제에 할애함. 장관을 수행한 미셸 뒤퓌(Michel Dupuy) 차관보에 따르면 회견은 최선의 조건에서 이루어짐. 박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이며,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기술적 측면에서나 한국이 NPT 폐기를 통보할 경우에 대비해서나 캐나다 측은 캔두형 원자로에서 생성된 핵물질을 사용하려면 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협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박 대통령의 약속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음. 양국 대표 간 회담이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협정 조인은 9월 중으로 예상됨. 차관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캐나다 양국 간 의견 교환을 언급하고, 캐나다 하원에서 야당이 프랑스와 한국 간의 핵 설비 판매 협상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다고 전함. 비판이 계속되자 트뤼도(M. Trudeau) 총리는 결국 6월 23일 "캐나다가 예방 조치를 취한다 해도 충분치 않다. 다른 핵 강국들이 같은 수준의 예방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 우리만큼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함.

2.52.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du Sud – Déclarations du Chef de l'État (한국의 핵 정책 – 대통령의 발언)

생산일자: 19750625
페이지: 117~119

현안 사항에 관한 보고문임.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임. 한국이 핵기술에 숙달했음은 인정된 사실로, 미국이 한국 측 원자력 전문가 그룹 구성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부서에 전달한 바 있음. 이후 한국원자력발전공사(Korea Atomic Power Corporation)가 설립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원전 관리 감독 책임을 분담하고 있음. 부서의 요청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핵 협력 부문에서 한국이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 결과 한국 전문가들이 수집한 지식을 바탕으로 완전한 자료를 갖춰 악용할 소지가 있음.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를 우려하며(혹은 우려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한국의 폭탄' 개발 근거로 내세움. 25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 아래 있으므로 국가의 존폐가 핵무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위협이 현실이라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국 전문가들이 개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여러 차례 원조를 요청했으나 결국 1980~1981년쯤이면 미국의 지원에서 독립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일시적으로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불과함. 이 기한이 단축되더라

도 여기에는 불안정한 역내 균형 붕괴에 대한 미국의 공조 혹은 암묵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최소한 3개 강국(소련, 중국, 일본)의 직접적 이해가 얽혀 있어 한국에도 도박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향한 협박에 불과하며, 군사 부문 등 한국에 대한 무제한 지원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임. 한국 정부는 인도차이나 사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철회를 두려워함. 미국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지원을 보장받으려 함. 이런 가능성은 한국이 지난 3월 조인한 NPT 정신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음. "북한이 공격할 경우 전술 핵무기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슐레진저(M. Schlesinger) 미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곧 미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임.

2.53.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21
페이지: 120~121

1) 통신사 속보 기사들을 바탕으로 캐나다 일간지 대부분이 6월 17~18일 런던에서 열린 핵 안전조치 관련 회담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참석이 새로운 행동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며 환영함.
2) 야당은 이 기회를 틈타 캐나다형(CANDU) 원자로의 수출 정책(특히 한국 대상)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핵 비확산 관련 안전조치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와 체결할 협정 원문을 하원에 제출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함.
3) 보수당 대표 스탠필드(M. Standfield) 의원 등 일부 하원의원은 현재 프랑스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한국과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판매 협상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캐나다가 해당 국가들에 핵 설비를 판매할 경우 이러한 공장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외무부 장관은 이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도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양도 방법이 적절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확언했다"라고 전함. 스탠필드 의원이 문서 작성일 전일 오후 프랑스–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자 트뤼도(M. Trudeau) 총리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원자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가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밝힘.

2.54.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핵 관련 협력)

생산일자: 19750616
페이지: 122~124

1972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재정문제로 지연되었다가 1974년 가을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서신 교환 협정을 임시 조인함에 따라 재개됨. IAEA와의 3자 협정이 4월 26일 임시 조인되고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 de Bruxelles)에 제출되었으며, 9월경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수 있음.

– 생고뱅社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연간 5~10톤, 공사 기간 4~5년) 구매 – 1975년 4월 12일 계약

– CERCA社로부터 핵연료 물질 생산 시범시설 구매 – 1975년 1월 15일 계약
– 코뮈렉스(COMURHEX) 측이 재처리공장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감손우라늄 10톤 인도
– 한국 부총리가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원전 5호기와 6호기의 건설 착수를 위해 파리를 방문할 예정임. 5호기와 6호기는 1980/81년 이전에는 착공되지 않을 예정임(1호기와 2호기는 미국 측에서 건설함).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도, 그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도, 그 어떤 핵폭발 장치 제조에도 다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프랑스가 제공하는 재료, 시설과 장비
  • 프랑스가 제공하는 특정 정보를 기반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설계,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 시설과 장비
  • 획득, 처리 또는 사용되는 특수 또는 기타 핵분열물질
– 프랑스는 획득되어 프랑스로 반환되는 특수 핵분열물질을 핵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IAEA는 안전조치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양국은 IAEA의 관리 감독에 협조할 것임.
– IAEA는 명세목록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것임. KAERI는 서신 교환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전 합의 없이 생고뱅社가 공급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6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 제작업체 SNIAS(Société nationale industrielle aérospatiale)社가 한국을 대상으로 관측로켓(고도 300km, 적재하중 250kg) 판매 허가를 획득하려 함.
한국은 SNPE(Sûre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社로부터 혼합형 추진체 생산 절차 및 종합 기술(관측로켓 추진에 이용될 수 있는)을 획득하고 관측로켓 파생 미사일 제조를 검토 중임. 국방부 장관은 SNIAS社가 한국에 이러한 로켓을 판매하는 데 반대함.

2.55.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05
페이지: 125~127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6월 4일 핵 안전조치에 대한 일일 언론브리핑 도중 패스토어(Pastore) 의원과 리비코프(Ribicoff)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음.

1) 프랑스와 관련, 앤더슨(M. Anderson) 대변인은 파키스탄 및 타이완을 대상으로 핵 장비를 판매하려는 프랑스 측 계획과 관련해 프랑스와 미국 양국 간 접촉은 없었다고 밝힘. 이유를 묻자, 대변인은 발언을 수정해 당일 언론에 실린 정보와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접촉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변함. "지난 몇 달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부와 핵 비확산 분야 전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발언함.
2) 서독–브라질 양자협정 체결과 관련, 대변인은 지난 4월 4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서독에 파견해 핵에너지

의 군사적 목적 전용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힘. 서독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 미보유국에 수출 시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있음. 협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나, 서독 정부가 엄격한 관리 감독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함. 대변인이 서독–브라질 양자 협정에 NPT 가입국으로서 통상 적용하는 수준 이상의 추가 관리 감독을 요구할 것이라 재차 강조하자 한 기자가 미국 행정당국이 IAEA의 관리 감독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질문함. 대변인은 IAEA의 관리 감독은 훌륭한 수준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부문에서는 강화를 원하며, 실제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때 IAEA 관리 감독 외에도 추가 조항을 넣는다고 답함.

3) 관리 감독 강화 목적의 협약 추진 가능성과 이 점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답함. "국무장관이 10월 초 유엔 총회에서 원자로 등 핵 장비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공급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와 소통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협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언급할 것이 없으나, 국무장관이 9월에 언급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4) 딕시 리 레이(Dixie Lee Ray) 차관보의 발언(전보 4829호 2번 내용)과 관련, 대변인은 행정당국 내에서 그러한 심각한 논쟁은 없었으며, 의견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함. 이 문제로 누군가 국무부를 떠나게 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변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함.

2.56.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05
페이지: 128~129

전보 No. 4829와 관련된 내용임.

리비코프(Ribicoff)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경우, 아래에 근거해 답변할 것.

– 파키스탄 및 한국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공급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임.

- 한국의 경우 용량과 규모가 작은 시범시설이나 파키스탄의 경우 상업용 시설임. 프랑스는 현재 두 국가와 이 시설들의 평화적 이용 보장을 협상 중임. 한국이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준했지만, 프랑스는 두 국가 모두에 매우 강력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IAEA의 관리 감독에 대한 동의를 받음. IAEA는 이미 프랑스, 한국, 파키스탄 3국과 협의 중이며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음.
- 문제의 시설들이 미국형(한국의 경우) 및 캐나다형(파키스탄의 경우) 원자로에서 생산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이 원자로들은 한국 및 파키스탄의 핵 장비의 핵심 부분을 구성함.

– 프랑스는 타이완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협력 분야에서 협상이나 프로젝트 계획이 전혀 없음.

– 아르헨티나와는 소규모로 협력이 진행 중이나, 플루토늄 시범 공장 건설에 도움을 준 바 없음.

아래 내용은 개인 및 기밀 정보임.

– 타이완과 관련, 부서 측은 실제로 몇 년 전 생고뱅社와 타이완 사이에 몇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음. 미국 및 캐나다가 생산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 시설과 관련된 계약임.
– 일부 수출의 경우 공식적인 관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설립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자 함.
– 오보로 보이는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비코프 의원이 플루토늄을 판매했다며 프랑스를 비난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2.57.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04
페이지: 130~131

전보 No. 4822, No. 4829에 이어지는 내용임.
키신저(Kissinger) 장관과의 담화 이후 미국 국무부 정치 · 군사 담당 차관보 조지 베스트(George Vest)가 작성자의 측근에게 패스토어(Pastore) 의원 및 리비코프(Ribicoff) 의원이 원전 판매에 대한 프랑스와 서독의 정책 및 그로 인한 핵확산 위험을 문제 삼은 데 유감을 표함. 두 상원의원이 보유한 정보가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나온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임. 이들의 발언으로 국무부는 의기소침한 분위기이며, 국무부가 이들을 부추긴 것이 절대 아님. 오늘 아침 잉거솔(Ingersoll) 차관에게 두 의원에게 전화해 비밀 엄수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킬 것을 요청함. 차관보는 이들의 태도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쟁' 때문이라고 하며, 리비코프 의원 보좌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재미있어했다'라고 함. 국무부는 두 의원이 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함. 차관보는 이번 일이 유감스러우나 국무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결론 내림.

2.58.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04
페이지: 132~135

1) 문서 작성일 아침 워싱턴포스트 1면에 '프랑스가 4개국에 핵 공장 제공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고, 내지에 '프랑스가 4개국에 핵무기 능력 제공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림.
   – 프랑스가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핵 관련 시설을 파키스탄, 타이완, 한국, 아르헨티나에 공급한다는 전날 리비코프(Ribicoff) 의원의 폭로에 관한 보도임.
   – 상원 정부운영위원회(Commission des opérations gouvernementales) 위원장이기도 한 리비코프 의원의 폭로는 패스토어(Pastore) 의원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패스토어 의원은 평화적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나 핵무기 생산에도 이용될 수 있는 핵 관련 기술 시스템의 판매가 핵보유국의 수를 늘리고 핵전쟁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리비코프 의원은 패스토어 의원의 발언 당시 자리에 없었으나 추후에 성명을 통해 “핵무기 생산 능력 확대가 모든 관리 감독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함.
– 또한 정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서독이 브라질에 전체 핵연료주기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가 플루토늄 재처리 시범 공장을 파키스탄, 타이완, 한국에 공급하고 아르헨티나의 플루토늄 시범 공장 건설을 돕고 있다고 함.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컴퓨터를 제공해 우라늄 농축 시설 개발을 도우면서 결국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에 6개국이 추가될 전망임.
– 기사를 작성한 스펜서 리치(Spencer Rich) 기자가 리비코프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와 파키스탄, 타이완, 한국 간의 거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있는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시설이 건설 중이라고 함. 리비코프 의원은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원자로와 연료의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새로운 국제 규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리비코프 의원의 ‘폭로’는 다자간 협상과 관련해 베스트(Vest) 차관보가 최근 제공한 정보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언급된 국가들이 최근 베스트 차관보가 프랑스 측의 주의를 촉구한 ‘민감한 케이스’ 리스트(전보 4788호)에 등장하는 국가들과 동일함.
– 리비코프 의원이 언급한 점들(특히 타이완 관련)에 대해 정보가 있다면 전달해 줄 것을 부서 측에 요청하는 바임.

2)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과학 담당 차관보 딕시 리 레이(Dixy Lee Ray)와의 인터뷰를 게재함.
– 인터뷰에 따르면 브라질과 리비아가 핵 관련 시설 확보를 위해 먼저 미국 측에 접촉했으나 결국 브라질은 서독과 리비아는 소련과 계약을 체결함. 레이 차관보는 “우리의 정책은 국익에 반하며, 내가 말하는 내용은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다”라고 밝힘.
–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난 4월 서독으로 하여금 브라질과의 협상을 단념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임. 이 시도는 좌절되었으나 미국은 IAEA도 서명한 안전조치 특별 조약을 체결하도록 브라질과 서독을 설득함. 이 조약에 따라 브라질은 철저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속함.

3) 작성자는 진위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부서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 키신저(Kissinger) 장관을 만나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무부 측의 거듭된 정보 유출에 대해 항의함. 장관은 이러한 부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정하면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함.

2.59. Non–prolifération et garanties nucléaires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생산일자: 19750601
페이지: 136~139

전날 공사참사관과 베스트(Vest) 차관보의 만남에 따른 보고임. 베스트 차관보는 공사참사관과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

1) 베스트 차관보는 미 국무부가 6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전문가 회담을 승인했음을 밝히며, 이 회담이 부득이하게 탐색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라이선스 제품 및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와 관련된 프랑스 측 요청이 가진

중요성을 미국 측도 이해하며, 담당 부서에서 요청 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함.

2) 다자간 협상과 관련해 차관보는 6월 18일 회담에 앞서 프랑스–미국 양국 간 의견 교환을 희망한다고 재차 표현함. 차관보는 국무부가 제공한 런던 회담 결과 관련 서류에 대한 프랑스 측 의견을 고대하고 있음. 이 서류는 다자간 논의에서 도출된 합의 조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미국 측은 프랑스 당국이 어떤 부분을 내키지 않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며, 양국 간 만남이 불가능하다면 주미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의견을 전달받고자 희망함. 6월 9일에서 14일 주에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노센조(Nosenzo) 부차관보가 대신 갈 수 있음.

3) 잉거솔(Ingersoll) 서류에 대한 논의(5번 '잠재적 핵 전문가 및 안전조치 정책')와 관련해 차관보는 수출 부문에서 일부 '민감한' 케이스에 대한 주의를 프랑스 측에 촉구함. 이 케이스들은 다자간 논의의 대상은 아니나 양국 간 기밀 의견 교환의 대상으로, 미국은 특히 아래 3국의 케이스를 우려함.

– 타이완: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타이완에 공급하는 국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임. 베스트 차관보의 질문에 프랑스 측은 타이완 원자력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함.

– 한국: 재처리 시범시설을 확보하려는 한국 측의 의지에 미국은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음. 정치적 · 군사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며, 필요한 기술 지식 습득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임. 주한미군과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는 중임.

– 파키스탄: 이 사례는 더욱더 문제지만, 파키스탄 정책에서 핵 문제는 빠진 적이 없으므로, 미국은 프랑스 측이 파키스탄 대상 핵 관련 수출 통제에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삼. 베스트 차관보는 프랑스 측 과학사업과 책임자 드 나젤(De Nazelle)을 만나 논의할 예정인 다른 민감한 케이스 2건도 언급함.

– 이란: 이란과 미국 간 시설 수입에 대한 협상은 절반쯤 진행됨.

– 이집트: 이집트와의 협상에는 큰 진전이 없으며, 관리 감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프랑스 측의 질문에 베스트 차관보는 이스라엘과는 어떤 협상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답함.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디모나(Dimona) 원전 시설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함.

2.60. Visite en France de M. Kim Jin–hyu (김진휴 실장의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750531
페이지: 140~140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 과학사업과의 5월 21일 자 No. 113 전보에 대한 회신임.
김진휴(Kim Jin–hyu) 실장의 프랑스 방문은 6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가능함.
부서 측이 김 실장의 교통편이 서울에서 수배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함.

2.61.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50526
페이지: 141~142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Traité Euratom) 제103조에 따라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IAEA-한국-프랑스 간 협정안을 유럽집행위원회 측에 긴급히 전달할 것을 요청함. 해당 협정은 KAERI와 프랑스 생고뱅社 및 CERCA社 간 체결된 계약 발효의 전제조건임. 한국 대표단과 IAEA는 협정안이 6월 10일에 개최될 다음 이사회에 상정되기를 희망함. 프랑스 측은 교섭 상대들에게 이를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위원회 측의 답변을 듣기까지 30일이 걸릴 수 있음을 상기시킴. 5월 26일 빈에서 임시 조인된 협정안을 위원회에 전달하면서 이 정보를 알릴 것을 요청하는 바임. IAEA 측이 이사회 전에 문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답변하기를 바람. 프랑스 측 상주대표회의 발언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러한 협정안을 제출하는 데 놀라워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이 문서가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교섭 상대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일반협정에 앞서 이러한 3자 협정 체결이 이미 검토 중이었음. 또한 제27조에 IAEA의 직접 관리 감독 대신 검증 협정을 적용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할 것임.

2.62. Corée/Énergie nucléaire (한국/핵 에너지)

생산일자: 19750522
페이지: 143~147

1975년 2월 19일 자 현안 사항 보고문에 따른 내용임.

1) 작성자가 부서 측에 자료 카드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143쪽)
   - 부서 측의 현안 사항 보고문을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국과 과학과가 작성한 한국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문서에서 발췌한 노트를 전달받았음.
   - 부서 측에서 공유한 정보 외에 추가 자료가 일부 포함된 '한국' 자료 카드를 첨부함.
   - 이 자료는 핵 문제 담당관이 주일 프랑스대사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문화 및 기술협력과와 협의해 수집한 것임.

2) '한국'자료 카드(144-147쪽)
   (1) 광물 자원
   - 진행 중인 탐사: 4~5년 전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가 시작됨.
   - 우라늄 광맥: 광물의 함량은 0.02~0.05%임. 미국 측은 한국의 우라늄 매장량을 460만 미터톤으로 추정함.

(2) 성과 및 프로젝트

가. 평화적 이용 분야

– 원자로

- 웨스팅하우스社/제너럴 일렉트릭社: 1976년 11월 가동 예정. 가압수형, 농축우라늄. 600MW급. 자금 조달: 미국: 6,600만 달러, 영국: 6,300만 달러, 한국: 6,800만 달러
- 동일 유형, 동일 용량의 2호기가 1979년 건설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를 조달함. 하지만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까지 수 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음. 가동 역시 그 기간만큼 연기되어 1980년경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측이 1980~1981년 가동을 계획한 원자로 2기도 2호기 건설 지연의 영향을 받음. 2기는 캐나다형 원자로이며, 1차 견적은 기당 3억 달러로 추산되었음. 이 중 1기는 캔두(CANDU)와 KAERI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부지 선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캐나다 측은 이를 자금 등과 관련해 협상을 지연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는 듯함. 1982년 이전에는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추가 원자로 5기의 건설이 1980~1986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임. 핵에너지를 이용해 총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체결한 계약 조항들에 따르면 미국만이 약속한 바를 재검토할 수 있음.

– 국제 협력

- 미국: 미국과의 핵 분야 협력은 정치적 이유로 난관에 부딪힘. 한국이 NPT 비준을 지연시키면서 미국 행정당국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과 관련해 장기적인 국제 협력을 수용할 것으로 보임. 일본이 주요 파트너로 고려됨.

나. 군사 분야

– 조약: 모스크바: 서명하지 않음. / 비확산: 서명, 1975년 3월 비준.

–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1981~1982년경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됨(북한의 경우 1995~2000년경). 일본 좌파 운동가들에 따르면 히타치(Hitachi), 마루베니(Marubeni) 등 일본 기업들과 KAERI가 군수 연구를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음(확인되지 않음). 미국의 핵폭탄이 한국에 보관되어 있음(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음).

프랑스와의 협력

– 1972년 이래 CEA와 KAERI의 협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 및 기술지원(생고뱅社). 1억 7천만 프랑. 연간 설비 용량: 5~10톤. 플루토늄 생산: 5~10kg. 수에즈 은행(Banque de Suez)에서 1억 4천만 프랑 대출(1975년 3월 협정 체결).
-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지식 제공(CERCA社). 2천5백만 프랑[(유럽연합은행(Banque de l'Union Européenne)의 대출].

– 1975년 1월 14일 양해각서 체결. 한국 측이 IAEA의 관리 감독과 프랑스 측의 추가 관리 감독 가능성

을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

– 페시네 위진–쿨만(Pechiney Ugine–Kulhmann)社가 한국 측과 접촉해 핵연료 제조 분야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유로디프(EURODIF) 또한 KECO 측에 핵연료 농축 분야 협력을 제안함. 하지만 이미 중단된 프로그램 때문에 1984~85년 이전에는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63. Invitation en France de M. Kim Jin Yu, directeur administratif du KAERI (KAERI 김진휴 행정실장의 프랑스 초청)

생산일자: 19750521
페이지: 148~148

1975년 4월 9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보고문에 따른 내용임. 부서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김진휴(M. Kim Jin Yu) 행정실장의 프랑스 초청을 받아들임. 여비 및 15일간의 체류 비용을 부서 측이 부담할 것임. CEA 측이 6월 중순 이전에 김 실장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체류 기간을 6월 15일에서 30일로 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불가능하다면 9월 중순으로 초청을 미루는 것이 적절해 보임.

2.64.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513
페이지: 149~149

IAEA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이 외무부를 통해 파리 프랑스 원자력청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에게 보내는 내용임. 아래 내용은 모두 인용문임.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협상을 담당하는 한국 대표단이 5월 22일과 23일 빈에 머무를 예정임. 첫 번째 회의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IAE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5월 26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소집될 가능성이 있음. 이날은 원칙적으로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일반 협정을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IAEA 대외협력국장이 제네바에서 전날에 귀국하므로 이때 재가하기를 원함.

2.65. Création d'une agence coréenne de l'énergie atomique (한국의 원자력 기구 설립)

생산일자: 19750418
페이지: 150~150

1975년 4월 3일 자 현안 사항 보고문을 통해 핵 정책의 목적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저의를 부서 측에 알린 바 있음. 최근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 있던 원전 건설 및 가동, 프로젝트 투자, 연료 공급 및 관리 감독 책임이 한국원자력발전공사(Korea Atomic Power Corporation)로 이관될 것임. 이 신설 기관

의 자본금 2억 8백만 달러 중 한국 정부가 50% 이상을, KECO가 나머지를 부담할 예정임. 따라서 신설 기관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 정부는 1986년까지 총 설비 용량 200만㎾에 달하는 원전 9기를 건설할 계획임.

2.66.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부문 협력)

생산일자: 19750407
페이지: 151~153

1) 문서 전달 양식: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원자력문제팀), 수신자(아시아국), 전달일(1975년 4월 9일), 문서 전달 이유('정보') 등 명시된 문서 전달 양식(151쪽).
2)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는 서신, 작성자는 오귀스탱 알린(152–152쪽).
   – IAEA 이사회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가 1975년 3월 5일 빈에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 사본과 이 서신에 대한 1975년 3월 21일 자 답신 사본을 아래에 첨부함.
   – 현재 IAEA 사무국이 작성 중인 안전조치 협정 초안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부에 전달되면 아마도 빈에서 양국 정부 대표와 IAEA 간에 협상이 시작될 것임. 1975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 서신 교환에 이어 생고뱅社와 KAERI 간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점 시설 건설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계약체결이 승인됨. 단, 해당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됨. "프랑스–한국–IAEA 간 안전조치 협정 체결이 체결되기까지 본 계약에 따라 생고뱅社가 KAERI에 물품을 공급하려면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67. La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정책)

생산일자: 19750407
페이지: 154~155

1975년 4월 5일 자 현안 사항 보고문과 관련된 내용임.
한국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낭트대학교 고체물리학 교수에게 한국 측에서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활동 한국인 학자 심포지엄에 초청받았는지 질문함. 이러한 행사는 지금까지 보통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음.
민 교수로 인해 지난번 보고문에서 언급된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가설이 사실임을 확인함.
   – 세계적인 원자물리학자인 런던대학교 한국인 교수는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 '또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서독에서 활동 중인 한국 원자물리학자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연구 분야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초청받음.

– 사클레(Saclay)에서 연구 중인 한국인 이론연구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정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름은 알지 못하나 그르노블(Grenoble) 원전에서 연구 중인 한국인 측에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주한 미국대사관은 작성자가 4월 5일 자 전보에서 언급한 법을 근거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과학자와 학생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로운 것이 없음을 한국 당국에 경고함. 미국 당국이 이들 중 일부를 보호하도록 이미 요청받은 것으로 보임.

2.68. Politique nucléaire de la Corée (한국의 원자력 정책)

생산일자: 19750403
페이지: 156~158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문(156–157쪽)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체결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공급 협정과 관련된 내용임. 주한 미국 대리대사 에릭슨(M. Ericso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프랑스가 한국 측으로부터 확보한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파리에서 수집하고자 함.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물질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말함.

– 에릭슨 대리대사는 슐레진저(M. Schlessinger) 미 국방부장관이 최근 한국을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발표한 것에 전술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임. 그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한국이 핵무기의 환상과 명성에 이끌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미국은 한국 측이 진행 중인 연구 및 작업의 평화적 성격을 주장하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 윤용구 KAERI 소장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도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를 수행할 과학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방과학연구소(Agence de Développement de la Défense), 또 다른 국가 기관이 공조하고 있다고 봄.

– 미국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군사적 핵능력을 보유한 여러 국가 및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장학생, 유학생과 과학자들을 모집하려 하기 때문임. 이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자질 및 교육 방향 등을 보면 결국 과학자 집단을 조직하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핵분열성 물질의 공급은 제한적인 수준이라 해도 특히 중요함.

– 한편 미국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북한이 중국에 의해 핵 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따라서 자국이 획득한 지식이 역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관련 부서가 에릭슨 대리대사의 발언 중 미국 외 국가(프랑스 포함) 내 한국 과학자들의 감시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리라 생각함.

첨부자료: 프랑스 원자력청(CEA) 산하기관에서 연수 중인 한국인 장학생 명단(158쪽)

2.69. Asie – service des affaires scientifiques (아시아 – 과학 사안들)

생산일자: 19750324
페이지: 159~159

한국 국회가 3월 1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을 진행했음을 부서 측에 알리는 바임.

2.70. Non-prolifération. Entretien avec M. Dupuy, sous Secrétaire d'État au Ministère des Affaires Extérieures canadien. –Note du Service des Affaires scientifiques en date du 13 mars 1975 (비확산. 캐나다 외무부 뒤퓌 차관보와의 담화 –1975년 3월 13일 자 과학 사안들 노트)

생산일자: 19750313
페이지: 160~170

1) 우편 명세서(160쪽): 발신일(1975년 3월 18일),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수신자[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 프로망-뫼리스(Froment-Meurice)], 발송 문서의 명칭(비확산. 캐나다 외무부 뒤퓌 부차관보와의 담화. 1975년 3월 13일 자 과학사업과의 노트), 발송 문서의 개수(1), 목적(정보) 등 기재

2) '비확산. 캐나다 외무부 뒤퓌 부차관보와의 담화'라는 제목의 노트(161-170쪽)
과학과 과장이 3월 11일 캐나다 총리의 런던 순방에 동행한 외무부 뒤퓌(M. Dupuy) 부차관보와 만나 프랑스와 캐나다 관련 비확산 문제에 대해 담화를 나눔. 10월 22일 파리에서 비확산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친 뒤 부차관보에게 양국이 관계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양자 접촉을 유지하는 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대사관 측은 프랑스가 파키스탄과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판매에 앞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프랑스 측은 캐나다 측에 캐나다형(CANDU) 원자로와 관련해 이 국가들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함. 또한 캐나다 측의 이란 및 이라크(이라크의 경우 프랑스 측으로부터 천연우라늄 원료 원자로를 인수하고자 함)와의 접촉에 대해서도 조사함. 캐나다가 천연우라늄 원자로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이 원자로들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됨.

프랑스 원자력청(CEA)은 1월 캐나다 측에 우라늄 수출(핵 비보유국에 대한 수출인지, 핵보유국에 대한 수출인지 등) 또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가능한 안전조치에 대해 질문하고 유로디프(Eurodif)가 어떤 조건 하에 캐나다 측에 시설을 최초 가동하는 데 필요한 천연우라늄 4천 톤을 대여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 아래 질문들이 하나하나 검토되었으며, 부차관보는 인도와 캐나다 간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 일부를 제공하기도 함.

전반적인 천연우라늄 원자로 수출에 대해,

(1) 천연우라늄 원자로 수출 가능성을 들은 부차관보의 첫 번째 반응은 프랑스 측에 중수로 부문의 산업적

(경우에 따라 상업적)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었음. 이 사업은 수년 전 프랑스 정부가 미국 라이선스에 따른 농축우라늄 원자로를 택하면서 좌절된 바 있음. 프랑스 시장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음도 잘 알고 있었음. 다른 시장에서는 가망이 있을 것인지? 산업적 능력이 제한적인 캐나다로서는 산업적 협력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려 함. 트뤼도(Trudeau) 총리는 로마와 런던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협정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함. 프랑스–캐나다 경제협력위원회(Commission de coopération économique franco–canadienne)의 차기 회기에서 이 협력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임.

(2)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

캐나다는 에너지부 장관 맥도널드(M. McDonald)의 1974년 12월 20일 선언을 기준으로 삼음. 평화적인 목적의 폭발 실험 배제와 장비, 기술, 재료 등 설비(facilités)에 대한 IAEA의 관리 감독을 골자로 하는 선언임. 구매 의사가 있는 국가가 NPT에 관여하는 경우 이 조건들은 그 자체로 충족되지만,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이나 쟁거위원회(Comité Zangger)의 목록에는 없지만 맥도널드 장관이 언급한 중수로형 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함. 차관보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일부 안전조치 추가 가능성만을 언급함. 하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핵 비보유 회원국들을 언급하면서 이 국가들이 모두 NPT에 가입한다면 핵과 관련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반면 NPT 미가입국의 경우 맥도널드 장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한 캐나다와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함.

이러한 일반적인 조항 외에도 특별 조건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판매 혹은 핵 협력 계획 추진 중인 각 국가는 캐나다 정부의 정치적 분석(analyse politique) 대상이 됨(극비 사항임). 캐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지 프로젝트 자체를 철회할지 결정함. 하지만 이러한 신중함은 잠재적 고객 혹은 파트너 간 차별을 하지 않으려는 캐나다 측의 희망과는 상반됨. 캐나다 측은 캐나다형 원자로에서 사용된 천연우라늄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재처리 문제도 고려함. 캐나다는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통지한 것처럼 재처리를 자국 내에서 실행할 수 없음. 하지만 필요한 경우 캐나다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요구함.

▶ 이라크

이라크 대표단이 캐나다형 원자로를 요청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기다리라는 답변을 한 바 있음. 산업적 능력이 한정적이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캐나다 정부는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 정책을 새롭게 규정하는 중임. 이라크 프로젝트의 정치적 분석 결과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황도 동일함. 부차관보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철회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위에 언급된 예방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이란

부차관보는 이란 측이 서비스(캐나다형 원자로 2기) 제안에 큰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고, 캐나다 측이 1~2개월 이내에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계기로 다시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데 그침.

▶ 한국

- 캐나다 정부가 1974년 8월 한국 대상 캐나다형 원자로 판매 계획을 승인함. 당시 한국이 NPT 가입국이 아니었으므로 캐나다는 맥도널드 장관이 12월 20일 공식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조건들에 정확히 부합하는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협상함. 캐나다 측의 동의가 있어야 재처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 협정에 포함됨.
- 그러나 그사이 정치적 분석 결과 우려스러운 면이 발견되어,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IAEA 측에 이를 전달하려던 때 캐나다 정부가 한국 측에 NPT 비준을 요구함. 한국 정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나 전적으로 결정적인(absolument définitive) 답변은 아니었음.
- 주캐나다 프랑스대사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1월 29일 서명된 계약 체결을 승인했지만 계약의 실행은 한국 측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부차관보가 이 점에 대해 명쾌히 밝힌 것은 아니나 NPT 비준이 계약 시행의 전제조건임이 유추 가능함. 부차관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정치적 측면이 너무 늦게 논의되면서 캐나다 당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음.
- 한편 부차관보는 한국 측이 재처리공장을 정말로 평화적 목적에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프랑스 측은 부차관보의 질문에 이 공장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공급하는 한국 내 모든 설비가 IAEA의 전적인 관리 감독 하에 놓이는 것을 한국 측이 수용했다고 답변함. 게다가 만일 한국이 NPT를 비준한다면 이 관리 감독이 전체 핵연료 주기로 확대 적용될 것임.
- 이에 부차관보는 프랑스 측이 한국 및 IAEA 측과 협정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프랑스 측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함.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미 에클룬드(M. Eklund) IAEA 사무총장 측에 의향서를 보낸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차관보는 프랑스 측이 한국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술이전도 안전조치 협정안에서 고려했는지 질문함.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해 기술이전 관리 감독과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극도로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는 정도로만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음.

▶ 파키스탄

- 캐나다 측은 파키스탄과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두 문제는 밀접히 관련됨. 하나는 파키스탄 카누프(Kanupp) 원전에 공급한 원자로로, 수년 전부터 가동 중이며 관리 감독 강화를 희망하고 있음. 또 하나는 핵연료 제조(원자로 공급용 우라늄 연료봉 생산) 공장 프로젝트임.
- 부차관보에 따르면 기존의 원자로 안전조치 협정(1969년 IAEA와의 3자 협정에 따라 관리 감독을 IAEA에 일임) 체결로 캐나다가 공급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분열물질, 거기에서 사용된 핵연료 및 재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함. 한편 캐나다는 원자로의 수명 동안 연료 공급을 보장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원자로의 작동이 관리 감독 대상임. 하지만 파키스탄 측이 자유롭게 연료를 공급한다 해도 이를 막을 법률적 제약이 없음. 따라서 캐나다 측은 원자로 자체를 관리 감독 하에 두고 이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 전체의 재처리를 거부할 권리 및 평화적 목적의 폭발 금지를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얻어내고자 고심 중임.
- 핵연료 제조 공장 계획은 최근 이야기된 것으로, 캐나다 측은 파키스탄 원조 명목 하에 공장이 IAEA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인다는 조건부로 이를 승인하였으며, 1969년 IAEA와 체결한 3자 협정에 조항을 추가하는 데 파키스탄 측과 합의함. 하지만 IAEA가 이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협정을 요구함. 이때 인도가 핵폭발에 성공하면서 캐나다 측은 카누프 원자로의 평화적 이용 보장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됨. 1974년 가을, 캐나다 측은 파키스탄에 재처리공장 및 원자로에 관한 서신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파키스탄 측은 응답하지 않음. 캐나다와 인도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려는 것임. 캐나다 측은 몬트리올에서 선적 준비를 마친 재처리공장 부품들을 압류함.

▶ 인도

- 부차관보가 요약해서 공유한 1월 뉴델리에서의 협상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측이 사이러스(Cirus) 원자로나 마드라스(Madras) 원자로들(캐나다 원자로 모델을 바탕으로 하지만 인도가 자력으로 건설 시도 중임)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리라 생각함을 유추할 수 있음. 인도가 적어도 자국 내에서 기술이전 관리 감독을 수용하게 하려는 캐나다 측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임. 세트나(M. Sethna) 위원장은 그러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며, 일부 특성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부차관보에게 말했다고 함.
- 따라서 캐나다 측은 라자스탄(Rajasthan) 원자로 2기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에 그침. 미국이 사용했고 프랑스가 고려 중인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방식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며, 전체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고려 중임. 인도 측은 이에 대해 협상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프랑스 측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생각할 때 흥미로운 반응임. 또한 캐나다 측은 출처와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캐나다 측의 동의하에만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한 조항을 확보할 생각임. 인도 측은 라자스탄 원자로들에 대한 12월 20일 맥도널드 장관의 선언에 따른 조건을 어느 정도(기술이전 문제는 예외로 보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듯함.
- 캐나다 측은 인도가 핵 비확산 선언을 하게 하고,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핵 비보유국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원하게 하는 등 부수적 조치들(mesures collatérales)로 이 결과를 보강할 계획임. 같은 맥락에서 인도 측에 평화적 핵폭발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인도는 아직 응답하지 않음. 하지만 인도가 2차 핵폭발을 시행한다면 캐나다 측이 양국 관계 정상화 진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임. 캐나다가 IAEA 평화적 핵폭발 대책위원회 설립을 지지한 것도 인도가 '평화적' 핵폭발을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도록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임.

▶ 프랑스–캐나다 관계

- 1월에 골드슈미트(M. Goldschmidt) IAEA 이사회 프랑스 대표가 캐나다 에너지부 차관보이자 프랑스–캐나다 에너지 대책위원회의 우라늄 소위원회 위원장 맥냅(M. McNabb)에게 서신을 보내 우라늄 수출 혹은 천연우라늄 농축 서비스에 어떤 안전조치를 적용하려 하는지 질문함.
- 유로디프는 캐나다 당국에 천연우라늄 4천 톤 대여에 어떤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질문함.
- 뒤퓌 부차관보는 골드슈미트에게 보내는 서신에 신속한 답변을 약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타와에 돌아가서 처리하겠다고 말함. 부차관보는 프랑스 측이 원하는 바가 다른 핵 강국들과 같은 방식으

로 취급받는 것이라는 점을 완벽히 이해했으나 이 점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소련이 캐나다산 우라늄을 농축할 때 NPT 3조 2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IAEA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강조함. 그러면서도 소련이 영토 내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국 측과도 마찬가지였음을 은연중에 인정함. 영국의 경우 Euratom–IAEA 협정 적용 조건을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고 함.

- 프랑스 측은 캐나디프(Canadif) 프로젝트에 대한 캐나다 측의 발표나 언급을 유의하고 있음을 밝힘. 이와 관련해 발생한 의문점들에 대한 설명을 주캐나다 프랑스대사를 통해 조만간 전달할 예정임.

▶ 잉거솔(Ingersoll) 차관의 제안

- 핵 공급국 컨퍼런스에서 미국 측이 내건 제안에 대한 프랑스 측의 생각을 묻는 뒤퓌 부차관보의 질문에 미국 측의 접촉이 있었으나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대답함. 이 제안이 프랑스 측에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프랑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부차관보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핵 비확산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밝힌 바 있다고 함.

2.71. Problèmes du retrait des résidus nucléaires (핵 폐기물 처리 문제)

생산일자: 19750308
페이지: 171~172

3월 4일 자 전보 No. 48/50에 따른 내용임.
스나이더(Sneider) 주한 미국대사가 담화 중 미국 측이 빈에서 수집한 정보를 언급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IAEA에 한 약속에 대한 정보였으며, 프랑스 측은 최근 한국과 시범시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스나이더 대사의 질문에 추가 보장을 요구했으나 그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위치가 아니라고만 답변함. 아마도 파리에서 이 점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국 측이 한국이 획득하게 될 플루토늄을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지 의심하는지를 스나이더 대사가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님. 위신 및 북한 견제 차원의 논리로, 엑조세 건 등 이후 한국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주국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미국 측은 위험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의 '쇼핑 리스트'를 존중하기에 거부감을 느낌.

2.72. Accord de garanties France–Corée–AIEA, Copie d'une lettre adressée au Directeur Général de l'AIEA (프랑스–한국–IAEA 안전조치 협정: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 사본)

생산일자: 19750313
페이지: 173~175

1) 문서 전달 양식(173쪽):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원자력 문제팀), 수신자(아시아국), 전달일(1975년 3월 13일), 문서 전달 이유('정보'에 표시되어 있음) 등

2) 우편 명세서(174쪽): 발신일(1975년 3월 7일), 발신자(IAEA 이사회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대리인), 수신자(프랑스 외무부 장관), 발송 문서의 명칭(프랑스–한국–IAEA 안전조치 협정: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 사본), 발송 문서의 개수(1) 등 기재

3) IAEA 이사회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이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 1975년 3월 5일 빈에서 작성(175쪽).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핵 물질, 설비나 공급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임. 양국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이 공급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 공급 계약서에 명시될 것임. 따라서 프랑스–한국–IAEA 간 안전조치 협정 초안을 작성해 최대한 빨리 회담을 열고 1975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되도록 협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IAEA 측에 요청하는 바임.

2.73. Problèmes spécifiques de non–prolifération intéressant la France et le Canada (프랑스와 캐나다와 관련된 핵 비확산 문제)

생산일자: 19750305
페이지: 176~176

캐나다 외무부 내 교섭 상대들에 따르면 트뤼도(M. Trudeau) 총리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미셸 뒤퓌(Michel Dupuy) 부차관보가 드 나젤에게 3월 11일 런던에서 만날 것을 제안함. 이 회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부서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2.7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304
페이지: 177~178

전보 No. 208, No. 210호에 따른 내용임. 전보 No. 210호로 부서에 보낸 내용에서 첫 번째 문장만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의 공급 협력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임”으로 수정한 뒤 서신을 IAEA 사무총장에게 즉시 전달할 것. IAEA 측이 양국 정부 간 서신 교환 혹은 협정을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 대표부 측에 그러한 텍스트를 당장 작성해야 함을 인지시키길 바람. 프랑스 측에서 초안을 작성해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할 수 있음. IAEA와 빈 주재 한국 대표부와 함께 6월 이사회에 제출할 안전조치 협정 초안 작성 착수에 필요한 지시를 차후에 전달할 예정임. 1974년 10월 19일에 발효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 협정이 CEA와 한국 과학기술처 간에 체결된 바 있음. 정부 간 협정은 아니나 IAEA 법률부 측에 3자 협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75. Accord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협정)

생산일자: 19750303
페이지: 179~180

IAEA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이 부서를 통해 파리 프랑스 원자력청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에게 보내는 내용임. 아래 내용은 모두 인용문임. 이전 전보에 따른 것으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임.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핵 물질, 설비나 시설 공급에 합의했음을 알리는 바임. 양국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이 공급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 공급 계약서에 명시될 것임. 따라서 프랑스–한국–IAEA 간 안전조치 협정 초안을 작성해 최대한 빨리 회담을 열고 1975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되도록 협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IAEA 측에 요청하는 바임.

2.76. Accord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협정)

생산일자: 19750303
페이지: 181~181

IAEA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이 부서를 통해 파리 프랑스 원자력청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에게 보내는 내용임. 전보 172호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은 모두 인용문임.

1) IAEA 측에 보내는 서신에 관한 지시에 따라 수정된 텍스트를 별도의 전보로 보내는 바임. 수요일에 열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부서 측에서 판단한다면 작성자가 늦어도 화요일 저녁까지는 이 서신에 서명해야 함.
2) 6월에 열릴 이사회에 제출할 3자 협정안과 관련, IAEA 법률부는 프랑스와 한국 양국 정부 간 서신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IAEA의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3자 협정은 당사자, 즉 정부 간의 합의에 근거해야 함.

2.77.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303
페이지: 182~183

지난번 전보에 따라 보내는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의 서신 내용임. 아래는 모두 인용문임.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와 민간 목적의 원자력 사용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바임. 프랑

스 정부는 이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측에 설비, 장치, 재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양국 정부는 프랑스가 제공하는 이 설비, 장치, 재료 혹은 이 설비, 장치, 재료로 인해 획득되는 것이 군사적 목적으로든 폭발물 제조를 위해서든 사용되지 않을 것임에 합의함. 양국 정부는 IAEA 측에 이 협력 대상이 되는 설비, 장치, 재료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IAEA와 3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사회가 이 요청을 승인한 뒤에 협정 관련 협상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함.

2.78.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과학 사안들에 근거한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303
페이지: 184~184

전보 No. 172, No. 173에 대한 답변임.
다음 전보를 통해 전할 내용을 담은 서신을 IAEA 사무총장에게 즉각 전할 것을 요청함. 앞선 서신에 언급된 미국–이스라엘–IAEA 간 안전조치 협정에서 착안한 내용임. 본 서신은 협상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협정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전달할 것임.

2.79.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226
페이지: 185~185

프랑스 대표부가 부서를 통해 파리 프랑스 원자력청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에게 보내는 내용임. 전보 172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내용은 모두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프랑스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의 서신을 직접 인용한 것임.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핵물질 및 설비 공급에 대해 합의하고 IAEA 측에 필요한 안전조치의 시행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음을 알리는 바임.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IAEA와 3자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 이사회에서 최근 승인된 안전조치 협정과 대체로 유사한 협정이 될 것임. 3자 협정 협상 시기와 방법에 대한 IAEA 측의 제안을 기꺼이 받을 것임.

2.80. Accord trilatéral France–Corée–AIEA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

생산일자: 19750226
페이지: 186~186

프랑스 대표부가 부서를 통해 파리 프랑스 원자력청 베르트랑 골드슈미트(Bertrand Goldschmidt)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아래 내용은 모두 대표부 상임대표 드망통(Dementhon)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임.
한국 대표부가 자국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IAEA 측에 프랑스–한국–IAEA 3자 협정안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음. 다음 수요일 개최될 IAEA 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IAEA 사무국에서 두 당사국 정부의 서신 초안을 나에게 전달했으며, 별도의 전보를 통해 이 초안을 부서에 전달하니 늦어도 금요일까지 한국 측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임.

2.81. 캐나다 측의 답변 지연

생산일자: 19750225
페이지: 187~187

드 나젤(De Nazelle)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원자력 관련 관리 감독에 대해 다시 물었으나 캐나다 측은 새로운 요소 때문에(en raison d'éléments nouveaux) 여전히 답변을 미루고 있음. 한국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가능성을 시사함.

2.82. Problèmes spécifiques de non–prolifération intéressant la France et le Canada (프랑스 및 캐나다와 관계된 핵비확산 문제)

생산일자: 19750225
페이지: 188~189

작성자이자 발신자 드 나젤(M. De Nazelle)은 10월 22일 파리에서 가진 뒤퓌(M. Dupuy) 부차관보와의 담화 중 양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핵 수출 또는 협력 사례에 대한 양자 접촉을 유지하는 데 반대가 없을 것임을 밝힘. 이어 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및 파키스탄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판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드 나젤에게 질문함. 한편 캐나다 측은 파키스탄에 공급한 천연우라늄 원자로 관리 감독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파키스탄 및 한국과 협상 중임을 밝힘. 이 협상의 목표에 대한 프랑스 측의 질문에 참사관은 뒤퓌 부차관보가 이러한 의견 교환을 환영하지만, 답변에 앞서 2주를 기다리고 싶어 한다고 답함.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할 가능성 등 새로운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 프랑스 측은 곧 이 두 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함. 프랑스 측이 캐나다대사관에 이라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이라크는 프랑스로부터 천연우라늄 원료 원자로를 인수하고자 함. 이라크는 NPT에 가입했으나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를 선택함으로써 몇 가지 의문을 자아냄. 캐나다 측과도 접촉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핵 비확산을 위해 캐나다 측이 어떤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을 요구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바라는 바임.

2.83. Étude sur l'énergie nucléaire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검토)

생산일자: 19750219
페이지: 190~193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는 서신(190쪽)

–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이 과학부와 연계해 역내 여러 국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 각국에 대한 자료 카드를 작성하였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
– 한국에 대한 자료 카드를 첨부함.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바람.
– 여러 국가에서 제공하는 원조의 세부 사항 및 범위를 파악하고, 일본 측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가능한 한 빨리 자료 카드를 돌려줄 것과 사본 1부를 직접 과학과로 보내주라고 요청하는 바임.

한국에 대한 자료 카드(191–193쪽)

(1) 광물 자원

• 탐사가 진행 중임.
• 보통 수준의 우라늄 광맥

(2) 성과 및 프로젝트

가. 평화적 이용 분야

– 원자로

• 웨스팅하우스社/제너럴 일렉트릭社: 1976년 11월 가동 예정. 가압수형, 농축우라늄. 600㎿급. 자금 조달: 미국 6,600만 달러, 영국 6,300만 달러, 한국 6,800만 달러.
• 동일 유형, 동일 용량의 2호기가 1979년 건설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8천만 달러를 조달함.
• 600㎿급 원자로 2기의 가동을 1980~1981년으로 예상함. 캐나다형 원자로이며, 캐나다 측과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임. 비용은 약 3억 달러로 추산됨.
• 추가 원자로 5기의 건설이 1980~1986년으로 예정됨.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총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제 협력

• 미국/캐나다/영국: 내용 없음.
• 일본: 히타치(Hitachi)社가 캐나다형 원자로 공급을 위해 협상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한일 양국 간의 긴장으로 일본이 배제될 가능성 있음.
• 프랑스: 아래 장 참조.

나. 군사 분야

– 조약: 모스크바: 서명하지 않음. / 비확산: 서명, 미비준.

–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1980년경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됨(북한은 1995~2000년경).
– 일본 좌파 운동가들에 따르면 히타치, 마루베니(Marubeni) 등 일본 기업들과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군수 연구를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음.
– 미국의 핵폭탄이 한국에 보관되어 있음.

프랑스와의 협력

– 1972년 이래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협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 및 기술지원(생고뱅社). 2억 프랑. 연간 설비 용량 5~10톤. 플루토늄 생산 5~10kg. 수에즈은행(Banque de Suez)에서 1억 4천만 프랑 대출.
  •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지식 제공(CERCA社). 유럽연합은행에서 2천5백만 프랑 대출.
– 1975년 1월 14일 양해각서 체결. 한국 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감독과 프랑스 측의 추가 관리 감독 가능성을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 1975년 3월 31일 협정 체결 예정.

2.84. 한국의 원자로 현황

생산일자: 19750124
페이지: 194~194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원자로 1기를 70억 달러에 구매할 예정임. 창원에 건설될 세 번째 원전을 위한 670㎿급 중수로형 원자로로, 1980년 가동 예정임. 고리 1호기는 1975년 10월 가동될 예정임. 웨스팅하우스社가 공급한 595㎿급 원자로임. 원전 2호기도 웨스팅하우스社가 건설했으며, 49.8억 달러(54.8억?)에 달하는 비용 중 일부는 XXX 수출 은행(Banque Export...), 20억(30억?) 달러는 영국의 라자드 브라더스(Lazard Brothers) 은행이 부담함.

2.85. 프랑스 정부의 추가 안전조치에 관한 제언

생산일자: 19750205
페이지: 195~195

1월 16일 자 전보 13호에 대한 답변임.
생고뱅(S.G.N.)社 측 대표 지로(M. Giraud)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의 논의 이후 큰 문제 없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을 수용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반면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듯하나, 단호한 거부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한국 측은 프로젝트의 본질 자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추가 조치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KAERI 측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됨.

2.86. Contrat de KAERI avec les sociétés S.G.N. et CERCA pour la construction d'installations nucléaires (생고뱅社 및 CERCA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 간의 원자력 시설 건설 계약)

생산일자: 19750121
페이지: 196~200

문서전달양식(196쪽):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원자력문제팀), 수신자(아시아국), 발송 문서의 명칭(생고뱅社 및 CERCA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간의 원자력 시설 건설 계약), 문서 전달 이유('보' 명시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는 서신(197–200쪽)

- 1월 16일 자 연락 사항과 관련된 내용임. KAERI는 1972년 이래 프랑스 원자력청(CEA), 생고뱅社(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 CERCA社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상을 시작함.
  - 생고뱅社: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 시설 건설을 위한 상세 설계 및 기술 지원
  - CERCA社: 핵연료 물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지식 공급
- 한국 정부가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프랑스 측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면서 논의가 연기되었으나 1974년 한국 당국이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보증을 획득한 프랑스 기업들과 인도차이나은행(Banque de l'Indochine) 산하 은행 그룹과 직접 대출 협상을 하면서 재개된 이후 CERCA社와는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고 생고뱅社와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한국원자력위원회가 1월 15일 이전에 프랑스 은행 그룹으로부터 우대 금리(6.75%)로 1억 4천만 프랑을 대출받아야 하므로 이 기일 전에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CERCA社 측에, 임시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생고뱅社 측에 요청함. 생고뱅社와의 계약 체결은 1975년 3월 31일로 연기됨.
-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논의 초기부터 한국 측이 보내온 구상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옴.
- 재정 조항이 합의되고 기술 및 산업 조항이 거의 확정된 지금, 프랑스 정부가 계약 실행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대표들과 KAERI가 표명한 보장 내용에 상응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적절함.
- 이러한 세부 사항은 1975년 1월 14일 파리에서 생고뱅社, CERCA社, KAERI 부원장 간에 계약(CERCA社의 경우) 및 양해각서(생고뱅社의 경우)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 제공된 것임. 양해각서의 서명과 함께 생고뱅社 측 대표가 KAERI 부소장에게 약속 이행 조건을 명시한 서신을 전달하고, 부원장이 수령 확인서에 서명함. 해당 서신을 첨부하는 바임.
- 서명 후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과학과에서 각서를 받음. 해당 각서는 1월 16일 자 전보 13호를 통해 전달한 바 있음. CERCA社 및 생고뱅社와의 계약이 발효되려면 프랑스 정부가 승인을 내려

야 하고, 승인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 하에 두고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사참사관에게 명시하였음.

– 프랑스 정부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안전조치의 성격을 묻는 공사참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제공받은 지식 및 설비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함. 초기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 KAERI가 프랑스로부터 획득한 노하우를 사용해 건설하게 될 후속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내용을 한국 측 교섭 상대들에게 알리고 프랑스 측의 요청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함을 상기시킬 수 있음. 한국은 NPT 가입국이며, 1972년 11월 30일 자 안전조치 이전 수정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이 수정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되었으며, 미국과 체결한 1968년 1월 5일 자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수정한 것으로, 1972년 11월 24일 미국과 체결한 협력 협정에 근거해 재료, 장비, 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KAERI와 생고뱅社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합의한 날짜인 1975년 3월 3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킬 수도 있음.

2.87.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 Copie de la lettre du 14.1.1975 de la Sté St–Gobain–Techniques–Nouvelles adressée au Dr. Choo. (한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 – 생고뱅에서 주 박사에게 보낸 1975년 1월 14일 자 서신 사본)

생산일자: 19750114
페이지: 201~202

우편 명세서(201쪽): 발신일(1975년 1월 20일),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수신자[프로망–뫼리스(Froment–Meurice)], 발송 문서의 명칭(한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 – 생고뱅社가 주재양 박사에게 보낸 1975년 1월 14일 자 서신 사본), 발송 문서의 개수(1), 목적(정보) 기재

서신(202쪽)
귀 연구원의 재처리 시설 설계 및 건설 지원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최종 계약의 발효에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리는 바임.

– 프랑스 정부가 생고뱅社에 승인을 내려야 함.

– 한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 하에 두고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전조치 수용을 약속해야 함.

2.88.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관련 협력)

생산일자: 19750116
페이지: 203~205

전보 No. 12에 이어 보내는 구상서 전문으로, 아래는 모두 인용문임.
외무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프랑스 기업인 생고뱅社와 CERCA社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한 계약을 인증하는 바임.

– 생고뱅社: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을 위한 상세 설계 및 기술지원
– CERCA社: 핵연료 물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지식 공급

외무부는 1975년 1월 14일 생고뱅社 대표가 KAERI 부소장에게 전달한 서신 가운데 특히 다음 단락에 주목할 것을 대사관 측에 촉구하는 바임.
최종 계약 발효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적용됨.

- 프랑스 정부가 생고뱅社에 승인을 내려야 함.
- 한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 하에 두고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해야 함.

또한 1975년 1월 15일 CERCA社 최고경영자가 서명한 계약서에서 특히 이 계약이 한국–프랑스 양국 관할 당국의 승인 후에 발효된다는 제17조에 주목할 것을 대사관 측에 촉구하는 바임.
생고뱅社 대표와 KAERI 부원장이 1975년 1월 14일 서명한 양해각서의 제15조에 1975년 3월 31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외무부는 한국대사관 측이 자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 하에 두고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약속이 이행되면 최대한 빨리 양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간에 3자 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임.

2.89.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원자력 관련 협력)

생산일자: 19750116
페이지: 206~206

1월 16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구상서 전문을 별도의 전보로 보내는 바임.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따라서 생고뱅社와 CERCA社가 공급하게 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3자 협정이 긴급히 체결되어야 3월 3일 이전에 생고뱅社 측과의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2.90. Fourniture d'équipement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원자력 장비 공급)

생산일자: 19750113
페이지: 207~209

문서전달양식(207쪽): 발신자[레미 테시에 뒤 크로(Rémi Teissier du Cros)], 수신자, 문서 전달 이유(‘ 정보’에 표시되어 있음) 등을 밝힌 메모임.

대사,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한 노트(208–209쪽)

과학과의 1월 10일 자 노트와 관련해 경제재무국은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부서의 관련 과 등 관할 행정당국은 생고뱅(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社, CERCA社 등 1년 전 프랑스 기업들이 주도하는 협상이 시작된 때부터 이를 추적하고 있음. 지난 11월 22일 과학과의 동의하에 보증위원회(Commission des Garanties)가 두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함.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게 될 것임.
- 유럽연합은행(Banque de l’Union Européenne)과 인도차이나은행(Banque de l’Indochine)은 이 약속을 근거로 수출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됨. 최근에 이 금리가 7.5%로 인상되었으나 인상 이전에 착수된 건에만 이전 금리(구매자 신용 7년 이상인 경우 6.75%)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계약서 혹은 의향서가 1월 15일 이전에 서명되어야 함.
- 따라서 한국 측은 당장이라도, 혹은 오는 3월 계약 서명 직후부터 프랑스 정부가 부과하는 관리 감독 조건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며 그에 따른 내용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1월 15일 이전에 의향서에 서명하기를 원함. 따라서 1월 10일 자 노트에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긴급함.

2.91.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nucléaire. Usine de retraitement de combustibles irradiés. (한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생산일자: 19750110
페이지: 210~213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한 메모(210쪽)

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위한 노트(211–213쪽)

- 1972년 한국원자력위원회가 프랑스 원자력청(CEA) 및 산업계와 다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회담을 시도한 바 있음.
  - 생고뱅社: 연간 사용후핵연료 5~10톤을 재처리할 수 있는 공장
  - CERCA社: 핵연료 제조 시범시설
- 한국 정부가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프랑스 측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면서 논의가 연기된 뒤로 한국 당국은 1974년 11월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보증을 획득한 프랑스 기업들과 인도차이나은행(Banque de l’Indochine) 산하 은행 그룹과 직접 대출 협상을 함. 한국원자력위원회는 1월 15일 이전에 프랑스 은행 그룹으로부터 6.75% 금리로 1억 4천만 프랑을 대출받아야 하므로 이 기일 전에 임시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생고뱅社 측에 요청함. 위원회는 2월 15일 이전에 생고뱅社 측에 총 계약 금액의 5%를 착수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계약은 1975년 3월 말 이전에 체결될 예정임.

– 계약서 초안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음. 생고뱅社 측에 따르면 한국 측에 매일 20~40kg, 즉 연간 5~10톤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시범 공장 상세 설계를 제공하고, 장비공급을 제외하고 시범 공장 건설 감독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계약에 포함됨. 생고뱅社는 장비 사양 초안 작성 및 입찰 요청을 포함해 엔지니어링 사무소, 컨설팅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됨. 장비 주문은 한국 측이 직접 주관할 것임.
– 공장 건설 기간은 4~5년으로 예상됨. 완공되면 연간 5~10kg의 플루토늄 공급이 가능함.
– 과학부가 생고뱅社 측이 약속한 바에 대해 평가하려면 계약을 검토해야 함. 현재로서 이 건은 소규모 시범시설 계약으로 보임. 참고로 1974년 10월에 생고뱅社가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은 연간 100톤을 재처리하는 공장임.
– 생고뱅社 측의 계약서 초안 제출을 기다리는 동안, 과학부는 임시 서약서를 통해(서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신을 동봉해) 다음 두 조항을 언급해야 함을 생고뱅社 측에 알리고 승인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하는 바임.
  • 계약은 한국 정부가 공장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 감독 하에 두기로 프랑스 정부에 약속해야만 체결될 것임.
  • 계약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체결될 것임.

2.92. Nouvelles dispositions régissant les exportations canadiennes de matériel nucléaire (캐나다의 핵 물질 수출 시 적용되는 새로운 조치)

생산일자: 19741221
페이지: 214~217

캐나다 에너지광업부 장관(ministre de l'Énergie et des Mines)이 어제 하원에서 캐나다 우라늄 자원의 중요성과 캐나다형 원자로의 가치를 언급한 뒤, 이러한 점이 핵확산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연방정부의 우려를 전함. 그러한 관점에서 향후 모든 해외 구매자에게 요구하게 될 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기존 안전조치를 보강하는 새로운 조치를 아래 요소에 즉시 적용할 수 있음.
   – 캐나다가 제공하는 원자력 시설과 장비의 수명 동안
   – 캐나다 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시설과 장비
   – 원자력 관련 상품 일체(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중수) 및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핵연료
   – 원산지와 무관하게 캐나다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생산된 원자력 관련 상품 일체

2) 안전조치와 관련해 구매자는 평화적 목적이든 아니든 캐나다의 물자나 기술 지원을 사용해 핵 폭발물을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함.

3)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위임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행될 수 있음. 캐나다 측 수출업체는 거래에 앞서 안전조치 면에서 물자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는지 산업무역부(ministère de l'Industrie et du Commerce)와 원자력관리심의회(Conseil de Contrôle de l'Énergie atomique) 측에 확인해야 함.

4) 현재 캐나다 원자력 산업의 역량으로는 연간 원자로 3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발전소 공급 및 특수 물자 및 기술 공급에 대해 선택적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임. 원자로 5기 건설이 즉각적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1기는 수출용으로 할당됨.

5) 따라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연방정부는 캐나다원자력공사(Agence atomique du Canada)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 협상을 허가함.
– 아르헨티나: 캐나다형 원자로 2호기(600㎿급)에 대한 핵물질 공급
– 이란: 동일 용량의 원자로 2기 공급
– 한국: 원전 1기 공급
– 덴마크: 캐나다형 원자로 1기에 대한 핵물질 공급
– 이탈리아: 이탈리아 내 캐나다형 원전 건설을 위한 캐나다형 원자로 면허 이전

캐나다원자력공사는 또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진하도록 허가받음.
– 루마니아: 양국 과학 교류 및 캐나다형 원자로와 중수로 공장 건설을 위한 면허 이전에 관한 협정 협상
– 영국: 캐나다형 원자로의 특정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협력 구축에 관한 협의

6)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이 유형의 공장을 건설하려는 BRINCO 프로젝트에 관한 1973년 8월 1일 발언에 포함된 원칙을 언급함. 당시 이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아니며, 캐나다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엔지니어링 · 건설 · 운영에 대한 캐나다 인력의 참여 정도, 환경적 영향 및 자금조달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7)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 새로운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 목표가 캐나다의 상업적 이익,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수요 및 핵무기 확산 방지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2.9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41220
페이지: 218~219

1972년부터 한국 당국은 아래 목적으로 프랑스 원자력청(CEA)과의 협력을 추진해 옴.
– 원자력 발전소 연료 제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 기술자 양성을 위해

1973년 10월과 1974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대표단의 파리 방문에 이어 현재 두 가지 프로젝트가 협상 중이며 체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1975년 1월 15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관계국이 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가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임. 첫 번째는 KAERI와 CERCA社가 체결한 협정에 따른 핵연료 제조 시범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250억 프랑 규모(이 수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의 자금은 유럽연합은행이 조달할 것임. 두 번째는 KAERI와 생고뱅社가 체결한 협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자금 규모는 애초에 1,100억 프랑으로 산출되었으나 재검토 후 최소 2,000억 프랑으로 조정되었으며 수에즈은행이 조달할 예정임. 한국 측은 이 두 프로젝트의 실현 및 엑조세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프랑스 원자력청에 요청함. 이 두 프로젝트가 핵확산(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학과의 답을 듣지 못함. 경제재무국은 계약의 체결이 거의 확실하며 새로운 방향이 원칙적으로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을 특기하는 바임.

2.94. Visite à Paris du Président de l'Institut de Recherche sur l'Énergie Atomique de Corée (KAERI), du 11 au 14 septembre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9월 11~14일 파리 방문)

생산일자: 19740918
페이지: 220~221

문서 전달 양식(220쪽): 발신자, 수신자, 전달일(1974년 9월 25일) 명시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소장의 파리 방문과 관련 내용 노트(221쪽)

– 한국대사관 경제담당관에 따르면 연말 안에 두 건의 한국–프랑스 산업 분야 계약이 체결될 것임.
  • KAERI와 CERCA社 간: 대전 지역에 핵연료 제조 시범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으로, 이 프로젝트(250억 프랑 규모)의 자금은 유럽연합은행(Banque de l'Union Européenne)이 조달할 것임.
  • KAERI와 생고뱅社 간: 동일한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으로, 이 프로젝트(1,100억 프랑 규모)의 자금은 수에즈은행(Banque de Suez)이 조달할 것임.
– 페시네(Péchiney)가 우라늄 채광 장비공급을 위해 한국 측과 접촉할 것이나, 아직은 이 주제와 관련한 협상이 없었을 것임.

2.95. 한국과의 거래에 대한 문의

생산일자: 19740921
페이지: 222~223

한국대사와의 담화에서 언급된 문제들

1) 엑조세(Exocet): 윤 대사(M. Yun)에 따르면 유엔(UN)이 한국 해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과 분쟁이 발생해도 이 대함미사일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됨.
2) 핵연료 관련 거래(재처리에 1천8백만 달러, 프로세싱(processing)에 2백만 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함. 유럽연합은행(Banque de l'Union européenne) 및 인도차이나은행(Banque d'Indochine)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착수금 30%가 과도하고(한국 측은 15%를 희망함) 지불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함. 수출신용보증위원회(Commission des Garanties)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서둘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봄.
3) 8월 초 프랑스가 브뤼셀 측에 한국 섬유제품에 대한 로마조약 제115조의 적용에 관해 문의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음. 프랑스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러한 요구를 함. 한국 측은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적용을 폐지하는 한편 섬유 쿼터 증가를 요구함.

에어버스(Airbus) 계약이 아직 완전히 성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한국대사에게 목요일 저녁 이전에 2번 및 3번 문제에 대한 정보 내지 상세한 답변을 줄 수 있기를 바람.

2.96. Combustible nucléaire (핵연료)

생산일자: 19740717
페이지: 224~224

7월 12일 자 전보에 이어 한국전력주식회사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유로디프(Eurodif)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부서에 전달하는 바임. 미국 측과 난항을 겪으면서 이러한 요청서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임.

2.97. 한국의 원자력 개발 협력 방식 논의

생산일자: 19740707
페이지: 225~226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유로디프(Eurodif) 측에 핵연료 가격 및 운송 조건에 대한 요청서를 제시하는 한편, 페시네(Péchiney)社 도쿄 지사장은 서울에서 한국의 향후 핵 개발 문제, 현지 우라늄 광맥 개발 가능성, 프랑스 측과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함.

1) 한국은 프랑스 측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할 것이 확실함.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윤용구 소장은 특히 프랑스가 미국의 독점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적극적임.
2)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시설을 생고뱅社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미 프랑스 측에 상당한 비중을 둔 선택을 함.
3) 일본 원자력 발전(éléctricité nucléaire) 분야에서 프랑스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한국도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임.
4) 미국 측이 핵연료 공급 면에서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금조달 면에서나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5) 일본의 예를 볼 때, 국제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프랑스의 기술과 수단을 써 한국 민간 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프랑스가 현재 한국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댐, 조력발전소, 시멘트 제조공장, 화력발전소 등으로 1980~82년에 최대치에 달하게 될 것임.
7) 따라서 지금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연구하고 한국 측에 곧 주어야 하는 답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98. Origine: Accord bilatéraux Objet: Financement de projets nucléaires pour le conseiller commercial de la part de la DREE (양자협정에 근거해 대외경제관계국에서 상무관에게 보내는 원자력 프로젝트 자금조달 관련 전언)

생산일자: 19740626
페이지: 227~227

6월 11일 자 전보 No. 246/247에 따른 내용임. 아래 내용은 대외경제관계국 가부아(Gavois)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작성자이자 전달자는 레미 테시에 뒤 크로임.
인용 시작.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정부 차관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함을 알리는 바임. 정상적인 신용 조건으로 프랑스 산업계가 계약을 확보할 가능성이 클 경우, 프랑스 원자력청(CEA)은 기술 원조를 계획하고 있음. 인용 끝. 테시에 서명.

2.99.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 관련 전언

생산일자: 19740611
페이지: 228~228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외경제관계국 가부아-르보텔(M. Gavois-Revotel)에게 보내는 상무관의 전언으로, 전달자이자 발신자는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 랑디임.
한국 측은 프랑스 측의 신용 여건과 생고뱅社의 명성을 이유로 재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 프랑스의 원조를 우선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1974년 5월 10일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프랑스 산업계가 핵연료 물질 제조와 시범 장전을 맡을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CEA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다른 국가의 원조 차관을 아직 확보하지 못함.

2.100. Origine: Accords bilatéraux Objet: Projets de traitement de combustibles nucléaires (양자협정에 근거한 핵연료 처리 프로젝트)

생산일자: 19740531
페이지: 229~229

대외경제관계국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담당 참사관에게 보내는 내용임. 아래 내용은 대외경제관계국 가부아(Gavois)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작성자이자 전달자는 레미 테시에 뒤 크로임.
한국 측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프랑스 원자력청(CEA)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CEA는 요청 수락을 주저함. 차관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와 접촉한 한국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바임.

2.101. 원전에 우선권 부여 전망

생산일자: 19740427
페이지: 230~230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킬로와트당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전 쪽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임.

2.102. Compte rendu de la visite en France de M. Byoung Whie Lee, directeur du Bureau de l'Énergie Atomique de Corée du Sud (한국 원자력국 이병휘 국장 프랑스 방문에 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740305
페이지: 231~236

1) 우편 명세서(231쪽): 발신일(1974년 3월 13일), 수신자 아시아오세아니아국 뒤제(M. Duzer), 발송 문서의 명칭(한국 원자력국 이병휘 국장 프랑스 방문에 대한 보고서), 발송 문서의 개수(1), 목적(정보) 기재

2) 서신: '한국과의 협력(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프랑스 원자력청(CEA) 국제관계과(Servic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과장 페로(F. Perrot)가 작성. 한국 원자력국 이병휘 국장의 프랑스 방문에 따른 보고서 1건과 여러 개의 부록을 첨부한다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다수의 수신자(여러 부서 및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음.

3) 보고서(233–235쪽): 한국 원자력국 국장 겸 한국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이병휘의 프랑스 방문(1974년 2월 25일~3월 1일)에 대한 보고서

이병휘 국장의 이번 방문은 1973년 10월 한국 과학기술처(MOST) 이창석(Chang Suk Lee) 차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윤용구 소장을 동반했던 첫 번째 방문에 이은 재방문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용을 부담함. 이 국장은 체류 기간 중 프랑스 외무부 과학과와 대외경제관계국, 재무부, 프랑스전력공사(Électricité de France) 측 담당자와 대담을 나누고, 카다라슈(Cadarache)를 방문하고, 프라마톰(Framatome)社의 샬롱쉬르손(Chalon–sur–Saône) 작업장과 르크뢰조(Le Creusot) 공장 시설을 견학함. 테크니카톰(TechnicAtome)社, CEA 국제관계과 등을 찾기도 함.

이 국장의 방문에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음.

- 원자로: 프랑스 측의 성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공학(테크니카톰社) 및 산업(프라마톰社) 역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부문의 기술 및 경제적 측면(CEA와 EDF)에 대한 프랑스 측 입장을 알고자 함.
- 프랑스 측의 자금 문제(대외경제관계국),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핵연료 물질 제조 시범 시설(CERCA社)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범 시설(생고뱅社) 건설 등을 진전시키고자 함.
- 한국 과학기술처와 CEA 간 협력 협정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1) 원자로

- 테크니카톰社: 경수로형 원자로와 고속 중성자로와 관련한 이 기업 및 CEA의 활동에 대한 대담을 나눔. 이 국장은 프로토타입 테르(Prototype à Terre)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가압수형 원자로 부문 개발과 페닉스(Phénix)를 확대 적용한 450㎿급 고속 중성자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임.
- 카다라슈: 쇼디에르 아방세 프로토타입(Chaudière Avancée Prototype) 현장과 고속 중성자 구역, 페닉스 연료 제조실, 유효핵연료 검사 시설 등을 방문함. 페닉스가 현재 램프업 단계에 있고 현재 집중 테스

트 기간임을 감안해 직접 견학하지는 못함.

– EDF: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원자로 부문의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대담을 나눔. 이 국장은 가스 흑연 부문 대신 경수로를 택한 이유, 고온가스로(réacteur à haute température)와 고속 중성자로에 대한 입장을 알고자 함.

– 이 국장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프랑스 측에 전달함.

•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웨스팅하우스社에 600㎿급 경수형 원전 1기(고리 1호기)를 주문함. 건설은 2/3 정도 진행되었고 1976년 가동될 예정임. 1979년 가동을 목표로 한 동일한 유형의 동급 원전 고리 2호기에 대한 웨스팅하우스社와의 계약이 진행 중임. 유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600㎿급 원전 2기 진행도 결정됨. 이 중 첫 번째 원전의 건설이 1975년 시작될 예정으로, 캐나다형 중수로형 원자로 설치가 유력함. 1974년 여름 한전과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간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1982년부터 연간 900~1,200㎿급 설비 건설을 계획함.

• 테크니카톰社는 한국이 캐나다형 원자로 3호기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역할을 할 기업으로 접촉한 16~17개 후보에 포함됨.

• 이 국장에 따르면 한국이 유럽의 우라늄 농축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음.

(2) 핵연료 물질 제조 및 재처리

– KAERI는 핵연료 물질 제조시설을 위해 CERCA社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일일 1kg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처음 논의되었으나 일일 20kg으로 조정됨)을 위해 생고뱅社와 협상 중임. 프랑스 측 자금 지원 문제(CERCA社에 1천만 프랑, 생고뱅社에 9천만 프랑)가 해결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이는 곧 프랑스 측의 정부 대출을 의미함.

– 대외경제관계국 담당자 가부아(M. Gavois)와 카사노바(M. Casanova)는 이 점에 대해 약간의 희망도 주지 않은 반면, 상업 융자(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의 보증을 통한 은행 대출)를 시도할 수 있으며, 비용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전함.

– 이 국장은 프랑스 외무부와 재무부에 이 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측의 제안을 담은 서류(부록 I과 II로 첨부함)를 전달하고, 프랑스 측의 제안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다른 국가와 접촉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 담당 참사관, CERCA社, 생고뱅社가 서둘러 가부아에게 이 두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3) CEA–MOST(AEB) 협력 협정

– 이 협력 협정은 서신 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2월 19일 지로(M. Giraud)가 서명한 프랑스어로 작성된 문서(부록 II에 첨부)와 영어로 작성된 문서가 이 국장에게 전달됨.

– 이 국장은 고속 중성자로에 대해서만 언급함. 협정에서 고속 중성자로가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보여 안심시켰지만, 제III–1조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모든 협력에는 당사자 간 협정 또는 개별 계약이 필요함을 안내함.

2.103. Problèmes de l'énergie et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nucléaire en Corée (한국의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 산업 개발)

생산일자: 19740104
페이지: 237~240

한국의 원자력 개발은 석유파동 이후 다시 활발해짐.

1973년 2월 16일 자 현안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위원회가 경상남도 장안면 고리에 59.5만㎾급 프로젝트의 일부인 30만㎾급 원전 시설을 건설함.

- 연료용 농축우라늄 기반 가압수형 원자로(PWR) 건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가 담당함. 최근 미국 정부가 두 번째 시설에 대한 확정주문을 획득함. 이를 위해 미국은 지금까지 원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8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첫 번째 시설과 마찬가지로 영국전력회사와 조지윔페이(George W. Wimpey and Co.)社가 터빈발전기 설치 공사와 토목공사를 담당할 것임. 에너지 자원 증가를 위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1981년 한국 총에너지 수요의 18%가 원자력 에너지로 충당될 전망임.
- 60만㎾급 원자로 2호기와 3호기가 각각 1979년과 1980년 건설 예정임.
- 한국은 1981년 연간 전력 생산량 11,000㎿(현 4,271㎿)를 목표로 수력 발전용 대형 댐 1개(진주)를 건설할 계획임. 프랑스 측은 이 계획과 석탄화력발전소 2기에 관심이 있음.
- 프랑스 전문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조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검토 중임. 건설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질 전망임. 부서 측이 주지하다시피 핵연료 판매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위원회와 연계된 한국원자력발전공사(Agence atomique de Corée) 책임자들은 프랑스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단, 원자력 협력 계획에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요구되므로 이 점은 프랑스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캐나다 측은 아이젠버그(Eisenberg)의 중개로 양허성 자금 지원을 약속한 덕분에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원전 2호기에 대한 의향서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천안–평택에 건설될 것으로 보임.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윤용구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가 제공하려는 시스템에 찬성하는 쪽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으며 캐나다 측의 연료 공급 조건이 미국 측의 조건보다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주장임. 미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반대하는 쪽은 캐나다가 건설할 시설의 운영으로 한–미 협력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행정 당국 내에서는 대규모 국가 계획을 또다시 이스라엘 중개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 고리 원전 2호기를 위해 한국에 다시 차관을 제공한 미국은 신임 주한 캐나다 대리대사의 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한편, 원전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한 바 있는 주한 영국대사관 측에도 불만을 드러냄. 건설부 및 KAERI와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한국전력이 캐나다 측에 낙찰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4월 중으로 한국 정부가 캐나다를 최종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윤 소장에 따르면 3호기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이 될 전망이며, 한전이 아닌 다른 공기업이 실행을 맡을 것임. 따라서 프랑스 측이 오래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수자원공사(KOWAKO)가 실행을 맡는다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봄.

이렇듯 원자력 프로그램의 시행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다면 한전의 독주 체제도 끝날 것으로 보임. 이는 국내 최대 공기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드러내는 시도라고 판단됨.

2.104. Vente de réacteurs canadiens à la Corée (캐나다 원자로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31213
페이지: 241~241

주한 캐나다대사이자 주일 캐나다대사에 따르면 한국 당국과 캐나다형 원자로 2기 판매 협상을 마쳤음. 1호기 판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호기 판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캠벨(M. Campbell) 대사에 따르면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임.

2.105. Coopération nucléaire franco–sud–coréenne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31019
페이지: 242~246

문서 전달 양식(242쪽): 수신자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 프로망–뫼리스(Froment–Meurice), 발신자(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 전달일(1973년 10월 22일), 문서 전달 이유('정보') 기재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노트(243–246쪽)

- 한국의 원자력 연구 및 개발 활동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소관으로, 산하에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있음.
- 각각 1962년과 1972년 가동을 시작한 250㎾급 Triga Mark II와 2,000㎾급 Triga Mark III 등 실험용 원자로 2기를 중심으로 다수의 실험실이 KAERI 산하에 모여 있음.
- 1973년 4월부터 산업 부문의 개발 활동은 원자력국(Bureau spécial de l'énergie atomique, AEB)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짐. 국장은 이병휘(Byoung Whie Lee)이며, 과학기술처 장관 직속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음.
  - 실험용 및 발전용 원자로의 연구와 개발
  - 핵연료 연구와 개발
  - 원자력 안전 문제 감독
  - 계획

- 한국은 각 600㎿급 원자로 2기를 포함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1970년 6월 24일 가압수형 원자로 제1호기의 계약을 체결함.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가 설치를 맡아 남동해안 고리에서 진행 중이며,

1976년 완공 예정임. 동일한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2호기는 1979년 완공 예정임.

– 프랑스 원자력청(CEA)과의 협력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이어 1972년 5월에 시작됨. 이후 한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힘.
  • 고속로 등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 해외 개발 성과의 면밀한 모니터링
  • 원전 연료 물질 제조 수단 확보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경우에 따라 일본과 협력)

– 프랑스는 해당 3가지 분야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으므로 한국 과학기술처는 특히 핵연료 물질 제조 및 재처리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을 희망하였음. CEA의 전문가 장 피에르(M. Jean Pierre)와 쿠튀르(M. Couture)가 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해 주일 프랑스대사관 원자력담당관 마스(M. Mas)와 함께 1972년 11월 서울을 방문함. 생고뱅社(St–Gobain Nucléaire), 시크렐社(SICREL), CERCA社와도 접촉함.

–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 이병휘 원자력국 국장, 윤용구 KAERI 소장이 1973년 10월 1~3일 파리 방문도 협력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음.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짐.
  • 협력 부문: 한국원자력위원회와 CEA 간 협력 협정을 위해 CEA가 서신 교환 형식의 대안을 이병휘 소장에게 전달함. 이 소장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영어판으로 받기를 희망함. 이 소장은 1974년 2월 1주간 재방문해 CEA의 조직 및 관리 방식을 관찰할 예정임.
  • 핵연료 제조 부문: 실험시설 건설협정을 위한 협상이 KAERI와 CERCA社 간에 진행 중. 제1호 한국인 연수생이 1974년 9월 CEA에 도착 예정.
  • 핵연료 재처리 부문: KAERI와 생고뱅(St–Gobain Techniques Nouvelles)社 간에 재처리 시범시설 건설을 위한 협정이 협상 진행 중임. CEA는 1974년 3월 1개월간 김 씨(M. Kim)를, 1974년 9월 1년간 2명의 한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일 예정임.

–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연료 시범시설에 900만 프랑, 재처리 시범시설에 3,800만 프랑으로 추산됨. 한국 정부는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 프랑스 외무부는 이 두 건에 대한 신용을 요청받음. 대외경제관계국이 두 프로젝트에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신용보증을 발급하고 7년 동안 통상적인 수출신용금리로 보증된 민간 자금을 한국 측에 공급하고자 하나 국고총국(Trésor)이 대출 승인에 반대하고 있음.

2.106. Centrale atomique de Ko–ri (고리 원전)

생산일자: 19730215
페이지: 247~251

고리 원전 견학에 대한 보고(247~249쪽)

– 지난번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원전 엔지니어이자 페시네(Péchiney)社 전력 전문가 티르보노(M. Tirbonod)와 함께 고리 원전을 견학함. 덕분에 프로젝트의 전망 등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 고리 원전은 고비용 열 에너지원을 원자력 또는 수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한국의 제1호 원전임. 영국 측이 공급한 터빈 1대를 갖춘 595MW급 원자로로 가동 시 한국 최대 전력 생산시설이 될 것임. 1970년 9월 착공했으며 1976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계약 규모는 1억 7,500만 달러에 달함.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던 한국은 1968년 6월 미국 컨설턴트들의 조언에 따라 2개 펌프가 완전히 분리된 2루프 원전을 포함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의 증기 공급 시스템을 선택함.
- 자금은 영국 라자드브라더스은행(Banque des Frères Lazard)의 주도 하에 미국(6,600만 달러), 영국(6,300만 달러), 한국전력주식회사(6,800만 달러)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거의 모든 설비 및 현장 장비가 영국에서 공급됨.
- 선정된 부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남동 지역의 부산과 울산 사이, 일제강점기에 정비된 순환 도로 인근에 위치함. 고리는 농업과 어업이 주업이었던 작은 마을임. 수심이 깊어 원자로 용기 및 초기 연료 운반에 필요한 정박 시설 건설이 용이했음. 웨스팅하우스社와의 계약에는 원자로뿐 아니라 노심에 들어가는 연료 1차분과 다음 분량의 2/3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측에도 연료 공급 경쟁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주변 동식물을 피하고자 고정식과 이동식 필터를 갖춘 해수관 및 온배수관이 건설됨.
- 프로젝트가 약간 지연되었으나 가동은 예정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구조의 기술적 특성은 프랑스 측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음. 부록으로 첨부함.

고리 원전 프로젝트의 개요와 기술적 특성을 담은 부록(250–251쪽)

3. Corée du sud. Questions atomiques. 1976-1978

번역제목	한국. 원자력 문제. 1976–1978		
철 관리번호	PZA0008364	생산기간	1976~1978
기록물 건수/매수	125건/259매	원 소장처 관리번호	755 INVA 2205 12. 11.5

주요 내용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생고뱅(SGN)社 간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계약 파기와 관련한 보고
- 한국 측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캐나다 측과 프랑스 측의 논의와 관련한 보고
- 한국이 재처리 시설 사업을 중단하도록 미국 측이 노력했다고 밝힌 루이스 노센조(Louis V. Nosenzo) 미 국무부 정치 군사국 원자력정책과장 및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제안들과 관련한 보고
- 1976년 1월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 재처리 시설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밝힌 것과 관련한 주한 프랑스대사의 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과 유화책, 프랑스의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
-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원자로 수출 및 협력과 관련한 주캐나다 프랑스대사관의 분석 및 보고
-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파키스탄, 리비아, 한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서
- 핵확산 관련 미국 언론들의 분석과 프랑스에 대한 비판 관련 보고
-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생고뱅社 간에 핵 재처리 시설을 대체하는 신규 계약과 관련한 보고, 연구소 설립 계약
-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원자력 관련 한국 기술 인력들을 연수시키는 것과 관련한 보고
-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 국가들의 한국 원자력 관련 협력 및 사업 참여 움직임에 대한 보고
- 한국이 여전히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하여 민감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소문에 관한 보고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원전 사업들에 대한 보고, 한국의 경우 원자력연구소와 세르카(CERCA)社 간의 계약을 통해 핵연료 제조 설비 시설과 기술 제공, 생고뱅社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계약은 미국의 압력으로 파기되었지만, 대신 신규 건설 연구소의 건설 자문과 운영을 맡기로 함, 원전 5호기 및 6호기 건설 수주와 관련한 내용
- 소련의 핵확산 관련 프랑스 비판에 대한 프랑스 측 반응에 관한 내용들
- 대만 및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분석에 대한 보고
- 한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미국의 압박으로 파기되었다는 AFP 통신의 보도와 프랑스 대통령실의 반박과 관련한 내용
- 한국이 연구용 원자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었고 대신 대만을 통해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한 보고, 대만 측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핵개발에 대한 동향과 우려에 관한 내용

- 1977년 원자력 발전소 고리 3호기와 4호기 수주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 관련 보고,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가 한국 원전 사업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社가 선정되고 프랑스는 탈락, 이와 관련해 프랑스 측의 실망, 선정 방식에 대한 불만과 한국 측의 의도에 대한 분석 및 보고, 고리 4호기 선정에서 프랑스 업체 측이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
- 한국 측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확대되면서 3호기와 4호기 사업 선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측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 박동선 뇌물 사건(코리아게이트)과 관련하여 미국 상원의 한국 원전 사업 대출 승인 거부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
- 원자력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프랑스–IAEA 3자 협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한국과 프랑스 간의 재이전–물리적 방호 협정에 대한 보고
- 원자력 발전소 7호기와 8호기 사업 수주와 관련한 보고, 한국 측 인사들과의 만남 및 정보수집,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미국업체들에 유리한 선정 방식에 대한 불만 및 대응에 관한 내용

수록 기록물명

3.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2. Centrales nucléaires No. 7 et 8 (원자력 발전소 7호기와 8호기)
3.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7. Contrat CERCA: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대상인 세르카 계약)
3.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9.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Reacteur de recherche pour la KAERI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위한 연구용 원자로)
3.10. L'industrie coréenne et les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기업과 원자력 발전소)
3.1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12. Centrales Nucléaires: Visite en France de M. KIM (9~13 Novembre) (원자력 발전소 관련 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 사장 11월 9일~13일 프랑스 방문)
3.1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14. Message personnel pour M.J.F. Noiville, Directeur D'Asie–Océanie (누아빌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께 드리는 사적 메시지)
3.1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16. Contrat CERCA: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

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대상인 세르카 계약)

3.17. Déclaration conjointe du Comité Américano–Coréen sur la technologie de l'énergie nucléaire (Washington 6–8 septembre 1978). (1978년 9월 6~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기술상임위원회 공동성명)

3.18. Centrales nucléaires No. 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3.19. Note pour le Ministre. Corée du Sud (장관을 위한 한국 관련 노트)

3.20. Centrales nucléaires: position des Etats–Unis (원전 관련 미국의 입장)

3.21. 한국 원전 7, 8호기 관련 프랑스 기업체 역량

3.22. Corée–Projet nucléaire. Fiche de la Direction d'Asie en date du 19 juillet (7월 19일 자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국의 한국 원전 사업 자료)

3.23. Financement des centrales nucléaires Kori III et IV (고리 3호기, 4호기 원전의 자금 출자)

3.24. Centrales nucléaires: Société WESTINGHOUSE (원자력 발전소: 웨스팅하우스社)

3.25.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3.26.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3.27.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3.2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2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30. Visite du Ministre coréen de l'énergie aux État–Unis.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 미국 방문

3.31. Coopération Nucléaires: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 추가 보장)

3.32. Centrales nucléaires coréennes 7 et 8 (한국 원전 7호기와 8호기)

3.33.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opération Nucléaires –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한불 원자력 협력 – 추가 보장)

3.34.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3.35.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3.36. Projet de séjour à Paris du Ministre de l'Energie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파리 체류 계획)

3.37.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3.38. Traduction d'un article publié dans le quotidien économique et financier 'NAEWAY': Voyage en Amérique du nord et en Europe du Ministre coréen de l'Énergie et des Ressources. ('내외경제신문' 기사 번역: 북미와 유럽을 순방하는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

3.39. Uranium (우라늄)

3.40. Uranium du Niger (니제르의 우라늄)

3.41.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ntrat CERCA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세르카 계약)

3.42. Uranium du Niger (니제르의 우라늄)

3.43.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협력 추가 보장 적용(물리적 방호))

3.4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45.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retransfert–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에서 추가 보장 적용(재이전–물리적 방호))

3.46.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retransfert–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에서 추가 보장 작용(재이전–물리적 방호))

3.4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48. Article extrait du quotidien 'Daily Times, 10 mars 1978'. programme nucléaire (1978년 3월 10일자 코리아 타임즈 원자력 프로그램 기사 발췌)

3.49. 주미 프랑스대사의 전보 내용 수정 요청

3.50. Centrale nucléaire – KORI 3 et 4 (원자력 발전소 – 고리 3호기, 4호기)

3.51. Centrale nucléaire (KORI 3 et 4) (원자력 발전소 (고리 3호기, 4호기))

3.5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3. Entretien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e la Corée du Sud. (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3.54.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entretien avec M. Park Tong Jin) (박동진 외무장관과의 회담 준비를 위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자료)

3.5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5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0. Energie, Centrales nucléaires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3.6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68.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e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3.69.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Kori 3 et 4'. (한국의 원전 고리 3호, 4호기)

3.7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71. 고리 3호, 4호기 원전 사업 진행 상황

3.7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73. Contrat 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 계약)
3.74. Contrat 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 계약)
3.7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76. 쉬드로 의원과 한국 전경련 회장과의 식사 회동 주요 의제 정리
3.77. Demande de M. Byoung Whae Lee, haut commissaire à l'Energie atomique (이병휘 한국 원자력 위원회 상임위원의 요청)
3.7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79.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Taiwan (대만과의 원자력 협력)
3.80. 한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계약 파기 관련 AFP 통신 기사
3.81. Projet Framatome (프라마톰社의 계획)
3.82. Cours interregional sur la construction et l'exploitation des Centrales électriques nucléaires (원전 건설 및 개발에 관한 지역 간 교육)
3.83. Taiwan, la Corée du Sud et l'arme nucléaire. (대만과 한국의 핵무기)
3.84. Programme coréen de centrales nucléaires.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3.85.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proliferation. Entretien du Directeur politique avec l'ambassadeur d'URSS (과학 사안들 기반한 주프랑스 소련대사와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장의 비핵화 관련 회담)
3.86. Attaque contre la France à l'occasion de la réunion du 'club de Londres' (핵보유국 모임인 '런던 클럽' 회동에서 프랑스에 대한 비판)
3.87.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es États–Unis en matière nucléaire (핵물질 관련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3.88. Centar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89. Affaires nucléaires Asie (아시아의 원전 사업)
3.90. Origine: DGRCST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Mission de M. Pelissolo, directeur au 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 la recherche (문화과학기술관계국의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펠리솔로 프랑스 산업 연구부 국장의 방한)
3.91.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3.92.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3.9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3.9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3.95. Copie d'une lettre adressée par l'Attaché Commercial à la DREE. contra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대외경제관계국 상무관에게 보내는 서신 사본. 생고뱅社의 계약)
3.96. Coopération scientifique avec les États–Unis (Affaires nucléaires) (미국과의 과학 협력 (원자력 사안))
3.97.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telier de fabrication de combustibles pour centrales nucléaires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원전을 위한 연료제조 시설)

3.98. Visite à Séoul du ministre belge du commerce exterieur (벨기에 대외무역장관의 서울 방문)

3.99.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 협력)

3.100. Projets Saint–Gobin et CERCA (생고뱅社와 세르카社의 계획)

3.101. Origine: Coopération culturelle Objet: Programme prioritaire. Formation d'ingenieurs etrangers (문화 협력에 기반한 우선 프로그램인 외국인 엔지니어 양성)

3.102. Session d'Information sur les question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 정보 세션)

3.103. Réacteur nucléaire (원자로)

3.10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 Prolifératio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핵확산 금지)

3.105. Corée – Affaires nucléaires (한국 – 원자력 사안들)

3.106. Coopération avec les États–Unis en matière nucléaire. (미국과의 원자력 사업 협력)

3.107.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3.108.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3.109.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3.110. Non–Prolifération (핵확산 금지)

3.111. Non–Prolifération. Editorial du Washington Post (핵확산금지 관련 워싱턴 포스트 사설)

3.11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3.113.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telier de Retraitement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핵 재처리 시설)

3.114. La politique nucléaire de certains pays sensibles (Argentine, Brésil, Afrique du Sud, Pakistan, Libye, Corée du Sud...) (민감한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리비아, 한국 등))

3.115. Coopération nucléaire du Canada avec la Corée du Sud et l'Argentine. (캐나다의 한국 및 아르헨티나와의 원자력 협력)

3.116.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3.117. Atelier de retraitemen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핵 재처리 시설)

3.118.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3.119.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

3.120.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

3.121. Bourses scientifique 1976 au bénéfice de candidats du KAERI. (한국원자력연구소 지원자 수혜 과학 장학금)

3.122.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3.12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3.12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원자력 분야 협력)

3.125.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수록 건 기록물 내용

3.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230
페이지: 1~2

한국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교체되었으나 원전 입찰 심사 과정이나 선정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595에 기재된 일정도 준수될 것이고 1차 선정 결과는 1월 15일 전 발표될 것으로 보임.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 담당 참사관과 주한 프랑스대사는 12월 7일 한국 외무부 차관에게 전달한 서신(사본은 이미 상부에 전달)에 이어 추가 개입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함.

3.2. Centrales nucléaires No. 7 et 8 (원자력 발전소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1222
페이지: 3~4

12월 4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552에 언급한 업무처리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최근 우리 측을 안심시키고자 함. 한국 부총리는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에게 프라마톰社가 선정되었으며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이 아니라 일괄발주(Turn 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함. 한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어제 함께 점심을 했는데 제안서 심사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심시킴. 일정 관련하여 한전은 1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에 내부의 선정 결과 및 추천 안을 제출할 것이므로 1차 선정 결과는 1월 15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함. 프라마톰社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9호기, 10호기 관련 입찰이 다음 달에 나올 거라는데 정무적인 이유로 입찰 2건 중 하나만 미국업체에 주려는 뜻으로 보임. 한편으로는 최대한 경쟁업체들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일 수도 있음.

3.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207
페이지: 5~5

프라마톰社의 대표들이 입찰가를 대폭 인하해달라는 최종 한국 측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알려옴. 1차 선정은 며칠 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함.

3.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204
페이지: 6~7

프라마톰社의 대표들이 입찰가를 대폭 인하해달라는 최종 한국 측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알려옴. 1차 선정은 며칠 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함.

3.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201
페이지: 8~8

미국이 프랑스 업체의 메시지를 가로챌 수도 있고 미국이 알면 안 되니 이 문제에 대해 텔렉스(Telex)로 본사에 문의하지 말 것. 이 문제는 처음이 아니며 한국이 함정을 판 것 아니라고 판단됨(10월 19일 자에 주한 프랑스대사가 보낸 전보 참고).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프라마톰社에게 일괄발주(Turn key) 방식을 버리고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을 고집한다면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3.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201
페이지: 9~11

전보 No. 541/44에 이어 아부다람(Aboudarahm) 프라마톰社 임원에게 하단에 인용한 드프르뇌프(M. De PRENEUF) 프라마톰社 서울 주재원의 메시지를 긴급 전송 바람. 인용 시작. 우리 측이 보낸 서신 78/183/170400/LRR/DCQ (날짜 소인 1978.11.27.)을 받고 한국전력주식회사 김 사장의 긴급 호출을 받아 김 박사, 정박사와 함께 오늘 아침 한전을 방문했음. 한전은 1)우리 측 서신에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제안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우리 측이 일괄발주(Turn key) 방식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2)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으로 입찰가를 비교 중이고, 3)특별히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의 부탁 때문에 알려주는데 우리 측이 분할발주 방식으로 입찰하지 않겠다면 오늘부터 심사에서 배제됨, 4)우리 측이 핵증기공급계통(NSSS)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1차 선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함. 본사에 이 메시지를 암암리에 전달하는 것과 오늘 아침 회동은 비밀에 부칠 것을 요청함. 서독업체가 입찰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기 부문은 손대지 않고 부속 설비들 가격만 단가를 낮췄다는 점에서 그러함. 오늘 발송한 벡텔社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인용 끝.

3.7. Contrat CERCA: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대상인 세르카 계약)

생산일자: 19781201
페이지: 12~14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추가 보장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1월 15일 자 서신(No. 830)을 통해 연말 이전에 한국 정부가 1975년에 한국–프랑스–국제원자력기구 3자 협정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음. 프랑스 외무부는 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얼른 보기에 한국 정부는 작년 봄에 세르카(CERCA)社에서 판매한 핵연료들에 대한 보장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음. 따라서 한국 측에 이 사안을 전달해 주길 바라며, 1975년 협정이 수정되더라도 첨부자료에 세르카社에서 판매한 핵연료 시설도 보장 대상임을 명시해야 함. 프랑스 외무부는 협상과 수정안 발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속히 양측의 의사를 명시하는 교환각서에 서명하길 원함.

3.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130
페이지: 15~16

원전 7, 8호기에 대해 프랑스 업체가 유리한 담보조건 덕택에 유력하다는 소식지에 놀라 미국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세를 취함.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대하거나 카터(Carter)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한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음.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은 한국에 탄화수소 및 석탄 장기 수출계약 체결, 수출입은행의 담보조건 개선(15~20년 8% 금리 상환)을 약속함. 이에 한국 정부는 프랑스에도 15~20년 상환조건을 요구했지만, 일단 이미 한국 대통령에게 금리 인하만을 약속했다고 하며 회의적으로 답변함. 더구나 바로 오늘 프랑스 업체가 한국전력주식회사 측에 단가를 낮추겠다고 했으니,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 담당 참사관과 대사는 프랑스 측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고정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함.

3.9.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Reacteur de recherche pour la KAERI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위한 연구용 원자로)

생산일자: 19781129
페이지: 17~17

기마르(Guillemard) 주일프랑스대사관 원자력 담당 상무관이 11월 29일부터 30일에 한국 원자력위원회를 접촉하여 나온 회담 결과물이 전송될 예정이니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유관 부서장에게 전달 요망.

3.10. L'industrie coréenne et les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기업과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108
페이지: 18~21

1) 서신(18–20쪽)

한국의 지도층들은 원전을 건설하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길 원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미정. 주로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원전 사업에 참여 중임. 대표적인 사례로 원전 7, 8호기의 주계약자인 웨스팅하우스社와 현대그룹 간 협력이 있음.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은 원전의 핵심 몇몇 장비들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협정을 맺었고, 현대건설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시공업체로서 기술공정을 담당하길 희망함. 이번 원전 7, 8호기의 원자로 관련 웨스팅하우스社의 제안서도 현대건설이 맡았다고 함. 하지만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전 주문 업체인데도 현대건설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며 특히 건설단가를 통제하지 못함. 프랑스 시스템을 모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자회사인 한국원자력기술(Korea Nuclear Engineering)에 기술공정을 맡기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함.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랑스 업체들도 잘 알고 있으며, 원전 7, 8호기를 수주하게 되면 라이선스를 원하는 여러 한국 기업체(대우, 삼성, 현대)와 접촉하면서도 하도급 계약 가능성도 검토 중임.

2)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신문 기사(21쪽)

현대그룹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社가 합작투자 형태로 원전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음.

3.1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106
페이지: 22~24

1)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의 프랑스 방문 목적은 단순 예비모임이 아니라 협상이기 때문에 한전 사장에게 산업부 장관이나 대외무역부 장관과의 회담을 주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한전 사장은 귀국해서 프랑스 업체의 최종 제안서를 한국 정부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것. 이제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음. 장관들이 나서서 프랑스 업체의 수주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이 많고,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함. 양국 원전 시스템의 유사성을 설명하면서 프랑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보장 사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함. 프랑스 기업체 몇몇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알고 있으니, 프랑스 정부가 해당 기업체의 보증인으로 나서 사업이 중단될 염려를 불식시켜야 함.
2) 원전 7, 8호기를 프라마톰社가 수주하는 경우 한국 측이 터빈발전기를 알스톰社에게 맡길지는 확실하지 않음. 기존 원전처럼 영국 제너럴일렉트릭(GEC)이 다시 선정될지도 모름.
3) 프라마톰社가 베이징에서 한 논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음. 한전 김 사장도 아는 사안일 거라고 보며, 굳이 프랑스가 논의를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12. Centrales Nucléaires: Visite en France de M. KIM (9~13 Novembre) (원자력 발전소 관련 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 사장 11월 9일~13일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781031
페이지: 25~25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하여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에 따라 한전 사장의 방문 일정을 작성하고 있음. 해당 기간에 출장 중일 앙드레 지로(André GIRAUD) 프랑스 산업부 장관 접견은 미정임.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13일 오후로 예정.

3.1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031
페이지: 26~27

이희일(LEE HEE IL) 경제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원전 7, 8호기 입찰에 제시할 금리를 프랑스 재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낮출 수 있는지 문의가 옴. 이제는 프랑스 기업체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프랑스 당국이 나서서 이번 수주에 상당히 관심이 있음을 표명해야 함. 한국을 위험평가에서 가장 유리한 등급으로 만들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현재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를 쌓아서 매우 유리한 담보조건을 받고 있는데 5천만 달러 기준 10년 만기 연장에 리보(Libor) 금리 0.875%를 적용받음. 이번 김영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의 방불 기회에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길 바람.

3.14. Message personnel pour M.J.F. Noiville, Directeur D'Asie–Océanie (누아빌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께 드리는 사적 메시지)

생산일자: 19781031
페이지: 28~28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회담을 통해 전달받았겠지만, 한국 외무부 유럽국장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잠깐이라도 서울에 오면 원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알려줌. 11월 초순으로 일정을 제안해 왔는데, 일단 장관 일정이 조율 가능한지 몰라서 보고드리는 바임. 주한 프랑스대사의 판단으로는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가 프라마톰社와의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 방한은 미국 측의 강한 압력에 좋은 핑계를 만들려는 것일 수 있음.

3.1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1027
페이지: 29~32

11월 8일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이 유럽 순방길에 오름. 11월 9일부터 13일 오전까지로 가장 긴 시간을 프랑스 방문에 할애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임. 한국 입장에는 아직 원전 입찰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너무 이 사안을 부각하지 않길 바라며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언급함. 관련하여 12일 랑스(Rance) 강을 방문 예정.

파리에서 김영준 한전 사장은 프라마톰社 임원진 미팅과 별도로 산업부 장관 및 프랑스전력공사(EDF) 사장 접견을 원함. 프랑스 원자력청 및 코제마(COGEMA)社 임원진, 은행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입찰 비용에 대해 논의 예정. 이번 방불 일정에는 샬롱쉬르손(Chalon-sur-saone) 원전 시찰도 포함되어 있음. 한국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한전 김 사장의 결정이 이번 원전 수주에 결정적이므로 마르셀 부아퇴(Marcel Boiteux) 프랑스전력공사 사장과 앙드레 지로(André Giraud) 프랑스 산업부 장관 회담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함. 농대 출신에 전직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영준 사장은 직선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임. 2년 전에는 화학 공장 재건 업무를 맡다가 한전 사장에 임명됨. 영어 실력이 약간 미흡하니 통역이 필요함. 이번 수행단에는 원전 사업 부단장과 연구기록물 관리부서 수장(예전에 기술산업경제협력기구(ACTIM, Agence pour la coopération technique, industrielle et économique) 연수생이었다고 함), 원전부서 부국장이 들어있는데, 앞의 두 사람은 중립 의견이나, 세 번째 인물은 벡텔社 기술 자문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고 함.

향후 며칠 내에 원전 7, 8호기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부서에 보고 예정. 프랑스전력공사 측이 2년 전부터 인력 양성에서부터 업무 운영 계획 및 미래 비전 구축, 조력 에너지 관련 협력체제를 구축해 온 덕택에 한국 내 상당히 평가가 좋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전 측은 프랑스의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및 혜택 보장에 관심이 있음을 상기시킴.

3.16. Contrat CERCA: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대상인 세르카 계약)

생산일자: 19781013
페이지: 33~35

1) 문서 전달 양식(33쪽): 수신, 발신, 일자 기재
2) 서신(34-35쪽): 4월 28일과 5월 2일 자 전언을 통해 프랑스 외무부는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핵 확산금지 및 안전조약 관련 추가 보장 사안들에 관한 문건에 대해 공지했고, 이 문서에서 한국 측에 세르카(CERCA)社가 판매한 핵연료 시설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바 있음. 한편 한국 정부와의 협정 원칙에 근거하여 조약 체결 없이 해당 시설의 수출을 승인했었다는 점을 상기함.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확답이 없어서 프랑스

외무부는 노심초사하고 있고, 각서교환의 서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 세르카社가 판매한 핵연료 시설들이 추가 안전보장 대상이 됨을 엿볼 수 있는 별첨 각서 교환을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듯함.

3.17. Déclaration conjointe du Comité Américano–Coréen sur la technologie de l'énergie nucléaire (Washington 6–8 septembre 1978). (1978년 9월 6일~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기술상임위원회 공동성명)

생산일자: 19780914
페이지: 36~39

1) 우편명세서 1978년 9월 14일 자(36쪽)

1978년 9월 6일~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기술상임위원회 공동선언서 1부를 우편으로 발송했음을 확인.

2) 1978년 9월 6일~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기술상임위원회 공동성명서(1978년 9월 8일 자)

이번에 개최된 한미 원자력기술상임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단장은 루이스 노센조(Louis V. Nosenzo) 미 국무부 원자력 기술 담당 차관보가, 한국 대표단은 이병휘 한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및 대체 첨단에너지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에너지 정책 및 실무 기술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음. 양국은 1차 연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개발 과정 중에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동의하는 국가들에게 농축우라늄 연료 공급국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국 측은 이에 환영을 표함. 또한 핵확산금지조약 원칙에 부응하여 핵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요구조건 및 새로운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양측 대표단은 추가 농축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했고 한국 측은 현재 협정에 제시된 양을 초과하는 농축 연료에 대해서 계약 개정에 앞서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핵물질을 추가로 수출하려면 협정이 필요함.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처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에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환경보호 등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관련 협정은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원전 가동 경험에 대한 중요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기술정보 교환 외에도 양국의 원전 기술 전문가 교환 방문, 즉 미국 측이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측에서는 원전 허가, 검사, 안전 분야의 기술 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에 대해 협의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연구용 원자로 고도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 지원 등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또한 태양광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과 같은 비핵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치하함. 구체적인 예로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시행된 한국 원전 전문가들의 심화 과정 연수, 대한민국 원자로 안전 및 원자력 안전 도모에 대한 미국 측의 자문 과제 수행

등이 언급됨. 다음 회의는 1979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3.18. Centrales nucléaires No. 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0830
페이지: 40~41

일정표 원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8월 31일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측에게 일괄발주(Turn key)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분할발주 방식(Non-Turn key)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마감일을 9월 18일로 연기해 주겠다고 함. 우리 측은 분할발주 방식으로 입찰 경험이 없기에 불리한 상황임. 일괄발주 방식은 시설 장비 포함 확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분할발주 방식은 25~30%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데다 미국 벡텔社에 의해 기술평가를 받게 되므로 유럽업체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큼.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전갈을 듣고 한국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개입은 일정 사항에 대한 자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함. 한국 측이 자신들이 모든 입찰서류 검토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직 미지수임. 최근 벡텔社와 매우 가까운 한전 측 임원 2명이 해임된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음. 9월 말 한국은 기술진들을 유럽에 파견할 예정인데 프랑스에서는 코제마社의 제안서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심리할 예정임.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은 앙드레 지로(André Giraud) 프랑스 산업부 장관의 초청에 대해 당장은 힘들고 9월이나 10월 방불 가능성은 열어둠.

3.19. Note pour le Ministre. Corée du Sud (장관을 위한 한국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780810
페이지: 42~42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면담을 했는데 다음 사항들에 대한 우리 측의 의향에 대해 궁금해함. 즉, 원전 수주 성공시, 핵연료 공급 및 프랑스 원전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문의함. 현재로서는 대사 개인 의견들인 것 같지만 일단 프랑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기존 에너지들과 달리 아직 개발단계가 아니므로 과학기술협력 사안이라고 명시함.

3.20. Centrales nucléaires: position des Etats-Unis (원전 관련 미국의 입장)

생산일자: 19780809
페이지: 43~44

신임 글라이스틴(Gleysteen)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당일 직접 원전 문제에 대해 언급함. 약 2주 전에 미국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관에게 2차 입찰에 미국 측 압력이 있었다는 한국 측 제보에 따라 미국의 행동이 순전히 상업적인 이유에서였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대사가 직접 한국 원전 사업에 제3국가의 참여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 사안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함. 우리 측이 협상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음. 상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음.

3.21. 한국 원전 7, 8호기 관련 프랑스 기업체 역량

생산일자: 19780803
페이지: 45~46

한불 기업체 간 협력을 좀 더 증진하고자 하는 주프랑스 한국대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원전 분야 관련 프랑스 기업들의 역량에 대해 알림. 원전 7, 8호기 관련 한국 정부의 업체 선정 시에 프랑스 기업체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장기 협력 전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길 바람. 해당 자료 배포 대상 명단 명시

3.22. Corée–Projet nucléaire. Fiche de la Direction d'Asie en date du 19 juillet (7월 19일자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국의 한국 원전 사업 자료)

생산일자: 19780721
페이지: 47~51

1) 표지: 1978년 7월 21일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국 극동과에서 한국대사관에 7월 19일에 작성된 한국 원전 사업 자료 1부를 전송했음(47쪽).

2) 자료(48–51쪽)

7월 18일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에서 열린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 박 참사관과의 미팅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상당수 정보를 제공하면서 프랑스 측의 참여에 어떠한 오해도 없길 희망함.

(1) 원전 5, 6호기에 웨스팅하우스社가 선정된 것은 프라마톰社가 입찰가를 30%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고 함.

(2) 한국 정부는 원전 산업 관련 지속적인 한불 협력 의사를 표명함. 프랑스 업체들에 최적의 조건에서 원전 7, 8호기 관련 입찰에 도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가. 원래는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으로 입찰이 나왔는데 프랑스는 일괄발주(Turn key) 방식으로 입찰에 응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음.

나. 프라마톰社는 원전 5, 6호기 관련 선정 기준이 되었던 정보들을 확보했는데 원전 7, 8호기에도 유효할 수 있음. 경쟁사 간 가격 비교 분석 방법에 대한 정보도 얻음.

다. 지난 6월에 프랑스전력공사와 프라마톰社가 함께 직원들을 서울에 보내어 행정관료 및 한국전력주식회사 임직원들과 여러 차례 업무 회동을 함.

(3) 박 참사관에 의하면, 이러한 제반 조건에서 프라마톰社는 원전 7, 8호기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미국 측 압력이 세니 프랑스 측이 가격 차별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함.

(4) 원전 7, 8호기 관련 입찰에 관한 정보를 박 참사관에게 제공받음.

(5) 박 참사관은 7월 13일 주프랑스 한국대사와의 회동에서 앙드레 지로(André Giraud)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장예준(Chang Jeh Joon)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을 프랑스에 초청한 사안을 언급하면서 원전 7, 8호기 선정 일정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함.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할 예정임.

3) 한국 원전 7, 8호기 입찰 정보 개요(51쪽)

(1) 사업 개요

가. 외자(外資): 약 11억 3천7백만 달러

나. 시설 용량: 90만 kW

다. 원전 대수: 2기

라. 시설 부지: 전남 영광군(Yong-Kwang)

마. 사업발주처: 한국전력주식회사

바. 착공일: 1979년 1월

(2) 주요 입찰 일정: 1978년 5월 25일에 입찰초대장 발송, 8월 말 전에 입찰 평가 종료, 10월 중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이 원칙이나 프랑스나 서독은 일괄발주(Turn key) 방식으로 응찰 가능.

3.23. Financement des centrales nucléaires Kori III et IV (고리 3호기, 4호기 원전의 자금 출자)

생산일자: 19780711
페이지: 52~52

한국 언론에 보도된 고리 3, 4호기의 자금 출자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 고리 3, 4호기의 핵증기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은 웨스팅하우스社가, 터빈발전기는 영국의 제너럴일렉트릭社가 맡음. 투입된 외국 자본금은 총 13억 3천만 달러. 미국 수출입은행이 8억 3천만 달러를 공사 종료 후 1분기 시점에서 금리 8.375%로 15년 상환을 보증. 나머지 차액 중, 1억 달러는 영국 수출신용보증기구(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에서 출자, 4억 달러는 미국 체이스맨하탄(Chase Manhattan) 은행 홍콩 지점 주도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며 상환 기간은 10년에 1% 인상된 리보(Libor) 금리가 적용. 국내 자금은 6천7백만 달러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보증을 맡고 원전은 내년 1월 착공 예정.

3.24. Centrales nucléaires: Société WESTINGHOUSE (원자력 발전소: 웨스팅하우스社)

생산일자: 19780705
페이지: 53~53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社가 한국 정부에 한국 내 합자회사 설립 허가를 요구했다고 함. 이 회사를 통해 신규 계약 체결 및 한국형 원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힘. 참고로, 웨스팅하우스社는 고리 1호기와 2호기를 수의계약 형태로 건설했고, 고리 3호기와 4호기를 일괄발주(Turn key) 방식으로 수주했으며, 이제 950MW 신규 원전 입찰을 준비함.

3.25.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0615
페이지: 54~55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소피넬(Sofinel)社 사장이 이끄는 기술 발표 사절단이 서울을 방문함. 원래는 6월 9일~10일 일정이었으나 14일까지 연장됨. 카이오(Caillault) 소피넬社 사장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을 접견함. 이번 사절단은 현지 평판이 좋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업무능력을 보고함으로써 한국 내 에너지 구축 계획에 상당히 기대하게 함. 미국 독점기업인 벡텔社를 대체하는 국제적인 명성의 공공부서 설립을 구상 중인 한국 측에게 계약서의 제약을 넘어선 기술협력을 약속함. 이번 회담을 통해 소피넬社 사장은 드디어 코제마(COGEMA)社가 핵연료 공급제공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함. 현재 우리 측 원전 수주 전망은 밝아 보이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생각함. 원전 7호기, 8호기에 대해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미국 벡텔社의 기술 자문이 제공하는 기준을 근거로 상당히 인위적으로 일괄발주(Turn key) 방식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예정임.

3.26.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0602
페이지: 56~57

남덕우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원전 7호기, 8호기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언론 기사를 읽고, 프랑스 기업체 기술 자문 및 대표단과 합의 하에 남덕우 부총리에게 우리 측도 그 정도의 자금조달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냄. 한국 경제기획원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남 부총리의 출장 일정과 원전 사업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만나자는 회신이 옴. 입찰 업체 간 차별은 없으며, 우리 측의 자금조달 의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함. 또한 시설 장비 구매를 미국 측과 캐나다 측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유럽업체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함. 최근 입찰에서 왜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을 우대했는지 묻자, 한

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이 이 사안에 대해 잘 몰라 자사 전문가들의 업무능력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고 함. 일괄발주 방식을 하게 되면 발주처와 협력이 안 된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할발주 방식은 외국 기술 자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같다고 하자 자신과 한전 부사장은 한전 사장과 의견이 다르다고 함. 소피넬社의 기술사절단 방문을 언급하면서 원전 분야의 협력이 시설 장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함.

3.27. Centrales Nucléaires 'No.7 et 8' (원전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0530
페이지: 58~59

5월 25일 자 우리 측 입찰 기업체에 전달한 서신에는 "핵증기공급계통(NSSS)과 관련 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을 요청하긴 했지만, 원자로나 터빈발전기의 제안서에 대해 가격 면이나 다른 조건상 일괄발주(Turn key)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음. 일정표를 보면 7월 말에 가격을 뺀 입찰 전체 조건을 제시하는 기술 서류를 접수하고, 8월 말에 낙찰 결정됨. 그 이전에 6월 9일과 10일에 소피넬社-프라마톰社-알스톰社로 구성된 기술진이 서울에 와서 프랑스의 원전 사업 실행 방식과 기술 방법을 설명할 예정인데 분할발주 방식이 한국에 유리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리게 할 의도에서 기획함. 아직 한국은 입찰 심사의 기술 감리가 누군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나 또다시 미국 벡텔社 임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측 분할발주 방식이 채택되게 되면 건설 쪽 기술 감리까지도 겸하게 될 것임.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기술고문의 사례비는 총 1억 4천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괄발주 방식을 채택하면 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3.2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525
페이지: 60~60

서독 측에 한국 원전 사업에서 유럽업체의 참여 가능성 및 유럽의 참여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문의해 보았는데 미국 측의 진짜 입장을 알 수 없었음. 서독이 보기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매우 원하고 있다는 판단임. 최근 서울을 방문한 서독의 KWU社는 미국, 프랑스, 서독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다고 함. 다만 KWU社가 이번에도 낙찰받지 못하면 매번 입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상당하므로 다시 입찰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함.

3.2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525
페이지: 61~62

매우 최근에 프랑스 업체들에 전달된 업무지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주되는 950MW급 원전 2기의 입찰은 분할 발주(Non-Turn key)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결국 미국업체에 유리하게 될 것임. 하지만 최근 프라마톰社의 파견대표가 서울에서 여러 차례 업무 회동을 한 결과 미국 측의 상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전력공사(EDF) 주관 하에 프랑스가 제안한 일괄발주(Turn key)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음. 지라르(Girard) 프라마톰社 파견대표는 아부다람(ABOUDHARAM) 영업부장을 대동하여 참조기준이 프랑스식으로 바뀌어야 프랑스의 입찰단가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함. 이 대목은 당시 한국 측이 고리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내세운 논거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관심 두도록 요청해야 함.

3.30. Visite du Ministre coréen de l'énergie aux État-Unis.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 미국 방문)

생산일자: 19780504
페이지: 63~64

1) 문서전달 양식(63쪽): 주미 프랑스대사관에서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 관련 업무 보고서를 1978년 5월 4일 자 우편물 발송 확인.
2) 보고서(64쪽): 1978년 4월 27일에 작성한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 결과
   - 4월 27일에 3일간의 방문 일정 종료. 방문 기간에 슐레진저(Schlesinger) 미국 에너지국장(Secretary of Energy), 크렙스(M. Kreps) 미국 상무부 장관(Secretary of Commerce), 쿠퍼(Cooper) 미 국무부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알렌(Allen) 미국 수출입은행 부행장(Export-Import Vice Chairman)을 접견함.
   - 한미 양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이슈를 검토하고 이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장예준 장관은 원자력이 주축이 되는 한국의 에너지개발계획을 설명했고, 미국은 최근 통과된 핵확산금지조약법(NPT)에 명시된 대로 핵 확산 금지 정책을 준수하는 나라들에 원자로와 핵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로서 신뢰를 얻기 데 필요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지지 의사를 밝힘. 양국은 현재 직면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과 비핵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함.

3.31. Coopération Nucléaires: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 추가 보장)

생산일자: 19780502
페이지: 65~65

관련 전보 No. 126. 2번째 문단 '핵 물질 및 장비' 구절 뒤에 '프랑스가 한국에 이전한 정보 역시' 구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3.32. Centrales nucléaires coréennes 7 et 8 (한국 원전 7호기와 8호기)

생산일자: 19780428
페이지: 66~67

아부다람(Aboudharam) 프라마톰社 영업부장이 1978년 4월 27일 제공한 정보

1)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는 입찰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전력공사를 시공사로 하여 프랑스의 여건에 맞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 경쟁업체의 가격을 감안한 단가 조정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관건임.
2) 이렇게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입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아님.
3) 한국 기업체 중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합자업체와 하청업체를 가려내야 함. 한국 정부는 외국 파트너사가 한국 원전 건설 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라이선스 계약을 승인함.
4)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덕택에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는 대우 그룹과 군수물자 관련 업무 미팅을 할 예정.
5) 당분간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유럽 방문 계획은 없음.

3.33.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opération Nucléaires –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한불 원자력 협력 – 추가 보장)

생산일자: 19780428
페이지: 68~6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불 양국 정부 간 기존 협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정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1)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한국에 제공한 핵물질 및 장비로부터 생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획득한 핵물질이 (다음과 같이 국가가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한 경험이 없는 국가에 이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함.
   – 군사적 목적이나 핵폭발 장치 제조에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이러한 핵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을 받게 됨.
   – 그리고 이러한 핵물질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한 적이 없는 국

가로 재이송되지 않을 것임.

2)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핵물질 및 장비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을 할 것이며, 첨부 자료에 명시된 물리적 방호 수준을 충족하는 물리적 방호 조치를 적용할 것임 (중략)"

이어서, 위의 인용문 본문은 바꾸지 않고, 다음 문단을 추가하고 싶다고 함.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이전 계약에는 양국의 담당 부서가 서명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 조항에는 이전 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에 따라 물리적 방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부로부터 다른 정부로 넘어가는지를 명시해야 함. 양국 정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당국의 부서명과 업무 속성을 서로에게 통지함"

3.34.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생산일자: 19780428
페이지: 70~71

전보 No. 196 참고.

1) 텍스트 2개를 하나로 합본하는 것과 각각 불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 협정 체결 전에 두 판본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는 점검해 주길 바람.
2) 한국 측의 요구대로 특정 단어 첨가는 가능하나 가독성을 위해 초고의 첫 번째 문단 서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3) 물리적 방호조약 관련 조항에서, 이전 시 보호의 책임이 이관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 함.
4) 1967년 1월 1일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을 구분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채택한 날짜인데, 한국은 이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를 계속 기준일로 삼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5) 이란 및 이라크와 물리적 방호 건에 대해 유사 협정을 체결했으며, 재처리 시설 관련해서는 코제마(COGEMA)社가 최근 계약을 체결한 서독이나 일본, 스웨덴의 경우와 동일한 서약을 요구한 것임.
6)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전은 한국이 제3국에 보내는 것에만 한정되고 프랑스로 재이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다만 프랑스가 수출국이라는 점과 1975년 9월 22일 발효된 한국–프랑스–국제원자력기구(AIEA) 3자협정 3항에 해당 사안이 언급되어 있으니 굳이 이 협정에서 한국 측에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7)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환 각서를 보낼 것임.
8) 추가 보장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 세르카(CERCA)社의 핵원료 수출 승인이 처리될 예정임.

3.35.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원자력 협력의 추가 보장 적용)

생산일자: 19780424
페이지: 72~73

전보 No. 62, 64, 87과 3월 16일 자 서한 참고.

한국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가 제안한 양국 원자력 협력의 2가지 추가 보장 사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교환할 양해각서의 최종안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조만간 곧 논의할 것을 요청함.

현재 한국 측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이 제출한 각자의 안을 통합하여 교환 각서 1부를 작성하며, 양국 언어로 작성할 것.
- '물질'이나 '장비' 등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평소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한 영어 번역을 수식어로 붙일 것을 요청함.
- 또한 1967년 1월 1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필요 없다면 삭제해 줄 것,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협정서에 적시해 줄 것.
- 첫 번째 문단의 한국 정부의 보장 관련하여 한국에서 프랑스로 재이전하는 물질에 대한 프랑스의 상호 책임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음을 지적함.

3.36. Projet de séjour à Paris du Ministre de l'Energie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파리 체류 계획)

생산일자: 19780421
페이지: 74~76

조만간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하며, 귀국길에 유럽에 들르는데 5월 15일경 파리에 체류할 거라는 비공식적인 소문을 들음. 이 기회를 빌려 프랑스 측에 한국과 우라늄 광산 개발 동업을 할 것인지, 프랑스가 한국 원전 사업에 참가할 경우, 연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도 됨(3월 10일 자 전보 참고). 고리 3, 4호기 사업 관련 어떤 절차를 취할지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는데, 파리에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이 오면 문의 바람. 미국에서 장예준 장관은 미국 수출입은행과 고리 3호기, 4호기의 원자로 조달 비용에 대해 논의함. 한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업체에 맡기는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왜 한국이 악순환을 감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프랑스가 입찰 의사가 있다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한편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우리 측이 원전의 기술공정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벡텔社의 기술고문이 바뀐다면 한국 정부의 원전 다변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도 좋을 듯함.

3.37.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80424
페이지: 77~80

1) 원전 사업

한국은 연초에 웨스팅하우스社에 900MW 원전 2기(고리 3호, 4호기) 수주를 맡겼음. 프라마톰社가 입찰

에서 탈락하자 프랑스 총리는 1월 31일에 한국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서 프랑스 정부의 한국 원전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함. 한국 원전 시장은 2000년까지 46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며, 조만간 5월이나 6월경에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입찰이 나올 예정이며 프라마톰社가 준비 중임.

이번 입찰 건과 관련하여, (1) 미국업체에 유리한 분할발주 방식이 아닌 일괄발주 방식을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주식회사 측에 확인 필요함. (2) 또한 프라마톰社는 이전 입찰과 달리 한전으로부터 미국 경쟁사 대비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고리 3호기와 4호기를 미국업체에 맡기는 대신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전 측의 해명이 필요함.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워싱턴 주재 한국 참사관이 뇌물 로비 혐의로 상원 청문회에 출두하게 됨으로써 대출보증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함. (3)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연료 주기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한전과 코제마社 간에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짐. (4) 비용 관련하여, 프랑스가 수주한다는 가정 하에 당시 프랑스 대외무역장관이었던 바르(Barre) 현 프랑스 총리가 고리 3호기, 5호기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보증을 처음으로 승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때마침 한국경제가 복구되는 시점이니 이에 맞춰 프랑스 측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다른 원자력 사업

세르카(CERCA)社가 연료 공급 시범시설을 짓고, 생고뱅社가 대전에 원자력기술연구실을 건설할 예정인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대형 원전 수출을 위해 양국 정부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됨.

3.38. Traduction d'un article publié dans le quotidien économique et financier 'NAEWAY: Voyage en Amérique du nord et en Europe du Ministre coréen de l'Énergie et des Ressources. ('내외경제신문' 기사 번역: 북미와 유럽을 순방하는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

생산일자: 19780418
페이지: 81~83

1) 우편물 명세표(81쪽): 내외경제신문 기사 번역 1부를 보내면서, 아직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의 프랑스 체류 일정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힘.

2) 신문 기사 내용(82–83쪽): 4월 24일부터 1달 일정으로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은 7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서독, 영국, 일본)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에너지 개발 현황을 시찰하고 자원보유국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미국을 방문하여 제임스 슐레진저(James Schlesinger) 미국 에너지차관보와 에너지 보존, 우라늄 공급, 태양광 발전 등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에너지자원협정을 체결할 것임. 유연탄 부지 시찰, 기업체와 정부 당국의 에너지전문가 미팅도 예정됨. 캐나다에서는 유연탄 수입을 위해

알베르타(Alberta)와 브리티시콜롬비아(British Columbia) 방문 예정. 유럽 4개국에서도 태양열 발전, 에너지 보존 정책 및 원전 시설 시찰 예정.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산 자원 개발 협력에 대해 논의 예정.

3.39. Uranium (우라늄)

생산일자: 19780413
페이지: 84~84

서울 발신 전보 No. 150 참조
니제르 외무부 장관은 주한 프랑스대사로부터 니제르 우라늄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함. 니제르 외무부 장관은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이 무엇이든 자신이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니제르 측에서도 한국을 우라늄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시킬 의사가 없다고 단언함. 니제르가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을 감안한 농축우라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3.40. Uranium du Niger (니제르의 우라늄)

생산일자: 19780406
페이지: 85~85

전보 No. 150/51 참조
한국 관영 언론은 드제르마코에(Djermakoye) 니제르 외무부 장관이 방한하여 니제르 우라늄 광산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구체적인 참여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함. 또한 한국 기업이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Niamey)에 1981년 세계 이슬람국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대회의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3.41.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ntrat CERCA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세르카 계약)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86~86

3월 15일 자 필립 루에가 보낸 전보에 언급된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을 매우 급히 알고자 함. 세르카社에서 판매한 핵연료들을 배에 실을 준비가 되었지만, 서울의 답변에 따라 세관의 수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임.

3.42. Uranium du Niger (니제르의 우라늄)

생산일자: 19780404
페이지: 87~87

드제르마코에(Djermakoye) 니제르 외무부 장관이 3일간의 서울 체류를 마침. 7일 귀국하기 전에 경주를 방문하고 산업체 몇 곳을 시찰할 예정임. 두 차례에 걸쳐 드제르마코에 니제르 외무부 장관을 만나봤지만, 회담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다른 소식통을 통해 이번에 한국이 니제르 우라늄 광산 개발에 참여하고자 드제르마코에 장관을 매우 열심히 설득했다고 들었음. 상부에서 이의가 없다면 주한 프랑스대사는 한국 측에 가급적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삼가고자 함.

3.43.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협력 추가 보장 적용(물리적 방호))

생산일자: 19780404
페이지: 88~93

1) 문서 전달 양식(88쪽): 수신자, 발신자, 일자 기재

2) 서신(89쪽): 원자력 협력 추가 보장 적용(물리적 방호)

물리적 보호 관련 두 번째 교환 각서를 발송함. 3월 15일 자 발송한 전보에 언급된 각서교환을 완성하는 취지에서 발송된 것으로 물리적 방호 등급은 양국 합의로 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 정부에 이 각서를 보내어 여기에 언급된 절차들이 국제적 권고 사항에 부합한 점을 주지시키고 한국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충분히 이해시켜 주길 바람. 이번에 한국 측에 보낸 제안서 내용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약정한 제안서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덧붙여도 좋음.

3) 물리적 보호 교환각서 계획(90–93쪽)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핵물질 및 장비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을 할 것이며, 첨부자료에 명시된 물리적 방호 수준을 충족하는 물리적 방호 조치를 적용할 것임. 물리적 방호 수준은 크게 3등급으로 구분됨. 3등급은 접근이 통제된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고 저장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2등급은 3등급의 제약 조건에 추가로 제한된 수의 출입구가 있는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경비원 또는 전자 장치로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구역 또는 동등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가 있는 구역 내 보관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1등급은 2등급 제약 조건에 추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적절한 대응 인력과 긴밀한 통신을 유지하는 경비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께서 상기 기술한 협정을 확인해 주길 바라며, 각하의 답변 날짜에 이 모든 협정 내용이 발효될 것임. 이렇게 작성된 협정은 상호 협정이 종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할 것임.

〈핵물질의 분류표〉

핵물질은 크게 플루토늄, 우라늄 235, 우라늄 233, 조사(照射) 핵연료(irradiated fuel)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성 방식, 각각 무게에 따른 등급 차이 소개

3.4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316
페이지: 94~95

서울에서 몇 차례 업무미팅을 한 우리 측 기업인들, 프라마톰社와 알스톰-아틀랑티크社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만나봤는데 비관적인 느낌을 받음. 각 기업의 현지 에이전트들은 상당히 낙관적이지만 수의계약 가능성은 희박함. 고리 3호, 4호기 관련 입찰방식은 일단은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과 일괄발주(Turn key)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는 함.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가 연대하여 수주에 나서려면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서 각자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음. 한국 정부는 우리 측이 한국 기업들과 합자하는 것을 현재로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들과 합자하여 한국 정부 부처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또한,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패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음. 한국은 수출입은행이나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가 동의한 보증과 같은 정부 보증이 없을 수도 있음. 핵연료주기 관련 현재 우리 측 모델이 지향하는 소형모듈원전을 만들려면 한국이 일본 모델의 재처리 공정을 버려야 할 수 있음. 이번 입찰이 힘들다기보다는 한국 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함.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가 상당히 정치적 격동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은 우리 측과 3월 20일 전에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됨. 여하튼 미국 수출입은행이 고리 3호기, 4호기에 대해 보증에 나서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계속할 것임.

3.45.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retransfert-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에서 추가 보장 적용 (재이전-물리적 방호))

생산일자: 19780315
페이지: 96~97

한불 양국의 원자력 협정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 측에서 프랑스에 보낸 각서라고 밝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불 양국 정부 간 기존 협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정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1)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한국에 제공한 핵물질 및 장비와 한국에 이전한 핵물질 및 장비로부터 생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획득한 핵물질이 다음과 같이 국가가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한 경험이 없는 국가에 이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함.
   – 군사적 목적이나 핵폭발 장치 제조에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이러한 핵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을 받게 됨.

– 그리고 이러한 핵물질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시킨 적이 없는 국가로 재이송되지 않을 것임.

2)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국외 이전의 경우에서도 핵물질 및 장비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을 할 것임. 양국 정부는 물리적 방호의 층위를 합의로 결정함.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서 기술한 협정을 확인하는 답변서로서 현 보고서와 각하의 보고서가 양국 정부의 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며 각하의 답변서 날짜에 맞추어 발효되며 상호 협정이 종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할 것임.

3.46.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Application à notre coopération nucléaire de garanties complémentaires (retransfert–protection physique)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에서 추가 보장 작용 (재이전–물리적 방호))

생산일자: 19780315
페이지: 98~98

세르카(CERCA)社의 핵연료 제조시설 판매 관련하여, 우리 측 핵연료 수출정책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에 재이전과 물리적 방호에 관한 약정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긴급히 전달 바람. 이 약정은 1975년 9월 22일에 체결한 한국–프랑스–IAEA 3자협정을 보충하는 것이며, 추가 협정은 전신으로 보낸 교환 각서 형태로 작성되었음. 이 협정은 세르카社 판매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불 원자력 협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됨. 가능한 한 빨리 한국 정부의 답변을 알려주길 바람.

3.4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310
페이지: 99~100

3월 9일 장예준 신임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을 접견함. 최근 몇 년간 상공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이번에 원자력 사업을 맡게 됨. 가격 문제는 별개로, 프랑스 측에서 우라늄 광석 확보나 농축우라늄 공급 시설, 재처리시설, 고속증식로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함. 이전에도 프랑스 측 고속증식로 실험과 실험용 원자로인 쉬페르 페닉스(Super phenix)의 단가에 관심을 보였는데 아직 개발 중이니, 가격책정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음. 경수로는 고속증식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함. 3월 15일~17일 방한 예정인 지라르(Girard) 프라마톰社 사장 포함 우리 원전 기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측의 기대 요건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101번에서 언급한 한국 대통령 접견 날짜는 미정임.

3.48. Article extrait du quotidien 'Daily Times, 10 mars 1978'. programme nucléaire (1978년 3월 10일 자 코리아 타임즈 원자력 프로그램 기사 발췌)

생산일자: 19780310
페이지: 101~102

1) 우편 명세서(101쪽): 수신, 발신, 날짜 기재
2) 원자력 프로그램 영자 신문(102쪽)

장예준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은 올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국가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공급 관련 장기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맡긴다고 발표함. 이 기자회견은 테시에 뒤 크로(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가 장관을 접견한 직후 진행되었는데, 이를 두고 프랑스가 고리에 건설 예정인 원전 5호, 6호기에 프라마톰社가 참여하는 가능성을 점치기도 함. 지난주 한국이 이 원전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5억 달러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동선 씨 뇌물 로비 스캔들에 대한 한국 측의 충분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미 상원에서 대출 승인이 유보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프라마톰社를 포함한 유럽의 원전 기업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다룸. 하지만 장 장관은 이미 1차 선정된 웨스팅하우스社가 계약 체결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주한 프랑스대사의 접견 목적이 바로 프라마톰社의 수주 지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답을 거부함.

3.49. 주미 프랑스대사의 전보 내용 수정 요청

생산일자: 19780306
페이지: 103~103

3월 3일 자 전보 No. 1834–36 두 번째 페이지 시작 부분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이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 한국사무실에 문의해 봤는데...'

3.50. Centrale nucléaire – KORI 3 et 4 (원자력 발전소 – 고리 3호기, 4호기)

생산일자: 19780303
페이지: 104~105

서울의 전보 No. 109에 의거.
미국 상원 윤리위원회 의장과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 상원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뇌물 로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원전 2기 구매 비용으로 5억 달러 대출 승인을 봉쇄하겠다고 위협. 미 상원 윤리위원회는 김동조 전 주미대사 및 4명의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증언을 원함. 우리(주미프랑스대사관)는 이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 한국사무실에 문의해 봤는데 김동조 씨가 윤리위에 출석한다고 사건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함. 또한 설령 스티븐슨 미 상원의원이 위협

을 감행하려 해도 유관 기업체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

3.51. Centrale nucléaire (KORI 3 et 4) (원자력 발전소 (고리 3호기, 4호기))

생산일자: 19780225
페이지: 106~107

워싱턴의 보도를 인용한 오늘 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원 윤리위원회가 뇌물공여 스캔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한, 미 상원 국제재정소위원회는 한국이 웨스팅하우스社에 맡긴 고리 3호기, 4호기 원전에 투입되는 자금 대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함. 미 상원 윤리위원회는 김동조 씨의 청문회 출석을 원하는데, 참고로 김동조 씨는 전 주미대사와 외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 자문임. 해당 발언은 미 상원 윤리위원회와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에게서 나온 것으로, 대출금은 5억 달러로 추산함. 이 사안의 진위에 대해 워싱턴 주재 프랑스대사에게 문의하길 원하며, 만일 스티븐슨 위원의 위협이 실행되면 프라마톰社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이런 맥락에서 예상을 깨고 왜 한국이 원전 2기의 터빈발전기 공사를 영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에 맡기겠다고 공표했는지 이해가 됨.

3.5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24
페이지: 108~109

오원철 한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신규 원전 사업 관련하여 기업체 간 협력 및 논의 방식에 대해 제안해서 프르뇌프(PRENEUF) 프라마톰社 대표에게 알려줌. 관련하여 우리 기업체가 서둘러 직원 파견할 거냐고 묻는 말에 가격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해 달라고 했고, 오 경제수석이 자국 동력자원부에 요청하기로 함. 아직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낙찰업체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社가 맡고 터빈발전기는 영국의 제너럴일렉트릭이 건설 예정. 상부의 이견이 없다면 수일 내에 우리 기업체들의 대표단과 함께 날짜를 조율하여 한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접견을 요청할 예정임.

3.53. Entretien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e la Corée du Sud. (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생산일자: 19780220
페이지: 110~114

1) 한불 양국 문제

루이 드 기랭고(Louis de Guiringaud)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박동진 외무부 장관에게 한불 경제 관계 발

전을 치하하면서 2가지 사안을 의제에서 다룸.

(1) 한국의 원전 시설 구축 프로젝트 관련 프랑스의 참여

기랭고 외무부 장관은 최근 입찰에서 원전 2기 공사가 웨스팅하우스社에 맡겨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실망을 표현. 사실 한국은 1년 전부터 프라마톰社에게 도움을 청했고, 프랑스는 바르(Barre) 당시 대외무역장관에게 1976년 8월부터 제시한 지침을 믿고 계약 체결 완수를 위해 노력했었다는 점을 상기.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이 사안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용 면에서 유리했던 웨스팅하우스社를 선정했다고 함. 곧 신규 원전이 입찰에 나올 것인데 다른 업체들처럼 가격차별이 있으면 프랑스가 선정될 것이라고 함. 기랭고 장관은 한국이 최종 선택한 입찰방식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면서 업체 간 가격 비교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서 다음 입찰에 응하도록 제언. 또한 프랑스가 현재로서는 핵연료주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 박 장관은 한국이 원전업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확신하므로 원전 7, 8호기에 프라마톰社가 배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함.

(2) 중동 지역에서 한불 협력

기랭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동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와 시설장비 구축에서 협업을 통해서 얻을 이득을 강조. 한국이 중동시장에 진출해서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외국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시설이나 장비 제공 분야에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한불 합자를 통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봄. 박 장관도 동의하면서도 결정은 유관 기업의 소관이라 함.

2) 국제 현안

(1) 박동진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랭고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바르 프랑스 총리를 수행했던 중국 방문 후기를 공유함. 이미 황화(Hwang Hwa)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설명한 대로 기존 입장을 고수(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해체, 남북한 동시 가입 반대). 이외에 크메르-베트남 전쟁이나 일본과의 평화 조약 협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공유함.

(2) 박동진 외무장관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설명.

- 아프리카: 지금까지는 남한과 외교관계가 없었던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 말리, 기니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기술지원이나 경제 원조를 통하여 외교관계를 맺을 예정. 박 장관은 한국이 에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Addis-Abeba)에 군사 고문단 파견을 허용받은 몇 안 되는 '서방(Occidentaux)'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시.
- 중동: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의 폐쇄 결정에 유감을 표함.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석유 공급처 확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사법기관에서 남한의 지지층을 넓히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함.

3.54.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entretien avec M. Park Tong Jin)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 준비를 위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자료)

생산일자: 19780217
페이지: 115~117

1) 원자력 발전소

(1) 한국은 웨스팅하우스社에 900MW 원전 2기(고리 3호, 4호기) 수주를 맡겼음. 프라마톰社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우리 국무총리는 1월 31일에 한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서 프랑스 정부의 한국 원전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함. 한국 원전 시장은 2000년까지 46개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며, 조만간 4월경 신규 원전 입찰이 나올 예정임.

(2) 따라서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 원전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중요함.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번 입찰에서 박 장관에게 한국 지지를 충분히 요청하지 않아서 언짢아했다는 소문도 있음. 프라마톰社에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서울을 떠나기 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미국과 같은 가격조건이라면 프라마톰社가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함.

(3)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박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함. 먼저, 한국이 채택한 분할발주 방식은 미국의 벡텔社가 추천했던 방식이므로 미국에 유리하나 유럽에는 불리함. 다음, 프라마톰社는 웨스팅하우스社와 단가를 비슷하게 맞출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함. 마지막,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연료주기 분야에서 완벽한 서비스 능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 연료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은 가봉(Gabon)에서 우라늄 수입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가봉 측에서 프랑스와의 조약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2) 다른 원자력 사업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2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프랑스 핵연료제조회사인 세르카(CERCA)社에 의한 핵연료 제조공장 건설과 생고뱅(Saint-Gobain)社의 대전 소재 원자력기술센터 건축이 이에 해당함. 핵 확산 관련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조건으로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고 승인되었음.

3.5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15
페이지: 118~119

윤하정 외무부 차관을 만났는데 그제 만난 외무장관에 비해 좀 더 공식적으로 원전에 관해서 얘기. (한국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 관련하여, 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No. 78 참고) 한국 국무총리는 바르(Barre) 프랑스 총리가 그에게 보낸 각서 및 각서 내용에 관심을 보이면서 프랑스를 한국의 원전 건설 장기사업 계획에 동참시키고 싶어 함. 우리 측은 한국 기업들과 고리 3호기, 4호기 관련 입찰에서 최적 가격부터 연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논의

할 예정이라고 답함. 이제는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음. 농축우라늄 공급 관련 미국과 독점 체결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대해 윤하정 차관에게 이미 경고했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음.

3.5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15
페이지: 120~121

웨스팅하우스社 서울 주재원과 저녁 식사를 했음. 10년 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잔츠(Jantz)라는 재미교포로, 약간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씁쓸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실망한 소회를 전함. 한국이 왜 이렇게 입찰을 떠들썩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컴버스티언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과 같은 다른 기업들은 왜 불러들이는지 모르겠으며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의 계약을 원하면서 왜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 계약 방식을 체결한 적이 없는 유럽기업들까지 후보군에 포함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우리 측은 일단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6개의 개별 제안서 및 종합 제안서 1부를 제출할 예정임.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벌이는 이유는 개인적 생각엔 웨스팅하우스社에서 고리 3호기, 4호기에 채택된 입찰 제안서가 갱신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견이라서 표명하지 않음.

3.5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11
페이지: 122~122

최규하 국무총리의 서한을 인용함.
인용글: 1978년 1월 31일 서한에서 프랑스 측의 원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준 데 감사를 표하며, 유관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함. 한불 양국 간 상호협력 증진 및 돈독한 우의를 다지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 요청함.

3.5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14
페이지: 123~124

전보 No. 23, 24 참조.
최규하 국무총리가 1월 31일 원전 관련해서 바르(Barre) 프랑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다음 외교행낭에 넣어 전달할 예정임. 원전 관련 사안은 2월 20일에 박동진 장관이 우리 외무부 장관을 접견(전보 No. 33 참고)할 때

논의되겠지만, 한국 쪽에서 의제에 올리지 않으면 우리 측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함. 박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인데 주한 프랑스대사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언짢아했다는 후문이 있음. 13일에 공항에서 박 장관을 전송했는데 우리 측이 유리하지만 단가 조정을 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붙였음. 그래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우리 기업체들에게 경쟁업체들의 가격 분석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함. 프라마톰社 서울 주재원에 따르면 본사를 통해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두 차례 같은 요청을 했다고 함. 박 장관에게도 한전이 가격 분석 관련 업무 공조를 해주는 것이 긴급함을 알려야 함. 고리 3, 4호기 관련 핵심 원자로 설비는 웨스팅하우스社로 결정된 데 반해 터빈발전기 부분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GE)으로 결정했다는 후문도 있음. 미국 수출입은행이 원전 비용 관련 특혜를 약속함. 상환 기간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보증금을 증액했고, 금리를 8.375%로 인하함.

3.5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202
페이지: 125~126

전보 No. 44 참조.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attaché commercial)을 배석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오찬 회동을 함. 한국개발연구원은 제4차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상 중이며, 프랑스전력공사와 연구 및 협력사업 체결을 앞두고 있음. 경제학자 출신인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한국의 원전 사업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함. 김 원장은 프랑스전력공사와의 접촉을 통해 원전 쪽에도 선택지를 만드는 타당한 근거가 생겼고, 실제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프랑스전력공사를 모델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며, 가격책정기법이나 조력발전에도 계속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함. 1991년까지 원전 15기를 건설 예정인데, 평균 1년에 원전 1기를 세우는 셈이 된다고 함. 한전에게서 원전 건설과 운영업무를 떼어내어 다른 개별 회사에 맡기는 안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함. 김 원장은 국영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경의를 표했고, 필롱(Pilon) 상무관과 주한 프랑스대사는 프랑스국영철도회사(SNCF)를 거론하면서 다른 국영기업도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실제 한국 철도청은 한전만큼이나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음.

3.60. Energie, Centrales nucléaires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20
페이지: 127~127

장예준 신임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이 언론에 1980년대 에너지 파동을 대비하여 원전 개발 사업을 강화할 거라고 명시함. 2,000년까지 원전 21기가 아니라 46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태양열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석유 관련하여, 중동이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네시아 및 베네

수엘라 광구 탐색 및 개발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함.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과 주한 프랑스대사는 장 장관의 발언들, 특히 원전 관련 발언의 명확한 취지를 알아보려고 함.

3.6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19
페이지: 128~128

관저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스나이더(Sneider) 주한 미국대사의 말을 빌리면, 대만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이 고리 1호, 2호기 때 체결한 계약서로 벡텔社의 기술고문에게 감리를 의뢰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한 분할발주(Non-Turn key) 방식을 실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함.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고리 3호기, 4호기 관련 입찰 경쟁에서 웨스팅하우스社와 컴버스티언엔지니어링社 중 어느 기업이 수주에 성공할지 몰랐다고 함. 스나이더 미국대사는 1977년부터 수출입은행이 900MW급 신규 원전 4기 융자금을 대여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확인해 줌.

3.6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16
페이지: 129~130

고리 3호, 4호기 원전에 대한 입찰 업체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됨. 이런 조치는 우리 측에서 이 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쩌면 한국이 예상하는 바일 수도 있음. 이번 접견은 바르(Barre) 총리가 한국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의 대미를 장식할 것임. 이번 접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가 전달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원전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1975년부터 우리 측 재정 당국은 자금 융자를 해주기로 약속했고 최근까지 고리 3호, 4호기 원전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담보를 제공함.
2) 원전의 연료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
3) 지금까지 제일 먼저 건설된 원전 3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및 캐나다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왜 우리 차례에 다른 방식을 도입하여 프라마톰社가 경쟁력이 있는데도 밀려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듦. 이와 관련하여 이미 한국 정부에 당혹감과 두려움을 전달한 바 있으며, 벡텔社의 기술고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할발주(Non-Turn key)와 미국 원자로에 두 번이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함.

이와 같은 주한 프랑스대사의 접근방식 및 논리 전개에 대해 상부에서도 동의하는지 알려주길 바라며,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이번 입찰 건의 보상책으로 영광 원전 사업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부의 반응이 매우 궁금함.

3.6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13
페이지: 131~133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을 만났는데, 한불경제협력위원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영광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러 파리에 간다고 함. 조 회장은 프랑스 측에 고리 3호기, 4호기의 원자로와 터빈발전기에 대해 최저가에 준하는 단가를 제시하도록 설득함으로써 3월 1일 전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만들고 싶어 함. 조 회장이 보기에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는 일괄발주를 위해 공동입찰을 해야 하는데 프랑스 측은 고리 원전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다국적 원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 이 문제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과 대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것임. 애초에 고리 3호기, 4호기의 건설업체로 벨기에의 일렉트로-벨(ELECTRO-BEL)社를 예상하는데 벨기에 원자로 시설 장비를 쓰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변경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미국식 표준원전을 버린다는 전제하에 프랑스의 사양에 맞추는 식으로 입찰 제안서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두 번째로, 출자금의 액수가 문제 됨. 프랑스식 원전을 만들게 되면 차관도 최대로 맞춰야 함. 미국 수출입은행은 고리 3호기, 4호기에 대해 1억 4천만 달러를 약속했고, 900MW급 다른 원전 2기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한 바 있음. 과연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가 3억~5억 프랑을 대출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임. 한편, 조중훈 회장은 프랑스 총리가 한국의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는 식으로 정치권의 지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그래야 한국 정부가 입찰을 포기할 유일한 명분을 얻게 될 거라고 봄.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과 대사는 정치권의 지원 외에도 우리의 원전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산업 협력에서 선봉대에 설 수 있어야 미국 기업체들과 차별화를 얻을 수 있다고 봄. 한전의 인천 작업장에 업무역량을 최대 투입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알스톰社의 협업 사례를 언급함.

3.6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06
페이지: 134~135

오늘 아침 한국 부총리를 단독 접견하여 고리 원전 3호, 4호기에 대해 프라마톰社가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을 표현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프라마톰社에 불리한 경쟁 조건들, 즉 웨스팅하우스社는 이미 고리 원전 1호, 2호기를 건설한 경험이 있고, 벡텔社 기술고문이 감리를 담당해 미국식 분할발주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프랑스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의 공격적인 태도 등을 언급함. 우리 기업체들은 기회가 공정했다면 경쟁력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서로를 위로했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일괄발주 방식 비용은 4억 5,200만 달러인 데 비해, 최저가 비용은 4억 4,800만 달러임을 알려드렸고, 남덕우 부총리가 이 두 수치를 메모함.
남 부총리도 예상 밖의 결과에 마찬가지로 당혹스럽고, 실망했다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함. 프라

마톰社가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현재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면 안 되고 건설 부지가 달라지면 당연히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답함. 끝까지 가보라는 한국 부총리의 제안에 기회가 오면 우리 측 업체들과 기존 제안을 놓고 단번에 논의할 생각이 들었으나 입찰처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부담이 큰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니 무의미하게 느껴짐.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을 만났는데 프랑스의 도전을 격려하면서 한국 측에서 다음 원전 공사를 의뢰하면 입찰 없이 한전이 우리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함. 조 회장의 노력은 철저히 비밀리에 부쳐야 한다고 함.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가 동의한다면, 조 회장이 제시한 방식을 따라 우리 총리가 한국 국무총리에게 적시에 서한을 보내 얻어지는 이득에 주목해 보겠음.

3.6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05
페이지: 136~138

전보 No. 388과 이전 전보들 참조.
1월 4일 새해 연휴가 끝나자마자 프라마톰社가 고리 3호, 4호기 입찰에서 밀려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접견을 요청했고 1월 6일 금요일에 한국 부총리를 만남. 엠파인 슈나이더(Empain–Schneider)그룹의 주재원에게서 얻은 제보에 따르면 현재 웨스팅하우스社와 컴버스티언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社, 미국 기업 2곳만이 후보군에 남았는데 이들은 모두 일괄발주 방식(Turn key)이 아닌 분할발주 방식(Non–Turn key)을 제시했다고 함. 이는 건설업체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유럽업체들은 '(좋은) 업체쇼핑(shopping around)'이 안 되므로 거의 자동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는 의미임. 프라마톰社의 분할발주 방식은 미국업체들에 비해 단가가 너무 비쌌다고 함. KWU社는 이런 식의 입찰에 불참했다고 함. 한편, 프라마톰社의 일괄발주 방식은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다른 업체들과 거의 비슷해져서 이의 없이 탈락시키기 힘들어짐. 이런 맥락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느낌이 듦. 박동선 씨가 프라마톰社가 탈락한 순간에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의문이 생김. 이번 입찰에서 프라마톰社의 중개인인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은 사건들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보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함. 다만 조 회장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프랑스에 원전 사업의 일부를 맡기려 한다고 함. 영광에 900MW 원전이 또 있다고 하면서 7호기, 8호기 원전을 서해안에 위치한 영광에 지을 것이고 조만간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함. 한국 정부의 발언들을 전보로 부서에 알려주겠음.

3.6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80104
페이지: 139~141

12월 말에 한국 정부가 각각 900MW 원전인 고리 3호기, 4호기 업체로 미국업체 2곳, 웨스팅하우스社와 컴버스티언엔지니어링社만을 후보군으로 선정함. 프랑스는 유일하게 해당 원전 공사 비용의 융자를 약속했는데도 경쟁에서 탈락함. 현재로서는 왜 프랑스 업체가 탈락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려우며, 유일하게 한국 측에서 인정한 이유는 프라마톰社와 미국 업체 간에 약 1억 5천만 달러나 차이가 있었다고 함. 처음부터 프랑스 기업은 분할발주 방식으로는 미국과 좋은 조건에 경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함. 그런데 벡텔社가 이 방식을 추천했고 결국엔 이 방식이 채택되게 되었음. 또한 미국업체들은 상당한 특전이 있었음. 즉, 웨스팅하우스社는 이미 원전 1호기와 2호기를 건설해 보았기 때문에 원전 부지를 잘 알고 있었고 컴버스티언엔지니어링은 미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원전이 있는데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도전에 응했을 수 있음. 일괄발주 방식이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임. 프랑스의 입찰 제안 가격은 4억 5,200만 달러로 웨스팅하우스社가 제안한 4억 4천8백만 달러와 4백만 달러밖에 차이가 없음. 이런 점에서 프라마톰社가 한국의 다음 원전 사업에서 승산이 있다고 봄. 프라마톰社의 주재원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마도 1978년 3월 중에 900MW 원전 2기 건설사업이 시작되리라 예측함. 지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현지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다만 미국업체들과 너무 직접적인 대면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살피면서 기회를 노려야 할 것임.

3.6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71230
페이지: 142~142

전보 No. 646, 672 참조
프라마톰社의 도쿄 주재원은 현지 에이전트인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이 배석하여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일괄발주(Turn key)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에 유럽업체는 어느 곳도 후보군에 선정되지 못했고 이제 미국회사들만 남았다고 들음.

3.68.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e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71230
페이지: 143~143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보낸 전보 No. 679 참조.
프라마톰社가 후보군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길 원함.

3.69.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Kori 3 et 4'. (한국의 원전 고리 3호, 4호기)

생산일자: 19771227
페이지: 144~145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원전 입찰 후보들 간에 수일간 진행된 가격협상들이 끝났는데도 아직 한전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음. 참고로 프라마톰社의 경우 1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진행됨.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처음에는 프라마톰社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았지만 현재는 한전에 의해 다양한 압력과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과연 오로지 좀 더 나은 가격조건을 얻어내려는 이유만으로 프라마톰社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프라마톰社에 2가지 불리한 요소가 지적되었는데, 첫째, 프라마톰社가 제시한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는 분명히 더 비싸다는 점, 구체적으로 일괄발주 방식인 경우 15%, 분할발주 방식인 경우 100% 더 높게 제시했다는 점인데, 프랑스 업체의 대변인인 조중훈 회장은 한전 임원들이 "우리를 미개한 개발도상국 취급을 했다"라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걱정함. 이런 맥락에서 프라마톰社는 일괄발주 방식에 전념하기로 했고 13% 정도 인하된 가격을 제시했다고 함. 둘째, 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알스톰社의 골칫거리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고압 배관의 용접 불량으로 인해 한전 사장이 예상한 날짜보다 준공일이 늦어지게 됨. 1년 전부터 배관 불량에 대해 한전 측에 알스톰社가 지적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함. 알스톰社가 의뢰한 프랑스인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90% 용접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고 한 달 혹은 45일이 소요되는 일정이었음. 주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도 한전 사장은 계속해서 알스톰社를 문제 삼으면서 프랑스 업체들의 일 처리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한전 임직원들에게 불평했다는 후문이 있음. 드 리에방(de Lieven) 알스톰社 대표에게 알려 최대한 빨리 한전 김 사장의 심기를 풀어달라고 요청함. 한편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한전이 프랑스에 1월 초 원전 사업을 잘 알고 있는 부사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을 파견하여 대외비로 알려진 논의를 계속한다고 함.

3.7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71223
페이지: 146~147

예비경선 차원에서 원전 입찰 후보자들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가격협상을 한 후 신속하게 후보군을 정한다고 했으나 아직 공식 발표가 없음. 지난달 우리 측 에이전트가 최종 웨스팅하우스社와 프라마톰社가 남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성급한 처사로 보임. 전략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를 지원해서인지 한전 사장이 장시간에 걸쳐 프랑스 업체들의 부족함과 태만을 지적했음. 우리 측의 가격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음. 한국 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음. 2년 전부터 우리에게 요청해 온 사업이자 최근까지 우리 정부 당국만이 유일하게 융자해 주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되었다고 믿기는 힘든 상황임. 지금까지 이전에 건설된 원전 3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및 캐나다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왜 프라마톰社를 차별하는지 모르겠음. 웨스팅하우스社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막판에 한국이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리 총리가 한국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안 관련하여(주한 프랑스 대사 전보 646 참조), 우리 업체에게 적기를 알려달라고 함.

3.71. 고리 3호, 4호기 원전 사업 진행 상황

생산일자: 19771216
페이지: 148~150

조중훈 한불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이 프랑스 측 공동위원장에게 원전 3호, 4호기 사업에 관한 최근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신.
최근 방한한 불랭(Boulin) 프랑스 산업부 장관 및 레니(Leny)와 함께, 한국 측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장예준 동력자원부 장관, 최형섭 과기처 장관, 김영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을 차례로 접견함. 현재 승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도 아닌 상황이고, 한전 김 사장의 말을 빌리면 프랑스가 최저가로 낮출 수만 있으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함. 분할발주 방식을 택하면 프라마톰社는 핵증기공급계통(NSSS) 가격이 다른 업체들보다 2배나 비싸서 탈락은 기정사실임. 따라서 프랑스가 서둘러 합리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접견한 한국 장관들의 눈에는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무시해서 다른 개도국 국가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 몇 년간 활발해진 양국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임. 이번 수주에서 실패하게 되면 향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프랑스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향후 관계 발전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됨. 12월 21일 서울에서 한전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니, 이번이 마지막 가격조정 기회라고 생각하길 바람. 프라마톰社 직원 중에서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알스톰社도 터빈발전기 부문에 참여할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겠지만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일단 원자로 쪽이 실패하게 되면 알스톰社가 터빈발전기 시설이라도 참여해서 모두 다 탈락하는 결과는 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7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71213
페이지: 151~152

원전 사업의 프랑스 업체 대리인인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의 요청에 따라 프라마톰社 사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이 서울에 체류하면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 장관, 과기처 장관, 한전 사장을 만남. 가격 문제가 회담의 주요 쟁점이었음(전보 No. 549 참고). 불랭(Boulin)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귀국 전 나에게 같은 가격이면 프랑스가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프라마톰社는 추후 이어지는 협상에서 두 가지 입찰 제안서 중 가격이 더 낮은 쪽에 주력하기로 함.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은 프랑스 업체를 지원하는 정부 측 지원으로, 가령 우리 총리가 한국 총리에게 원전 사업에 관심을 표하는 서신이 있어야 하며, 1차 경선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인 12월

20~22일 사이에 한국 총리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불랭(Boulin) 프랑스 산업부 장관도 이와 같은 특별한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한 프랑스대사도 동의함. 주한 프랑스대사가 보기에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게 원전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음. 조 회장이 언급한 날짜가 다가오니 전보로 총리의 서신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함.

3.73. Contrat 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 계약)

생산일자: 19771108
페이지: 153~153

푸엥세(POINCET) 사장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서 전보 339에 대한 답변으로, 푸엥세 생고뱅社 사장에게 다음 지시 사항을 전달해 주길 바람. 지난 6월에 체결된 계약 승인이 지체된 연유에 대해 한국핵연료개발공단(KNFDI) 주재양 원장에게 물었더니,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국가가 채무자인 관계로 한국 재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면서 더 늦어졌다고 함. 다만 한국 부총리실에서 이미 승인이 났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의 심사를 받고 나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있다고 함. 한국 과기처 장관을 배석한 자리에서 주 원장은 이제 걱정할 일은 없다고 했고, 과기처 장관은 나에게 직접 사건의 진행을 챙겨서 일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3.74. Contrat Saint-Gobain 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 계약)

생산일자: 19771104
페이지: 154~154

푸엥세(POINCET) 생고뱅社 사장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해당 메시지를 인용함. 지난 6월 말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주재양 한국핵연료개발공단(KNFDI) 원장이 묵묵부답이어서 걱정이 되며, 12월 말이면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가 제공한 대출 조건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불안함.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뭔가 대외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함. 주한 프랑스대사가 한국 정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서야 할 일에 대해 알려주길 바람.

3.7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71104
페이지: 155~155

피에르 쉬드로(Pierre SUDREAU) 프랑스 국회의원을 수행하여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방문한 자

리에서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가 한국 원전 사업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음을 암시함. 남덕우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프랑스가 원전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긴 하지만 국제입찰이 있을 것이며 가격이 최우선 조건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고 함. 적정 시기를 알려주면 프랑스 기업체들이 임직원들을 서울에 파견하여 가격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함. 쉬드로 의원과 주한 프랑스대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제안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음. 앞으로 며칠간은 미국 측의 공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3.76. 쉬드로 의원과 한국 전경련 회장과의 식사 회동 주요 의제 정리

생산일자: 19770919
페이지: 156~157

쉬드로(Sudreau) 프랑스 하원의원과 정주영 전경련 회장과의 식사 회동 의제를 정리한 노트

1) 원전: 서독 및 미국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이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져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만 단가를 조정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프랑스가 20억에서 30억 프랑까지 대출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기뻐하며 터빈 발전설비를 알스톰社가 맡게 되길 기대함. 일이 잘되면 프랑스가 원전 5호기와 6호기를 수주하게 될 것임.
2) 에어버스: 정주영 회장은 항공기가 특히 중동 건설 근로자 이송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함. 한국의 이번 결정이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함.
3)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정 회장이 박 대통령의 방불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타진하자, 프랑스 측에서는 1978년 프랑스 선거 이후로 재고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함.
4) 앙드레 퐁텐느(André Fontaine) 르몽드지 기자의 방한: 한국 정부는 해당 기자를 초청하여 프랑스에서의 명성에 걸맞게 극진하게 환대할 것이라고 함.
5) 한국 상황: 정 회장은 중동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5만 명이 한 달 평균 1억 4천만~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함.
6) 기술 주간(Semaine technique): 프랑스 정부 측에서 아무도 11월 7일 기술 주간 개막식에 참여할 수 없다면, 총리가 쉬드로 의원에게 신임장을 주어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됨.

3.77. Demande de M. Byoung Whae Lee, haut commissaire à l'Energie atomique (이병휘 한국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의 요청)

생산일자: 19770524
페이지: 158~158

이병휘 한국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ourg)에서 앙드레 지로(André Giraud) 프랑스 코제마(COGEMA)社 회장이 발표한 농축우라늄 신기술 관련 본문 내용 전달을 희망했으니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발송 요청함.

3.78.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61230
페이지: 159~160

비공식 루트지만 확실한 제보에 따르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주한 원전 2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원자로에만 3곳이 지원했는데 프랑스 건설회사 스피바티뇰(Spie Batignolles) 및 벨기에 원전 운용사인 엘렉트라벨(Electrabel)과 합자하여 지원한 프라마톰社 외에 미국업체인 웨스팅하우스社와 독일기업(KWU, Kraftwerk Union)이 있다고 함. 한편 브라운보베리(Brown–Boveri)社와 합자한 제너럴일렉트릭社는 원자로와 터빈발전기에 동시에 응찰함. 터빈 발전시설에는 프랑스의 알스톰–아틀랑티크(Alsthom–atlantique)社와 영국의 터빈발전기를 제조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社, 이탈리아의 GIE(Gruppo Industrie Elettromeccaniche)社, 미국의 밥콕&윌콕스(Babcock Et Wilcox)社가 참여함. 일본 기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하여 접촉은 했으나 입찰에 불참함. 입찰경쟁을 거쳐 업체가 최종 선정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인 요인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임.
최근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의 컨소시엄 제안에 솔깃해져서 한국 측이 터빈발전기와 원자로를 동시에 건설하라고 할 수도 있음. 실제로 한국은 여러 나라가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우리 측에 계속 언급하고 있음. 아직 우리 측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한국이 신중하게 처세하는 것으로 미루어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중단 건을 잊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은 원전들을 몹시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자존심이 더 중요해 보임.

3.79.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Taiwan (대만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1220
페이지: 161~165

1) 문서 전달 양식(161쪽): 수신, 발신, 날짜 기재

2) 대만과의 원자력 협력 서신(162쪽)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대전에 짓고자 하는 원자력연구소를 위해 한국 연구원들이 연구용 원자로를 찾고 있음. 미국 쪽에서 해당 원자로를 구하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캐나다 쪽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 측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으로 선회함. 대만 원자력연구소(INER)는 연구용 원자로 5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도와줄 것으로 봄. 관련 자료로, 홍콩에서 격주로 발간되는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에 실린 최근 기사 사본을 보냄. 이 기사는 대만 원전 건설계획과 실현은 물론 핵원료 농축과 재처리 관련 대만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3) 서신에 첨부된 신문 기사(163–165쪽): 1976년 12월 17일 자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 멜린다 리우(Melinda Liu) 기자.
대만의 원전 사업 추진에 대해 외국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국민당 정부에 따르면 대만 원자력 연구소가 원자력을 농업이나 산업 분야와 같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만 최대의 원자로가 캐나다형 원자로라는 점, 실제로 1974년 인도가 라자스탄(Rajastan) 사막에서 실험한 핵폭탄 제조 장치의 개량형 버전이라는 점에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인도는 이 원자로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미 군비규제군축청에 따르면 플루토늄을 비축하게 되면 핵무기 제조 기간을 몇 주 혹은 몇 시간 내로 단축할 수 있음. 플루토늄 생산을 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자, 장징궈(Chiang Ching-kuo) 대만 총통은 핵무기 개발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용 장비를 얻기 위해 인적 자원이나 자연 자원을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이러한 의심을 일축함. 빅터 쳉(Victor Cheng) 대만 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은 원전 건설이 시작되기 1년 전에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이미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동의를 받았다고 함. 프랑스나 서독, 미국의 하드웨어에 맞춰서 현지에서 설계된 실험실이 현재 완성되었고, 미국 에너지개발국(ERD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됨.

그동안 대만의 '핵물질 재처리 불가' 선언에 대해 미 행정부는 1954년 미국과의 상호방어조약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환영해 왔음. 대만은 1970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했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칙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임. 조지 델코인(George Delcoign) 국제원자력기구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서한에서 대만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회피하거나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호시설에서 자재를 빼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와 대만 간 협정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시설과 캐나다가 제공하는 핵시설만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 얻은 모든 장비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이에 대해 대만의 국민당은 미국과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로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함.

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만에는 총 5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모두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함. 대만 원자력연구소(INER)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2개가 있는데 그중 대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캐나다에서 들여온 타오위안 연구용 원자로(TRR, Taoyuan Research Reactor)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음.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한 연료농축 제공 조건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미국형 원자로와 달리, 캐나다형 원자로인 TRR은 모든 공급처에서 원광석을 구입해서 대만 원자력연구소(INER)에서 가공한 우라늄 원료를 사용하는데, 현재 대만 TRR은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여온 우라늄을 가공한 핵연료를 사용 중임. TRR을 비평화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TRR 시설과 TRR에서 생산, 처리되거나 사용된 모든 핵물질들은 공급처에 무관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제를 준수한다는 협정을 맺음. 빅터 쳉(Victor Cheng) 교수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2년마다 한 번씩 현장 조사를 하고 TRR 현장의 다양한 안전장치에 관한 간헐적인 시찰도 한다고 함. 한편 대만 국립칭화대(Tsing Hua University)에는 3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역시 모두 연구용 원자로라고 함. 국민당 관료들은 대만이 의약품이나 농업, 산업 분야에 원자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 건설 사업에서 좀 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함. 대만 칭화대는 대만의 원자력 엔지니어와 원전 운영자 양성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원자로 제어장치를 구입했고, 선진기술 연수를 위해 원전 기술진들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함.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연료주기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대만의 목표는 현재 보류된 것으로 보임. 대안으로 대만 국민당은 태평양 연안 지역의 핵연료 재처리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며, 몇몇 아시아 국가들과 원전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 공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 건설을 처음 하는 태국 정부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한편, 대만의 원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임. 대만전력회사(Taipower)는 3개의 원전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총비용 26억 7,1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를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미국의 농축연료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한 이상 미국에서 전적으로 핵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서, 첸(L. K. Chen) 대만전력회사 사장은 향후 우라늄 부족으로 인한 '우라늄 파동(Uranium OPEC)' 가능성을 걱정함. 또한 상업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영국의 핵연료 회사인 BNFL(British Nuclear Fuels Limited)과 협상을 했으나 결국 대만전력의 사용후 핵연료를 수용할 수 없으니 새 공장을 지어서 생산처리 능력을 높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대만이 핵발전소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대만과 영국 BNFL의 협상에 미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

한편, 이렇게 자금 대출 및 핵연료 공급 관련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대만전력의 원전 사업도 패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만전력 사장은 이견을 보임. 미국 측의 자금 대출은 대만의 국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심산에서 나온 복잡한 계획이며, 또한 미국이 대만과 여러 가지 원자력 협정을 맺는 이유는 굳이 시설 장비를 판매한 후에는 대만이 무슨 일을 하든 무관심한 나라들과 거래하게 만드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 즉, 미국은 핵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들을 내쫓지 않고 관리하는 상황임. 게다가 미국은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한국에 제안한 재처리공장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 방법임. 대만의 국민당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연료와 안전 규제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를 알고 있으며, 실제로 대만은 1964년 이후 중국이 21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는데도 자기방어 차원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반복함.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대만은 효과적인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플루토늄을 비축하거나 핵실험 장치를 폭파하는 것은 총 없이 화약을 갖고 노는 것이고 총이 없다면 북경까지 화약을 발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일설에는 대만 중산과학연구원(Chung Shan Research Institute)이 미사일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데, 미국 원자력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핵탄두 연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함.

3.80. 한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계약 파기 관련 AFP 통신 기사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66~166

12월 17일 자 AFP 통신 보도. 한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계약 파기 원인을 다루고 있음.

1) QXAFP SET 088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의 대변인은 금요일에 기자들에게 해당 계약 파기는 프랑스가 외부 개입 없이 '엄밀히 국가 차원의 이유'로 내린 결정임을 강조함. 이 발언은 계약 파기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미 이행

되었다고 보도한 전날 석간신문 기사의 해명 차원임.

2) AFP SET 089

엘리제궁 대변인은 목요일 저녁에 계약 파기를 발표했고, 금요일에 파기 원인은 외부 개입 없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함. 엘리제궁은 목요일 저녁 성명서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대외정치위원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과 원칙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프랑스는 국익을 위해 핵확산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함.

3.81. Projet Framatome (프라마톰社의 계획)

생산일자: 19761217
페이지: 167~168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프라마톰社가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이젠버그(Eisenberg)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한국 정부는 결코 그런 중계인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그런 소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답하면서, 이미 해당 소문에 대해 들은 바 있고, 프라마톰社도 한국 정부와 우리 측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함. 사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 담당 참사관은 프라마톰社에 이 사람이 이미 몇 달 전에 입찰 건으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을 때 공식적으로 만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주한 프랑스대사는 프라마톰社가 다른 중계인을 선택했을 거라고 믿었음. 원전 관련 사전입찰서를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니 이와 관련된 남 부총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바임. 일본 대사관의 상무 담당 참사관에도 급히 이 사안을 전달하여 에머리(Emery) 씨에게 위험을 알려야 함.

3.82. Cours interregional sur la construction et l'exploitation des Centrales électriques nucléaires (원전 건설 및 개발에 관한 지역 간 교육)

생산일자: 19761203
페이지: 169~169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니 어떠한 한국인 연구자도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부정적 답변이 예상됨.

3.83. Taiwan, la Corée du Sud et l'arme nucléaire. (대만과 한국의 핵무기)

생산일자: 19761125
페이지: 170~175

미 · 일 월간지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에서 오버홀트(Overholt)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성찰을 제시함. 해당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미군 철수, 탄화수소 가격상승, 공업국들의 원전 독점에 대한 반발, 국가 위신 문제 등이 거론됨. 이들 국가 중에서 특히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대만의 비교에 주력함. 한국과 대만은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이 없이도 빠른 산업 성장을 경험한 나라들로서, 원전 시설 측면에서는 대만이 더 앞서 있음. 오버홀트 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은 충분히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되며, 특히 캐나다에서 들여온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만이 국제기구에서 쫓겨났을 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 계속 시찰을 받음. 중국은 사실상 대만을 국제기구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놓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계속 대만을 시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만을 중국의 일부 영토 권역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대만을 계속 통제하길 원하는지 의문이 생김. 향후 몇 년간은 핵연료 공급을 통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계속 유지할지는 확실하지 않음. 이어서 오버홀트 연구원은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얻는 이득에 대해 자문하면서 중국이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무인도에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이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핵무기 보유만으로도 군사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봄. 여기에 대만 국내 정치에서 특히 국가 위신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 같음. 미국과 대만 간 양자협정은 이제 미국의 소관에 달려 있고, 대만은 차기 원자력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오버홀트 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은 대만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음. 원전 사업에 후발주자인 한국은 미국의 감시를 받아 반대에 부딪힘. 프랑스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계약을 파기한 것도 이와 관련됨.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은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스스로 국가 안위를 보장받으려면 핵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듯이 한국이 핵무기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 것은 사실임. 오버홀트 연구원은 한국은 대만에 비해 수도가 국경인 38선에 가깝기에 국경지대의 대량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일본의 경우 경제적인 유대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이나 핵무기 기술이전, 평양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울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에 비교해 효과가 크다고 봄. 불리한 조건에서 기존의 핵 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면 대만인들이나 한국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해 동맹을 번복할지도 모름. 굳건한 군사적 논거를 제시하거나 한국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단언할 때 대만과 한국은 핵시설 철회에 동의할 것임.

한국 입장에서 '미약한 자국 핵 보유(une petite force nucléaire propre)'보다는 미군 주둔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군 주둔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미국 소관일 것임. 그런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핵무기 철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언급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임. 자주국방 논리를 어필하는 박 대통령에게 '미군 없이(sans les Etats–Unis)?' 하겠냐고 묻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조만간 북한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부담은 남아 있으며, 남한 스스로도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해치고 모든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함. 결국 핵 전술과 관련하여 한국은 대만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물론 소련까지 무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3.84. Programme coréen de centrales nucléaires.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61124
페이지: 176~178

고리 원전 2호기 신규 공급 계약이 최근 발표됐는데, 한국에서는 3번째 원전 사업에 해당함. 1971년에 고리 원전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社와 제너럴일렉트릭社에 의해 시공되었고, 여러 차례 지연되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임. 고리 1호기의 전력 용량은 595MW급이며, 총공사비용은 외자 포함 3억 1,700만 달러임. 쌍둥이 원전인 고리 2호기는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설계에 이어 계약 체결이 최근까지 미뤄진 것임. 그동안 고리 3호기와 4호기 원전인 캐나다형(CANDU)의 첫 번째 계약 건은 프랑스 생고뱅社와의 핵연료 재처리공장 도입 계약이 파기된 직후 1월 말에 체결됨. 나머지 계약 건은 비용 문제로 인해 아직 협상조차 시작 안함. 한편, 최근 계약이 체결된 고리 2호기는 웨스팅하우스社가 발전기 부문을 맡고 제너럴일렉트릭社가 터빈발전기를 맡게 되며 현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음. 프라마톰社와 협상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격협상에서 실패함. 고리 2호기 사업의 총공사비 6억 4,700만 달러 중 4억 6,720만 달러는 미국 수출입은행과 영국 수출신용보증기구(ECGD)에서 보증을 받아 각각 웨스팅하우스社가 3억 990만 달러, 영국 제너럴일렉트릭社(G.E.C.)가 1억 5,730만 달러를 담당한다고 함. 고리 2호기는 내년에 시공되어 1982년 준공 예정이라고 함.

3.85.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proliferation. Entretien du Directeur politique avec l'ambassadeur d'URSS (과학 사안들 기반한 주프랑스 소련대사와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장의 비핵화 관련 회담)

생산일자: 19761117
페이지: 179~180

주소련 프랑스대사관 발송 전보 No. 5466 참조
11월 17일 오늘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장이 주프랑스 소련대사를 만나 러시아 국영 타스(TASS) 통신의 최근 런던 회동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 측이 경악했음을 전달함. 바로 전날 프랑스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냥 회동에서 자신이 소련대사에게 10월 29일 이미 이란과의 협력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주한 프랑스대사 전보 706 참조), 드 라불레(De Laboulaye)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장은 프랑스의 대외 원자력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고 졸렬하다는 점을 강조함. 타스 통신이 서독과 브라질 간 계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주요 비난 대상은 "남아공에 핵무기 제작 가능성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프랑스라는 점을 적시함. 소련 당국이 우리와 남아공 간 거래는 순전히 민간 차원이며 핵확산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런 식의 보도를 하게 되면 우리 측에 대한 소련 여론의 의구심을 조장하며, 향후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임을 주지함. 체르보넨코(Tchervonenko) 주프랑스 소련대사는 소련 당국은 핵확산을 지양하며, 원전 판매를 비롯하여 모든 원자력 관련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함. 민간과 군사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함. 타스 통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소련 당국에 우리 측의 반응을 전달하겠다고 함.

3.86. Attaque contre la France à l'occasion de la réunion du 'club de Londres' (핵보유국 모임인 '런던 클럽' 회동에서 프랑스에 대한 비판)

생산일자: 19761115
페이지: 181~182

11월 13일 자 런던 주요 핵보유국 회동 관련 타스(TASS) 소련 관영통신의 보도는 우리 측의 대외 원자력 정책을 매우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런던 회동이 핵확산 위험을 걱정하는 자리라는 점을 상기시킨 후에 타스 통신은 프랑스가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브라질과 계약을 맺었고, 프랑스가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 표방 정부와 핵을 거래하여 남아공에게 핵무기 제작 가능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이어서 '프랑스는 이란, 한국 및 다른 몇 개국들과도 유사한 거래를 협상 중'이라고 보도함. 주소련 프랑스대사는 소련이 프랑스의 대외 원자력 정책에 대해 정보짜깁기와 정보 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구체적으로, 소련은 프랑스와 남아공 간 핵 거래가 민간 차원이라는 반박은 배제하여 국내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한편, 브라질, 남아공, 한국, 이란,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나 캐나다와의 접촉까지 한꺼번에 언급함으로써, 소련이 제3세계의 입장, 즉, 핵확산 정책에서 반기를 드는 국가들은 위험 국가들이며, 이들 위험국들과 서방 국가들의 공모를 비난하는 입장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함.

3.87.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es États-Unis en matière nucléaire (핵물질 관련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0930
페이지: 183~183

2월 27일 자 서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 회사 번스앤로(Burns & Roe)가 제휴하여 한국원자력기술(KABAR)이 설립되었음을 알림. 최근 제보에 따르면, 번스앤로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국이 다른 제휴기업을 찾고 있는데, 벡텔社나 에바스코(Ebasco)중 하나로 선정될 것이며, 이번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아닌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주 계약자로 나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해당 회사 간 기술제휴를 하여 기술이전을 받게 하려는 취지임.

3.88. Centar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60922
페이지: 184~185

전보 No. 379 참조
피에르 쉬드로(Pierre Sudreau) 의원과 그를 수행한 주요 기업 사장단을 동시에 접견한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살레(Buchalet) 장군에게 한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을 2개월 더 앞당길 것이라고 함. 참고로, 프라마톰社는 고리 5호, 6호기의 원자로 설비 관련하여 한국과 논의 중임. 남덕우 부총리는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건설비용과 차관 조건을 양보해야 한다고 함. 내년 6월까지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루속히 우리 측 입찰 제안서를 받고 싶다고 함. 드 리에방(De Lieven) 알스톰社 대표는 프랑스 정부 당국을 설득하여 단순히 원자로 설비비용이 아니라 총 공사비용을 보증해 주도록 애써보겠다고 함. 부살레 장군과 아부다람(Aboudharam) 프라마톰社 임원은 11월에 사전입찰서를 제시하더라도 과연 한국이 1977년 말 전에 1차 경선과 최종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함. 상무관은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에 사업 여건, 적어도 1차 경선에 대해서라도 보고할 예정임. 1차 경선에는 미국, 일본, 서독이 현재 참여했으며, 비용 관련하여 한국은 원전 2기 각각의 준공 연도를 1년 차이로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4~5년까지 연장하는 우리 측 제안과는 충돌할 수 있음.

3.89. Affaires nucléaires Asie (아시아의 원전 사업)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86~187

1) 말레이시아

테크니카톰(Technicatome)이 최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장 조사를 함. 소형 연구용 원자로와 부설 실험실이 포함된 원자력연구소 건설 가능성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사업 구상은 물론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음.

2) 한국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

(1) 대전 지역에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설비시설과 기술 제공: 1975년 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세르카(CERCA)社 간 계약 체결, 사업비용은 2천5백만 프랑이며, 파리연합은행(Banque de l'Union Parisienne)에서 대출받음.

(2) 사후 핵 재처리 시설 건설: 1975년 4월 12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생고뱅社 간에 계약 체결, 1억 100만 프랑은 수에즈은행(Banque de Suez)에서 대출받음.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을 수락했지만, 지난 1월에 결국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이 사업을 접어야 했음.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사용할 능력을 보유하게 될까 노심초사함. 대체 시설로 2월에 미국이 제공하는 원자로 옆에 연구소를 짓기로 했는데, 생고뱅社는 건설 자문과 연구소 운영을 맡기로 함. 그 연구소에는 핵연료 공급, 방사능 통제, 사용후핵연료 배출 관리에 관련된 실험실과 장비들이 포함됨. 프랑스 외무부 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는 이 계약 건에 대해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음.

(3) 900MW급 원전 2기 건설: 원 5호기, 6호기의 상업 운영을 각각 1984년, 1985년으로 예정함. 총 공사비용은 1975년 말 기준 55억 프랑으로 추산하며 이 중 33억 프랑은 차관으로 도입 예정. 프라마톰社에 원자로를 주문하기로 했는데 일괄발주가 아니라 별건 계약을 할 수 있음. 즉, 원자로 1개는 프라마톰社에게 맡기고 다른 1개는 유럽 발전회사에 맡길 수도 있음. 약 10억 프랑 정도의 차관이 기술과 산업 분야에 동시에 투입될 예정임.

3.90. Origine: DGRCST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Mission de M. Pelissolo, directeur au 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 la recherche (문화과학기술관계국의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펠리솔로 프랑스 산업연구부 국장의 방한)

생산일자: 19760811
페이지: 188~188

프랑스 전자회사 라디오 테크닉 컴플렉의 초청으로 펠리솔로 프랑스 산업연구부 전기정보산업국장, 8월 20일 방한, 시그네틱(Signetics)社의 시설 방문 예정. 앨버즈(Alberge) 총괄 엔지니어를 대동하여 수비롱(Souviron) 우정전신전화국 국제산업국장이 미국 LA에서 KE05편으로 서울 도착, 조선호텔 숙박, 8월 21일 도쿄로 출국 예정.

3.91.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60723
페이지: 189~189

전보 No. 280 참조
한국 과기처 장관이 AP통신에서 한 발언이 우리 측 관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 측과 계약을 파기했던 핵연료 공급 및 재처리시설을 한국이 대만을 통해 보유하게 되었다는 대목임. 한국은 벨기에 포함한 여러 나라에 문의했으며, 여러 기관과 사설 기업체들을 타진한 것으로 보임. 우리는 캐나다 업체와 연락 중임.

3.92.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60722
페이지: 190~190

전보 No. 171 참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주문한 핵연료 제조시설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AFP 통신원은 생고뱅社 및 세르카社의 계약, 한미 협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룸. 미국은 한국에 핵연료 제조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한국이 포기한 것은 아님.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캐나다는 벨기에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민감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을 감지했을 수 있음. 상부는 이 건에 대해 캐나다 정보원들에게 문의하길 바람.

3.9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0719
페이지: 191~193

1975년 9월 22일 한국-프랑스-국제원자력기구(AIEA) 3자협정을 체결했는데, 핵의 평화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에 이전한 핵물질, 시설, 장비 및 과학기술 정보 제공 시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을 받는다는 내용임. 이 협정은 사실 1974년 10월 19일에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 체결한 협정에 필요한 통제 요소를 추가한 것에 해당함. 당시 양국 간 협정은 생고뱅(SGN)社에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세르카(CERCA)社에서 핵연료 제조시설 구매를 예정하고 있었고, 원전 건설을 위해서도 접촉 중이었음. 한국-프랑스-국제원자력기구(AIEA) 3자협정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및 기술이전의 평화적 사용을 보장해 주는 한불간 각서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최종 각서교환에 늑장을 부리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자, 결국 한국은 1976년 1월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음. 다만 아직 1) 세르카社의 핵연료 제조시설 건설이나, 2) 프라마톰社의 원자로 공급, 3) 대전 원자력연구소 설립이 남아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함.
1) 세르카社의 핵연료 제조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캐나다형 중수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제조시설을 원했으나 배제됨. 2) 프라마톰社 원자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600MW 원전 2기를 구매할 의도였으나 8월이나 9월에 있을 입찰에서 프라마톰社에는 원자로만을, 나머지 설비는 각각 벨기에와 이탈리아,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임. 소프라톰(Sofratome)이 기술자문을 맡아 기술지원을 하기로 함. 3) 대전 연구소 관련하여 1976년 생고뱅社는 한국원자력연구소과 연구소 설립계약을 체결했는데, 사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전체가 제외되면서 이미 프랑스 측에서 약속한 차관은 이 연구소 설립에 투입될 예정임.

3.9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Programme nucléaire corée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생산일자: 19760706
페이지: 194~194

7월 1일 자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과기처 장관은 1억 5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플루토늄 농축 및 제조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함. 관련하여 장관의 발표문 및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에 관한 일정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조사하여 보내 주길 바람.

3.95. Copie d'une lettre adressée par l'Attaché Commercial à la DREE. contra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대외경제관계국 상무관에게 보내는 서신 사본. 생고뱅社의 계약)

생산일자: 19760623
페이지: 195~197

1) 우편 명세서(195쪽): 발신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수신자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 날짜 기재
2) 서신(196–197쪽): 프랑스 생고뱅(SGN)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체결한 계약을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보고함.
   – 생고뱅社는 5월 26일에 조사핵연료 검사 시설 구상을 위한 연구 계약 체결함.
   – 생고뱅社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대표단 실무협상은 결렬될 뻔했으나 향후 핵 분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고 50만 프랑 상당의 연구 계약을 하기로 합의함.
   – 지난 3월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생고뱅社 간에 논의 중인 대전 핵시설 연구소 설립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해 아직 한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와중에 벨기에가 한국 원자력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최근 5월 9일~15일에 벨기에 기업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에 우라늄 처리 시설 관련 연구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으며, 한국에 같은 시설을 짓는 경우 약 4~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도 함.
   – 생고뱅社 대표단은 최근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위해 이미 동의한 차관 조건을 갱신할 기회를 제공함. 생고뱅社는 프랑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 장담하는 눈치인데, 프랑스가 대전 원자력 시설 관련 연구소 사업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으면 생고뱅社의 입장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듯함.

3.96. Coopération scientifique avec les États–Unis (Affaires nucléaires) (미국과의 과학 협력 (원자력 사안))

생산일자: 19760622
페이지: 198~199

한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과기처 장관과 어빙(Irving) 미국 해양 및 국제환경 과학 담당 차관보의 회담 자리에서 미국은 9월경 한미 과학기술협약을 체결하기로 함. 이 협약에는 원자력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인데, 한국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에 찬성하며, 원자로 부품 제작 및 원자로 건설 및 상업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한국을 농축핵연료 제조시설 최혜국으로 대우, 국제원자력기구가 창설하려고 하는 지역 핵 재처리시설 관리 참여 인력을 양성할 예정임. 또한, 한미 양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안전, 검사, 통제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시행할 예정임.

3.97.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telier de fabrication de combustibles pour centrales nucléaires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원전을 위한 연료 제조시설)

생산일자: 19760524
페이지: 200~200

세르카社는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으로부터 경수로 및 캐나다형 중수로 원자로와 천연우라늄 연구용 원자

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제조시설 판매를 요청받음. 세르카社에 외국산 원자로 개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합의 하에 가압경수형(PWR) 원자로 위주로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여 세르카社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음.

3.98. Visite à Séoul du ministre belge du commerce exterieur (벨기에 대외무역장관의 서울 방문)

생산일자: 19760517
페이지: 201~201

미쉘 투생(Michel Toussaint) 벨기에 대외무역장관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공식 방한했는데, 벨기에 기업대표단이 배석한 한-벨기에 경제협력위원회 회동과 일정이 겹침. 투생 장관은 벨기에 정부가 원전 5호기와 6호기 관련 기술지원 및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피력하면서도 한국 측에 구체적인 약속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벨기에는 유럽 컨소시엄의 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힘. 한편 벨기에 기업대표단에 속한 벨기에 원전기업은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연구 프로젝트에 상당히 적극적인 공세를 취함. 3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연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440만 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함.

3.99.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 협력)

생산일자: 19760511
페이지: 202~203

1972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불 협력이 발효되었고, 1974년 10월 19일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에 각서를 교환, 협정이 체결됨. 이 협정에는 핵연료 재처리 및 제조시설 건립, 원자로에 관한 정보 교환이 예정됨.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후, 1975년 9월 22일 한국-프랑스-국제원자력기구(AIEA) 3자협정 체결, 그해 11월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국 측의 압력을 받아 계속 지연되었고, 1976년 1월 26일 한국 측이 최종, 이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함. 다만 양국의 협력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프라마톰社는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생고뱅社는 1976년 5월 10일 이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을 위한 협상 승인을 받음. 핵연료 제조시설 관련, 한국은 경수로와 캐나다형 중수로, 캐나다산 연구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제조시설을 원하지만, 세르카社는 프랑스산 원자로에 들어가는 경우만 건설하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으나 1976년 5월 14일 한국 측이 프랑스 측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함.

3.100. Projets Saint-Gobin et CERCA (생고뱅社와 세르카社의 계획)

생산일자: 19760403
페이지: 204~205

생고뱅社와 세르카社 관련 한불 원자력 협력사업 책임자인 주재양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원장이 프랑스에 혹시라도 남아 있을 반론을 없애고자 푸엥세(POINCET) 생고뱅 사장의 제안에 따라 4월 7일부터 약 1주일간 파리에 체류할 예정. 주 부원장은 핵 재처리 시설 건립은 일단 중단되었지만, 원자력 분야의 협력 사업은 가급적 빨리 재개하기를 희망. 1975년 프랑스 원자력청의 승인을 받은 한국 장학생 2명이 언어연수가 끝났는데 생고뱅社와의 1차 계약종료 전갈을 받아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여 주재양 부원장과 합의 하에 생고뱅社와의 2차 계약에서 새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 주 부원장은 자칫 미국 측이 반대하여 자신의 담당 사업을 연기하게 되는 것은 꺼리는 눈치임.

3.101. Origine: Coopération culturelle Objet: Programme prioritaire. Formation d'ingenieurs etrangers (문화 협력에 기반한 우선 프로그램인 외국인 엔지니어 양성)

생산일자: 19760402
페이지: 206~208

1976년 2월 4일 자 전보 44/47과 1976년 2월 25일 자 전보 12883 참조.
1976학년도 학기 초부터 외국인 경영자 및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절차에 따라, 2월부터 3월까지의 주요 사업 일환으로 프랑스 교육기관이 제안하는 교육과정 안내 및 각 운영 과정별 요구 사항 및 선별 기준이 한국 정부 기관에 안내되었을 것임. 한국 내 수요나 전문가들의 개별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임. 1)1976년 5월 9일~15일: 전기, 전자 및 전산학, 르코이(Lecoy), 몽펠리에 공과대학 연구소 교수, 2)1976년 5월 2일~8일, 기계, 토목공학, 화학 분야, 쿠스망(Coussemant), 파리 국립화학학교 교수, 뮈그니에리(Muginiery), 타르브국립엔지니어학교장, 3)1976년 5월 16일~22일, 경영 분야, 파스(PACE), 그르노블 기업경영연구소장

향후 장학생들의 수준 및 이 사업의 실행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업무 지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교수들은 지원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별도의 심사단들이 모여 프랑스에서 수행할 교육을 결정하며, 각 지원자에 대한 개별 서류심사 후 지원자 및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자격을 검증함. 또한, 주한 프랑스 문화원 문정관과 합의하여 현지 언어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결정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선발자별 교육 리포트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단들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할 것이며, 이 자료는 부처에 바로 보고될 예정임. 1976학년도에 선발될 인원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발 분야별 배정된 장학생 필요 비율별 검토 사항을 보내주길 요청함. 경영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한 1차 배정안은 1년 단위 연수생 6명과 박사과정 2명임. 지원자의 자격 및 인원수 면에서 이번 인력양성 사업이 시의적절한지 아닌지와 현재 일정으로 진행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길 바람.

3.102. Session d'Information sur les question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 정보 세션)

생산일자: 19760331
페이지: 209~209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문제 정보 세션에 참석 신청함.

3.103. Réacteur nucléaire (원자로)

생산일자: 19760308
페이지: 210~211

한국 현지에서 사전 협상 결과 프라마톰社 대표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900MW급 원자로 중 1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음. 다만 일괄발주가 아니라 원자로는 프라마톰社에게 주문하고, 터빈발전기는 다른 유럽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임. 관련 기술 및 산업투자 비용으로 프랑스는 총 10억 프랑을 부담할 예정임. 원자로 건설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회사 번스앤로(Burns & Roe)社가 제휴하여 설립한 한국원자력기술(KABAR)이 맡게 됨. 한국은 1983년에 상업 운전을 원하므로 계약이 1977년 12월에는 발효되어야 하는 일정임. 한국은 프라마톰社에 11월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일정이 촉박해 보임. 한국은 미국 및 캐나다에 이어 우리 측도 재정부담을 해주길 원하면서, 기술이전 및 핵연료 공급원 확보 역시 원하며 우리 측이 여기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눈치임.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연락을 취해서 프라마톰社와 곧바로 연락을 재개하도록 할 것임.

3.10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Non Prolifération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핵확산 금지)

생산일자: 19760305
페이지: 212~214

데이비드 바인더(David Binder) 뉴욕타임스 기자의 최근 기사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응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런던클럽 7개국의 회담 내용을 대외비로 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해당 기사에 대화 세부 내용이 적시된 것은 부주의한 처사로 인한 것이며,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측의 핵 수출을 반대하는 기조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됨. 런던 회동에서 미국은 한 번도 프랑스의 핵 재처리 시설 판매 중단을 제안한 적이 없음을 지적해야 하며, 미 국무부 담당자들도 프랑스가 미국의 몇몇 제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고 있음. 한편 이번 런던회동에서 새로 제기된 사안은 핵확산 금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원래 우리 프랑스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함. 런던 클럽에 참여하기로 수락한 이후 우리는 모임의 정신을 존중해 옴. 협상이 끝나기 전 작년 봄부터 한국 측에 기술이전 시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파키스탄과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에 승인한 3자협정은 런던협약에도 완벽하게 부합함.
반면, 독일과 브라질의 원자력기술협력은 사업안에 결함이 있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리 측에서 주장했는데도 미국의 뜻대로 결국 사업안이 통과됨. 키신저(Kissinger) 미 국무장관의 브라질 방문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프랑스에 반대하게 되면 오히려 런던클럽의 지침에 유감을 갖는 측의 입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런 방향에서 어제 주프랑스 미국대사관 과학고문의 행보를 이해해야 함.

3.105. Corée – Affaires nucléaires (한국 – 원자력 사안들)

생산일자: 19760228
페이지: 215~215

캐나다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국장에 의하면, 마세아첸(MACEACHEN)이 조만간 오타와 주재 한국대사를 접견할 것이라고 함. 캐나다형 원자로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자 한국이 온갖 시도를 감행한다는 것은 이제 막 배송 계약만 한 상황이라 캐나다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며, 사실일 경우 양국의 협력은 종식될 것임. 이 사안은 부토(BHUTOO) 파키스탄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양국에 동일한 핵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던 맥락으로 읽힘.

3.106. Coopération avec les États–Unis en matière nucléaire. (미국과의 원자력 사업 협력)

생산일자: 19760227
페이지: 216~217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미국 번스앤로(BURNS & ROE)社와 반반씩 합자하여 한국원자력기술(KABAR)을 설립함. 한국은 원자로 기술을 익혀서 한국형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함. 한국의 원전 사업 수정안에 따르면 원자로 1호기만 미국에 맡겨서 일괄발주형으로 주문하고 이후에 건설될 원자로들은 토목공사 외에도 자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세움. 한국전력주식회사 기술은 원자로 서비스에 역점을 두며, 보완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생고뱅社에게 원자로 상업 운영 및 부대 서비스, 핵물질 제조 업무를 맡기길 원함. 한전 기술은 차후에 자신이 보유한 원전 업무를 동남아지역과 같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임.

3.107.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생산일자: 19760226
페이지: 218~218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생고뱅社에 맡긴 원자력 연구 관련 신규 프로젝트(전보 No. 94 참조)에는 작년

에 체결되었지만 결국 파기된 재처리 관련 연구 비용(약 1억 5천 프랑)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설 장비 구매비용이 포함됨. 프랑스대외보험사(COFACE)가 동일 금액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오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바로 대전 인근, 이미 구매한 부지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됨. 이미 승인된 대출 혜택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취지를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제출한 바 있음. 문제는 동일한 금리 적용인 것 같은데,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 사안에 대해 중립을 취하고자 함.

3.108.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생산일자: 19760226
페이지: 219~219

전보 No. 94/96 내용수정을 요청함. 2쪽 5번째 문단에 "이의가 있으면 무효로 할 것이다"를 "귀하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무효로 하겠다고 그분이 저에게 말했음"으로 수정함.

3.109. Nouveau projet Saint-Gob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社의 신규 계획)

생산일자: 19760225
페이지: 220~221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요청에 따라 룅(LUNG) 생고뱅社 도쿄 주재 대표가 서울에 와서 핵 재처리시설 계약을 대체하는 논의를 함.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생고뱅社가 미국이 제공하는 연구용 원자로 옆에 설립될 연구센터의 건축 자문 및 사업 진행을 맡아달라고 함. 생고뱅社는 이 사업에 대한 절차 및 기술 노하우의 독점권을 갖게 되며, 핵연료 공급 및 기술지원을 맡게 될 것임. 재처리 시설에 편성된 기술 인력 인원수 및 자금 비용이 동일하게 투입될 예정임.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전면 제외된다고 한국 측과 합의했으며 협정서에도 명시될 예정임.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절대 모호한 요소를 용납하지 않는데 동의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원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하겠다고 함. 한국이 신뢰하는 생고뱅社와 계속 일하게 되어 기쁘며, 재처리 시설 계약 파기에 대해 생고뱅社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번 사업 건을 통해서 생고뱅社가 지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생각함. 한국 입장에서는 재처리시설을 철회하면서 우리 측과 계속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협력 프로그램 및 이미 약속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조율될 것으로 보임. 우리 측에서도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비용 문제는 별도의 전신에서 다루겠음.

3.110. Non–Prolifération (핵확산금지)

생산일자: 19760225
페이지: 222~223

이클레(IKLÉ) 미 군비규제군축청장이 2월 2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핵확산 금지 관련 미국의 두 가지 주요 정책 지침을 발표함. 런던에서 주요 핵 보유 7개국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과 핵연료 관련 다국적 거점센터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언급함. 주미 프랑스대사 생각에는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참여 국가는 물론 협상 중 어떤 입장들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에 알려진 정보 이상의 시사점이 없었다고 판단됨. 이클레 청장의 발표에 대해 여러 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졌는데 베스트(Vest) 미 국무부 정치군사차관보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내세워 프랑스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함. 해당 보도에 의하면,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미국 대통령이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에게 프랑스와 한국 간에 진행 중인 계약 건에 대해 반대했고 이 사실을 이클레 청장이 폭로했다고 함. 한편 이클레 청장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다짐함. 이클레 청장의 발언 진위를 런던 회동 국가들에게 사전에 확인했느냐는 우리 측 질문에, 베스트(Vest) 미국 차관보는 2~3주 전에 관련국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미국 정부가 런던의 합의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함. 어제 미 상원 외교업무소위원회에 출석해서 베스트(Vest) 차관보는 미국의 정책 목표와 원칙에 대해 발언했는데, 우리 측에 파키스탄과의 계약 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힘. 다음 외교행낭 편에 이클레(IKLÉ) 청장과 베스트(Vest) 차관보의 발언 원문을 상부에 발송 예정.

3.111. Non–Prolifération. Editorial du Washington Post (핵확산 금지 관련 워싱턴 포스트 사설)

생산일자: 19760219
페이지: 224~225

뉴욕타임스에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자 사설에 핵물질 수출로 인해 핵무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주로 독일과 프랑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위험이 증폭되었다고 함. 워싱턴포스트 편집장은 각국 정상들이 이 사안을 주목하고 뭔가 행동 개시를 하게 된 점을 기뻐하며 미국 주도로 핵 주요 보유국 7개국이 모여 핵 수출 관련 감시가 완화된 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꾀하지 않도록 몇 가지 규칙을 도입한 것을 인용함. 이와 관련하여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이 핵확산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가장 고무적인 일은 한국이 프랑스의 핵 재처리 시설 구매 관련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심지어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면 엄격한 시찰을 받는다는 조항을 덧붙였다는 점임.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미국의 영향력이 세고 한국과 계약을 파기해도 프랑스에는 큰 타격이 없어서 가능했지만, 이란과 파키스탄, 프랑스산 핵 재처리 시설의 다른 국가들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세지 않은 데다 프랑스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손을 뗄지 분명하지 않다고 봄. 뉴욕타임스는 관련국들의 약속이나 시찰과 같은 만족할 만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지에 대해서도 의심함.

3.11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60212
페이지: 226~227

우리 측 핵연료 재처리 사업이 취소된 후 한국은 캐나다형(CANDU) 680MW급 원전 3호기 건설을 위해 캐나다 및 영국과 1월 말에 계약을 체결. 이 사업의 특징 및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상부가 알고 있고, 금리 8.5% 15년 상환에 6년 특별면제 조건임을 상기하고자 함. 미국 웨스팅하우스社는 2호기 원전 협상을 재개했는데 미 의회가 한국의 사업에 대해 안심하고 있으니 올해 안에는 협상이 끝날 것이라 함. 스나이더(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당분간 한국의 다른 원자력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 토목공사 외에도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데 우리 측도 마찬가지 입장. 프라마톰社도 적정 시기가 오면 웨스팅하우스社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3.113.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Atelier de Retraitement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핵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60209
페이지: 228~228

전보 No. 65 참조.
핵연료 재처리 사업 관련 한국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오면 공장이 아니라 소규모 핵 재처리 시설이라고 답변하길 바람. 관련 연구 및 기술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지양하고, 한국 당국이 관련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원자력을 평화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다른 협력 사업들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길 바람.

3.114. La politique nucléaire de certains pays sensibles (Argentine, Brésil, Afrique du Sud, Pakistan, Libye, Corée du Sud...) (민감한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리비아, 한국 등))

생산일자: 19760206
페이지: 229~238

서론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그 여느 때보다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핵무기 확산 문제가 다시 제기됨. 원자력 독점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초강대국들은 핵 비보유국들에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핵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상당수 국가의 반대에 부딪힘. 1974년 5월에 단행한 인도의 핵실험은 핵무기 확산 문제를 재부각시킴.

원자력 정책의 추진 이유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산유국에서도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원자력 확보 희망 국가들의 목표에는 군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혼재되어 있음. 즉,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면 기술격차를 해소하여 경제적 부가 보장되고, 향후 핵무기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국가의 안위가 보장되리라 판단함. 원자력 보유국으로서의 성패는 법적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기술적인 면

개발도상국이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려면 우선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목표 달성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주로 핵물질 제조 관련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농축우라늄에 비해 플루토늄은 핵 재처리 과정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공정 과정 단계별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힘듦.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기술 전수 과정에서 기술력이 공유되면서 상당 부분 기술적 난제가 극복됨.

법적인 측면

현재 상당수 국가들이 핵물질 이전 관련 양자협정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여, 나라 간 이송된 핵물질 이송이 평화적인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물질의 평화적인 이용을 장려하는데, 1970년에 만든 핵확산금지조약은 핵 비보유국의 핵무장을 막는 대신 이들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보유국들이 지원하도록 함.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비핵화 관련 틀라텔롤코 조약(TLATELOLCO)도 있음. 최근에 주요 핵보유국 7개국들은 핵농축이나 재처리 등 민감한 국가 간 기술이전 시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핵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긴 했으나, 법적인 조치로 원자력 기술 보급을 막기엔 역부족임.

민감 국가의 원자력 정책

원자력 관련 민감 국가로 이스라엘, 인도를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리비아, 한국 등을 살펴보겠음.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들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더불어 남아메리카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며, 원자력 보유를 목표로 함. 플루토늄 제조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함.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 제조 능력은 없음.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틀라텔롤코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1975년에 다수당 의원이 의회에 원자폭탄 제조 계획안을 제출함. 미국과의 친분이 안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브라질은 강대국을 목표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는 탓에 서독과 기술협력을 통해 원전 시설을 갖추고 연료주기 서비스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함.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핵폭발 시스템을 규명하는 연구를 단행했는데,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용도라고 단언함. 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프랑스와 발사체 관련 협업을 표명하기도 함.
- 남아프리카의 원자력 정책은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와 연관됨. 전 세계 시장의 주요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농축우라늄 판매를 목표로 함. 천연우라늄 발전소가 없기에 플루토늄 제조와는 연

관이 없음.

–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의 핵실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무기 보유 의지를 천명함. 후진국이었지만 외국 유학을 한 고급인력 덕분에 핵연료 제조시설을 보유하게 됨. 핵 재처리에 관심을 두고 벨기에로부터 재처리시설 설계도를 확보해서 한국처럼 상당한 제약을 받더라도 프랑스와 공장 건설을 협상 중임. 빈곤국인 파키스탄은 자신과 같은 무슬림 아랍국가들에 핵무기 기술을 판매하도록 부추겨질 가능성이 높음.

– 리비아는 1969년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 폭탄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1975년에야 소련과 협력 조약을 맺은 것이 전부임. 소형 원자로 실험실이 생길 예정이지만 핵무기 보유 위험은 없음.

–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방어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함.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핵기술 관련 고급 인력 자원이 많고 해외유학생들이 최근에 귀국함. 소형 농축우라늄 원자로 1기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개를 주문함. 핵 재처리 시설에 관심을 두고 프랑스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재처리시설 건설 규제를 위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우리 측이 늑장을 부리고 미국에 압력을 받아 이 사업을 접기로 함.

– 이란은 현재 경제적인 강대국을 목표로 원자력 사업에 특별한 노력을 쏟고 있음. 아랍국가들은 핵무기 보유국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핵무장 동기부여를 얻게 됨. 최근에 무기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력을 보유한 이집트 간에 협정을 맺음. 이집트는 현재 미국과 농축우라늄 원자로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핵무기 개발 여건을 오래전부터 갖춘 것 같지 않음.

결론

에너지 파동 위기를 계기로 외국의 도움을 받아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 보유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에 나섬. 과학기술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기술적 해법을 찾게 되었고, 지식 전파를 통해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유 역량을 갖추게 됨. 미국과 소련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 전 세계에 핵무기 억제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수포로 끝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게 됨.

부록: 민감 국가들의 원자력 기술 보유 자원 현황

각 나라별 국민총소득(GDP), 기술력(과학, 화학, 금속제련), 시설장비(연구용 원자로, 가용우라늄, 상업 운영 원자로, 연료제조공장, 재처리공장)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표로 작성

3.115. Coopération nucléaire du Canada avec la Corée du Sud et l'Argentine. (캐나다의 한국 및 아르헨티나와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0204
페이지: 239~242

캐나다 외무장관이 한국 및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을 의회에서 지난 1월 30일 공식 발표

함. 1월 26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한국은 캐나다원자력공사(l'Energie Atomique du Canada)로부터 캐나다형 원자로를 수입하여 원자력 사업 계획을 계속 추진함. 마세아첸(MACEACHEN)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이미 밝혔듯이 한국은 미국산 원자로를 들여왔고 이번 캐나다 원자로 건은 한국으로서는 2번째임. 이번에 캐나다가 한국에 이어 아르헨티나와 상업용 원자로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을 지적함. 장관은 이번 협약은 양국 정부 간 비평화적인 용도로 핵물질 사용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 의무화,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농축원료 및 핵 재처리 물질 이전 시 캐나다 정부의 승인 의무화를 핵 수출에 앞서 조건부 단서를 붙였다는 점을 강조함.

캐나다 의회 야당은 양국은 물론 국제 시찰이 어렵다는 점과 보장 조건이 미비함을 들어 불안감을 표명했는데,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함. 캐나다 정부의 사후 통보식 정책추진에 반대하면서 향후에는 정부 정책추진에 앞서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의회에 입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핵무기 확산금지가 협상 시 최우선 고려 사항임을 강조했고, 실제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시설 구매 포기를 다짐했다고 함. 핵폐기물은 환경문제와 핵확산 금지를 이유로 캐나다에 이송되는 일은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물질들이 군사적인 이유로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시찰할 것이라고 함. 이 사안에 대해 캐나다 의회가 개입했더라면 보장 조건 범위 및 문제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 이번 논의 종반에 로버트 스탠필드(Robert STANFIELD) 캐나다 야당 당수는 한국에 원자로 판매 양식, 특히 캐나다 정부의 3억 달러 차관 제공 시 금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실패함. 캐나다 동력자원부 장관은 캐나다 국영기업의 거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며 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함.

3.116.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60130
페이지: 243~244

마이런 크라처(Myron Kratzer) 미 국무부 과학 담당 차관보 대리가 1월 29일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공장 구매 건을 취소했다고 미 의회운영위원회 공개 세션에서 언론에 발표함. 우리 측 반응은 보도하지 않음.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측 제보를 빌어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함. 미 의회 운영위원회는 1972년에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 비준 조건을 비판함. 웨스팅하우스社에서 판매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물질의 첫 번째 판매는 의회나 여론에 공개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지난 10월에 승인되었고, 미 의회 운영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社의 원자로를 1년 가동 시 플루토늄 150kg을 생산, 원자폭탄 30개 분량이 됨. 핵 재처리 시설 관련 한국의 계약취소 발표를 우리 측에 사전에 알려줬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유감을 표하면서 크라처 차관보 대리가 공식 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건에 관한 질문에 이미 우리 측 몇몇 상원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함.

3.117. Atelier de retraitement pour la Corée du sud (한국을 위한 핵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60127
페이지: 245~245

미 국무부 군사정치국장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의 핵 재처리 시범시설 사업 건에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 데 대해 프랑스 정부가 양해해 줘서 고맙다고 전함.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에게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질문을 받게 되면 계약 파기를 공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함.

3.118.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0127
페이지: 246~246

비소네트(Bissonnette) 캐나다 외무부 차관보를 접견하는 자리에 한국과 캐나다 간 원자력협약보장안 협상에 진척이 있는지 문의함. 회담에 배석한 풀포드(FULFORD) 씨는 어제 서울에서 협약이 체결되었고, 캐나다 정부가 이미 얻어낸 보장 사항 외에 추가 보장은 없었다고 함.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협상 중인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참작했으며, 만일 한국이 약속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을 압박할 방법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3.119.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60126
페이지: 247~248

오늘 아침 한국 정부가 노신영 외무부 차관을 호출해 핵 재처리 시설 구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함. 하지만 재처리시설 외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추진할 것이며, 부분적 계약취소로 인한 재정적 기술적 여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하기로 함. (1975년 12월 30일 자 전보 No. 689, 1월 12일 자 전보 No. 10 참조). 노 차관은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난처한 심경을 밝혔는데, 이는 워싱턴발 전보 No. 415에서 공지한 대로 한국 측과 미국 대표단 간 회담 결과에 따른 조치였음.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민감 영역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던 것인데,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 구매를 강행할 경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음. 미국은 적어도 말로는 한국에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스틸웰(Stilw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토요일에 유달리 강력한 어휘를 구사하며 북한의 모든 공격에 맞서 한국의 핵우산이 되어주겠다고 재차 확인함. 프랑스는 나머지 계약 건이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됨. 한국 부총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원전 5호기, 6호기 관련 사업을 암시하는 것이 확실함.

3.120.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

생산일자: 19760123
페이지: 249~251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난 1월 29일에 장시간 접견함. 장관과는 파리에서 작년 5월에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음. 우리 측이 맡게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묻자, 부총리는 이미 부서를 통해 주한 프랑스대사도 알고 있는 사업 목록을 열거하다가 종국에는 당혹스러운 어조로 핵 재처리 시설이 가장 긴급하다고 답함. 한국 부총리는 미국으로부터 계약 협상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함. 미국은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을 공장으로 전환할 것을 견제하는 것인데 이는 억측이며, 한국은 이번에 기술 전수가 불발되면 원자력 사업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함. 한국 부총리는 교환 각서에 서명만 남은 시점에 프랑스가 생각을 바꾸었냐고 물었고, 이번 계약에서 재처리가 제외되면 전체 2,500만 달러에서 몇십만짜리 계약이 돼 버리는데 말이 안 된다고도 함.

우리가 한국이나 파키스탄 외에 이란과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냐는 남 총리의 질문에 주한 프랑스대사는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지만, 농축우라늄 관련 프랑스 기업인 유로디프(EURODIF) 유럽 공장 한두 곳에 이란이 막대한 비용을 댔다고 답함. 당시 주한 프랑스대사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부의 긴급 지시가 없는 한 프랑스의 핵 재처리 시설 중단 결정 관련 한국 정부 기관지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의 인터뷰에도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함.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오랫동안 준비해 둔 답변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외국 언론사의 인터뷰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생각임. 현재 한국 측에 다른 사업 건(*1월 21일 자 전보 No. 32 참고)에 대해서 타진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임. 만일 핵 재처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전문팀이 나서서 후속 협상을 맡을 것을 제안함.

3.121. Bourses scientifique 1976 au bénéfice de candidats du KAERI. (한국원자력연구소 지원자 수혜 과학 장학금)

생산일자: 19760119
페이지: 252~252

1973년부터 매년 원자력 분야 한불 협력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지원자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요청에 빠른 시일 내 응대하고자 하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격과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올해에 가능한 과학장학금 숫자를 알려주길 요청함. 한국 정부와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니 한국에의 지식 및 기술 전수를 목표로 한국인 전문 인력들에게 프랑스 체류를 권장하거나 수용할 만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알려주길 바람.

3.122.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60116
페이지: 253~254

루이스 노센조(Louis V. Nosenzo) 미 국무부 정치 군사국 원자력정책과장이 우리 측에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 사업을 중단하도록 미국이 애썼다고 밝힘. 노센조 국장의 지침을 12월 31일에 받은 후에, 스나이더(Sch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측에 이 사업을 취소해야만 한미원자력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함. 스나이더 대사에 따르면 한국 측이 조만간 곧 핵 재처리 사업을 접을 것 같으며 체면을 잃지 않을 방도만 구하고 있다고 함. 이점을 고려하여 미 국무부는 한국에 1월 22일, 23일 양일 마이런 크라처(Myron Kratzer) 미 국무부 과학담당 차관보 대리와 오도노후(O'donohue) 미 국무부 한국담당 국장 겸 에너지연구개발청(ERDA,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dministration) 공무원을 파견함. 한국 측에 대화는 단 한 차례만 할 것이며, 핵 재처리 사업을 접어야만 후속 논의를 하겠다고 함. 미국은 한국에 상업용 원자력 분야의 지원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는 했는데, 캐나다 및 프랑스의 원자로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3.123. Coopération nucléair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760115
페이지: 255~256

루이스 노센조(Louis V. Nosenzo) 미 국무부 정치 군사국 원자력정책과장이 우리 측에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 사업을 중단하도록 미국이 애썼다고 밝힘. 노센조 국장의 지침을 12월 31일에 받은 후에, 스나이더(SCH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측에 이 사업을 취소해야만 한미원자력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함. 스나이더 대사에 따르면 한국 측이 조만간 곧 핵 재처리 사업을 접을 것 같으며 체면을 잃지 않을 방도만 구하고 있다고 함. 이점을 고려하여 미 국무부는 한국에 1월 22일, 23일 양일 마이런 크라처(Myron Kratzer) 미 국무부 과학담당 차관보 대리와 오도노후(O'donohue) 미 국무부 한국담당국장 겸 에너지연구개발청(ERDA,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dministration) 공무원을 파견함. 한국 측에 대화는 단 한 차례만 할 것이며, 핵 재처리 사업을 접어야만 후속 논의를 하겠다고 함. 미국은 한국에 상업용 원자력 분야의 지원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는 했는데, 캐나다 및 프랑스의 원자로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3.124.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Objet: Coopération en matière nucléaire (과학 사안들에 기반한 원자력 분야 협력)

생산일자: 19760108
페이지: 257~257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생고뱅(S.G.N)社가 체결한 핵 재처리 시설 계약취소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소송

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한국 측이 자신들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발표할지는 알아봐야 함.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전보에서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핵 재처리 계약 건만 철회하길 희망한다고 명시했고, 프라마톰社가 맡은 원자로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우리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주기 바람. 세르카(CERCA)社가 핵연료 제조공장 사업안을 준비 중이며, 1월 11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3.125. Fourniture à la Corée d'un Atelier de retraitement (핵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생산일자: 19760102
페이지: 258~259

베스트(Vest) 미 국무부 정치군사차관보와 루이스 노센조(Louis V. Nosenzo) 미 국무부 원자력기술 담당 차관보에 따르면, 한국은 6개월간 핵 재처리 시설에 관한 결정을 미루고 그 기간에 미국과 양국 원자력 협력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함. 미국 정부는 12월 31일 스나이더(Sneider)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거부 의사를 전했는데, 즉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 사업을 중단한 후에 민감하지 않은 핵 영역(domaines nucléaires non sensibles)에 대해서만 한미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는 이번 한미 협력이 한–캐나다 협력과 한불 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의미함. 미국 측에 의하면, 한국이 우리 측에 핵 재처리 사업을 미룰 의사를 이미 전했는데 우리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함. 노센조 차관보는 이번 계약이 취소되어도 프랑스에 그다지 타격이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모르는 눈치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다고 함.

4. Corée du sud. Culture et Relations culturelles. Recherches atomiques. 1979

번역제목	한국. 문화와 문화관계. 원자력 연구. 1979		
철 관리번호	PZA0008365	생산기간	1979~1980
기록물 건수/매수	102건/239매	원 소장처 관리번호	755 INVA 2205 12.11.5

주요 내용

-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7호기와 8호기 건설 관련 내용, 한국이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는 내용, 한국의 대규모 원전건설 계획에 대한 기대감 표출
- 한국의 원전건설 계획에 대한 보고
-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을 주제로 1979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 관련 보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으며 개발도상국의 핵기술 확산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에 끼칠 영향력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 컨퍼런스의 3가지 의제는 개발도상국 대상 원자력 수출 차별 정책, 인도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이는 핵확산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접근의 장단점, 극동아시아의 핵무기 개발
- 박동진 한국 외무부 장관과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회담을 위한 준비 자료, 한국의 역사와 상황, 한국과 프랑스 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업체들의 노력 및 한국과의 접촉에 대한 보고, 원전 수주는 프랑스와 한국 간 원자력 협력을 가속화시킬 것임을 호소하며 수주를 위한 지지를 바라는 서신을 최규하 총리에게 전달, 최규하 총리의 답신
- 주프랑스 한국대사와의 논의 사항에 대한 보고,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 시점과 박동진 한국 외무부 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기 논의, 한국과 프랑스의 무역 관련 개선 사항 논의, 남북한 대화 재개 가능성 논의
- 원자력 발전소 7호기와 8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社가 수주하는 대신 9호기와 10호기는 프랑스 프라마톰社가 수주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보고, 한국 측이 요구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 1979년 8월 16일 서울에서 프라마톰社, 알스톰社 측과 한국전력주식회사 측이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 수의계약 체결을 확인
- 한국 측이 입찰 없이 9호기와 10호기를 프랑스에 건설을 맡긴 것에 대해 서독과 미국 측의 반발과 압력이 거세다는 소문 보고
-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관련한 보고, 프라마톰社 등 프랑스 업체들과 한전 간의 계약 진행이 전면 중단됨. 박정희 대통령 조문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 새로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보고, 계약 체결이 지속적으로 연기됨을 보고

✚ 1980년 2월 26일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재개에 대한 보고, 프라마톰社와 한전 측 계약 조건들에 관한 내용, 3월 20일 조중훈 회장을 통해 프라마톰社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미리 전달됨. 그러나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한국 측 움직임으로 인해 계약 지연, 수주를 위한 예산 및 예산집행 방식 등에 관한 내용, 1980년 5월 한전과 프라마톰社 간에 더 이상 가격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최종적으로 프랑스 측이 원전 9호기와 10호기를 수주하는 것이 확실시됨

수록 기록물명

4.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 원자로 건설 관련 한국 측 의향서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입장
4.3. Compte–rendu de l'audience accordée par le premier ministre à M. KIM WOON GIE, Vice–premier ministre coréen (김원기 대한민국 부총리의 프랑스 국무총리와의 회담)
4.4. 일본–몰디브 관계
4.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7. Corée. Note. (한국 관련 노트)
4.8.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No. 9 et 10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4.9. Corée –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 원자력 발전소)
4.10. Centrales nucléaires – Rôle du 'Chairman Cho' (원자력 발전소 관련 조중훈 회장의 역할)
4.1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12.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4.13. Centrales nucléraires et maremotrices (원자력 및 조력발전소)
4.14.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4.15. Note.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관련 노트)
4.16. Alsthom–Centrales nucléaires (알스톰–원자력 발전소)
4.1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18. 알스톰社 임직원의 서울 방문
4.19.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No. 9 et 10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4.2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4. Audience chez le premier ministre (한국 국무총리 접견)
4.2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26. Mission a séoul du 24 au 27 mars 1980 / Centrales nucléaires KNU 9 et 10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1980년 3월 24일~27일의 서울 출장)
4.27. 신임 주한 프랑스대사의 원전 사업 향후 전망
4.28. Centres nucléaires –A.F.P. (원자력 발전소 관련 AFP 통신사 보도)
4.29. Centr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3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3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32. Affaire SGN/KNFDI (Dossier COFACE N. 54 147) (생고뱅社와 한국핵연료개발기구 사업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 서류 N. 54 147))
4.33. Note sur l'affaire Corée KNU 9 & 10 (한국 원전 9호기와 10호기 사업 노트)
4.34. Corée du Sud–Coopération nucléaires (한국–원자력 협력)
4.35.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의 한불 각서교환 계획)
4.3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37.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원자력 발전소))
4.38. Note.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sur les transferts d'articles nucléaires (핵 물질 이송에 관한 한불 각서교환 계획 노트)
4.39. Vente d'uranium de Colombie Britannique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캐나다 BC 주의 우라늄 판매)
4.4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4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42. Vente d'uranium canadien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우라늄 판매)
4.43. 원전 협상 지체 배경 및 전망에 대한 주한 프랑스대사의 서신
4.4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4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4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47. Contrat de vente d'uranium (우라늄 판매 계약)
4.48. Fiche pour le Ministre (외무장관을 위한 자료)
4.49.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4.50. Fiche d'entretiens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참석 프랑스 국무장관의 한국 측 요인과의] 환담 자료)
4.5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5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53.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générales Objet: Préparation de la commission mixte:

Coopération nucléaire (일반과학 사안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 한불 공동위원회 준비)

4.5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55.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 Note du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n date du 1er octobr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 10월 1일 자 프랑스 원자력청의 노트)

4.56. 원전 9호기 10호기 관련 프랑스 업체의 신용보험 신청서

4.5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58.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et visite du Ministre (원전 판매와 외무장관 방한)

4.59. Note pour le ministre. 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민병기 주프랑스 한국대사 접견 관련 장관을 위한 노트)

4.60. Attribution des centrales nucléaires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사 배정)

4.6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62. Pour le Ministère de l'Economie de la part du conseiller commercial (경제부에 보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보고)

4.63.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9 et 10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전 9호기와 10호기)

4.64. Note. Entretien du ministre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 노트)

4.65. Note pour le Ministre. 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 접견 관련 외무장관을 위한 노트)

4.66. Note.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et visite du Ministre à Séoul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및 프랑스 외무장관의 서울 방문 관련 노트)

4.6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68.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4.6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7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7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7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73. Centres nucléaires en Corée du Sud – Note sur le projet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de 900MWe en Corée du Sud (Korea Nuclear Units 7 and 8)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 한국의 900MWe급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노트)

4.74. Note. Corée: Affaires nucléaires (한국의 원자력 사업 관련 노트)

4.75. Centrales nucléaires –Copie de la lettre adressée la 25 avril par le Premier Ministre coréen, M.CHOI Kyu Hah, à M.Raymond BARRE, en réponse à la lettre de ce dernier datée du 9 mars (document remis par l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원전 건설 관련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에게서 받은 3월 9일 날짜의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최규하 총리가 4월 25일 보낸 서신 사본)

4.76.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Entretien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장관비서실을 위한 노트.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와의 회담)

4.77. Vente de centrales à la Corée. Passage à Séoul de M.Pecqueur, Administrateur général du CEA – Compte–rendu de mission en date du 20 mars (copie) (대한민국 원전 판매 관련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1979년 3월 20일 업무 출장 보고서)

4.78.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4.7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80. Centrales nucléaires. visite de M. Michel Pecqueur. (원전 관련 미쉘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방한)

4.8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82.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관련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의 서신)

4.8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4.84.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원자력 문제 기반 한국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판매)

4.85.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mmandes de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 기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지시)

4.86.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4.87.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4.88.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4.89.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4.90. Note à l'attention de M. LOUET (필립 루에 프랑스 외무부 원자력과 부팀장에게 보내는 노트)

4.91.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전달

4.92. Entretien du Ministre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프랑스 외무장관의 회담)

4.93. Centrales nucléair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4.94. Note. Vente de central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관련 노트)

4.95. Entretien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한 자료 준비)

4.96. Note. Conférence de Séoul –compte rendu (서울에서 열린 원전 관련 컨퍼런스 회담록 보고서)

4.97. Fche: 'Perspectives de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Séoul 22–24 Janvier 1979. Organisation–Composition–Ordre du jour de la Conférence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을 주제로 1979년 1월 22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조직 및 강연자, 일정에 대한 설명 자료)

4.98. Fiche. Le programme nucléaire sud–coréen (한국의 원전 건설 프로그램 자료)

4.99. Fiche de présentation. Conférence sur les perspectives de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Séoul 22–24 Janvier) et entretiens à Tokyo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을 주제로 서울에서 1월 22일~24일 열린 컨퍼런스와 도쿄에서 있었던 회담 결과 소개 자료)

4.100. Note pour la direction d'Asie. Appui à la vente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아시아국을 위한 노트, 한국에 대한 원전 수출 판매 지원 요청)

4.101. Séjour en France du Président KAERI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프랑스 체류)

4.10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수록 건 기록물 내용

4.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630
페이지: 1~2

베르나르 폴랭 주한 프랑스대사가 미국 측에서 수주한 원전 7호기와 8호기 관련 입찰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의 주요 이슈를 일자별로 설명하는 전보

1) 작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작성된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
2) 한편, 1979년 7월 1일 자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은 7호기, 8호기 건설 국제입찰에 미국업체 지지를 요청함. 블루먼솔(Blumenthal) 미국 상원의원과 회담 중에 한국 국무총리는 입찰 결과를 보고 최종 선택을 하겠다고 밝힘.
3)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社 선정은 한 달 후 공지됨.
4)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부문, 핵연료 관련 계약은 10월 11일에 체결됨.

4.2. 원자로 건설 관련 한국 측 의향서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입장

생산일자: 19800628
페이지: 3~3

폴랭 주한 프랑스대사는 정부가 프라마톰(Framatome)社에 원자로 건설을 맡긴다는 취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프라마톰社에 보낸 의향서(lettre d'intention)를 수락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존의 원전 건설 과정을 알렸음. 구체적인 모든 정보가 유용해 보임. 만일 알스톰(ALSTHOM)社가 선정되길 바란다면, 프랑스 측은 그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장관의 방문 조건으로 하지 않아야 함.

4.3. Compte–rendu de l'audience accordée par le premier ministre à M. KIM WOON GIE, Vice–premier ministre coréen (김원기 대한민국 부총리의 프랑스 국무총리와의 회담)

생산일자: 19800627
페이지: 4~5

1980년 6월 방불 중인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당시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눈 회담 내용

- 김원기 부총리 발언: 한국의 자금 원조를 논의한 세계은행에 참석차 방불했으며, 5월 사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700만 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민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계획. 특히 장 프랑수아 드니오(Jean François DENIAU) 프랑스 외무담당 국무장관(Secrétaire d'État auprès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과 원전 관련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었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고 프랑스 측 제안에 대해 매우 호감을 표함. 한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
- 프랑스 총리 발언: 한국과 프랑스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므로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 원전 사업 관련하여, 프랑스는 경쟁대열에 끼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며, 프랑스가 제시하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까지 할 수 있음. 프랑스는 미국 측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전 분야에서 한국의 다변화 시도가 속히 실현되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의 시도가 불발된다면 한불 양국의 기존 신뢰 관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원전 2기 건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 하루속히 한불 양국이 불확실성에서 빠져나와야 함.
- 김원기 부총리 발언: 가까운 시일 내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방한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임.

4.4. 일본–몰디브 관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6~6

일본–몰디브 청소년 연합회 대표 다케라주 아사쿠라(Takerazu Asakura)가 9월 14일 몰디브에 도착했음. 그는 연합회 명의로 몰디브 정부에 일본 유학 장학금 4개와 쌀 30톤을 기부했음. 동시에 일본 아시아 태평양 통계 연구소 주관으로 몰디브인 장학생 2명이 통계학 공부를 위해 도쿄로 떠남.

4.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621
페이지: 7~9

1) 프라마톰社와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 프라마톰社의 임직원인 제라르 르브르통(Gérard Lebreton)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협상자들이 프라마톰社를 원전 건설사로 인정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함. 다만 한국 측 전문가 집단이 소규모이고 이런 종류의 협상 경험이 없는 데다, 미국 벡텔(BECHTEL)社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서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림. 르브르통 프라마톰社 임직원에 따르면, 예상보다 한 달이 늦춰져서 10월쯤에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함.
2) 우라늄과 농축원료 공급에 관한 협상은 예정보다 빨리 시작될 수도 있음. 코제마(COGEMA)社 측이 새로 제안한 가격을 한전이 동의함. 다만 본 계약에 부속 계약이 이어지는 점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
3) 르브르통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 원자력청(CEA)에서 얻은 정보와도 일치하는데, 한국이 조만간 11호기와 12호기 건설을 국제입찰에 부칠 것이라고 함. 11호기와 12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社에 일임한 7호기와 8호기의 부지에 건설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렇게 되면, 암묵적으로 프라마톰社의 선정이 확실시됨.
4) 한편, 알스톰社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의도가 오리무중인 상태임. 합의된 부분에 대해 2가지 다른 옵션이 제안될 수도 있는데, 한전 사장의 발언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해명을 듣거나 아니면 알스톰社가 옵션을 수락해야 한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이제부터 한전과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5)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는 9호기와 10호기 건설 입찰에 제시한 가격 및 신용담보 조건으로 11호기와 12호기 입찰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은 미국 측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결과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음. 수출입은행(EXIM-BANK) 은행장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이미 합의한 대출 조건을 개선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웨스팅하우스社의 사장 방문 이후 한전의 원자력 팀장이 미국에서 한 달 체류를 초대받았다는 점을 주목함.

4.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620
페이지: 10~10

프랑스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방문한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프라마톰社와의 협상 이후 한국 정부가 원전 건설 관련 결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작년에 예정된 대로 양국의 외무부 장관이 공동 공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함. 한국 언론은 김원기 부총리가 방불 시에 이미 성명서 준비를 한 것으로 관측했다는 점에서 장 프랑수아 퐁세(Jean François-Poncet)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공식 방문이 긴급하게 요청된 배경을 설명함. 프랑스 외무장관은 주프랑스 한국대사의 제안을 접수하긴 했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답변을 보류함. 여하튼 공무일정상 즉각 방한이 힘들며 방한하더라도 단순한 성명이 아닌 계약체결 시점일 것이라고 함.

4.7. Corée. Note. (한국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800619
페이지: 11~12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6월 16일 목요일 외무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프라마톰社와 웨스팅하우스社가 1년 전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는 9호기와 10호기 원전 건설 수주에 관한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림. 한국 정부는 프라마톰社와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기에, 아무리 늦어도 여름이 가기 전에, 프랑스 외무장관이 방한해야 함을 명시함.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작년에 체결한 일정이 지켜지고, 원전 건설 수주 체결이 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한불 관계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주프랑스 한국대사의 제안 관련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함.

1)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한 약속은 한국 정부가 프라마톰社를 최종 선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이 분명함. 무역이나 재무 측면에서 프랑스 측이 제공한 혜택 및 향후 독자적인 원자력 산업 구축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社가 이전 건설사이고, 한국 내 미국의 전방위적인 위상 때문에 웨스팅하우스社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름.
2) 한국 정부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 외무장관 방한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생겨난 한국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자 하는 조치일 수 있음. 사실상 현재 한국 정부는 과도기의 불안정한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방한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찾기 힘든 보증인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음. 실제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은 보류된 상태임.
3) 위에서 언급된 부정적인 측면 대비 상당한 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핵 프로그램을 가진 한국에 두 개의 원전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임. 방한을 거절하게 됨으로써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 우려도 있음.

4.8.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No. 9 et 10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생산일자: 19800619
페이지: 13~15

1980년 5월 14일 알스톰社의 임직원인 드 리에방(P. de LIEVEN) 씨와 카스테랑(CASTERAN) 씨가 서울 출장에서 수집한 정보 보고서

1)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자력 건설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며, 1980년 10월에 프라마톰社와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음.
2) 한전은 이전에 1호기와 2호기 건설 시 미국과 영국 회사 간 협력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두 나라에 동일한 원전의 터빈발전기와 원자로를 각각 주문하는 것을 꺼림. 따라서 9호기와 10호기 2개의 터빈발전기를 협상하기 위해 조만간 알스톰–아틀랑티크社를 접촉할 것으로 보임.

3) 한국 정부는 보상을 얻어낼 목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원전 협상을 자기 측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눈치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프랑스가 한국에 전기공인력개발원을 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함. 관련하여 프랑스 측에서 연락을 취하면 분명히 한국에서 환영받을 것임.
4) 6월 23일부터 27일경 김원기 부총리의 파리 방문은 원전 수주에 결정타가 될 것이며, 김 부총리의 내방을 받는 장관들은 회담 기회를 빌려 9호기와 10호기를 수주하고자 하는 프랑스 측의 관심을 잘 전달해야 할 것임.

4.9. Corée –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617
페이지: 16~17

최근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프랑스 기업의 수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음. 한국전력주식회사는 4월 21일 프라마톰社와, 이전에 미국과 7호기와 8호기를 구입한 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프라마톰–코제마社가 연대 출자한 수주 조건을 따른다는 문서에 서명은 했지만 15일 전부터 서울에서 프라마톰社와 한전 간에 제3자 개입 없이 차기 계약서의 큰 윤곽을 잡기 위해 토론이 이어지고 있음. 알스톰–아틀랑티크社는 원전의 터빈발전기 부문을 수주하게 되길 바라며 한전과 접촉했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약속을 얻어내지 못함. 한전 사장은 5월에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9월이나 10월경에 프라마톰社와 계약체결을 예정한다고 말함. 최종 결정은 김원기 부총리가 파리에서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국무총리를 방문할 때 알려 줄지도 모름.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장 프랑수아 퐁세(Jean François–Foncet)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서울을 공식 방문할 때 공표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음. 우리 측(프랑스)에서는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계약체결 시기와 맞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한편, 한국 정부는 9호기, 10호기, 11호기, 12호기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입찰을 낼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사석에서는 프랑스가 9호기와 10호기, 미국이 11호기와 12호기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함.

4.10. Centrales nucléaires – Rôle du 'Chairman Cho' (원자력 발전소 관련 조중훈 회장의 역할)

생산일자: 19800611
페이지: 18~18

정부 교체 이후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은 신임 장관들과 원전 건설 문건을 검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 자기 친구인 동력자원부 장관이나 부총리 모두에게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 노선을 취함으로써 주한 프랑스대사가 면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함. 에어프랑스사와 회의차 파리에 오는 조중훈 회장은 김원기 부총리 방불 시에 파리에 체류하면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할 예정임. 유관 기업들인 프라마톰社, 코제마社, 알스톰社는 조 회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해야 할 것이며 부총리를 대접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 조 회장을 초대해야 할 것임.

4.1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530
페이지: 19~20

9호기와 10호기 원전 협상 관련 정부 교체로 미치게 되는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임. 주한 프랑스대사는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과 면담했고, 조 회장은 새로운 부총리나 동력자원부 장관과 함께 전임 이한빈 부총리와 함께 작성한 개략적인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애써 줌. 국제부흥개발은행(BIRD)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김원기 부총리가 프랑스 바르(Barre)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라마톰社의 수주 선정을 공지할 수도 있음.
다음 주 주한 프랑스대사는 조 회장의 친구인 동력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를 접견할 예정임.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프랑수아 퐁세 프랑스 외무장관이 방한 때 공표될 것을 선호한다고 함.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은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의 계약체결 시점이어야 함을 주한 프랑스대사는 조 회장에게도 상기시켰고, 작년에 파리에서 유럽 총재에게도 이미 요청한 바 있음. 가까운 시일 내에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한을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알스톰社는 서둘러 움직일 것을 강조함.

4.12.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생산일자: 19800529
페이지: 21~21

우편물 내용

– 1980년 5월 15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서신(번호 541) 1부

– 1980년 5월 29일 자 정무국 원자력과의 노트 1부

주의사항: 정무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문서 검토 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답변 요망

4.13. Centrales nucléraires et maremotrices (원자력 및 조력발전소)

생산일자: 19800516
페이지: 22~24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은 프라마톰社의 가격에 동의하며 기술 제안이 현재 검토 중임을 확인해 줌. 10월 중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프라마톰社의 일정과 비교해서 2달 정도 지연된 것임. 한전 사장은 또한 이한빈 부총리가 파리 방문 시에 프랑스 정부에 프라마톰社 관련 한국 정부의 결정을 알려줄 것이며, 이어서 한국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는데, 이 결정이 바로 이 사안임을 적시한 것은 아님. 사안을 서둘러 진척하면 좋겠다고 하자, 한전 김 사장은 프라마톰社가 처음부터 미국이 7호기와 8호기에 제시한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제시했더라면 그만큼 시간을 벌었을 거라고 함. 9호기와 10호기 원전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대로 국제입찰을 할 예정이냐

는 질문에 대해 한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수의계약과 양립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함. 7호기와 8호기 곁에 11호기와 12호기가 세워지고 동해안에는 9호기와 10호기가 세워질 것이라고 함. 낙찰은 겉치레에 지나지 않음을 넌지시 암시함. 의도했건 아니건 현재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프라마톰社의 원전 건설 수주는 거의 확실해 보임. 드 리에방(De Lieven) 알스톰社 임직원과의 면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알스톰社의 수주는 확실하지 않음. 이한빈 부총리의 파리 방문 때 논의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명분을 얻는 데 도움이 필요해 보임. 지금부터 알스톰社는 한전과 소소한 논쟁거리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함. 한전 사장은 초반부터 알스톰社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전 연구원들이 알스톰社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줌.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난 일은 잊고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은 알스톰社에 달려 있다고 봄. 한전 김 사장은 소그레아(Sogreah)社가 기술 차원에서 조력발전 연구의 선두 주자로 분류되었음을 알려 주면서 가격 비교 작업만 남았다고 알려 줌.

4.14.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생산일자: 19800515
페이지: 25~32

1980년 1월 31일 자 프랑스 외무부 서신 No. 41 참조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업무처리에 따른 사후 조치로 프랑스 외무부는 여기 동봉한 각서교환 프로젝트를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보내왔고, 유관 프랑스 정부 당국자들에게 제출하게 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각서는 2년 전에 한국 측에 보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됨. 프랑스 외무부 측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필요하다면 서명 절차를 따르겠다고 함.

한불 양국 간 각서교환 내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불 양국 정부 간 기존 협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정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1)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한국에 제공한 핵물질 및 장비와 한국에 이전한 핵물질 및 장비로부터 생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획득한 핵물질이 다음과 같이 국가가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시킨 경험이 없는 국가에 이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함.
   A. 군사적 목적이나 핵폭발 장치 제조에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B. 이러한 핵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을 받게 됨.
   C. 그리고 이러한 핵물질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파한 적이 없는 국가로 재이전되지 않을 것임.
2)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핵물질 및 장비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이며, 첨부자료에 명시된 물리적 방호 수준을 충족하는 물리적 방호 조치를 적용할 것임.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서 기술한 협정을 확인하는 답신으로서 귀하의 각서와 현 각서가 양국 정부의 협정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며, 이 협정은 귀하의 답변서 날짜에 맞추어 발효되며, 양국의 상호 협정이 종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할 것임.
첨부자료: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수준별 협약 사항

물리적 방호 수준은 크게 3등급으로 구분됨. 3등급은 접근이 통제된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고 저장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2등급은 3등급의 제약 조건에 추가로 제한된 수의 출입구가 있는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경비원 또는 전자 장치로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구역 또는 동등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가 있는 구역 내 보관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1등급은 2등급의 제약에 추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적절한 대응 인력과 긴밀한 통신을 유지하는 경비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
첨부자료: 핵물질 분류표
핵물질은 크게 플루토늄, 우라늄 235, 우라늄 233, 조사핵연료(irradiated fuel)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성 방식, 각각 무게에 따른 등급 차이를 다룸.

4.15. Note.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 한불 각서교환 계획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800529
페이지: 33~34

1980년 5월 15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발송된 한국 측 각서는 내용 면에서 프랑스 측 각서들(1978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 보도자료, 1980년 1월 31일 서신 No. 41)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다음 사항에 주목할 것.

1)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 관련: 프랑스 측이 제공하는 장비나 정보를 사용하거나 도움받아 얻은 핵 장비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측은 런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교환 각서에 포함함.
2) 첫 번째 문단, A, B, C 문장 관련 핵 장비는 빠져 있고 핵물질만 언급되어 있는데, 런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우리 측은 포함함.
3) 첫 번째 문단, B문장: '감시'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통제'나 '보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임.
4) 두 번째 문단
   한불 양국의 물리적 방호 조치가 자국 영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영역 밖으로 이송 시에 취해진다는 문구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필수불결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5) 한국 측 각서에는 국가 간 이전 계약에 관해 1978년 4월 28일에 전달된 우리 측 각서에 있는 문단이 빠져 있음.
6) 1978년 프랑스 핵연료 제조회사인 세르카(CERCA)社가 판매한 시범 공장을 각서교환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우리 제안에 대해 한국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음.
7) 물리적 방호에 관한 첨부자료

한국 측 각서는 프랑스 측 내용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수용할 만함. 눈에 띄는 오탈자 2곳 지적함.(표 2번에서 60% 이하가 아니라 20%이며, 주석 a)의 플루토늄 수치 235가 아니라 238임)

4.16. Alsthom–Centrales nucléaires (알스톰–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514
페이지: 35~36

드 리에방(De Lieven) 알스톰社 임직원이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사장에 이어,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정보는 다음과 같음.

1) 한전은 정부에 원전 건설업체의 다변화를 제안함.
2) 한전은 이미 미국 및 영국과의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탓에 원자로 부문과 터빈발전기 부문을 각각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반대함.
3) 프라마톰社 관련 결정은 이한빈 부총리가 6월 말경에 파리 방문 시 프랑스 정부에 공지 예정. 한전과 계약서류를 검토해 보자는 알스톰社 임직원인 드 리에방(De Lieven) 씨의 제안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음. 드 리에방 씨는 한전이 인천 화력발전소의 교류발전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혹스러워했고, 향후 전문팀 파견 예정. 한전 사장은 드 리에방 씨가 떠난 다음 날 만나자고 연락함.

4.1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509
페이지: 37~38

조중훈 회장은 프라마톰社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거듭 말함. 9호기와 10호기는 프라마톰社에 맡기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이미 문서로 결정된 바라고 함. 조 회장에 따르면,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프랑스 측에 비공개 회담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이한빈 부총리가 레이몽 바르(Barre) 프랑스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소식을 공지할 것임. 이한빈 부총리의 비공개 회담 기회를 잘 활용하여 9호기와 10호기는 단일체이며, 프랑스는 프라마톰社와 마찬가지로 알스톰社 모두 수주에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함. 9호기와 10호기에 집착하기보다는 11호기와 12호기 입찰에도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입찰이 9호기와 10호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알스톰社의 경우 전임 대통령 생전에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선거 전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더욱 서둘러야 함. 이한빈 부총리에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한전과 빨리 협상한다면 가을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한빈 부총리와 다음 주에 만나 다음 주 방불 체류 일정에 대해 들을 예정임.

4.18. 알스톰社 임직원의 서울 방문

생산일자: 19800508
페이지: 39~39

알스톰-아틀랑티크社를 대표하는 임직원 2명 드 리에방(De LIEVEN) 씨와 카스테랑(CASTERAN) 씨는 5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을 방문해 한전을 대상으로 프라마톰社가 협상 중인 원자로의 터빈발전기 부문을 수주하길 바란다는 회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아마도 이들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할 것인데 원자로에 대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현 단계에서는 대사관 쪽에서 지원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함. 질문을 받게 되면 주한 프랑스대사관도 프랑스 업체가 터빈발전기 부문을 수주하길 원한다고 말해도 됨.

4.19.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No. 9 et 10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생산일자: 19800508
페이지: 40~42

3년에 걸쳐 원전 5호기, 6호기, 7호기와 8호기를 계속 건설한 한국 시장에서 프랑스 업체의 위상은 다음과 같음.

1) 프라마톰社는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원자로의 기술적인 문제 및 상업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임. 프라마톰社는 미국과 비등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전이 결정만 내리면 프라마톰社가 수주를 하게 될 것임.
2) 알스톰-아틀랑티크社는 이한빈 부총리가 파리에 도착하는 날짜인 1980년 6월 24일~25일 전에 한전과 터빈 발전 부문 협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3) 현재로서는 알스톰-아틀랑티크社가 제시한 가격이 미국에 비해 높긴 하지만, 가격경쟁에 나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임.
4) 알스톰-아틀랑티크社는 1980년 5월 10일에 서울에 드 리에방(P. de Lieven) 씨와 카스트랑(Casteran) 씨를 파견하여 한전 사장을 만나 업무를 설계할 예정임.
5) 알스톰-아틀랑티크社의 직원이 방금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프라마톰社가 선정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2기 관련 원자로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프랑스 정부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보고, 프랑스 측이 터빈 발전 부문을 굳이 한국 측에 주문하도록 강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전갈이 옴. 하지만 기술 측면이나 수익 측면에서 일부 요소만 건설하는 것은 이득이 없을 것이고,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부문 시설 모두를 제작한다는 국가적 인지도를 높여야 프랑스 산업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며, 알스톰-아틀랑티크社가 터빈발전기 부문을 수주하게 되면 한국 내 이미 쌓아놓은 알스톰社의 위상을 견고하게 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알스톰社는 프랑스 정부에 강력하게 터빈발전기 부문 제작 사업을 방어해 줄 것을 강권할 것임.
6) 프라마톰社가 수주하면 프라마테크(Framateg)社/소피넬(Sofinel)社 합자회사가 하청받아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전체를 맡을 수 있는데, 양쪽 모두 프랑스가 맡게 되면 업무 부담이 줄 것이고, 이미 원자로 및 터빈

발전 부문 제작 시 소피넬(SOFINEL)社와의 협업에 익숙해서 원전 시설 가동 시 생겨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됨.

4.2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502
페이지: 43~44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프라마톰社 간에 더 이상 가격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르브르통(LEBRETON) 프라마톰社 영업부장은 약간은 주저하면서도 조건부 확정으로 계약서 제출과 협상에 대하여 업무 일정 초반에 한국 측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음. 르브르통에 의하면, 일이 잘되면 업무 일정이 5월 말에 시작하여 8월 말에 끝날 것이며, 기술 세부 지침에 관한 1차 협상은 6월 초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함. 프라마톰社가 선정됐음을 알리는 데 주저하면서도 한전은 점점 번복 불가능한 업무에 가담하는 형세임. 동시에 한전의 원전 사업팀은 원전 4기에 대해 입찰을 붙인 상황이며 곧 관련 서류를 입수할 예정임. 웨스팅하우스社와 프라마톰社 중에서 고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미궁에 빠짐.

4.2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426
페이지: 45~46

한국 언론이 프랑스의 원전 사업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 장관들은 침묵하고 있음. 오늘도 한국 언론은 프랑스가 원전 수주를 했다고 보도함. 협상이 합의 쪽으로 성큼 다가선 데에는 미쉘 프레쉬(Michel 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을 도와서 프랑수아 지스카르 데스탱(François Giscard d'Estaing)이 나서 줌으로써 중간이자 수익산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임. 프라마톰社는 다시 인하된 비용을 제시했고 은행들의 도움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제시한 8백만 달러의 차액을 메꿀 수 있게 됨. 비용에 대한 합의는 양해각서로 이어졌고, 곧 체결될 예정이지만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몇 달을 기다릴 수도 있음. 프라마톰社의 의견대로 섣불리 선언하지 말아야 함.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프라마톰社 선정을 공표하는 방식과 날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들음. 조중훈 회장에 의하면, 이한빈 부총리가 앞으로 몇 주 후에 자신의 개인 방불 일정 중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함.

4.2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416
페이지: 47~48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의견이 결정적이라는 부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양윤세 한국 동력자원부 장관은 “일단 한전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그다음 수순을 밟는다”라고 함. 미국만이 유력 경쟁 후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입찰 없이 프랑스 손을 들어주면 당신들도 뭔가 내줘야 할 거요”라는 말에서 서독으로 추정됨. 결국 한전은 우리 측의 재정적 노력을 높이 사야 하는데, 한전을 통과하더라도 한국 정치권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임.

4.2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403
페이지: 49~51

한국의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프라마톰社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협상에 나섬. 프라마톰社의 대표단들이 서울에 2주 이상 머물면서 한전과 협상할 예정임. 프라마톰社는 입찰가를 낮추는 차원에서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DREE)에서 승인한 최종 비용을 한전에 이미 제시했었음. 하지만 양측의 해석 차이가 있는데, 한전은 웨스팅하우스社에 비해 입찰가가 8백만 달러 더 높다고 보는 데 반해, 프라마톰社는 최종 제안 비용은 미국보다 1천만 달러 낮게 상정되었다고 함. 이런 해석 차이를 보이게 된 연유에는 중간이자 수익산정을 저평가한 탓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전이 연료에 관하여 동일한 기술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임. 양측은 4월 2일 합의한 사항과 이견들을 명시하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게다가 비용 조달 측면에서도 프라마톰社는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1) 한전은 현재의 금리 7.6%가 바뀌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충분한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프라마톰社는 이 문제는 프랑스 정부 소관이라고 답함.
2) 연료와 관련하여 한전은 5년간 금리가 주 계약서와 동일한 7.6%이어야 하는데, 주 계약이 8%에서 7.6%로 인하된 후에는 7.75%로 계속 고정되어 있음을 지적함.
3) 여전히 연료 관련 건인데, 한전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출금은 85%인데 반해 프랑스는 겨우 80%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4.24. Audience chez le premier ministre (한국 국무총리 접견)

생산일자: 19800402
페이지: 52~53

한국 도착 당일 신현확 국무총리를 접견함. 신임장을 받은 날 대통령과 대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한불 양국 관계 상황을 보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함.

1954년~1979년까지 여러 차례 방문한 프랑스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는 신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가 한불 양국이 서로에 대한 감정과 양국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다소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963년 파리에서 열린 약 30톤의 한국섬유 쿼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아픈 기억을 소환함. 프랑스인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를 통해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에 동참해 주길 당부함. 원전 9호기와 10호기가 화제에 오르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장담은 안 했지만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파리 방문 때, 장 프랑수아 퐁세(Jean François–Poncet)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한국의 현안 해결에 프랑스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자,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함. 레미 테시에 뒤 크로(Rémi Teissier du Cros) 전임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해서 자신은 공식적인 친구를 넘어서 사적인 친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그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함.

4.2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301
페이지: 54~54

한국 국무총리 접견이 내일(화) 11시로 잡힘. 현재까지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의 원전 관련 서신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하겠음.

4.26. Mission a séoul du 24 au 27 mars 1980 / Centrales nucléaires KNU 9 et 10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1980년 3월 24일~27일의 서울 출장)

생산일자: 19800328
페이지: 55~57

1) 문서 전달 양식(55쪽): 프라마톰社 서울 출장 보고서를 외무부 원자력과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국으로 전달. 수신, 발신, 날짜 기재

2) 프라마톰社 보고서(56–57쪽)

3월 25일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이 배석한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프라마톰社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 7호기와 8호기 건설을 위해 웨스팅하우스社 및 벡텔社와 체결한 계약서 기준으로 한전이 예상한 목표 금액 대비 1,900만 달러 차이가 난다고 우리 측에 전달함.

(1) 한전은 원자로를 통한 2개의 추가 충전 비용 조달 관련하여 우리 측 제안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소회를 밝혔고, 우리 측이 철회 의사를 밝히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함.

(2) 연료 문제 관련 프라마톰社의 '표준화(standard)' 버전과 웨스팅하우스社의 '개량형(optimisé)' 방안을 비교하며 프랑스 측 제안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음. 프랑스는 한전의 비교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

우리 측은 한전에 프랑스 정부가 중간이자 수익산정에 대해 동의했음을 알렸고, 한전이 비교하기로 정한 날짜인 1979년 3월 기준 경제 요소들을 토대로 재산출한 결과 리보(Libor)금리 11.75%에 달하며, 기존 자금 조달 대비 약 1,800만 달러 차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함. 다음 날(3월 26일) 한전은 4~5백만 달러에 대해서만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함. 사실, 한국 측 계산 기준은 우리 측이 제시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85%가 아닌 70% 상환율율 적용하고, 리보금리 10%를 적용한 것임.

3월 27일 한전은 자사 사장이 배석한 최종 회의에서 양측의 비용 차이가 너무 커서 프라마톰社를 선정해야 할 명분을 얻지 못했다고 밝힘. 프랑스가 0.3% 금리를 인하하는 데 동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넌지시 언급함. 우리 측은 불가능하며, 이자 비용에서도 이미 상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함. 한전은 우리 측 참관 하에 현재의 양측 입장들을 정리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 제출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필요하면 프랑스 정부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함. 르브르통(LEBRETON) 씨는 서울에 머물면서 사안 검토에 참여할 예정임. 한전의 고위급 인사 배석 회의에 참석해 보니, 한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후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다시 업체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는 점에서 불쾌한 인상을 받음. 미국 측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눈치임.

4.27. 신임 주한 프랑스대사의 원전 사업 향후 전망

생산일자: 19800329
페이지: 58~61

부지런한 한국인들 덕택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임장을 제출할 수 있었음. 원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임. 미국과의 입장 때문에 더욱 최종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며, 프랑스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외무부 장관도 동감하는 눈치이지만, 프랑스의 수주를 약속하지는 않음. 언론 보도도 뒤죽박죽임. 프라마톰社의 선정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5월이나 6월에 입찰이 나올 것이라고 함. 르브르통(LEBRETON)씨는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중간이자 수익산정에 관해 설명할 예정임.
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 프라마톰社에 의하면 입찰 가능성은 없으며, 설령 한전이 프랑스 측 제안을 신뢰한다고 해도 사업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됨. 한국은 미국에게 프라마톰社를 선정한 이유로 다양한 연구 분야, 연료 생산이나 증식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식의 명분을 찾고자 할 것임.
원전 수주의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제인인 한국 국무총리를 접견할 때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의 서신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함.

4.28. Centres nucléaires –A.F.P. (원자력 발전소 관련

생산일자: 19800327
페이지: 62~62

프라마톰社가 원전 수주를 했다는 한국 일간지 뉴스를 인용한 서울 주재 프랑스 통신사 AFP 보도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는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 AFP 사장에게 해당 보도를 수정해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프랑스 신문에서 해당 뉴스가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4.29. Centr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327
페이지: 63~64

프라마톰社의 대표단은 프랑스 대외경제국(DREE)과 프랑스 대외무역보험사(COFACE)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전력주식회사 임원진들에게 중간이자 수익산정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전달함. 비용개선을 통해 한국인들이 제기한 프라마톰社의 비용과 기준 비용 간의 차액, 즉 약 2천만 달러의 차액을 메꾸게 됨. 이틀간의 숙고 끝에 한전 임원진은 명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차액이 있으니, 금리 관련해서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함. 한국 측 주장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서울을 떠난 드고(DEGOT) 씨가 설명할 것임. 외무부 장관을 접견한 대사는 프라마톰社의 성공이 전 영역에서 한불 관계의 발전에 가져다줄 승수효과를 주목하게 하면서 프랑스가 원전 수주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함. 최규하 한국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것임.

4.3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324
페이지: 65~66

제라르 르브르통(LEBRETON) 프라마톰社 임직원의 1차 회담 결과 내용

1) 프라마톰社의 사업안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통해 정부에 제출되었지만, 한국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조중훈 회장이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 측과 프랑스 측 책정 가격에 차이가 나는 한, 프랑스 쪽에 유리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함. 따라서 르브르통 씨는 한전과의 대화가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도미니크(Dominique DEGOT) 프라마톰社 부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함. 한전 김 사장과의 약속은 화요일로 정해짐.
2) 미국 측의 반응을 전달하면, 웨스팅하우스社 사장을 동반한 미국대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하며, 한전 사장은 조중훈 회장에게 미국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힘. 웨스팅하우스社가 프랑스 측의 제안에 대해 불안한 눈치이니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으며, 한국 국무총리를 접견할 때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서명한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미국 측의 요구에 한국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여전히 업체 간 경쟁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3)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은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이제야말로 프랑스가 나서야 한다고 함.

4.3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320
페이지: 67~68

안부 인사차 대사관을 방문한 조중훈 회장이 자신 있게 조만간 동력자원부나 산업부, 외무부 장관들을 접견하는 자리에 원전 9, 10호기 건설에 프라마톰社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줌.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고액으로 산정된 비용이 깎일 수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함. 전임 주한 프랑스대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상기시키며 조 회장은 저에게 '행복한 대사(ambassadeur heureux)'라고 함. 조 회장이 구체적인 정보와 확실한 출처 없이 속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제라르 르브르통(Gérard LEBRETON) 프라마톰社 임직원이 오면 수주를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 한국 국무총리에 보내는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의 서신을 제가 부임 인사차 접견하는 기회에 전달할 계획. 대통령 접견은 3월 28일 확정, 총리 접견은 4월 초에 정해짐.

4.32. Affaire SGN/KNFDI (Dossier COFACE N. 54 147) (생고뱅社와 한국핵연료개발기구 사업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 서류 N. 54 147))

생산일자: 19800320
페이지: 69~70

인용 시작. 앞서 언급된 사건은 곧 보증위원회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일찍 알려 주길 당부함. 계약체결 지연에 대해서는 본래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야겠지만, 대출 시작이 연기되면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증위원회의 한결같은 입장임. 한국핵연료개발공단(KNFDI)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에 장비를 주문한 유일한 한국 기관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기관이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프랑스 기업의 능력에 대해 긍정은 아니더라도 중립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9호기와 10호기 관련 협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 웨스팅하우스社가 제기한 논거를 일부 상쇄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음.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보증위원회의 결정이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은 물론 총체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담당 기관들과의 현재 및 향후 관계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 주길 바람.
인용 끝. 메르(MER) 서명.

4.33. Note sur l'affaire Corée KNU 9 & 10 (한국 원전 9호기와 10호기 사업 노트)

생산일자: 19800307
페이지: 71~73

1980년 1월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합의한 대로, 원전 9호기와 10호기에 관한 협상이 2월 26일에 재개됨. 1월에 한전은 프라마톰社와 코제마社가 제안한 가격 간에 6천5백만 달러 격차가 있다고 적시했는데, 7호기와 8호기

건설에 미국 측이 제시한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임. 한전은 프라마톰社에게 재정비용과 담보금을 조정하여 이 차액을 없애라고 주문함. 이 차액은 프라마톰社가 제안한 표준형 연료봉과 OFA라고 불리는 개량형 연료봉, 웨스팅하우스社가 옵션으로 내놓은 것으로 한전이 7호기와 8호기 때 승인한 연료봉 간에 원전 가동 능력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임.

2월 26일, 프라마톰社는 기존의 두 업체 프라마톰社와 프라마테그(FRAMATEG)社가 제시한 입찰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1억 6천4백만 프랑(3천7백만 달러로 환산)의 비용 절감을 했고, 연료봉에 대해 프라마톰社와 프랑스 원자력청이 개발한 개량형 핵연료집합체(AFA, Advanced Fuel Assembly)와 프라마톰社가 웨스팅하우스社와의 특허 문제로 새로 제작한 최적화 핵연료집합체(OFA, optimized fuel assembly)를 제안했는데, 최적화 버전은 프라마톰社 조사에 따르면 4백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됨. 또한 주요 핵심 부분과 연료충전 부분의 비용조달 관련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당장 7호기와 8호기의 주요 핵심 부분은 수출입은행이 85% 이상을 재정 지원함. 비용개선 총액은 총 6천만 달러에 준하는 금액임.

3월 4일 제안서를 검토한 후 한전은 비용 차이가 1천6백만 달러로 줄었으나 기술이전이나 국내 하청 계약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한전은 1kWh당 원가를 결정하고 7호기와 8호기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다년간 작동하는 경제적 비용 계산을 함. 프라마톰社는 한전에 경쟁사와의 비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랑스 업체의 추가 비용개선 고려는 힘들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함. 한전이 입장을 고수하므로 드고(DEGOT) 씨는 서울을 떠났고 한전의 요청대로 서류 재검토 때문에 르브르통 씨가 현장에 남게 됨. 프라마톰社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개량형 연료봉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1천1백만 달러, 가동 기간에 따라 수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하므로 이 사업에는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알아야 하며, 협상을 지속하기에 앞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이 사업의 향방은 오리무중임. 한전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찰을 낼 수도 있고, 숙고 끝에 프라마톰社의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다른 보상책을 요구할 것이 확실함.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1,500만~2,000만 달러를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음. 향후 몇 달 내 한국 정치 지형도가 바뀌게 되면 한국 내부 사정도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일단 프라마톰社와 최대한 협상을 하다가 제반 사정을 모르는 차기 정부에 서류를 넘기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협상하게 될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음. 현재로서 한전이 여전히 프라마톰社에 수주를 맡기는데 적정한 비용과 기술 조건을 결론 내지 않은 한 정부가 굳이 한전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은 확실함.

4.34. Corée du Sud–Coopération nucléaires (한국–원자력 협력)

생산일자: 19800219
페이지: 74~75

한국은 석탄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여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고 1978년에 규모가 한층 늘어남. 2000년까지 2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45% 정도 달성함. 원자력 에너지는 1986

년에 전력공급의 20% 이상을, 2000년에는 50% 이상을 보장해 줄 예정임. 1978년 웨스팅하우스社가 건설한 600MW급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고리원전 2호기, 캐나다형 중수로(CANDU)를 건설 중임. 원자로는 각각 캐나다와 웨스팅하우스社가 맡고, 나머지 터빈발전기와 부속 계열은 영국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C)社가 맡는 형식임. 1979년 초 웨스팅하우스社는 900MW급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수주에 성공함. 7호기와 8호기에 대해 한국이 입찰을 진행하자,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프라마톰社가 입찰에 응했음. 7호기는 벨기에와 연대하여 응찰했는데 탈락했고, 8호기의 경우 프랑스 독자적으로 연료 주입부터 사후 재처리까지 연료 사이클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원자로를 제작하여 입찰에 나섬. 자신들의 제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제출한 서신에 핵연료 제작과 농축액 주입 등 한불 양국의 원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함. 프라마톰社와 웨스팅하우스社가 예비경선에서 선정되었으나 최종 웨스팅하우스社로 낙점됨.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원전들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데, 웨스팅하우스社가 낙찰받아 프랑스가 9호기와 10호기 수주에 실패하게 되면 한국의 목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프랑스는 계속 상기시켰음, 특히 바르(Barre) 총리가 한국의 국무총리에 보내는 서한에서도 프랑스가 9호기 10호기 원전 수주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현재 협상은 진행 중이나, 한국이 최근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에 연루되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것 같으며, 프랑스는 수주를 얻어내고자 상당히 노력 중임.

4.35.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의 한불 각서교환 계획)

생산일자: 19800131
페이지: 76~78

1월 20일 작성된 서신 No. 69에서 주한 프랑스대사는 양국 간 핵 이송 관련 각서교환 프로젝트에 이미 빈에서 체결된 핵물질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존재하니 굳이 양국의 합의가 불필요하지 않냐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프랑스 외무부의 입장은 다름. 먼저, 프랑스 외무부는, 빈협약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문제에만 국한되는 데 반해, 한불 각서교환 프로젝트는 핵물질 및 장비 이전 및 재이전 문제를 다룸. 국제 협약에서 물리적 방호 자체는 나라 간 이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양국에서 이 협약이 발효 중이라면 서신의 마지막 문단은 굳이 불필요하겠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으니, 서신 교환 프로젝트에 서명하려면 마지막 문단은 넣어야 함. 또한, 각 나라에서 취해야 보호 조치 관련 다른 조항들도 협약에 누락되어 있으니 넣어야 한다고 봄. 또한 1978년 세르카(CERCA)社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판매한 원전 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각서교환 프로젝트에 명시된 보장을 받고 싶다는 점을 한국 측에 알려 주길 바람.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이 보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표시하는 선에서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에 한국 측에 별도의 각서를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봄.

4.3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130
페이지: 79~80

베고(BEGOT) 씨가 이끄는 프라마톰社 파견단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원전 9호기 및 10호기 관련 논의를 2월 26일쯤 재개하는 데 합의했음. 이번 논의는 원칙대로라면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게 되며, 2월 26일은 미국 출장에서 한전 사장이 7호기와 8호기의 가격을 정하고 귀국한 시점임. 베고 씨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원전 건설 진행을 지체하고 싶지 않으므로 이번 협상이 결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한 프랑스대사도 이에 동의하며 두 달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프랑스 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함. 프랑스의 입찰가는 5호기와 6호기를 위해 제시한 미국의 처음 입찰가 대비 경쟁력이 있으나 벡텔社가 3천만 달러를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게 됨. 프라마톰社의 노력에 프랑스 정부의 공권력이 더해지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돈만이 관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게 됨.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언급한 2가지,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COFACE)의 담보금리와 한국 상품의 프랑스 입국 제한 문제가 걸려 있음. 정치적인 성격도 개입되어 있는데 한전 단독으로 수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다른 현안들로 골몰해 있던 현 정부가 더 이상 책임 전가를 하기 어려울 것임.

4.37. Corée du Sud (Centrales nucléaires) (한국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800123
페이지: 81~82

프랑스 국가수출관리부서(Le Service du contrôle des exportations au département d'Etat)는 웨스팅하우스社의 원전 7호기, 8호기의 한국으로의 수출 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 줌. 관련 서류는 프랑스 총리실, 동력자원부, 무역부 등 유관부서 간에 검토 중인데 수출 요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관련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몇 주 후면 검토가 끝나고 수출허가증이 배부될 예정임. 프랑스 측이 자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하면 수출 불가 통보가 나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함. 여기에 적혀 있는 정보는 워싱턴 주재 웨스팅하우스社 관계자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받았음.

4.38. Note. Projet d'échange de lettres franco-coréen sur les transferts d'articles nucléaires (핵 물질 이송에 관한 한불 각서교환 계획 노트)

생산일자: 19800111
페이지: 83~84

1) 문서 전달 양식(83쪽)

2) 노트(84쪽): 권동만 신임 주프랑스 한국공사가 프랑스 정무국 원자력과를 방문함. 권 공사에게 1978년 이

후 중단된 핵 물질 이송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보장에 관한 한불 각서교환 프로젝트가 있음을 알렸으나, 금시초문이었던 한국 공사는 부서에 문의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4.39. Vente d'uranium de Colombie Britannique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캐나다 BC 주의 우라늄 판매)

생산일자: 19791218
페이지: 85~87

BC(British Colombie)주 산 우라늄 2,050톤을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은 달러로 환산하면 3억 달러에 달함. 계약서에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굴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부분 해지가 가능하며 계산 방법 관련 문구는 없지만, 심사단에만 기밀문서로 전달했을 수 있음. 계약은 실제로 광물 전담 심사위원회의 검토 하에 체결되었고, 협약 사항에 대해 위원회 검토가 들어가고, 현재 금지된 우라늄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됨. 한국 상대 우라늄 수출 사업안 때문에 수많은 환경 보호단체가 과격 시위를 벌였는데, 우라늄 판매는 핵무기를 양산하게 되므로 우라늄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임. 이 사업은 작년 10월 극동아시아 지역 순방길에 리차드 베드퍼드 베넷(Richard Bedford BENNETT) 캐나다 총리가 한국과 맺는 경제협정의 첫 번째 실행 사례가 되는데, 서울에서 이미 1982년부터 한전에 380만 톤의 브리티시콜롬비아산 석탄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2번째 사례가 될 것임.

4.4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214
페이지: 88~88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사장을 방문한 르브르통(LEBRETON) 프라마톰社 임직원은 주 초반에 논의했을 때 비해 부사장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이었다고 함. 한전 측 송 부사장은 현재 한국 쪽의 목표액에는 변화가 없고, 1월에 논의를 재개할 테니 가격(인하)에 좀 더 노력해 달라고 함. 경쟁업체 쪽에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는 명분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박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으니 더욱 명분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음. 프랑스 업체가 연료를 제공하게 되면 4천만 달러의 악조건을 달게 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코제마社 측이 해명해서 분위기가 쇄신됨.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신임 부총리에 이한빈 씨가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3년 전부터 주한 프랑스대사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임.

4.4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212
페이지: 89~89

보름쯤 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논의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주초에 도착한 프라마톰社와 코제마社의 대표단을 접견할 때 단호하고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함. 한전은 원자로 비용과 구성요소 비용 비교 방식에 대한 원론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마치 프랑스 측 제안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함. 르브르통(LEBRETON) 프라마톰社 영업부장에 따르면 한전의 추산과 달리 코제마社가 연료를 제공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중요하다고 함. 현 단계에서 프랑스 건설업체는 달아나는 고객을 다시 붙들어 세울 이유가 더는 없으니, 정부에 입장 정리를 맡기겠다고 함.

4.42. Vente d'uranium canadien à la Corée du Sud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우라늄 판매)

생산일자: 19791205
페이지: 90~91

토론토 경제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이 지난주에 캐나다 회사가 1983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에 우라늄 6백만 파운드를 판매한다는 계약서 2장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밝혀냄. 이 우라늄은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배송되기 전에 미국에서 농축될 예정이라고 함. 캐나다의 핵연료 처리 전체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이 계약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다고 함. 한국에 납품할 우라늄 대부분이 매장된 곳의 채굴 조건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음. 현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왕립위원회에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심사 중인데, '글로브 앤 메일'에 의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인들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함.

4.43. 원전 협상 지체 배경 및 전망에 대한 주한 프랑스대사의 서신

생산일자: 19791127
페이지: 92~93

테시에 뒤 크로 주한 프랑스대사가 한국과의 원전 협상이 지체된 배경 및 향후 사업의 향방을 전망하여 작성한 서신

11월 16일에 뒤몽(Dumont) 씨 편에 전달받은 누아빌(Noiville)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의 메시지에 감사드림. 뒤몽 씨를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소회 및 경제적 논의의 진척 상황을 듣게 될 것임. 프레쉬(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은 대선과 내각 교체, 국회 예산 논의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으니, 내년 초로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실망해서 돌아갔음. 프레쉬 국장은 원전 사업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감이 없는 생각으로 보임. 이 사업에 관해 주한 프랑스대사는 김종필 씨에게 르브르통(LEBRETON) 프라마톰社 임직원이 현재 파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파일을 전달함으로써 계속 연락을 취하여 이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할 예정임. 향후 내각 개편 후에 외무부 장관에 해당 파일이 전달될 수도 있음. 프라마톰社와 한국전력주식회사 간 논의가 12월 중에 재개된다면 1월에는 사안이 좀 더 명확해질 것임. 설령 원전 사업 수행이 몇 주 지연되더라도 사안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임. 그동안 한국 정치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야 함. 12월 10일과 11일에 파리에 이틀 정도 들렀다가 새 정부 개각에 맞춰 돌아올 예정인데, 10일과 11일 중 면담을 원하며, 디에트리히(Dietrich) 씨에게 약속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겠음.

4.4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126
페이지: 94~95

테시에 뒤 크로(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가 현재 원전 9호기와 10호기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함.

(1) 11월 24일 떠나기 전에 르브르통(LEBRETON) 씨는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12월 중에 프랑스 업체들인 프라마테그(FRAMATEG)社와 소피넬(SOFINEL)社, 코제마(COGEMA)社와 함께 논의가 재개될 것을 확신함. 르브르통 씨는 지난달 중단된 논의는 프라마테그社와 소피넬社가 맡은 사업 비용 때문에 좌초되었다고 함. 프랑스 측이 제시한 가격은 미국 벡텔(Bechtel)社가 5호기와 6호기 건설비용의 단순 연장선에서 산정한 7호기와 8호기의 가격을 당연히 훨씬 웃돌게 되는데, 차액은 3천만 달러임.

(2) 앞으로 재개될 논의에 대해 한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입찰 조건을 유지하고자 할 테니, 프랑스 측도 수의계약 언급은 자제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닐 것을 당부함. 현재 상황에서 진단이 어려움. 다만, 한국 대통령의 서거와 워싱턴의 대처로 인해 프랑스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고충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수일 내 가동될 과도기 정부가 서거한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으니 꼭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닐 것임.

4.45.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123
페이지: 96~97

미쉘 프레쉬(Michel 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이 한국 현지에서 진행한 논의들에서 프랑스가 9호기와 10호기를 수주할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얻을 수 없었음. 한국 공무원들은 프랑스의 제안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업체 대비 프랑스를 선정해야 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뉘앙스를 풍

김. 프랑스 대표단은 회의록에서 입찰에 대한 언급을 가까스로 삭제할 수 있었음. 프레쉬 국장의 한국 측 파트너는 장관이 프랑스가 참여하는 것을 싫어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니 양국 차원에서 은밀하게 논의하자고 합의함. 프레쉬 국장과 주한 프랑스대사가 직접 부총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프레쉬 국장이 원자력 협력을 화두에 올리자, 부총리는 오히려 프랑스가 서울 지하철 신규 노선 건설 사업 경쟁에 나설 것을 넌지시 제안함. 외무부 장관은 유럽국장을 통해 지금 자신이 프랑스 측 변호인이 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고, 남들이 프랑스 업체의 가격조건이 불리하다고 말하면 대책이 없다고 알려 줌. 대사가 보기에는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측이 시간을 벌려는 명분을 쌓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프레쉬 국장은 가격 면에서건 경제 정치적 상황에서건 프랑스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함.
오랫동안 대통령 후보자였던 김종필 총리가 과연 워싱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위험을 감행할지가 관건임. 나는 김종필 총리가 진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 그분이 제대로 보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설령 한국이 입찰을 선택하더라도 새 정부 개각 이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

4.46.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116
페이지: 98~98

외무부 유럽국장에 의하면 현 정부는 프랑스 측이 관심이 있는 사안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고 다음 달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수립될 것이라고 함. 리셉션 장소에서 만난 부총리도 나에게 동일한 말을 했음. 장관 방문을 잠시 유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음. 11월 15일 국회에서 한 종합정책 성명에서 임시 대통령은 9호기와 10호기 원전이 곧 착공될 것이라고 단언함.

4.47. Contrat de vente d'uranium (우라늄 판매 계약)

생산일자: 19791116
페이지: 99~100

페코 월젠드(Peko–Wallsend Ltd)社와 이지인더스트리(EZ Industries)社는 지난 11월 9일 한국전력주식회사와 1983년부터 10년에 걸쳐 우라늄 2,500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파운드당 32~36달러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억 6천만~1억 8천만 달러에 육박함. 앤소니(M. Anthony) 호주 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노동당 정부가 우라늄 수출에 반대했던 시기인 1972년 12월 이후 첫 우라늄 수출에 대해 기뻐하면서 우라늄 판매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수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함. 호주는 한국과 지난 5월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이 계약은 당장에는 호주 레인저(Ranger) 광산의 정부 보유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한전과 미나톰(Minatome), CSR이 연대하여 나선 입찰이라는 점에서 약간 매력이 떨어짐. 페코社 및 회사의 보유지분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한국 측의 배신이라고도 하지만 당시 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

기업에 파는 것은 기껏해야 정부 지분의 25%라고 공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한불 양국에 이득이 되는 컨소시엄 참가는 이제 힘들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이 계약을 통해 향후 레인저 광산의 연방 지분 판매 협상 테이블에서 페코 월젠드(Peko-Wallsend Ltd)社와 이지인더스트리(EZ Industries)社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음.

4.48. Fiche pour le Ministre (외무장관을 위한 자료)

생산일자: 19791114
페이지: 101~101

프레쉬(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은 11월 7일 토요일 제1회 한불공동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라마톰社 대표단도 서울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원전 협상을 재개함. 11월 14일 6시, 지라르(M. Girard) 프라마톰社의 총책임자와 면담 예정. 프레쉬 국장과의 전화 통화 중에 한국 측에 구두로 전달할 내용 제안: 프랑스 측 입장은 불변, 일단 대선 문제가 해결된 후 1월경에 장관의 서울 방문 예상하지만, 장관의 서울 방문은 원전 2기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음.

4.49.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113
페이지: 102~102

제라르 르브르통(Gérard Lebreton) 프라마톰社 임직원은 원칙상 16일, 아무리 늦어도 19일에 서울 방문. 현대그룹 및 한국전력주식회사와 다시 접촉 예정임. 상대측에게 프라마톰社가 협상 중단이 필요한 점을 완벽히 이해했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되길 바라고 있음을 전달 바람.

4.50. Fiche d'entretiens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참석 프랑스 국무장관의 한국 측 요인과의] 환담 자료)

생산일자: 19791031
페이지: 103~104

한불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던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 즉, 원전 협상은 거의 막바지였고, 12월 17일 외무부 장관 한국 공식 방문 예정이었으며,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2개의 한불공동위원회가 과학기술문화 파트와 경제 파트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이었음. 프랑스 국무장관이 장례식 조문을 가게 되면 한국 정부 요인들과 원전 문제와 장관 방한 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

1) 원전에 대해 거의 프랑스 업체가 수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던 찰나에 한국 측 사정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기회를 빌미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서거로 약해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받고자 더욱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되니, 국무장관은 협상 현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을 단언하는 것이 좋을 것임.
2) 장관 방한 건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장 프랑수아 퐁세(Jean François–Poncet)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파리에서 주프랑스 한국대사에게 말했듯이 원전 계약이 체결될 때만 장관 방한은 의미가 있다는 점, 장관은 당연히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응대를 원하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원전 계약일에 맞춰 서울 방문을 최대한 조정해 보겠다고 말할 것.
3)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향후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조만간 개최될 한불공동위원회 개최를 반대할 의사가 없으며 과학기술 및 경제협정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여 장관 방한 시에 조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할 것.

4.5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029
페이지: 105~105

프라마톰社와 한국 측 간에 논의가 재개되어 입찰 가격이나 업체를 선정하려는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 지라르(Girard) 프라마톰社의 총책임자(Directeur général)는 10월 27일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 측에서 양해를 구했고, 보좌관으로부터 당분간 시국 상황으로 인해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옴. 지라르 씨는 협상을 위한 기술전문팀의 서울 파견을 취소한 후 당일 서울을 떠남. 최규하 과도내각 체제는 전임 대통령의 유지를 수행할 것이고 외국 파트너들에게 약속들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안심시킴.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가 끝난 후에야 이 과도정부가 얼마나 지속될지 후계자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는 아무래도 미국의 조언을 더 수용하게 될 것임.

4.5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026
페이지: 106~108

한국 정부의 영어 일간지는 10월 24일 프레쉬(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의 취임 바로 다음 날 동일 페이지에 원전 9호기와 10호기에 대한 다소 다른 톤의 기사 2개를 게재함. 해당 기사의 복사본은 부록 첨부함.

첫 번째 기사 제목은 '프랑스, 한국의 수입 방식 재검토'이며, 내용은 1차 한불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록을 요약한 것으로 원전에 대해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프레쉬 국장의 요청으로 해당 문장이 삭제되었다는 것

임. 두 번째 기사의 정보 출처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후견 역할을 하는 동력자원부이고, 기사 제목은 '전기 에너지 개발 계획에 3,650억 원 투입 예정'으로, 프라마톰社의 낙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함. 이런 식의 보도는 매우 흔한 일임. 입찰을 통한 수주 업체 선정은 처음으로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때 시행되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제 된 적이 없고, 9호기와 10호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 방식이 지켜질 거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임.

4.53. Origine: Affaires scientifiques générales Objet: Préparation de la commission mixte: Coopération nucléaire (일반과학 사안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 한불공동위원회 준비)

생산일자: 19791022
페이지: 109~109

한국이 제안한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2개, 즉 '높은 중성자속(中性子束) 연구용 원자로와 증식로의 안전'을 다음 공동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기상조인 것 같음. 프랑스 입장에서 '증식로의 안전'은 상당한 규모의 교류를 전제하므로 원전 9호기와 10호기 구매가 끝나 양국 협력이 시작되면 생각해 볼 수 있음. 3월 9일 국무총리의 서신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에게 2월 26일 보낸 서신도 같은 방향을 담고 있음.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는 공동위원회 회동 전에는 추진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부처 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아직은 언급할 수 없음. 한국 측이 이 사안들을 굳이 상정하고 싶다면 최대한 고려해 볼 의향은 있음.

4.54.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1016
페이지: 110~111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지난주 대화를 재개한 프라마톰社는 새로운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표명함. 한전 측은 프랑스 업체가 제시한 가격조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도 않고 논의를 중단시켰는데, 다만 추후 재협상 여지는 남겼음. 한전은 프라마톰社에게 프랑스 정부에 비용 조달 조건을 좀 더 개선해 보라고 조언함. 테시에 뒤 크로(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는 단가 조정을 하면 프랑스가 미국보다 더 유리해질 것 같으며, 시기가 관건이라고 판단함. 프레쉬(Freyche) 프랑스 외무부 대외경제관계국장이 오면 질문을 받을 것 같으니 방문 날짜 확정 전에 회사 측에 미리 자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봄.

4.55.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 Note du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n date du 1er octobr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 10월 1일 자 프랑스 원자력청의 노트)

생산일자: 19791001
페이지: 112~113

1) 우편물 명세서(112쪽): 수신, 제목, 용도 기재(정보 제공 용도)
내용: 원자력 발전소 판매에 관련된 프랑스 원자력청의 보고서 1부
수신: 외무장관 비서실, 아시아국, 주한 프랑스대사관

2) 프랑스 원자력청 노트(113쪽)
9월 28일 현경호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미쉘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을 방문한 기회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상무 담당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수일 내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을 원한다고 전함.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빌려 프랑스 업체가 원전 2기를 건설하게 된 것을 발표하고 싶다고 하면서, 12월 19일로 예정된 장관의 공식 방문 날짜까지는 프라마톰社와 한국전력주식회사 간 수의계약 협상 대신 재입찰을 붙이라는 경쟁업체들의 성화를 이겨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입찰 공지가 되면 프라마톰社는 경쟁사 대비 현재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인데 한국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함.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참사관은 한국 측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함.

4.56. 원전 9호기 10호기 관련 프랑스 업체의 신용보험 신청서

생산일자: 19790925
페이지: 114~116

원전 9호기 10호기 관련 프랑스 업체의 신용보험 신청서 각 1부씩 총 3부임.

1) 프라마톰社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 즉 한국에 원전 2기를 건설할 것이고 모든 건설 장비 및 기술 원조를 약속한다는 내용 및 비용 상세 내용, 비용 지불 방식, 위약금 변제 방식, 보증금 등 기재
2) 알스톰–아틀랑티크社가 한전과 맺은 계약 내용, 즉, 각 1,000MW 용량의 터빈발전기 부문을 설치 및 가동한다는 내용 및 비용 상세 내용, 비용 지불 방식, 위약금 변제 방식, 보증금 등 기재
3) 프라마톰社가 한전과 맺은 계약 내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장치 조립 시설을 납품한다는 내용, 비용 상세 내용, 비용 지불 방식, 위약금 변제 방식, 보증금 등 기재

4.5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921
페이지: 117~118

드 리에방(De Lieven) 알스톰社 임직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협상을 중단했을 수 있음. 한국은 처음에는 장관이 10월에 방한하는 것으로 확신했는데, 방한이 12월에나 이루어지는 것은 애초 예정했던 일정을 어기고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협상은 10월에 끝날 거고, 계약은 프랑스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장관이 10월에 서울에 오면 공지할 거라고 함. 11월에는 입찰을 공지함.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프라마톰社, 알스톰社와 한전 간의 수의 협상에 관한 비밀이 공개될 것이고 이 협상을 좌초시키려는 독일과 미국의 압력이 이미 상당히 거세다는 후문이 있음. 이렇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은 프라마톰社의 한국인 에이전트인 조 사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청와대의 소환을 받아 한국대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들고 파리에 갈 채비를 하는 것 같음. 향후 대처를 잘해야 하니 이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알려 주길 바람.

4.58.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et visite du Ministre (원전 판매와 외무장관 방한)

생산일자: 19790828
페이지: 119~120

8월 27일 외무부 장관 접견 시에 민병기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장관에게 7월 26일에 합의된 1차 회담 내용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전달함. 원전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입찰 없이 프랑스 업체에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맡기기로 했으니, 프랑스기업도 이에 부응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함. 한국대사는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를 대상으로 경제적 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함. 미국 측 압력을 고려해서 향후 극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장관 방한 이전에는 어떠한 계약체결도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함. 민병기 대사는 한국 정부가 사업가들과 한국 기자들에게 필요한 입단속을 지시할 것이니 현재 서울에 체류 중인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 및 소피넬(SOFINEL)社 대표자들에게도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당부함.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답변: 외무부 장관 방한 관련하여, 민병기 대사의 요청으로 장관은 12월 17일, 18일, 19일로 방한 일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협상이 원하는 만큼 진척되지 않으면 늦출 수 있음. 장관 방문 시 기업인들을 수행원으로 고려하는데 문화 분야의 유명 인사들도 포함하여 경제 협력뿐 아니라 문화협력 관련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함.

4.59. Note pour le ministre. 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민병기 주프랑스 한국대사 접견 관련 장관을 위한 노트)

생산일자: 19790824
페이지: 121~122

주한 프랑스대사관 및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민병기 대사는 외무부 장관의 방한 및 원전 판매 준비 목적으로 면담을 요청함. 8월 16일 이후 서울에서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의 대표자들과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이 접촉하여 원전 9호기 10호기 건설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을 확인함. 7호기와 8호기를 수주할 때 미국업체가 합의한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한국 정부는 장관 방한을 통해 프랑스 측이 한국에 미국의 압력을 상쇄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관 방한 때 수주 결정을 공표할 예정임. 민병기 대사는 장관에게 가격 문제 및 신용보증 금리 인하, 수입 쿼터제 철회 관련 문제들을 주목시키고 장관의 방한 날짜를 확답받고자 함.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원전 수출을 발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미해결 문제인 가격협상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지적해도 좋을 듯 함. 또한, 현재 검토 중인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에 시연하여 경제협정을 체결할 기회로 방한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을 것임.

4.60. Attribution des centrales nucléaires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사 배정)

생산일자: 19790813
페이지: 123~124

한국 신문들에 웨스팅하우스社가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업체로 최종 선정되었음이 방금 발표됨.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는 배제되었고 입찰 원칙에 따른 결과로 보임. 총 건설비용은 거의 국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조 1,360억 달러에 육박하며,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전남 영광군 계마리에 세워지는 7호기와 8호기는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완공될 예정임.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시 합의된 이자율에 비해 0.37% 낮은 연이율 8%로 정해졌고, 다만 기간 및 담보조건은 추후 협상하기로 함. 웨스팅하우스社의 배정 관련 언론 발표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해당 업체에 공식 통보한 후 며칠 후에 이뤄졌고 프라마톰社를 서울에 소환하기 보름 전에 시행됨.

4.6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808
페이지: 125~125

면담을 요청하여 만난 한국 외무부 유럽 국장이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업체로 프랑스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며칠 후 열리게 될 협상 중에 가격이나 비용 조달 방식에 합의가 되면 업체 선정이 구체화될 거라는 소식을 알

려 줌. 어제 날짜 현지 신문에는 재입찰이 언급되었다고 하자 국장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축함. 여기에 국장이 덧붙이길, 장 프랑수아 퐁세(Jean François–Poncet)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업체 선정을 발표할 것이고, 장관의 방문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프랑스 측의 정치적 행동이며, 석 달 내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함.

4.62. Pour le Ministère de l'Economie de la part du conseiller commercial (경제부에 보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보고)

생산일자: 19790803
페이지: 126~127

베르트랑 로랑스(Bertrand Laurence) 상무관이 미국업체에 배정된 원전 7호기와 8호기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함.

인용 시작. 한국 신문은 원전 7호기와 8호기의 증기 발전기와 원자로 납품 업체로 웨스팅하우스社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방금 발표함. 건설 총비용은 거의 국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조 1,360억 달러에 육박하며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전남 영광군 계마리에 세워지는 7호기와 8호기는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완공될 예정임.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시 합의된 금리에 비해 약 0.37% 낮은 금리인 8%로 정해졌고, 다만 기간 및 담보조건은 추후 협상하기로 함. 웨스팅하우스社의 배정 관련 언론 폭로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해당 업체에 공식 통보한 후 며칠 후에 이뤄졌으며 프라마톰社를 서울에 소환하는 날짜로 예정된 8월 16일 기준 15일 전에 시행됨. 프라마톰社의 프랑스 통신원과 연락하여 이 발표의 파장을 관측하고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향후 9호기와 10호기 관련 협상을 시작해야 할지 살펴보겠음. 인용 끝.

4.63.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9 et 10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전 9호기와 10호기)

생산일자: 19790803
페이지: 128~128

알스톰社는 8월 15일 원전 9호기와 10호기의 터빈발전 부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소환 통지를 받았다고 함. 알스톰社 대표단으로 리에방(Lieven), 포쉐(Pochet), 헤이만(Heymann), 베르토나지(Bertonazzi) 씨가 참석할 것임. 이들은 인사차 대사관을 방문 예정이며, 도착 즉시 베르트랑 로랑스 상무관에게 연락할 것임.

4.64. Note. Entretien du ministre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 노트)

생산일자: 19790727
페이지: 129~130

7월 26일 외무부 장관은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접견했는데, 한국대사의 첫 번째 방문이었음. 민병기 대사는 박동진 외무장관의 10월 15일 이후 프랑스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초대 말씀을 전하고 조만간 원전 9호기와 10기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함. 최근 김종필 전 총리와 신현확 부총리를 환대해 주셔서 한국 정부가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전함. 외무장관은 연말 내에 한국 방문은 확실하다고 답함. 방문 시점은 한국 측이 원전 구매를 발표하는 날짜를 고려할 것이며 시기상 더 적절하다면 198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함. 장관은 서울에서 경제협정을 체결할 것이고, 한국 방문 시 기업체와 은행 대표단을 동반할 수 있으며, 장 프랑수아 드니오(Jean François Deniau) 씨가 이번 가을에 계획했던 방문은 연기되었지만, 한불경제위원회는 예정된 날짜에 개최할 것이라고 함.

4.65. Note pour le Ministre. Audi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 접견 관련 외무장관을 위한 노트)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31~133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프랑스 외무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할 것임. 현재 파리에 머물면서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만나 본 테시에 뒤 크로(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에 의하면,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사항만 갖고 있을 뿐 한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킬 권한이 없다고 함.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7호기와 8호기 건설은 웨스팅하우스社에 배당하기로 했으나 9호기와 10호기는 조건이 맞으면 프라마톰社에 배정하겠다고 할 것 같음.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음.

1) 상업적 조건: 한국은 신용담보의 금리를 낮춰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고, 무엇보다 알스톰社의 저가 입찰을 시도함.
2) 기술적 경제적 조건: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된 확보, 연료 제작 기술 습득, 농축우라늄 직접 취급, 증식로 제작 기술 습득에 관심이 많음. 첫 번째 핵연료의 안정된 확보는 1979년 바르(Barre) 총리가 한국 국무총리에게 쓴 서신에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프랑스 업체가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완벽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안심해도 됨. 둘째, 연료 제작 기술은 페퀘르(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원자력청과 프라마톰社는 핵연료 분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연료 기술 개발 중인데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도 줄 것이고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에 연료 제작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 셋째, 농축우라늄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 프랑스 원자력청과 코제마(COGEMA)社는 한국에

장기계약을 통해 농축연료를 제공할지, 아니면 한국이 다국적 연료농축 기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것임. 넷째 증식로 제작 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RFA와 함께 개발 중인 기술인 데다 전반적으로 기술이전 제약이 많음.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대해 장담하기 어려움.

3) 정치적 조건: 양국 간 특히 쿼터제의 변화로 인해 무역균형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고, 한국은 원전 구매를 프랑스 외무부 장관 방한과 연계하고 있으며, 암암리에 박동진 한국 외무부 장관의 파리 방문 건도 제기되고 있음.

4.66. Note.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et visite du Ministre à Séoul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및 프랑스 외무장관의 서울 방문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790726
페이지: 134~135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제부터 한국에 원전 2기를 판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됨. 미국 지미 카터(Carter)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후 한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社에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을 맡겼는데,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프라마톰社에게 맡기도록 승인했다고 하면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식적으로 이번 결정을 통보했다고 함. 그런데 이번 원전 수주 결정은 여러 부수적인 조건들이 수반되어 있는데, 첫째 원전 판매 관련하여, 가격 변동 없이 7.5% 용량을 줄이라는 것과 알스톰社가 터빈발전기 부문에 대해 제시한 가격 인상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둘째, 원자력 분야에서 다양한 연료 주기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R&D 협력을 조건으로 요구함. 마지막으로 한불 양국의 경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무역 불균형 해소 및 한국 상품의 수입쿼터제 철폐, 원양어업조약 체결 등을 요구함.

프랑스의 입장: 한국이 원전 수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 조건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을 때만 이 조건들을 수용해야겠지만,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 날짜를 11월 중으로 잡음. 물론 향후 원전 협상 전개 과정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날짜는 미뤄질 수 있음.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은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방문 일정에 맞추거나 프랑스 기업이나 은행권 인사들을 수행단으로 대동하는 식의 제언을 할 것임.

4.67.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13
페이지: 136~136

베르트랑 로랑스(Bertrand Laurence)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작성한 다음 글을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보냄.

인용 시작. 프라마톰社의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해 협상의 타협책으로 원자로 용량을 5% 늘릴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확인한 바도 없고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도 없음. 협상이 막바지에 있지만 프라마톰社의 대표가 현장에 있다면 한국 에이전트의 이러한 해석을 단호하게 근절할 수 있었을 것임.

4.68.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12
페이지: 137~137

프라마톰社에서 원자로의 용량을 5% 늘린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람. 프라마톰社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늘하는 기술 회의 중에 단순히 우발적으로 나온 언사일 뿐이며, 아직 프랑스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기술 발전에 대해 한국이나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더 나아가 프라마톰社는 기술력은 차치하고 성능 개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함.

4.6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11
페이지: 138~138

대외경제관계국(DREE) 상무관에게 보낸 전보 No. 322/25에 관심 두기를 바람.

4.70.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11
페이지: 139~141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보내기 위해 베르트랑 로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작성한 원전 사업 관련 보고서를 인용함.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은 어제 저녁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프라마톰社에 맡기고 터빈 발전 부문 역시 프랑스에 맡길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 줌. 이러한 결정은 공식적으로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프랑스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 외무부 장관이 보낸 서신의 형태로 통지할 예정이며, 같은 시기에 원전 7호기와 8호기 배정 소식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동의한 7.5~8%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궁극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취지임.
프랑스 업체에 수주를 맡기겠다는 결정에는 다양한 조건이 수반되는데, 원자력 분야 내부에서는 다양한 연료

주기 단계에 접근할 수 있고 연구 개발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 특히 쿼터제의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일단 정치적 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체들과의 논의로 이어질 것인데 한국은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프라마톰社와, 다음에는 알스톰社, 소피넬社, 연료공급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것임. 한국은 알스톰社를 따로 테이블에서 만나 알스톰社가 가격 인상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경쟁업체만큼 낮추는 식으로 이 회사에게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심산임.

협상 방식도 먼저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전 사장은 서울에 프라마톰社의 대표단을 소환할 것인데 이때 프라마톰社의 사장이 몸소 서울에 와서 동일 가격으로 원자로의 용량을 5% 늘려주는 식으로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할 것임. 세부 조항은 양쪽 실무단에서 정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기업체들도 협상을 진행할 것임. 자금 조달 방법 역시 한국은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부여해서 금리를 7.5%로 낮추기를 기대함. 프랑스 정부가 공식 수주권을 얻기 전에는 어떤 시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필요한 절차를 끝내야 할 것임.

4.7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09
페이지: 142~142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작성한 보고서 전달을 요청하는 콩브 전보 313/17에 주의 요함.

4.7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709
페이지: 143~146

베르트랑 로랑스(Bertrand Laurence)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DREE)에 보내기 위해 원전 수주 협상 관련 작성한 글을 인용함.

프라마톰社의 한국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원전 7호기와 8호기 관련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지난 월요일 원자로와 터빈발전 부문 모두 웨스팅하우스社로 결정한 보고서를 완성했고, 이제는 동력자원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의 재가를 받게 될 것임. 하지만 이달 말 전에 선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것인데, 이유는 끝까지 입찰자들을 경쟁에 부쳐서 웨스팅하우스社에게 막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임. 원전 9호기와 10호기에 대해, 프라마톰社의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프랑스 업체들, 즉 프라마톰社–알스톰社–소피넬社를 묶어서 일을 맡기되,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 판단함. 공급이 원칙적으로 분할발주가 아니라 일괄발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일괄발주와 분할발주 간의 비용 차이가 10% 미만이 되면 사실상 둘의 차이가 없다고 볼 것임.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이고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0%라는 수치에서 끝날 거라

고 예단할 수는 없음.

원전 9호기와 10호기에 대해 사실상 원자로는 프라마톰社가 제작하고 터빈 발전 부문은 알스톰社 아니면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C)가 맡는 것으로 정해놓았는데, 업체 경쟁을 붙여 알스톰社가 제시한 가격을 상당히 낮추려는 의도로 보임. 실제로 알스톰社가 지난주 금요일 최저가로 낮추기 전에는 알스톰社와 GEC의 가격 차이는 5천만 달러에 달했던 것 같음. 일단 알스톰社가 GEC보다 가격 우위에 있어도, 프라마톰社–알스톰社–소피넬社는 여전히 미국업체보다 15%를 상회하므로 한국 정부는 이 차이를 줄이고자 애쓸 것인데 결국 프랑스로부터 외교채널과 기업 간 협상을 통해 패키지딜을 얻어내는 것으로 일단락됨. 공급가격 전체에 대한 인하 요구 뒤에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함. 먼저, 알스톰社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데 반해, 한국 정부 입장에서 프라마톰社는 더 이상 가격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봄. 가격 인하 요구와 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충돌함. 농축우라늄 공급 관련 미국 업체와 프랑스 업체 간의 가격 차이는 과잉 평가된 것임. 7.5% 금리 인하를 얻어내려고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음.

이상의 정보 내용은 극비로 수집된 정보로서, 한전은 프랑스 측에 요구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난처해질 것임. 프라마톰社가 9호기와 10호기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7호기와 8호기 대비 5% 성능이 높은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최종 협상을 위해 남겨둬야 할 카드이기 때문임.

4.73. Centres nucléaires en Corée du Sud – Note sur le projet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de 900MWe en Corée du Sud (Korea Nuclear Units 7 and 8)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 한국의 900MWe급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노트)

생산일자: 19790614
페이지: 147~151

1) 문서 전달 양식(147쪽): 수신, 발신, 날짜

2) 서신(148쪽): 대한민국 신현확 총리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프라마톰社가 원전 7호기와 8호기 입찰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별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보냄.

3) 보고서(149–151쪽): 1978년 7월 중, 프라마톰社는 한국전력주식회사에 900MW급 원전 2기 건설 공사 입찰에 지원함. 원자로 핵증기공급계통(NSSS)과 일체형 원자로를 제작하는 경쟁사 대비, 원자로 제작에만 관심이 있었던 프라마톰社는 한전에게 한국의 원자로들이 프랑스 원전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므로 프랑스 원자로 건설 경험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프랑스형 원자로 제작에 대해 지지를 호소함. 하지만 한전은 미국과 벡텔社의 압력을 받아 핵증기공급계통 원자로를 선택하게 됨. 1978년 9월 이후 한전은 여러 경쟁업체 간에 저가 입찰 경쟁을 붙였고, 프랑스 측도 가능한 선에서 저가 입찰을 시도함. NSSS형 베이스에는 미국이 유리하고 프랑스가 불리하지만, 원자로 베이스에서는 프랑스가 유리하다는 것에 한국도 동의할 것임.

한국은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8월까지 입찰을 연장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실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을 기다리면서 미국 측과 다수의 협상을 진행 중임. 특히 농축연료 공급 확장을 원하는 한국은 미국 측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자 하며, 좀 더 정치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협박에 당당히 맞서고 싶어 함. 한국이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미국업체를 낙찰하면 한미 양국 산업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대신, 유럽 경쟁업체들의 수주는 더욱 힘들어지며 결국엔 미국이 한국 원전건설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하지만 한국 내 원전사업 다변화에 찬성하는 경향도 있는데, 특정 국가 중심의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싶어 함. 프랑스는 유일하게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임.

프랑스는 프라마톰社의 원자로 건설 입찰 제안을 일련의 유관 업체 간의 사전 협의나 서신을 통해 보충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코제마社가 농축우라늄 원료공급을 보장하고, 소피넬社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한전에 제공하고, 프랑스 원자력청과 프라마톰社는 연료 공급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프랑스 건설업체들은 원자로 건설 분야의 기술이전 및 협력을 맡는 식으로 원전 건설 사업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겠다고 제안함. 한불 양국의 산업 및 원자력 조직 간 점점 광범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게 되면 프랑스가 원전 7호기와 8호기 건설 수주에 성공할지도 모름. 프랑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란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마저도 놓친다면 프랑스는 더 이상 한국의 원전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고 향후 수주 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임.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7호기와 8호기 건설 수주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프랑스는 반드시 후속 사업인 9호기와 10호기 건설사로 선정 받아야 함. 7호기와 8호기에 실패하더라도 프랑스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 측의 설득에 넘어가게 되면 자칫 새로운 경쟁에 휘말려서 결국엔 설상가상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음.

4.74. Note. Corée: Affaires nucléaires (한국의 원자력 사업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790606
페이지: 152~153

원자력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경제 성장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1974년 원자력을 선택하여 지금부터 2000년까지 40여 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함. 한국은 향후 몇 년 후에는 원전 기술 수출국 입장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고객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국이 원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사용할 위험에 대해서도 늘 주목해야 함.

원자력 분야의 한불 협력: 1972년 시작된 한불 협력은 한국이 프랑스의 핵 재처리시설 구매를 파기하게 되면서 좌초됨. 한국이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염려한 미국 측 압력이 주된 원인이었고, 잘 생각해 보면 프랑스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남은 비용은 대전 소재 원자력연구소 건설을 위해 생고뱅社에 위탁한 연구 계약 집행에 사용되었고, 1978년 말 이후 프랑스 핵연료 제조회사인 세르카社가 핵연료 시범 공장을 건설함.

한국 내 원전 판매 현황: 미국이 이미 경수로 원자로 4기를 제작했고, 캐나다는 CANDU 타입의 중수로 원자로

1기를 건설했지만, 아직 프랑스는 한국시장에 입성하지 못함. 1978년 프라마톰社가 원전 2기 입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社에 밀려 탈락됨. 7호기와 8호기 원전에 대해 신규 입찰이 나와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 프라마톰社는 웨스팅하우스社 및 서독 KWU社와 경쟁 중임. 1978년 말에는 이미 업체가 선정됐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러 업체 간 경쟁을 비교적 즐기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음.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이유로 난처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원전 9호기와 10호기에 관련 신규 입찰을 붙여 경쟁 후보들끼리 시장을 나눠 갖는 형세가 펼쳐질 수 있음. 미국은 6월 말 방한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원을 받게 될 테니 프랑스도 프라마톰社를 지원 사격해야 할 것임. 바르(Barre) 총리도 이미 한국 국무총리에게 1978년 1월 31일, 1979년 3월 9일 두 차례 서신을 보)낸 사실을 상기하면 됨.

4.75. Centrales nucléaires –Copie de la lettre adressée la 25 avril par le Premier Ministre coréen, M.CHOI Kyu Hah, à M.Raymond BARRE, en réponse à la lettre de ce dernier datée du 9 mars (document remis par l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원전 건설 관련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에게서 받은 3월 9일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최규하 총리가 4월 25일 보낸 서신 사본)

생산일자: 19790504
페이지: 154~156

1) 우편 명세서(154쪽): 용도, 우편물 내용, 수신, 날짜 기재

정보 제공 용도. 이 서신의 원본은 파리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프랑스 총리에게 이미 전달됨.

2) 최규하 총리의 영문 서신 사본(155–156쪽)

미셸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을 통해 1979년 3월 9일 자 프랑스 총리의 서신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함. 자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최근 한불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굳건해져서 기쁘다고 전함.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밝힘. 프랑스 업체의 원전 수주 심사 결과를 묻는 총리에게 아직 기술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곧 업체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프랑스 역시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함. 마지막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많아지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한불 양국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함.

4.76.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Entretien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장관비서실을 위한 노트.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와의 회담)

생산일자: 19790404
페이지: 157~159

1) 프랑스 외무장관 방한 시점과 박동진 외무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기 논의

주유엔대사로 부임하게 된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이임 인사를 드리면서 박동진 한국 외무장관이 보낸 프랑스 외무장관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프랑스 외무장관은 방한을 계획하고 있지만 원전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함. 한국 측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6월 말이나 7월까지 원전 수주 업체 발표를 미뤄둔 것 같으며, 이는 프랑스에 유리할 수 있음. 프랑스는 박동진 외무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원칙상 동의하지만, 방문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2) 한불 무역 관련 개선 사항 논의

프랑스 외무장관은 1978년 한불 무역 상황이 건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함. 한국은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고객이자 3번째로 큰 협력 국가인데, 프랑스의 수출량은 전체 한국 수입량의 2%에 불과하고, 한국의 수출량은 프랑스 수입의 0.26%에 불과함. 양국 간 전방위적인 협업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 원전 외에도 프랑스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관심이 있음을 전달함.

3) 남북한 대화 재개 가능성 논의

서울에서 열린 유럽 주재 대사들의 강연회에 참석한 윤 대사에게 남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질문함. 최근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여전히 멀어진 상태임. 남한은 늘 남북한 협력위원회가 재개되어 남북 간 대화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데 반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를 포함, 북한의 모든 정치단체,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확대하고 싶다는 핑계를 댄다는 점에서 두 체제의 차이를 지적함.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남북한 양국의 문제는 일단 두 체제가 자체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두 체제가 위험한 긴장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4.77. Vente de centrales à la Corée. Passage à Séoul de M.Pecqueur, Administrateur général du CEA – Compte-rendu de mission en date du 20 mars (copie) (대한민국 원전 판매 관련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1979년 3월 20일 업무 출장 보고서)

생산일자: 19790320
페이지: 160~163

1) 우편물 명세서(160쪽): 내용, 용도, 날짜 기재

2) 출장 보고서(161-163쪽): 도쿄 체류 중 서울에 가서 바르(Barre) 프랑스 국무총리의 초대장을 한국 국무총리에게 전달했고, 한국의 부총리, 과학기술처 장관, 동력자원부 차관 등을 만남. 도쿄에서도 정부 요인을 만났는데, 한국과 일본에서의 모든 만남은 대부분 주한 프랑스대사를 배석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함. 원전 7, 8호기 배정과 9, 10호기 건설사 선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질 것 같은데 최종발표일은 미정이며, 명확한 설명 없이 몇 주 미뤄질 예정임. 웨스팅하우스社와 프라마톰社 외에 독일 업체까지 가세하여 수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함. 미국의 압력이 거세긴 하지만, 한미 양국 간 협

정은 5,000MW만 예상했는데, 7호기와 8호기만 해도 5,150MW급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 건설 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핵확산금지조약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패는 2가지임. 즉, 한불 원전 사업이 유사하니 대규모 기술 및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과 프랑스가 우라늄 농축 연료주기 전체에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서 한국 측이 농축 연료 작업에 참여 가능한 점을 부각하는 것임. 당연히 핵 재처리와 고속중성자 증식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함. 프랑스의 원전 수주 확률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정치적으로 프랑스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음. 이미 한국 과기처 장관과 국무총리는 프랑스 편이라고 보이지만, 핵원료 공급의 안전 문제에 민감한 동력자원부 장관이 관건임.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 같고, 최종 발표는 아무리 늦어도 6월이나 그 이전이 될 것 같음.

4.78.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생산일자: 19790309
페이지: 164~165

1976년 8월 바르 프랑스 총리 방한과 1977년 최규하 국무총리 방불 때 나눈 회담에서 좋은 기억이 있음을 언급하며, 미쉘 페쿼르(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도쿄방문 기회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2월 11일에 보낸 서신에 답신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힘. 한불 양국의 경제적 우의 관계를 치하하며 특히 한불 양국만이 전력생산 목적의 핵 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킴. 한국의 핵시설 관련 대규모 입찰에 프랑스가 선정되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관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확신함. 원자력 분야의 한불 협력이 자연스럽게 가동되고, 양국의 정부 기관 및 유관 연구소 간의 원자력 관련 협력 교류가 심화 발전될 거라고 봄.

4.79.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323
페이지: 166~168

조만간 임지를 옮기는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회담을 나누면서 그가 서울 체류 중에 접한 원전 관련 정보를 물었는데 업체 결정이 1~2주 미뤄졌으나 나쁜 징후는 아니라고 함. 최근 뭔가 새로운 요소가 개입된 것 같으며,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접견해서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의 차기 방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말이 있음. 미국대사관 참사관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의 방한은 이미 결정되었으나 날짜는 미정이라고 함. 한국 측은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미국 측의 압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할 것임.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전임 미국대사의 말인데, 미국 측에 원전 사업 계획 총액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더니 "비용 문제가 본질이 아니며 한국인들 스스로가 상당수의 원전을 건설했다"라고 함. 따라서 현시점에서 프랑스도 자국 업체 지지를 강화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방한과 같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지 윤석헌 주프랑스 한국대사에게 문의했더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함. 한

국 정부는 주한 프랑스대사와 프랑스 정부가 원전 입찰 건에 신중하게 행동해 줘서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다고 함. 많은 한국 관계자들이 프랑스 측의 원전 수주를 낙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전 수주 가능 여부를 떠나 한국 측의 방한 초대장을 전달하러 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방문하는 윤석헌 대사는 정말로 프랑스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했음을 주지해야 함.

4.80. Centrales nucléaires. visite de M. Michel Pecqueur. (원전 관련 미쉘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방한)

생산일자: 19790319
페이지: 169~170

미쉘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은 한국에 머물면서 최규하 국무총리와 회담했고, 이때 프랑스 총리의 서신을 전달함. 그 외에도 한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및 과학기술처 장관 접견을 통해 프랑스가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한국이 얻게 될 이득 및 향후 상호협력 가능성의 증대를 강조함.
최규하 국무총리는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에게 아직 원전 7호기와 9호기 건설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함. 9호기와 10호기 관련해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만, 새로 입찰을 붙이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함.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과 회동한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지 않고 있음.

4.81.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314
페이지: 171~171

토요일 17시 10분 미쉘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과 함께 한국 국무총리 접견 예정. 페퀘르 청장에게는 주한 프랑스대사가 직접 도쿄로 연락하겠음.

4.82.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관련 레이몽 바르 (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의 서신)

생산일자: 19790312
페이지: 172~174

1) 전보(172쪽):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1979년 3월 9일 자 서신(관리번호 No.47493)의 복사본으로, 원본은 미쉘 페퀘르(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 편에 전달했음.
2)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173–174쪽)

1976년 8월 바르 프랑스 총리의 방한과 1977년 최규하 총리의 방불 때 나눈 회담들에서 좋은 기억이 있음을 언급하며, 미쉘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도쿄방문 기회에 최규하 총리가 1979년 2월 11일에 보낸 서신에 답신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힘. 한불 양국의 경제적 우의 관계를 치하하며 특히 한불 양국만이 전력 생산 목적의 핵 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킴. 한국의 핵시설 관련 대규모 입찰에 프랑스가 선정되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관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확신함. 원자력 분야의 한불 협력이 자연스럽게 가동되고, 양국의 정부 기관 및 유관 연구소 간의 원자력 관련 협력 교류가 심화 발전될 거라고 봄.

4.83.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312
페이지: 175~175

미쉘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한국 국무총리 접견은 16일 금요일 오전으로 정해짐. 국무총리실 협력자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 접견 때 원전 입찰 관련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데, 비용 문제가 관건일 수 있음. 페퀘르 프랑스 원자력청장과 프라마톰社에 연락 요망.

4.84.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Vente de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원자력 문제 기반 한국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판매)

생산일자: 19790312
페이지: 176~176

미쉘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에게 주한 프랑스대사관 발송 전보 No. 154 내용 전달 요망.

4.85. Origine: Questions atomiques Objet: Commandes de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문제 기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지시)

생산일자: 19790307
페이지: 177~177

미쉘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이 일본 출장 중에 서울 방문 예정. 3월 16일 목요일 서울 도착, 한국 국무총리 접견을 희망하고, 레이몽 바르(Barre) 프랑스 총리의 서신 전달 예정. 한국 국무총리 접견을 긴급 요청해 주길 바람.

4.86.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생산일자: 19790309
페이지: 178~179

4.78 건과 동일 내용임.

4.87.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생산일자: 19790307
페이지: 180~181

1976년 8월 바르(Barre) 프랑스 총리의 방한과 1977년 최규하 국무총리의 방불 때 나눈 회담들에서 좋은 기억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쉘 페퀘르(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도쿄방문 기회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2월 11일에 보낸 서신에 답신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힘. 한불 양국의 경제적 우의 관계를 치하하며 특히 한불 양국만이 전력 생산 목적의 핵 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킴. 한국의 핵시설 관련 대규모 입찰에 프랑스가 선정되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관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확신함. 원자력 분야의 한불 협력이 자연스럽게 가동되고, 양국의 정부 기관 및 유관 연구소 간의 원자력 관련 협력 교류가 심화 발전될 거라고 봄.

4.88 및 4.89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생산일자: 19790307
페이지: 182~186

4.78 건과 동일 내용으로 초안으로 보임.

4.90. Note à l'attention de M. LOUET (필립 루에 프랑스 외무부 원자력과 부팀장에게 보내는 노트)

생산일자: 19790307
페이지: 187~187

프랑스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미쉘 페퀘르(Michel 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이 일본 출장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무총리에게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국무총리의 서신을 전달할 예정임. 해당 서신에는 한불 양국의 원자력 산업과 관계 기관의 협력 가능성이 언급됨. 오늘 저녁 18시 이전까지 이견이 없다면, 3월 18일 페퀘르 청장 출국 전 해당 서신에 프랑스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을 예정임.

4.91.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 전달

생산일자: 19790307
페이지: 188~189

미쉘 페퀘르(Pecqueur) 프랑스 원자력청장의 서울 방문 기회를 빌려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었음을 알림. 한불 양국만이 전력 생산 목적의 핵 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불 양국 간 원자력 분야의 기존 협력이 향후 강화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의 전문기관 간에 최근 이루어진 대화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확인했다고 함. 프랑스는 7호기와 8호기(경우에 따라서 9호기와 10호기)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프랑스 업체에 유리한 결정이 취해지면 바로 양국의 유관 조직 간 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에 대해 지지를 호소함. 앞으로도 최대한 한불 양국이 상호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함.

4.92. Entretien du Ministre avec l'ambassadeur de Corée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프랑스 외무장관의 회담)

생산일자: 19790220
페이지: 190~191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2월 19일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만나 한불 양국의 관계를 설명함. 최근 몇 년간 양국의 관계 발전을 치하하면서 한국이 프라마톰社를 원전 건설사로 선정하게 되면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함.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 사업 관련 프랑스의 입장을 주프랑스 한국대사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했음을 밝힘.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 업체가 선정되면 연말쯤 직접 한국 방문 의사를 전달하면서, 계약체결 후에 방문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단순 외유로 그치게 된다고 함.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원전 사업이 양국 간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정하나 결정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조건, 특히 비용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프라마톰社가 제안한 금액은 미국업체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발을 들여놓는 만큼 비용조정을 해 보라고 제안함.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임기 초반부터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방한을 원했던 만큼 장관의 방한 계획을 듣고 매우 기쁘다고 함. 방한 시에 박 대통령께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한국대사에게, 장관은 양국 관계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바로 답변이 힘든 사안이니 대통령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함.

4.93. Centrales nucléair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215
페이지: 192~193

1) 문서 전달 양식(192쪽):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이 프라마톰社가 생산한 문서를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에

게 정보 용도로 전달(1979년 2월 22일)

2) 보고서: 원전 7호기와 8호기 업체가 이달 말 전에 결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측이 수용 가능한 최저비용으로 낮춰서 입찰가를 최종 제안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음. 하지만 미국 측이 우리보다 약간 더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음. 미국이 이번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 원전 6기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유럽업체가 새로운 입찰에 수주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됨. 9호기와 10호기에 대해 한국이 곧 입찰을 낸다고 들었는데, 한국이 7호기와 8호기를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되었다고 해도, 다른 부지에 세워지는 9호기와 10호기 공사를 프랑스에 맡긴다면 한불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여전히 가능할 것임.

4.94. Note. Vente de centrales à la Corée (한국에 대한 원전 판매 관련 노트)

생산일자: 19790214
페이지: 194~194

프라마톰社는 주프랑스 한국대사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종 저가 입찰가를 제안했고, 2번째도 실패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입찰을 접겠다고 알림. 다만 한국이 최종 원전 4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프랑스가 2기를 맡는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음.

4.95. Entretien avec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한 자료 준비)

생산일자: 19790214
페이지: 195~212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아프리카 및 중동 근무 고위급 인사들의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파리에 오는 박동진 장관은 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1) 한국의 상황

(1)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반도 문제

가. 1976년 8월 유엔군 2명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에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여러 차례 침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계속 유지됨.

나.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2가지 상호모순된 결의안 즉, 미군 주둔을 국가 안보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유일한 한반도 긴장 완화 수단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남측의 주장과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 철수, 워싱턴과의 평화조약 체결 등을 촉구하는 북한의 주장이 동시에 채택되었는데, 이후 한반도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음.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판문점 사태에 대한 비동맹국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감안하여 안건 요청을 포기함.

다. 1977년에도 북한은 남북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소집하는 전국 회의 개최를 제안했는데, 남한 정

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현재의 긴장 상태를 종식하려는 것으로 보였고, 재차 기각됨.

라. 1978년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 동시 UN 가입도 북한의 반대로 기각됨.

마.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결정은 일정 부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가 싶더니, 미군 부대 이전 분담금 지불 문제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 보완책으로 미 공군 유지 및 강화, 한국군 전력 강화 지원, 1954년 상호방위조약 발효, 유엔사령부 해체 불가 입장으로 인해 북한이 태도를 바꿨고, 워싱턴과 한반도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고 했으나 남한 배석 없는 논의는 미국이 반대함.

바.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프랑스는 1975년 남한 입장에 찬성표를 던졌고,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한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유엔사령부 해체에 반대하지 않음.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각자 자기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남북한 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간의 대화 재개 및 직접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길 바람.

(2) 한국 정부는 카터(Carter) 행정부의 주한미군 점진적인 철수 단행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함.

(3) 판문점 사태에 이어 김일성의 사과, 유엔총회를 겨냥한 극단적인 행동에 이어 갑작스러운 토론 포기 결정은 북한 내부 체제의 동요를 시사함. 극심한 재정 궁핍 상태 외에도 김일성 권력 세습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권력투쟁을 강화하는 상황임.

2) 한불 양국 관계

(1) 정치

프랑스 장관 방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차에 1976년 레이몽 바르(Raymond Barre) 당시 프랑스 대외무역부 장관의 방한에 대해 한국은 상당히 만족했는데, 이후 한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측의 후속 방한은 없었음. 몇몇 프랑스 인사들의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대내외 사정으로 취소됨. 반면 한국 정부 인사들(ex.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 박동진 외무부 장관, 최규하 국무총리)의 방불이 이어짐.

(2) 경제

최근 한불 경제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한국은 아시아에서 3번째, 전 세계에서는 13번째 교역국이 됨. 하지만 프랑스의 對한 무역은 적자 상태임. 그 원인으로는 한국의 수출량 증가, 에어버스 구매 계약 종료 이후 후속 대형 사업 수주 중단이나 실패(ex.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번번이 미국업체를 선택하는 한국 정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은 고리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프랑스에 맡기려 하며, 특히 프랑스의 원전 기술이나 건설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주목함.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한국의 원전건설에 프랑스가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특혜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전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프랑스 정부는 차기 원전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야 함. 가령 프라마톰社는 한전이 원전 입찰에 적용한 가격 비교 분석을 숙지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주한 프랑스대사는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통해 한전 측이 프라마톰社에 가격 책정에 필요한 요소를 전달해 주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니, 이번 회담에 장관이 프라마톰社와 한전 간 관계 개선에 관심을 표하는 것이 좋을 듯함. 양국 간에 이전에 구상

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양국 간 향후 무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양국 정부 당국이 서둘러 민간기업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 리스트 검토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양국 간 교류 외에도 제3국에서의 협력은 새로운 형태의 한불 경제 관계를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이 중동시장에 진출해서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외국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시설이나 장비 제공 분야에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불 합자를 통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봄. 이미 테탕제(Taittinger) 장관과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1977년 당시 대외무역장관이었던 레이몽 바르(Barre) 장관과 장예준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니 다시 의제에 올려 한국 측과 공조할 필요가 있음.

(3) 베트남에 억류 중인 한국 교민 문제는 첨부 자료 참고.

3) 시사적인 문제

현재 한국 외무부 장관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1) 프랑스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관련하여,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며, (2) 최근 중동의 변화 국면이나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할 것이며, (3)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놓고 남북한이 경쟁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샤바섬(Shaba) 침공 당시 자이레 정부에 긴급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프랑스의 평가 및 대응 조치에 대해 궁금해할 것임.

4) 북한과의 관계

1968년 북한의 민간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고, 1976년에는 통상대표부로 격상되었으나 정식 외교 업무는 진행되지 않음. 38선 주변의 남북 대결 상황이나 불안정한 북한 내부 상황, 프랑스를 상대로 평양의 채무 변제 중단 문제를 들어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사가 없음을 개진함.

첨부 부록 1: 박동진 외무부 장관 주요 이력

첨부 부록 2: 레이몽 바르 프랑스 총리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서신과 최규하 국무총리의 답신

(1) 바르 프랑스 총리: 원전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특별한 관심을 호소함.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접촉을 위해 양국 모두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외에도 신속한 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프랑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 30개 원전 운영 및 연료 제공 주기의 전 분야의 서비스 제공 가능 등 프랑스 업체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한편, 원전건설 비용을 위해 상당 규모의 담보 혜택을 제시하는 등 프랑스 정부도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2) 최규하 총리의 답변: 1978년 1월 31일 서신에서 프랑스 측의 원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준 데 감사를 표하며, 유관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함. 한불 양국 간 상호협력 증진 및 돈독한 우의를 다지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 요청함.

첨부 부록 3: 1978년 1월 20일 프랑스 외무부 장관과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의 회담록 발췌 자료

– 황화(Huang Hua)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남북한은 외세의 개입 없이 협상해야 함. 미국은 현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쏟음으로써 남북협

상에 장애물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함. 남북한 간에 대립 상황이 발생하면 귀책 사유는 남한에 있음.

– 루이 드 기랭고(Louis de Guiringaud) 프랑스 외무부 장관: 카터 미국 대통령이 향후 4~5년 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점을 상기시킴.

– 황화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 일부 긍정은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계속 남한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

– 루이 드 기랭고 프랑스 외무부 장관: 남북의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당장 실현 안 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을 하게 할 것을 제안함.

– 황화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 상황은 다름. 남북한을 UN에 함께 가입하게 하면 분단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중국은 반대 의사를 표함.

4.96. Note. Conférence de Séoul –compte rendu (서울에서 열린 원전 관련 컨퍼런스 회담록 보고서)

생산일자: 19790201
페이지: 213~219

컨퍼런스의 주요 3가지 의제

1) 개발도상국 대상 원자력 수출 차별 정책

미 행정부 산하의 군비통제 및 군축국(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소속 찰스 N. 반 도렌 (Charles N . Van Doren)과 캐나다원자력연구소(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소속 캠벨(Campbell)은 공통적으로 개도국들 대상으로 우선 원자력 수출 관련 차별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함. 반 도렌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의 자유로운 핵무기 보유를 제한시킨 것이라고 함. 캠벨은 IAEA의 전면적인 안전조치(full–scope safeguards)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핵공급국 모임인 '런던클럽'이 당사국의 핵확산금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활동에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이 조약을 한국처럼 안보위협을 내세워 특혜를 적용받게 되면 핵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함. 에르빈 헥켈(Erwin Häckel)은 서독을 변호하여 5개국만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면서 '핵무장 능력(capacité nucléaire militare)'과 '핵무기 보유(acquisition d'armes nucléaire)'를 구분함. 일본의 류기치 이마이(Ryukichi Imai)는 어느 나라도 핵무기 관련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핵확산 문제는 정치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봄.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줄이는 수직적 확산금지에 비해 비핵보유국들의 보유를 통제하는 수평적 확산금지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단순 논리를 비판함.

2) 인도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이는 핵확산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접근의 장단점

인도 대표로 나선 마리와발라(P. Mariawalla)는 평화적인 이유에서 인도는 핵실험을 했지만, 오히려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재추진하게 하는 결과가 생겼고, 중국을 상대하려면 인도가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차별적인 속성을 비판함. 또한, '이중잣대'의 이유를 들어 중국에 원전을 판매한 프랑스의 편을 들어준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함.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정부에게 '은밀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함. 이스라엘의 원자력 관련 애매모호한 조치들은 한국 입장에서 시선을 끄는 측면이 있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여 재생이 어려운 조건에서 핵시설과 물질을 사용하도록 했고, 핵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 1957년에는 국제적으로 무관심해서 특혜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핵확산을 막는 분위기에서 비밀사업을 단행했다간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고, 이스라엘은 중동과 같이 불안정한 나라들에서는 핵무기가 국가 안보를 보장해 주니 프랑스나 소련과 같은 외세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비슷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주목함.

3) 극동아시아의 핵무기 개발

한국의 경우 핵확산 금지와 안보 보장이 연계되어 작동함. 대부분의 한국 발표자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지도층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함.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핵확산 금지를 언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했지만, 미국이 안전보장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당히 많다고 함. 즉,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민감한 시설 혹은 통제받지 않은 시설이 없어서 모든 비밀 구매 행위는 쉽게 드러나므로 국내에서 핵실험이 불가능하고, 군사행동으로 이행하면 미국과 동맹에 타격을 받게 되며, 서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방어 차원의 선제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북한에 핵무기를 한 방만 발사해도 소련은 핵무기든 아니든 한국이 대적 불가능한 수단으로 맞대응하게 됨. 게다가 같은 한국인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주변국이 덩달아 핵 보유를 주장하게 되어 지역 정세에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이유가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통제받지 않은 비밀장소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은 최소 핵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 수는 있음. 대만의 용웨이(Yung Wei)는 중국이 선제타격을 하기만 해도 대만은 끝이라고 하면서 핵무장에 대해 반대함.

결론

강연회를 통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로 은밀하게 혹은 위장 상태로 핵확산 노선에 가담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핵확산 금지와 공개적인 확산 사이의 중간 지대를 택하게 되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만 이러한 결론은 특정 몇몇 나라에 적용된 것이므로 자칫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음.

4.97. Fche: 'Perspectives de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Séoul 22–24 Janvier 1979. Organisation–Composition–Ordre du jour de la Conférence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을 주제로 1979년 1월 22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조직 및 강연자, 일정에 대한 설명 자료)

생산일자: 19790131
페이지: 220~225

1) 조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했고, 한국 측에서 초대받은 15명의 외국인 연사는 체류비와 항공료 전액을 제공받음. 숙소와 강연 장소는 모두 전통적으로 귀빈을 모시는 조선호텔에서 진행되었고 강연회 관련 대대적 홍보를 함.

2) 강연자

- 미국 측 발표자 3인: 반도렌(Van Doren) 미 군비통제 및 군축국(ACDA), 야거(Yager)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장, 오버홀트(Overholt)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 그 외 국가: 주로 교수, 연구원,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됨.
- 호주: 데스몬드 벨(Desmond Ball) 호주대학(Université d'Australie)
- 캐나다: 로스 캠벨(Ross Campbell)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td)
- 이스라엘: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 텔아비브 대학(Université de Tel Aviv)
- 서독: 어윈 해켈(Erwin Häckel) 독일외교정책연구소(Forschungsinstitut fur Auswartige Politik)
- 프랑스: 프랑수아 헤이스버그(François Heisbourg), 프랑스 외무부 분석예측전망센터(CAPS, Centre d'analyse, de prévision et de stratégie)
- 영국: 케네스 헌트(Kenneth Hunt) 장군, 컨퍼런스 총괄업무 수행
- 일본: 류기치 이마이(Ryukichi Imai), 일본원자력발전(Japan Atomic Power Company)
- 인도: 마리아 라(B. K. Mariavwala) 국방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 대만: 용웨이(Yung Wei) 총통실 직속 연구개발 고문관(Conseiller de la Présidence pour la recherche!Développement)
- 인도네시아: 하디 수에사스트로(Hadi Soesastro)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국에서는 민간 혹은 핵무장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강연에 참석함. 여러 대학 관계자 외에도 미국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한국전력주식회사(KECO), 한국 육군사관학교(Académie militaire), 미국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College), 국회(Assemblée Nationale), 한국 외교안보연구소(Institute of Foreign Affaires and National Security), 한국과학기술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통일교 재단(Secte 'Moon'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대표자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함.

3) 일정

3가지 주요 의제를 다룸.

- 핵 수출국들(ex.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의 정책
- 핵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ex. 인도, 이스라엘)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
-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 상황에서 감행하는 핵무기 개발(대만, 한국)

각국 대표자는 30분 발표에 이어 30분가량 토론을 진행함. 첨부된 노트자료는 일정별로 계속 바뀌는 3가지 의제의 주요 내용을 다룬 것임.

컨퍼런스 팸플릿 영문 자료

(1) 주최 기관, 주제, 일시, 장소 정보

(2) 컨퍼런스(학술대회)의 개최 취지 설명

이 학술대회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핵기술 확산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에 끼칠 영향력을 전망하는 데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원전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아시아 각 권역의 나라들에 설치될 원전 개수의 사례별 언급, 또한 각국이 제조할 수 있는 소형핵폭탄의 개수를 예측, 나열하면서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라고 알림. 김일성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적과 대치하는 상황인 데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사실까지 맞물려 한국의 위험부담이 고조되고 있고, 원자폭탄 제조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핵무기에 관심이 늘고 있음.

이번 컨퍼런스 주최 측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도 부정적인 입장도 아님을 밝힘. 다만 핵확산 주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많이 배우길 원함.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이란, 호주, 대만,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핵확산 전망과 한국의 핵확산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문가들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의를 다지고자 함.

4.98. Fiche. Le programme nucléaire sud–coréen (한국의 원전 건설 프로그램 자료)

생산일자: 19790130
페이지: 226~228

한국은 1975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반 기술 획득 시도에 실패한 후 야심 차게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 사업이 일단 종결되는 2000년에는 44개의 원전이 전체 보유 전력인 83GW의 60%에 해당하는 48.1GW급이 출력되고, 1985년에는 총 5개의 발전소가 가동되어 3.8GW급이 출력됨. (*표는 국내 발전소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원전 5기의 명칭과 제조유형, 상업운전연도 및 출력전기량을 적시하고 있음) 현재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와 가압중수로(HWR, Heavy–Water Reactor) 간 형식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가압중수로는 중단된 상태임.

한국은 연료 제조시설을 막 준공했는데, 5년 정도 후면 연간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할 예정임. 선행핵연료주기 관련하여 모두 캐나다산 천연우라늄과 미국의 농축우라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후행핵연료주기 관련하여 결국엔 핵 재처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봄. 실제 원전 44기가 설치되면 11,000톤의 핵폐기물이 쌓이게 됨. 원전 사업에 대해 한국의 야심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따른 전기 소비량을 예측하여 반영한 것임. 참고로, 한국은 1990년에 인구 약 4천만 명 기준 GNP가 약 1,000억 불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4.99. Fiche de présentation. Conférence sur les perspectives de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Séoul 22–24 Janvier) et entretiens à Tokyo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을 주제로 서울에서 1월 22일~24일 열린 컨퍼런스와 도쿄에서 있었던 회담 결과 소개 자료)

생산일자: 19790130
페이지: 229~230

경남대학교의 초대를 받아 프랑스 분석전망센터(Centre d'analyse et de prévision) 소속 1인이 '개발도상국 핵확산 전망' 컨퍼런스에 참석차 서울에 갔는데, 학술대회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나 인도, 대만 등 핵확산 관련 '회색 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언급되었음.
귀국길에 도쿄에 들러서 비핵국가들 가운데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일본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의 새로운 정치적 위상이 지역과 세계에 미칠 영향과 핵 관련 국제관계의 미래를 걱정하게 됨. 일본대사와 한국대사 간의 회담을 통해 지역 현안 이해에 필요한 평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대사관들의 공조에 감사함.
자료 내용:

1) 한국: 컨퍼런스 조직/구성/일정, 컨퍼런스 보고서, 핵 관련 한국의 야심, 회담 중 수집한 정보자료
2) 일본: 원자력 사업에 대한 가쓰라(KATSURA)및 오타(OTA)와의 비공식 회담.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윌킨슨(Wilkinson)과의 회담

4.100. Note pour la direction d'Asie. Appui à la vente de deux centrales nucléaires à la Corée du Sud (아시아국을 위한 노트, 한국에 대한 원전 수출 판매 지원 요청)

생산일자: 19790129
페이지: 231~235

1월 23일 자 주한 프랑스대사의 전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원전 2기 선정 협상이 최종 국면에 도달했다고 함. 미국업체들과 서독의 KWU社, 프랑스의 프라마톰社가 입찰 경쟁을 했는데 한국 측은 원전 주문의 희소성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각 업체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함. 현재 기술이나 단가 측면에서 웨스팅하우스社와 프라마톰社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국엔 정치적인 요소가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측은 계속 발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원전 2기를 더 건설하게 해서 최종 경쟁업체들 두 곳 모두에게 수주권을 나눠줄 것이라는 소문도 있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속내는 밝혀진 바 없지만 굳이 웨스팅하우스社를 떨어뜨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이 원전업체를 다변화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일 수도 있음. 아직 프랑스는 한국의 원전 시장에 입성하지 못했는 데 반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원전 여러 개를 시공했음. 에너지 부담을 낮추면서도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대규모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랑스 업체에게 있어서 한국의 원전 시장은 매우 전도유망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프랑스 외무부 정무국은 이번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해 전력 지원 체제를 가동함. 한국 원

전 건설 사업에 프랑스 업체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담은 서신을 바르(Barre) 프랑스 총리가 작성하여 한국의 국무총리에게 이미 전달했고(해당 서신 첨부), 주한 프랑스대사 역시 여러 차례 지원에 나섰고, 며칠 전에는 한국 외무부 장관을 접견한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국에 부서 간 업무 공조를 요청함.
– 1978년 1월 31일 자 프랑스 국무총리가 최규하 한국 총리에게 보내는 서신 첨부

4.101. Séjour en France du Président KAERI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프랑스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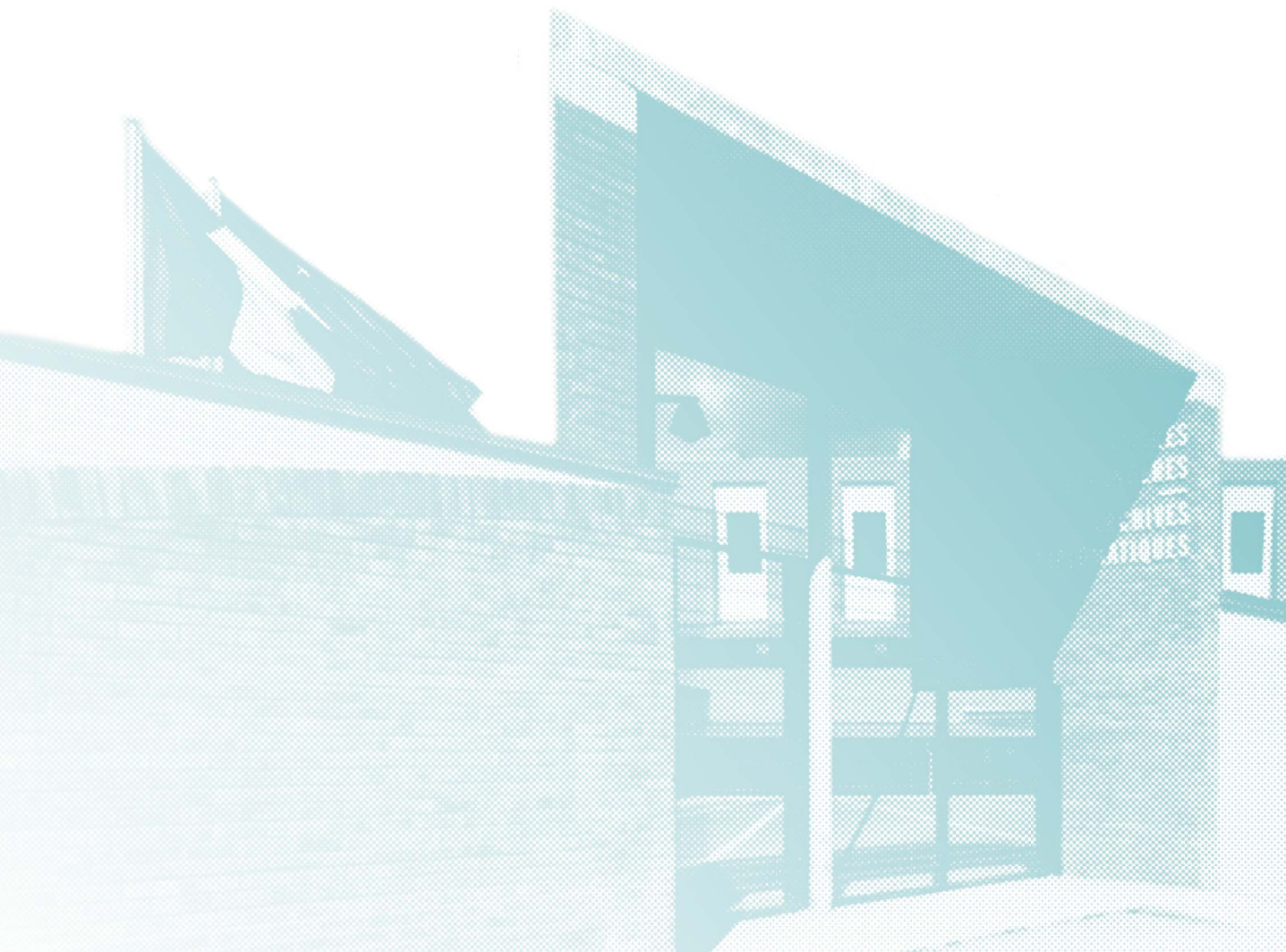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236~236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주요 관심사는 4가지임. 1) 카라멜 핵연료를 설명해 주는 핵물질 관리 연구용 원자로, 2) 증식로, 3) 연료농축 분야,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우라늄 농축공장 유로디프(Eurodif)社 방문예정, 4) 경수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실험 장치.
공장 방문은 테크니카톰(Technicatome)社에서 준비하겠지만, 코제마(COGEMA)社, 유로디프(Eurodif)社, 노바톰(Novatome)社, 프라마톰(Framatome)社 등의 유관 기업들 및 프랑스 정부 유관 부처의 공조를 요청함. 참고로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하는 현경호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매우 관계가 좋으며, 이번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 업체를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분임.

4.102. Centrales nucléaires (원자력 발전소)

생산일자: 19790123
페이지: 237~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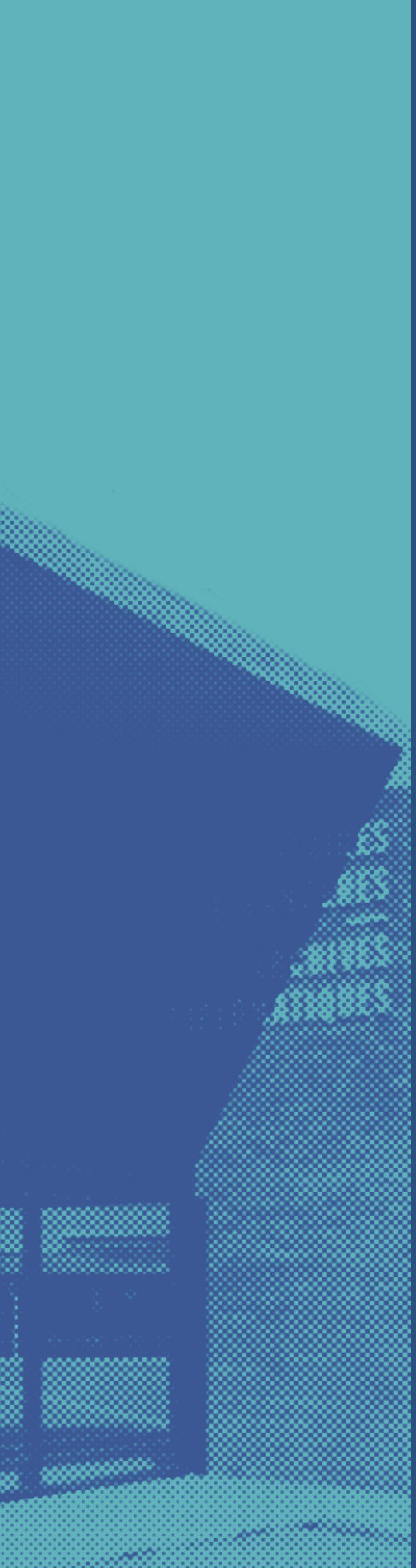
한국 정부는 원전 7호기와 8호기 관련 업체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벡텔社에 서울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여 업체 간 가격 비교 분석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엔 기술이나 비용보다는 정무적인 이유에 따라 한국 정부가 결정할 듯함. 예정된 발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급기야 한전 사장은 녹내장 때문에 지난주 입원을 하게 되어 3주간 업무에서 격리됨. 아마도 한국 정부는 시간을 벌면서 원전 7, 8호기와 원전 9, 10호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법도 마련하고, 덩샤오핑 중국 부주석과 카터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전날 굳이 미국 측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함. 프라마톰社와 알스톰社의 제안을 받아 프랑스 측 제안의 국제경쟁력을 설명하고 사업 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 외무부 장관 접견을 요청함. 1월 22일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만나 프랑스는 농축우라늄 원료 주입을 위한 독자모델의 원자로를 제작했음을 밝혔고, 연료 제작 및 수출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웨스팅하우스社와의 특허 계약은 곧 종료될 예정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힘. 한국 외무장관은 프랑스 업체를 지지하며 적정방식으로 공지해 줄 것이라고 함. 발표 일정 관련하여 한전 사장의 병가와 무관하게 연기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없었음. 다만 여전히 프랑스 쪽에 기회가 있다는 확답을 받음.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2





제 2 장

부록

1. 주요 수 · 발신자 약력 정보
2. 기관명 및 협약명 약어

부록 1. 주요 수·발신자 약력 정보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그자비에 뒤 코제 드 나젤 (Xavier du Cauzé de Nazelle)	주동독 프랑스대사(1981)	문화과학기술관계국 과학과장	미상
레미 테시에 뒤 크로 (Rémi 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1975–1980)	주한 프랑스대사	1975–1980
레이몽 바르 (Raymond Barre)	리옹 시장(1995–2001) 대외무역부장관(1976) 재정경제부장관(1976–1978) 총리(1976–1981)	프랑스 총리	1976–1981
로제 뒤제(Roger Duzer)	주라오스 프랑스대사(1976–1978) 주케냐 프랑스대사(1980–1984) 주파키스탄 프랑스대사(1984–1987) 주호주 프랑스대사(1988–1991)	미상	미상
미셸 조베르(Michel Jobert)	외무부장관(1973–1974) 대외무역부장관(1981–1983)	프랑스 외무부장관	1973–1974
베르나르 폴랭 (Bernard Follin)	주한 프랑스대사(1980–1982) 주호주 프랑스대사(1985–1988)	미상	미상
아상스(Assens)	미상	국방 총엔지니어, 군수고등연구센터 센터장	미상
앙리 프로망–뫼리스(Henri Froment–Meurice)	주서독 프랑스대사(1981–1983) 주소련 프랑스대사(1979–1981)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	미상
오귀스탱 조르당 (Augustin Jordan)	폴란드프랑스대사(1970–1973) 주오스트리아 프랑스대사(1973–1975)	주오스트리아 프랑스 대사	1973–1975
자크 델라루에 카롱 드 보마르셰 (Jacques Delarüe–Caron de Beaumarchais)	주영 프랑스대사(1972–1977)	주영 프랑스대사	1972–1977
자크 코시위스코–모리제 (Jacques Kosciusko–Morizet)	UN 프랑스대표(1970–1972) 주미 프랑스대사(1972–1977)	주미 프랑스대사	1972–1977
장 소바냐르그 (Jean Sauvagnargues)	주서독 프랑스대사(1970–1974) 주영 프랑스대사(1977–1981) 외무부장관(1974–1976)	외무부장관	1974–1976
장 프랑수아 누아빌 (Jean–François Noiville)	주폴란드 프랑스대사(1985–1986) 주오스트리아 프랑스대사(1988–1991)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	미상
장 피에르 카부아 (Jean–Pierre Cabouat)	주리비아 프랑스대사(1975–1979) 주캐나다 프랑스대사(1984–1987)	미상	미상
장–다비드 레비트 (Jean–David Levitte)	UN 프랑스대표(1999–2000 주미 프랑스대사(2002–2007)	미상	미상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장–마리 르 브르통 (Jean–Marie Le Breton)	주불가리아 프랑스대사 (1983–1986) 주루마니아 프랑스대사 (1987–1990) 주포르투갈 프랑스대사 (1990–1992)	주캐나다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1974–1978
크리스티앙 도말 (Christian D’ Aumale)	외무부 양자협정과 책임자 (1968–1978) 주OECD 프랑스대사(1978–1982)	전권공사 겸 외무부 양자협정과 책임자	1968–1978
클로드 마르탱(Claude Martin)	주중 프랑스대사(1990–1993) 주독일 프랑스대사(1999–2007)	외무부장관실 기술고문	미상
클로드 필롱(Claude Pilon)	미상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미상
페로(F. Perrot)	미상	프랑스 원자력청 국제관계과장	미상
프랑수아 르페브르 드 라불레 (François Lefebvre de Laboulaye)	주브라질 프랑스대사(1968–1972) 주일 프랑스대사(1972–1975) 주미 프랑스대사(1977–1981)	주일 프랑스대사	1972–1975
피에르 랑디(Pierre Landy)	주한 프랑스대사(1971–1975)	주한 프랑스대사	1971–1975
필립 루에(Philippe Louët)	주터키 프랑스대사(1985–1988)	프랑스 외무부 원자력과 부팀장	미상
필립 에스페르 (Philippe Esper)	프랑스 국방부 국제업무국 (Direction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부국장(1973–1975) 프랑스산업총국 (DirectionGéné raldel’ Industrie) 부국장(1976–1978)	프랑스 산업총국 부국장	1976–1978
필립 페리에 드 라 바티 (Philippe Perrier de La Bâthie)	주잠비아 프랑스대사(1995–1998) 주나미비아 프랑스대사(2002–2006)	주한 프랑스대리대사	미상

부록 2. 기관 및 협약명 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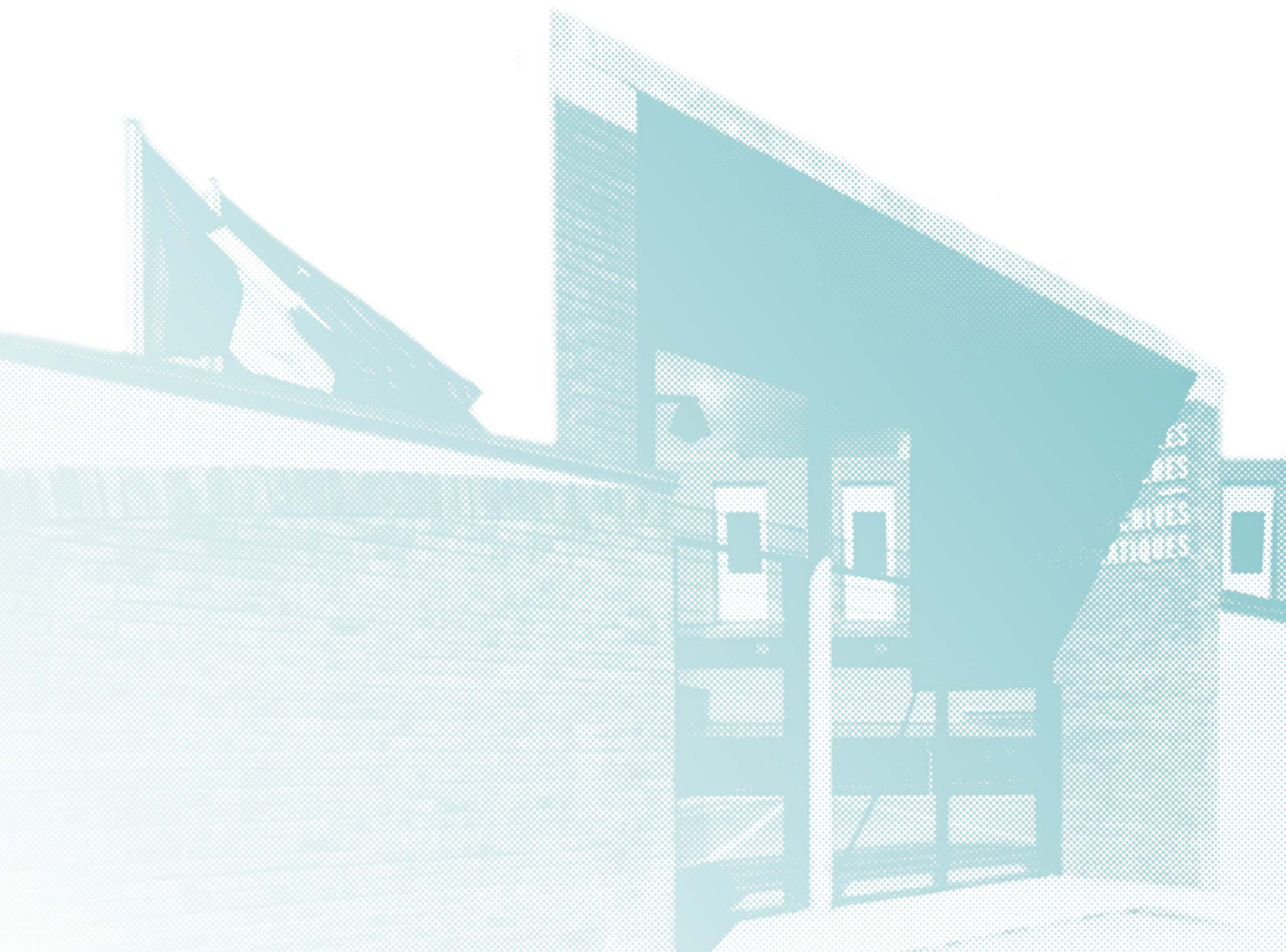
기관 및 협약명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미국 군비규제군축청	프랑스어: Agence pour la Contrôle des Armements et le Désarmement
ACTIM	Agence pour la Coopération Technique, Industrielle et Économique	기술산업경제협력기구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프랑스어 표기: Agence du Développement de Défense, Agence de Développement de la Défense, Agence coréenne pour le Développement del la Défense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td	캐나다원자력공사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BFCE	Banque Française du Commerce Extérieur	프랑스대외무역은행	
BNFL	British Nuclear Fuels Limited		영국기업(핵연료)
BRINCO	British Newfoundland Development Corporation	브리티시뉴펀들랜드개발회사	
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캐나다형원자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td.)
CAP	Centre d'analyse et de prévision	분석전망센터	현재 CAPS(Centre d'Analyse, de Prévision et de Stratégie)
CEA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프랑스 원자력청	
CECI	Centre Européen du Commerce Internaional	유럽국제무역센터	
CERCA	Compagnie pour l'Étude et la Réalisation de Combustibles Atomiques	세르카	프랑스기업(원자력)
CHEAr	Centre des Hautes Études de l'Armement	군사고등연구센터	
CIEEMG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Étude des Exportations de Matériels de Guerre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	원문의 CIEMG는 '전쟁물자수출연구를위한범부처위원회(CIEEMG)'의 오기임.

기관 및 협약명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CMN	Constructions Mécaniques de Normandie	노르망디조선소	프랑스기업(조선)
CNEXO	Centre National Pour l'Exploitation des Oceans	국립해양탐사센터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코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FACE	Compagnie Franç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프랑스대외무역보험사	프랑스기업(보험)
COGEMA	Compagnie Générale des Matières nucléaires	코제마	프랑스기업(원자력)
DAI	Direction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국제국	
DG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군수관련총대표단	1977년 군수관련장관급 대표단(DMA)을 대체함
DGEMP	Direction Générale de l'Énergie et des Matières Premières	프랑스 에너지원자재총국	
DGRCST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문화과학기술관계국	
DMA	Délégation Ministérielle à l'Armement	군수관련장관급대표단	
DREE	Direction des Relations Économiques Extérieures	대외경제관계국	
ECGD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영국수출신용보증기구	프랑스어: Service Britannique de Garantie des Crédits à l'Exportation
EDF	Électricité de France	프랑스전력공사	
EPB	Economic Planning Board	한국 경제기획원	
ERDA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연구개발청	
ESMN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Maritime	국립고등해양학교	
EURODIF	European Gaseous Diffusion Uranium Enrichment Consortium	유로디프	프랑스기업(에너지)

기관 및 협약명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EXIM–BANK	Export Import Bank	수출입은행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GEC	General Electric Company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영국기업(전기전자), 현재는 해체
HWR	Heavy–Water Reactor	가압수형중수로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프랑스어: AIEA, Agence Internationale de l'Énergie Atomique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프랑스어: BIRD, Banque Internationale pour la Reconstruction et le Développement
IISS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프랑스어: FMI(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INER	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	대만원자력연구소	프랑스어: Institut de Recherches Nucléaire Taïwanais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소	현 한국원자력연구원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KECO	Korea Electric Company	한국전력주식회사	현 한국전력공사(KEPCO)
KORALU		한국알루미늄	현 울산알루미늄
KOWAC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KRIS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선박해양플랜트연구	
KTMI	Korea–Tacoma Marine Industries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한국기업(조선업, 한미합작)
KWU	Kraftwerk Union	KWU	독일기업(원자력)
LMT	Lockheed Martin	록히드마틴	

기관 및 협약명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원조프로그램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과학기술처	
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프랑스어: TNP, Traité de Non–Prolifération Nucléaire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프랑스어: Comité américain de contrôle nucléaire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핵증기공급계통	
OFEMA	Office Français d'Exportation de Matériels Aéronautiques	오페마, 프랑스항공장비수출공사	본문의 AFEMA는 OFEMA의 오기임
OFMI	Oriental Fire and Marine Insurance	동양화재해상보험	한국기업, 현 메리츠화재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수형원자로	미국 Westinghouse 개발
RF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서독	
SAGEM	Société d' Applications Générales de l'Électricité et de la Mécanique	사젬	프랑스기업(통신, 전자) 원문의 SACEM은 SAGEM의 오기
SEP	Société Européenne de Propulsion		프랑스기업(군수)
SGN	Saint–Gonain–Techniques Nouvelles	생고뱅	프랑스기업(건축, 원자력) SociétéGénéralepourlestechniquesNouvelles (1977년이후)
SNCF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기업(철도회사)
SNIAS	Societe Nationale Industrielle Aérospatiale	아에로스파시알	프랑스기업(항공)
SNPE	Société Nationale des Poudres et Explosifs	프랑스 화약폭발물회사	프랑스기업(화학)
SOFINEL	Société Française d'Ingénierie Électronucléaire et d'Assistance à l'Exportation	소피넬	프랑스기업(원자력)
SOFMA	Société Française de Matériels d'Armement	소프마	프랑스기업(군수)

기관 및 협약 명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SOFREXAN	Société Française d'Exportation d'Armement Naval	소프렉산, 프랑스해군무기수출회사	
TRR	Taoyuan Research Reactor	타오위안 연구용 원자로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❷

발 행 인 조상민 /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

편 집 위 원 최상원 / 기록서비스과
박재완 / 기록서비스과
강희숙 / 기록서비스과
김선우 / 기록서비스과
안순경 / 기록서비스과

발 행 일 2025년 11월

발 행 처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30107) 세종특별시 다솜로 250
TEL 044-211-2265 / FAX 044-211-2279

홈 페 이 지 http://www.pa.go.kr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